서울역사
중점연구 18

일제강점기 상경자의 경성 체험과 생활 공간

서울역사편찬원

발간사

서울이라는 도시의 사회적·지역적 특성을 논할 때 거주 인구 즉, '사람이 많다'는 점은 빼놓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은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도시입니다. 이 가운데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내기'도 있지만, 학업이나 취업, 서울 유람을 위해 '상경上京'한 상경자들도 상당수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서울역사중점연구 제18권은《일제강점기 상경자의 경성 체험과 생활 공간》가 주제입니다. 1920~1930년대 서울로 올라온 지방 사람들의 상경 배경과 그들이 경험한 서울 생활을 다루었습니다. 6개의 연구 논문에서 상경한 고학생苦學生들의 생활, 무산계급의 교육기관이었던 대동학원과 대동상업학교, 이농離農한 도시 빈민들의 거주지였던 토막촌, 상경 학생들의 거주 방식인 하숙과 기숙사, 문학작품에 보이는 소년들의 학업 또는 생계형 상경, 일시적으로 서울에 상경한 사람들의 박람회와 공진회 관람이라는 주제를 주목하였습니다.

이 책에 수록한 6편의 연구 논문은 서울의 과거를 통해 현대 서울의 역사를 이해하는 시각을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신문, 통계자료, 문학작품에서 확인한 일제강점기 상경자의 다양한 삶과 그 단면은 현대 서울의 '상경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교육의 메카를 상징하는 '대치동'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을 의미하는 '인서울 대학교'는

현대판 교육 상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박람회나 공진회처럼 국가적 '선전'을 구경했던 시골 사람들의 상경처럼, 맛집과 쇼핑, 넘쳐나는 볼거리는 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을 자극하고, 사람들을 서울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상경자의 경성 체험은 광복 이후 서울의 도시적 특성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향후 이 부분은 주목할 연구 과제로 생각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집필자 선생님들과 서울역사편찬원 연구원들, 심사자와 토론자 등 여러분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서울역사중점연구를 지원하여 새로운 서울 역사 발굴에 공헌하는 서울역사편찬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연구자와 시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 4.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차 례

발간사 • 2
총 론 • 6
찾아보기 • 322

제1장 1920년대 고학생의 상경과 서울 생활 _ 김은영

1. 머리말 • 22
2. 고학생의 상경 배경과 실태 • 26
3. 상경 고학생의 삶과 지향 • 41
4. 맺음말 • 66

제2장 일제강점기 교육 상경의 민중성 _ 현명호

1. 머리말 • 72
2. 무산계급 학교의 형성: 대동학원의 성장과 쇠퇴 • 75
3. 개인에 집적된 교육 상경의 민중성: 고창한의 대동학원 재건 • 88
4. 무산계급 교육기관에서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대동상업학교 회고 • 101
5. 맺음말 • 113

제3장 1920~1930년대 상경 도시 빈민층과 창신동 토막촌 양상 _ 유슬기

1. 머리말 • 118
2. 구직 상경과 경성부 내외 토막민 증가 • 122
3. 창신동 토막촌과 토막민 • 137
4. 맺음말 • 155





제4장 상경 학생의 거처 _ 김광규

1. 머리말: 상경 학생을 어디서 먹이고 재울 것인가 • 162
2. 하숙 • 170
3. 기숙사 • 188
4. 맺음말 • 208

제5장 소년 상경의 문학적 재현 양상 _ 손동호

1. 머리말 • 212
2. 학업형 상경: 식민지 교육 제도 비판과 협력 및 연대의식 제안 • 217
3. 생계형 상경: 농촌 붕괴로 인한 도시 이주와 계급의식 각성 유도 • 241
4. 맺음말 • 268

제6장 시골 사람의 박람회 관람 _ 김태웅

1. 머리말 • 274
2. 조선총독부의 박람회 관람객 유치와 교통망·편의시설 정비 • 277
3. 시골 사람의 관람 상경과 경성 유람 • 290
4. 시골 사람의 착종된 경성 인식과 민족주의 계열 식자층의 안내 코스 • 297
5. 맺음말 • 319

총 론

일제하 상경자의 경성 체험과 생활 공간

김태웅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 근현대 시기에 도시화는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그것은 무엇보다 조선후기 이래 근현대에 걸쳐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은 여느 도시와 달리 근대개혁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국가 권력이 발원하는 정치의 중심지를 넘어서 경제, 사회, 문화의 거점으로 거듭 성장하였다. 중앙집권국가의 수도로서 서울에 권력이 집중되었을뿐더러 각종 조세와 물화가 집산하는 공간이라는 이점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1960년대 이래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서울은 재부의 집중도가 여타 도시를 압도하고 인구가 1,000만 명을 상회하는 거대 도시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서울의 이러한 과대 성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의 중심지라는 이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여기에는 이러한 이점들이 다수의 인구를 유입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뿐더러 역으로 다수의 지방 인구가 상경과 전입을 통해 서울의 시장 규모를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단순 재생산구조를 확대 재생산구조로 변환시킨 결과이다. 인구 이동의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근현대 시기에 급속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난 지방 주민의 상경·전입 현상에 대한 연구는 서울 주민의 역

사적 기원과 사회적 성격을 해명하는 작업인 동시에 새롭게 전개되는 일상생활의 역동적인 특성을 해명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지방 주민의 상경은 주지하다시피 조선후기 이래 여타 도시 이동보다 두드러졌다. 이들 상경자는 관직을 비롯한 각종 일자리를 구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1] 특히 교환경제의 발달, 대동법의 시행과 노동력의 상품화에 수반한 교통로의 발달에 따라 한양의 도성상업이 전국적인 시장권의 거점으로 확장·발전하면서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었다. 일자리가 증가하고 도성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상경 전입자가 증가하여 한양 인구가 15세기 전반 10만 명 수준에서 17세기 후반에는 20만 명 수준에 이르렀던 것이다.[2] 특히 상경자는 도성 초입에 주로 머물렀기 때문에, 급격한 도성 밖 인구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한편, 일시적 상경도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양반들의 과거 응시가 대표적인 예였다. 이들 응시자는 상경하여 과장科場에 들어가 시험을 치렀다가 귀향하였다.[3] 간혹 지방관리가 공무상 서울을 방문하기도 하였다.[4] 그 밖에 시골 빈민들이 재난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모면하기 위해 상경하여

1 최기숙, 〈도시, 욕망 환멸: 18·19세기 '서울'의 발견 -18·19세기 야담집 소재 '上京談'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3, 2003.

2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의 도시구조 변화와 도시문화〉, 《역사와 도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서울역사박물관, 《남대문시장: 모든 물건이 모이고 흩어지는 시장백화점》, 2013, 26쪽.

3 김혈조, 〈科場의 안과 밖 -18세기 한 지식인이 본 科場의 百態-〉, 《대동한문학》 38, 2013; 유영옥, 〈頤齋 黃胤錫의 科場 出入 풍경〉, 《역사와 경계》 97, 2015; 이현진, 〈조선시대 '上京'을 통해 본 수도 한양의 성격〉, 《서울학연구》 60, 2015.

4 권수용, 〈19세기 해남 鄕吏 鄭愚衡의 수신간찰 연구〉, 《고문서연구》 51, 2017; 김도형, 〈19세기 경향 간 채무 분쟁의 일면 -고창지역 債訟 관련 고문서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55, 2019.

구휼을 받거나 상품을 거래했고,[5] 여성들도 조상의 신원伸冤을 위해 상경하였다.[6] 또 어떤 시골 사람은 궁궐과 각종 이색적인 풍물을 구경하거나 탐방하기 위해 잠시 상경하기도 하였다. 서울은 새로운 세계를 겪어보고 싶은 이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고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상생활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갈망의 분출 장소였던 것이다. 제주도 상인 김만덕도 금강산 구경과 함께 서울 구경을 갈망했다.[7] 그러나 이러한 구경은 부유한 양반이나 부자들 같은 특정 계층에 한정된, 일반민에게는 실현할 수 없는 욕망이었다.[8] 교통시설이 매우 불편할뿐더러 상경에 따른 경비가 매우 비쌌기 때문이다.

지방 주민의 이러한 상경은 근대에 들어와 더욱 빈번해졌다. 그것은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등 철도망의 확장과 도로망의 확충, 근대시설물의 보급 등 온갖 인프라가 서울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산업 시설과 물류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기차를 비롯한 여러 교통수단이 서울 중심의 교통망을 통해 운행되었고 각종 물화가 이곳 서울에서 생산되어 전국으로 배분되었던 것이다. 이제 서울은 단지 정치와 소비의 도시를 넘어서서 경제와 생산·교역의 도시로 옮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수도로서의 서울이 일본제국의 일개 지방도시이자 경기도의 한 도시인 경성부京城府(이하 서울로 통일)로 전락하였던 일제강점기에도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인이 서울을 거점으로 식민권력을 집중시키

5 김덕진,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 푸른역사, 2008, 232~234쪽.

6 강수진, 〈20세기 초 여성 지식인의 시각으로 본 서울 공간과 그 의미 -최송설당의 《송설당집》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3, 2021.

7 김나영, 〈18·19세기 제주사회와 김만덕 생애 재고찰〉, 《역사민속학》 56, 2019.

8 이송순, 《한국철도, 추억과 희망의 레일로드》, 선인, 2016, 100~102쪽; 이상균, 《조선 선비들의 로망, 관동유람》, 세종출판사, 2023, 18~19쪽.

고 경제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이러한 변화 양상은 여타 도시의 발달 수준을 압도하였다. 그 결과 서울 외곽 주민들이 대거 서울 내부로 전입하였다. 1922년 현재 서울 전입인구가 4만 4,199명으로 추계되며 그 비율은 당시 서울 전체 인구의 23%에 달했다.[9] 여기에는 일본인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일본인의 전입으로 몰락하거나 밀려난 조선인 주민들이 서울 근교에 이주하였다.[10] 이들 조선인 주민은 여타 도시보다 일자리가 풍부한 서울을 활동 무대로 삼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가능한 한 서울 주변을 떠나지 않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은 권력이 집중되고 물화가 집산되는 만큼 교육·문화의 거점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그중 1920년대 경성제국대학을 비롯한 다수의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관공립 중등학교와 사립고등보통학교가 경성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 기회가 부의 집중에 못지 않게 여타 도시에 비해 월등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일부 지방주민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서울로 유학보내거나 학생 자신이 서울 소재 학교 진학을 결정하는 유인誘因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서울은 소비와 과시의 욕망이 분출하는 근대 문화의 거점이어서 옛 궁궐 관람을 비롯하여 벚꽃놀이, 각종 유흥시설 등 볼거리가 여느 도시에 비해 풍부했다. 특히 일제의 식민지 관광 홍보에 힘입어 서울은 예전에 비해 괄목상대할 만큼 관광과 유흥의 대표적인 장소로 다가왔다.[11]

9 선우전, 〈조선인 생활문제의 연구 其一〉, 《개벽》 21, 1922년 3월.

10 경성부, 《경성도시조사서》, 1928, 7~12쪽. 이와 관련하여 손정목, 〈일제강점초기(1911~20년)의 도시인구수 -상반된 두 개의 도시인구추세와 서울의 인구감소-〉, 《한국사연구》 49, 1985, 142~143쪽 참조.

11 김해경, 〈1930년대 지방 향촌 여성의 경성 유람을 통한 근대 경관 인식 -《경성노정기 인력거》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경관과 지리》 34-2, 2024.

심지어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이러한 문화적 요인에 매료되어 서울에 상경하였다. 특히 급속한 자본주의화가 인간의 욕망을 더욱 극대화시켜 기호嗜好에 따라 시공간과 타문화의 경계를 거침없이 무너뜨리고 넘나드는 형태의 관광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철도, 자동차 등 교통수단이 관광이라는 새로운 소비문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경성 관광에는 남녀 구분이 따로 없었다.[12] 전근대에도 서울은 동경의 도시였지만 이제는 여성도 근대적 교통수단 덕분에 관광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지방 주민의 상경과 전입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지방 주민이나 외국인이 서울로 이주하거나 체류하는 현상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이들 주민의 상경과 전입에 따른 새로운 일상생활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일상생활 세계는 생산이 일어나는 공간인 동시에 소비가 발생하는 공간이며 노동의 장소인 동시에 여가의 장소였다. 여기에 일제강점기라는 한국인이 종래에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간 변수와 자본주의 발달이라는 경제 변수가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일상생활 세계는 기존의 일상생활 세계와 판이하였다. 즉 이러한 생활세계는 이전과 달리 신분적인 차별과 굴레는 사라졌음에도 외세가 구축한 식민권력과 함께 끊임없이 자본축적을 추구하는 일본인 자본가와 조선인 자본가에 의해 끊임없이 조정되고 변형되었다. 식민지 지주제와 예속적인 자본주의의 기제로 인해 조선인 지방 주민은 농촌에서 계속 구축되고, 서울로 전입하여 도시 빈민층에 편입되었다. 조선인 학생은 근대 학력주의가 관철되는 가운데 일제의 민족차별에 따른

12 김경미, 〈20세기 초 강릉 김씨 부인의 여행기 〈경성유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5, 2017.

교육 수혜의 불균등과 학교 시설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상경하여 고학苦學하였다. 그런 가운데 조선인 사회주도층 일각에서는 조선인 학생들의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조선인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조선인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식민지의 열악한 일상생활세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로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이라는 거주 공간과 일제강점기라는 거시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근대 일상생활의 기원을 여는 지방 주민의 상경·전입 배경과 생활 방식의 특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서울이 교육의 거점 도시이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 도시라는 점 그리고 근대적 욕망이 스펙타클로 재현되는 장소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향학열에 따른 학생들의 상경 유학 생활, 이농자의 일자리 확보 노력과 도시 빈민 생활, 상경 소년들의 다양한 가출 배경과 경로, 시골 주민의 박람회 관광과 일제의 정치선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광복 후에도 이러한 일상생활을 통해 드러나는 식민지 근대성이 족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현재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입·상경 주민·학생·소년의 서울 생활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신문, 통계자료 외에 문학작품을 적극 활용하였다. 예컨대 고학생의 서울 유학 생활과 주변의 시선을 미시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신문과 잡지 자료는 물론 이태준의 소설《사상의 월야》를 적극 활용하였다. 소설이 문학적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사료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이태준의 체험에 기반한 자전적 소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시기 고학생들의 생활 특성과 내면세계를 드러내고자 했다. 이 점에서 소설 작품이 이 시기 일상생활을 미시적으로

재현하는 데 유용한 제재題材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 이광수의 《무정》처럼 일부 소설은 1차 사료가 매우 빈약한 1910년대를 형상화하는 데 이점을 제공하고 있어 일시적 상경자가 묵는 숙소의 구체적 위치와 이름, 가격 수준 같은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년 상경자의 경우, 식민통치 당국의 인구 통계에는 부양가족으로밖에는 등장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는 범죄 사건에 연루되기 전까지는 그 면모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소설에는 그 구체적 동기와 여정 등을 묘사하고 있어 활용 가치가 높다. 또한 일상생활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 아닌 반복적이고 사소한 일의 연속이므로 신문에서 구체적인 텍스트로 묘사되기보다는 사진이나 삽화로 남아 있다. 이에 관한 각종 정보를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데, 연구 곳곳에 게재한 사진과 삽화는 독자들이 상경민들의 미시적인 생활을 생생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결과 이 책에 수록된 연구들은 서울이 정치 권력이 집중된 수부首府임은 물론 경제·교육의 중심지이자 사회·문화의 거점임을 전제한 가운데 다양한 근대 주체의 상경 배경과 일상생활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의 개요와 의미는 다음과 같다.

김은영의 〈1920년대 고학생의 상경과 서울 생활 -이태준의 소설 《사상의 월야》를 중심으로-〉는 상경 고학생의 현실과 이들을 둘러싼 조선인 사회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고학생의 서울 유학 생활이 일제의 차별적 식민교육과 조선인 사회의 착종된 선망 속에서 지니는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구명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고학생은 스스로 일을 해서 학비를 벌면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문중과 양반 등 신분제적 기반 대신에 학력주의가 계층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근대사회의 산물이다. 이들 학생은 일제강점기에도 민족차별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력 성취에 대한 열망 때문에 중등이상 학교가 집중되어 있고 일자리 제공이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서울에 상경하여 학업을 이어갔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제강점기 고학생은 집안의 빈곤을 공통점으로 하면서도 전근대 농촌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과거를 준비하는 이른바 '주경야독晝耕夜讀'하는 몰락양반과는 상이한 도시 무산계급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이들 고학생 역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여건에서 계층 상승에 대한 열망이 지대했으므로 식민지 조선의 교육 거점이라 할 서울로 향하였다. 그리고 이들 고학생은 서울에서 일제의 민족차별 정책으로 인해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이 제한되자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기 위해 이른바 '제국의 수도'를 향하여 '상경'을 이어갔다.

한편, 1920년대 일제 당국과 조선인 주류 사회는 고학생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희망의 상징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 이들 고학생 가운데 일부가 식민지 현실의 모순을 자각하여 고학생 단체를 결성하고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 가담하자 일제 당국과 조선인 사회의 일각에서는 이들 고학생을 경계하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현명호의 〈일제강점기 교육 상경의 민중성 -대동학원·대동상업학교 사례를 중심으로-〉는 김은영의 연구와 달리 피교육자의 처지에서 자신들의 고학 생활과 내면 세계를 다루기보다는 조선인 사회주도층의 일원으로서 교육자의 처지에서 무산계급 노동자의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운동을 벌인 대동학원의 대동상업학교를 집중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가 주로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장기간에 걸쳐 자리 잡은 실업학교, 보통학교, 전문학교 등을 다루거나 경성사범학교나 경성고학원京城苦學院처럼 상대적으로 균질성을 가지고 연속성이 있는 학생 집단을 분석한 반면에 이 연구는 이러한 균질성과 연속성의 전제를 흔들 수 있는 대동학원·대동상업학

교를 사례 연구로 삼아 비제도권 무산계급 교육의 특징과 지향을 해명하고 있다.

나아가 일제 식민 당국이 〈사립학교령〉이나 〈서당규칙〉 등을 제정하여 민족 자본이 투여된 다양한 형태의 근대식 교육 시설을 억압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교육의 형성 과정에서 아래로부터의 동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1920~1930년대 도시 산업경제의 발전이 동반되지 않아 노동시장이 정체되고 농촌의 잉여 인구가 이농 과정을 거쳐 도시 빈민층으로 축적되면서도 대동상업학교는 일자리 준비 기관이자 계층 상승의 기반이라 할 무산계급 학교로 탄생되었음을 논증하고 있다. 또한 1920년대부터 거세던 향학열이 무산자 계층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해명하고 빈곤 탈출이나 취직만이 아니라 문화 향유와 사회적 지위 향상도 하층 계급의 상경 요인으로 작동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주의 단체가 비공개적으로 노동자 아동의 교육 활동에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상황을 발굴하였다. 특히 이러한 고증 과정에서 지방유지 고창한高昌漢이 상경 교육자본가로 변하는 과정을 추적하였고 고창한이 대동학원에 기부하게 된 계기가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한 그의 가족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그리고 고창한이 무산계급 아동의 대동학원을 엘리트 학생의 대동상업학교로 변경하였으나 조선인 학교의 공공성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유슬기의 〈1920~1930년대 상경 도시 빈민층과 창신동 토막촌 양상〉은 토지조사사업과 식민지 지주제의 강화로 인해 농촌에서 배제된 이농민들의 상경 생활과 이들의 주된 거주지의 하나였던 토막촌의 특징을 구명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농촌에서 배출되었으나 도시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도시 빈민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일상생활을 창신동이라는

구체적인 공간 속에서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이 연구는 일제의 민족차별 정책과 도시계획을 연계하여 접근함으로써 도시 빈민 문제를 주거 입지 여건과 연계하지 못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하여 상경 전입자들이 도시 빈민으로 살아가는 창신동 토막촌의 실태와 도시 빈민의 일상세계를 상호 연계하여 미시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김광규의 〈상경 학생의 거처 -하숙과 기숙사-〉는 진학을 위해 상경한 학생들이 주로 거주하였던 하숙집과 기숙사를 중심으로 그들의 일상세계를 면밀하게 추적한 연구이다. 특히 여학생들이 주로 거주하였던 기숙사는 남성의 시선으로 대상화되고 젠더 규율이 관철되는 곳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필자는 그들 학생이 거주하였던 공간과 생활 여건 그리고 학교 당국의 이들 학생에 대한 방침 등을 각종 통계자료와 일제 당국의 조사 자료는 물론 자서전, 회고록 등에 입각하여 밝히는 한편 이들 학생이 마주했던 현실과 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규율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학부형과 일제 당국이 상경 학생들의 바람과 달리 훈육의 장소로서 기숙사를 적극 권장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기숙사를 건축하였음을 밝혔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여성의 집밖 생활을 통제하려는 젠더 요인이 작용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숙사가 하숙집과 달리 강제적인 통제, 감시와 처벌의 범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경 학생이 학업에 진력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돌보는 거주시설·후생시설로서 역할을 했다는 점, 기숙사의 규율이 기숙사를 계급 평등한 거처가 되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손동호의 〈소년 상경의 문학적 재현 양상〉은 상경 대열에 청장년 세

대만 국한되지 않고 소년들 역시 이 대열에 참여했음을 구명하면서 이들의 상경 동기와 경로 및 일상생활을 조명하고 있다. 특히 필자는 소년이 근대에 들어와 새롭게 호명되며 미래를 건설하는 주체라는 점에 주목하되 소년 상경 모티브가 활용된 문학작품을 적극 활용하여 소년들의 상경 생활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책이 학제 연구의 성과물로서 융합형 방법론을 채택했음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손동호의 연구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소년들의 상경 유형을 크게 '학업형 상경'과 '생계형 상경'으로 나누고 상경 배경을 당시 식민지 조선의 경제·문화구조와 연계하여 그 양상을 밝혀내고 있다. 전자는 민족차별적인 교육제도와 서울 중심의 학교 편중에서 비롯된 반면에 후자는 식민지 경제구조의 양축이라 할 식민지 지주제와 소년소녀들을 저렴한 임금으로 포섭하는 식민지 공업화의 모순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문명의 도시 서울이 이들 소년에게 신기한 구경거리가 넘쳐나는 희망과 선망의 장소로 비쳤음을 밝혔다. 그러나 필자는 서울의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과 함께 부정적인 모습도 결코 간과하지 않고 있다. 서울은 이들 소년에게 생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멸의 장소로 다가왔음을 덧붙이고 있다.

끝으로 김태웅의 〈시골 사람의 박람회 관람 -상경과 경성 인식-〉은 앞의 연구들과 달리 서울 전입자가 아니라 박람회 관람을 위해 일시 상경하는 시골 주민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상경 배경과 서울 인식을 해명하고 있다. 또한 시골주민의 박람회 관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선인 지방 주민의 일상생활과 일제의 정치 선전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 주된 소재로 삼은 박람회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제 당국의 정치적 효과와 관람객의 수동적 동의에 중점을 두

기보다는 근대적 소비 주체로 성장하는 시골 주민의 인식 변화와 그들의 식민체제 동화를 우려하는 식자층의 시선을 상호 교차하여 분석함으로써 박람회를 둘러싼 조선인 여러 집단에서 보이는 인식의 편차를 도출하고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상경 관람객이 1915년 물산공진회를 통해 자신들의 통치 실적을 홍보 선전하고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일제의 의도와 달리 정치적 선전물보다는 공연과 여흥 등 근대 여가 문화에 관심을 두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이들 관람객 역시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자신들의 욕망을 분출하고 자신의 지위를 내외에 과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1929년 조선박람회에서는 일본인 자본가의 의도대로 조선인 관람객들은 일본 상품을 대거 구매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일제의 통치를 동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좀더 많은 구매에 대한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근대적 문명에 대한 열망과 함께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식민지 조선의 경제적 한계를 목도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해명하고 있다. 특히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은 조선인 시골 관람객이 서울의 어두운 측면을 직시함으로써 민족 현실의 실상을 목격하도록 노력하고 있음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자들은 상경 관람객의 이런 집단적 관람 장소를 자신들의 민족해방·계급투쟁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들 상경 관람객이 접한 박람회 공간은 일제의 정치 선전, 일본인 자본가의 상품 판매 시장을 넘어서서 근대적 소비 주체의 다양한 욕망과 함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이 펼쳐지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학생과 도시 빈민, 관광객, 상경 소년 등 특정 집단이나 세대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상경자 가운데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

하는 공장 노동자, 서비스 노동자와 하녀, 유곽 종사자 등 특정 여성 직업군은 물론 인력거꾼, 배달부, 소매치기꾼, 거지 등 도시 빈민을 구성하는 또다른 하층민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그것은 기존 연구에서 서울의 노동자와 노동운동을 다루거나 서울의 여성운동과 여성들의 활동 등을 충분하게 다루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 다양한 하층민 역시 출자出自가 지방에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의 상경 배경과 과정 그리고 일상생활을 서울이라는 공간 속에서 어떻게 펼쳤는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구명해야 할 과제이다. 서울은 일본인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방면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이루는 조선인이 혼재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만큼 그리고 협동과 연대 또는 갈등과 충돌이 상존하는 만큼 이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이들 집단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제1장

1920년대 고학생의 상경과 서울 생활

-이태준의 소설 《사상의 월야》를 중심으로-

김은영(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 연구교수)

1. 머리말
2. 고학생의 상경 배경과 실태
3. 상경 고학생의 삶과 지향
4. 맺음말

1. 머리말

스스로 일을 해서 학비를 벌면서 공부하는 '고학생苦學生'은 근대 교육의 한 풍경을 보여주는 독특한 존재이다. 주경야독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전통적으로 배움에 대한 열망과 노동의 결합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런데 신분·계층, 경제 여건, 성별을 막론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배움의 기회를 찾아 교육의 중심지로 이주해서 노동과 학업을 병행한 것은 근대 시기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교육의 중심지로서 고학생을 흡인하는 구심력을 오랫동안 발휘해온 도시는 서울이었다. 특히 20세기 초부터 확산된 고학생의 상경은 서울의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에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던 고학생의 서울 유학과 생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고학생은 어느 지역에나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서울은 수많은 고학생들이 집중된 도시였다. 적어도 일제강점기에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데다가 일자리와 생활환경 측면에서도 최상의 선택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경한 고학생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하루하루 벌어먹고 공부하는 삶은 고달프기 그지없었다. 그럼에도 고학생들은 왜 상경을 감행했을까? 그들은 서울에서 어떻게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갔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상승적이고 근대적인 열망의 구심점이 된 서울이라는 공간의 시대적 의미와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서울의 시대적 풍경을 형성한 고학생의 삶과 이들을 둘러싼 여론의 추이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1920년대 전반기를 중심에 두고 보고자 한다. 이 시기

는 이른바 문화통치의 기조 아래 조선인 사회에서 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이때 고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가장 고조되었다. 당시 매체에서 고학생이라는 단어에 붙어 가장 많이 쓰인 용어는 '동정'이었다. 고학생에 대한 동정 여론을 바탕으로 고학생 갈돕회, 고학생구제회, 반도고학생친목회, 여자고학생상조회 등 여러 고학생 단체가 결성되어 고학생 후원 붐이 일어났다. 서울의 유력인사들뿐 아니라 각 지역의 인사들도 앞 다투어 후원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후원 열기는 192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문화운동의 퇴조와 함께 점차 잦아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고학생을 넘어 지식계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질과 함께 일제의 교육정책 변화도 한몫을 하였다.

이 글에서는 서울 고학 생활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로서 이태준의 소설《사상의 월야》를 활용한다.《사상의 월야》는 1941년 3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이태준의 자전적 소설이다. 소설 속의 주인공 송빈의 인생 궤적, 특히 교육 경험은 실제 이태준의 그것과 상당히 비슷하다. 20년의 세월을 넘어 1920년대 초반 고학생으로서 작가 이태준의 경험이 생생하게 녹아 있다. 어디까지나 픽션이라는 점을 고려해야겠으나 소설 속 송빈의 행로를 통해 당대 고학생의 삶과 고민을 엿볼 수 있기에 중요한 텍스트로 삼았다.

소설 속 송빈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슬하에서 가난하게 자라면서 교육의 기회를 어렵게 접하게 된다. 근대적 교육에 대한 송빈의 경험은 함경도에서 강원도 철원으로 이주하여 사립 봉명학교와 공립 간이농업학교를 다니면서 시작된다. 여기서 만족하지 못한 송빈은 더 큰 교육의 기회를 찾아 상경하기로 결심한다. 서울에서 휘문고보에 입학한 송빈은 고달픈 고학 생활을 이어간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에는 일본

동경으로 유학길에 오른다. 이 소설은 당시 상경 고학생들의 서울살이를 잘 보여주는 동시에 이들을 추동한 배움의 열망에 대한 서사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태준과 《사상의 월야》에 대해서는 국문학계에서 이미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사상의 월야》를 위주로 살펴보자면, 이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성 추구와 계몽 의지에 주목하면서 문학을 통한 민족주의적 지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연구[1]도 있는 한편, 민족주의적 기조를 부정하고 민족 현실의 개조에 대한 의지를 성공에의 지향을 합리화하는 대의명분으로 삼았다고 보거나 또는 소설이 집필된 전시체제기의 사상적 경향이 스며들어 있다고 본 연구도 있다.[2] 그 밖에 이 소설 속에 등장한 제국 내의 공간 범위 또는 근대적 학교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주목하여 소설의 가치를 밝힌 연구도 있다.[3] 그런데 이 연구들은 이태준의 문학 세계에서 이 소설이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였으나 고학생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일제강점기 고학생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당대 결성되었던 고학생 단체들에 관하여 수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고학생 갈돕회, 반도고학생친목회, 경성고학당 등 1920년대에 설립된 여러 고학생 단체들의 성격

1 박헌호, 《이태준과 한국 근대소설의 성격》, 소명, 1999.

2 정종현, 〈'민족 현실의 알리바이'를 통한 입신 출세담의 서사적 정당화 -이태준, 《사상의 월야》의 성장 체험이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한국문학연구》 23, 2000; 허병식, 〈이태준과 교양의 형성 -《사상의 월야》를 중심으로-〉,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김홍식, 〈《사상의 월야》 연구 -개작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5, 2011.

3 이창민, 〈《사상의 월야》의 공간적 배경과 주제〉, 《한국문학연구》 2, 2001; 조윤정, 〈이태준 소설에 재현된 식민지 조선의 학교〉, 《상허학보》 28, 2010; 권은, 〈식민지 교양소설과 이태준의 공간지향 -이태준의 《사상의 월야》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44, 2015.

과 활동을 살펴보면서 이 단체들이 당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던 문화운동 또는 사회운동의 세력화와 연결되었음을 밝혔다.[4] 한편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학교 및 학생문화 차원에서 고학생에 관하여 다룬 연구들도 있다. 이 연구들은 근대적 교육 제도 속에서 생겨난 고학생의 이미지가 문학 작품 속에서 구현된 양상과 그 의미에 관하여 밝혔다.[5] 또한 갈돕회 등의 고학생 단체가 상연한 연극을 중심으로 고학생의 이미지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6] 다만 이 연구들은 고학생의 실제 생활에 주목하기보다는 문화사적 또는 운동사적 측면에 대체로 집중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특히 고학생의 '상경'이 가지는 의미에 주목한다. 이태준의 소설《사상의 월야》를 모티브로 삼아 주인공 송빈의 행로를 따라가면서 고학생의 생활과 내면세계를 추적할 것이다. 역사적 맥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문·잡지 매체 및 관헌 자료 등의 사료를 활용하여, 고학생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파악하고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고학생 대책을 고찰하는 자료로 삼는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교육 중심지로서 서울의 면모를 밝히고 서울에서 치열하게 살아간 상경 고학생의 현실과 이들을 둘러싼 조선인 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4 남신동, 〈최초 사회주의 학교의 등장: 경성고학당(1923~1931)〉, 강명숙 외,《식민지 교육연구의 다변화》, 교육과학사, 2011; 한규무, 〈1920~1930년대 고학생갈돕회의 설립과 활동〉,《한국민족운동사연구》73, 2012; 박성순, 〈1920년대 초반 반도고학생친목회 연구〉,《숭실사학》41, 2018.

5 이재봉, 〈근대적 욕망의 추구와 서사화 방식 -1910년대 소설의 고학생 모티프와 '자본'의 논리-〉,《어문연구》41, 2003; 조윤정, 앞의 글, 2010.

6 우수진, 〈갈돕회 소인극 연구 -사실과 동정의 스펙터클-〉,《한국극예술연구》35, 2012; 〈'고학생 드라마'의 등장과 '상호부조'의 극장화 -'이동화의 죽음'에서 〈김영일의 사〉로-〉,《리터러시연구》10-6, 2019.

2. 고학생의 상경 배경과 실태

1) 근대적 교육의 정착과 '苦學'

노동과 교육의 결합을 뜻하는 '고학'은 근대적 현상이었다. 전통시대부터 주경야독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었던 만큼 일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낯선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개항 이후 근대 문물이 도입되면서 등장한 '고학'이라는 용어는 신식학교 제도와 함께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한 도시 문명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의의를 가진다. 즉, 고학생의 등장은 근대적 교육의 시작과 궤를 같이 한다.

한국에서 근대적 교육은 개항 후 조선 정부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근대적 교육의 방편으로 근대적 문물 수용을 위하여 청과 일본을 대상으로 외국 유학이 추진되었으며, 이들 유학생 중에서 고학생이 등장하였다. 188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 유학생 파견은 주로 관비 유학생이 대부분이었으며 정치적 상황과 재정 위기로 인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1904년 관비 유학생 파견이 재개되면서 다시 유학생이 늘어났는데 이 무렵에는 사비 유학생도 늘어났다.[7] 이들 가운데 고학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07년 5월부터 《대한매일신보》 등의 신문에는 고학생의 곤궁한 처지에 대한 기사가 등장하고 있다. 학비가 끊겨 월사금과 하숙비를 낼 수 없어 곤경에 처한 고학생 27명을 대한제국 정부가 지원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8] 그러나 여기서 고학은 일하며 공부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은 아

7 박찬승, 〈1890년대 후반 관비유학생의 도일유학〉, 《한일공동연구총서》 2, 2000, 76~78쪽; 이계형, 〈1904~1910년 대한제국 관비 일본유학생의 성격 변화〉,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1, 2008, 192~201쪽.

8 〈留學生請願〉,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28일; 〈苦學生懇求〉, 《대한매일신보》 1907

니었다. 고학생들은 학자금 문제로 '고생하는 유학생'들로 묘사되고, 결국 대부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귀국했다는 것으로 보아 공부와 일을 병행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일하며 공부한다는 의미의 '고학'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부터였다. 《매일신보》에 실린 고학생 관련 기사들에서 고학생들은 "학생계의 모범"이자 칭찬받아야 할 인물들로 묘사된다. 이들 중에는 기수技手나 위생인부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야학교를 다닌 인물도 있고,[9] 집안 형편상 학비를 충당할 수 없자 신문배달부를 시작하거나 목공·철공·토공 등으로 일하는 사례도 소개되었다.[10] 학교 측에서 고학생을 위한 업무를 마련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의 경신학교는 수공부를 설치하고 직조기를 두어 빈곤한 학생 60여 명에게 방과 후 3~4시간 노동하게 하여 학비와 식비를 벌도록 하였다.[11]

이 시기 고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은 1910년대 식민지 교육 체제하에서 달라진 교육의 상황과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우선 교육 상황의 측면에서 볼 때 1910년대는 근대적 교육이 점차 일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였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 〈조선교육령〉(1911년 칙령 제229호)으로 대표되는 근대적이고 식민지적인 교육 법령과 교육 제도가 이

년 6월 29일; 〈苦學生苦況〉, 《황성신문》 1907년 6월 29일; 〈苦學生情況〉,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12일; 〈苦學生情況〉, 《황성신문》 1907년 7월 13일; 〈學生旅費〉,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19일.

9 〈晝勤務夜苦學〉, 《매일신보》 1913년 2월 6일; 〈苦學으로 成業한 긔특흔 위싱인부〉, 《매일신보》 1919년 5월 14일.

10 〈苦學生의 遠希望〉, 《매일신보》 1914년 2월 20일; 〈獨立苦學〉, 《매일신보》 1915년 5월 27일.

11 〈京城行脚(6) 京城東部의 古蹟과 現金의 發展(5) -苦學生의 救濟機關〉, 《매일신보》 1916년 3월 23일.

식되었다. 〈조선교육령〉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교육의 종류를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으로 규정하고, 학교의 종류를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로 구분하였다.[12] 〈조선교육령〉에서 입학을 위한 자격으로서 연령과 학력 조건이 법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13] 법적으로 정해진 학령과 학력 조건의 요구는 근대 산업 사회에서 인적 자원의 선발과 배분을 위해 학교 교육을 활용한 것과 연계된다.[14] 학력이 진학과 취업의 전제 조건으로 규정되면서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한 신식 학교들이 정착해갔다. 입신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신식 학교를 나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사상의 월야》에도 잘 그려져 있다. 주인공 송빈이 어린 시절을 보낸 1910년대 강원도 철원 용담에 신식 학교가 들어서는 상황을 소설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용담에는 학교가 생긴 것이다. 큰댁 형님(송빈이 아버지)을 머리를 깎은 그것만으로도 이단시하던 그네들도 급격한 시대의 선풍 앞에는 뒤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큰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매봉재가 잘려 나간다고 문중이 며칠을 모여 수선거렸으나, 허물고 나가는 철로를 막을 재주는 없었고, 굴을 뚫되 양편에서 같이 파 들어가도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땅속에서 만나

12 《조선총독부 관보》 304, 1911년 9월 1일.

13 보통학교 입학은 연령 8세 이상이어야 했고, 고보·여고보·실업학교 입학은 연령 12세 이상에 4년제 보통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가능하였다. 전문학교는 연령 16세 이상이며, 고등보통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입학할 수 있었다.

14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1910년대 공립보통학교 취학욕구의 고조〉,《역사교육》136, 2015, 149쪽.

는 그들의 재주를 보고는, 사서삼경을 외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으리라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다. 사랑채 한 간에 두었던 서당을 이십여 간이나 되게 따로 짓고, 하루갈이나 되는 밭을 운동장으로 닦고 '사립 봉명학교'라 간판을 붙인 것이다.[15]

이 글에서는 원래 완강하게 전통 교육을 고수하던 사람들이 급격한 시대의 선풍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들은 사서삼경을 외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으리라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고 기존의 서당을 개조하여 사립 봉명학교를 세운다.[16] 봉명학교에서는 월사금이나 학용품도 무료였기 때문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송빈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다. 이 학교는 정규학교는 아니었고 민족 교육을 주로 했으며 어린 아동부터 20~30대의 청년도 같이 다녔다. 봉명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4학년과 졸업생들은 따로 일본어 강습을 받아야 하였다. 민족의식을 기르는 교육 위주로 학생들에게 진취적 기상을 심어주는 데 학교의 목적이 있었다. 장래 희망을 묻는 교사의 질문에 송빈은 할머니에게 들은 대로 '도 장관'이라고 대답했다가 비웃음을 사고 만다. 같은 질문에 다른 학생들은 나폴레옹이나 신라, 고구려의 영웅을 답했던 것이다.

이처럼 민족의식 교육을 하는 사립학교는 개항기의 교육구국운동 속에서 생겨난 사립·민립학교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1907~1908년 급증한

15 이태준·상허학회 편, 《이태준 전집3 사상의 월야: 해방 전후》, 소명출판, 2015, 54~55쪽.

16 사립 봉명학교는 철원 애국단 단장 李鳳夏가 1909년 설립한 사립학교였으며, 실제로 이태준은 1915년에 이 학교에 입학하였다.

사립·민립학교는 당시 통감부가 주도한 보통학교에 비하여 조선인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국권회복을 목표로 한 교육을 내세운 이러한 학교들에서는 독자적으로 교과서를 만들거나 1905년 이전에 학부가 펴낸 교과서를 사용하면서 을지문덕·김유신·강감찬·이순신 등 구국 영웅에 관한 내용을 가르쳤다. 또한 학생뿐 아니라 마을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연합운동회를 열었는데, 여기서는 군사훈련과 비슷한 체육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남학생들은 총을 메고 행진하기도 하였다.[17] 봉명학교도 교육구국 운동의 자장 속에서 설립된 학교였다. 이는 소설 속 송빈이 입학 후에 "탄환도 없는 나무총이나마 묵직한 것을 메고" 어서 나오라는 나팔소리를 들을 때마다 남아로서 기개를 느끼는 장면이라든지, 학생들이 장래희망으로 민족의 영웅을 답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장면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들어 식민지 교육 체제가 정착되면서 민족교육을 주로 하던 사립학교는 점점 위축되어 갔다. 전술했다시피 〈조선교육령〉 이후 기존의 학교들은 재인가를 받아야 했고, 관공립학교를 기준으로 교육 제도가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구국 운동 차원에서 민족의식 고취와 함께 민중에게 교육 기회를 보급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사립학교를 공식적 학교제도 안으로 포섭하여 통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1911년 조선총독부령 제104호 〈사립학교규칙〉을 통해 사립학교는 정규학교가 되거나 또는 비정규학교인 사립각종학교로서 정규학교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길을 택해야 하였다.[18] 이와 같은 사립학교 통제는 일제

17 김태웅, 《신식 소학교의 탄생과 학생의 삶》, 서해문집, 2017, 251~265쪽. 민립학교는 왕실과 정부 주도의 관립학교 설립 방식을 탈피하여 지방관아와 지역 주민이 함께 세우는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18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34~35쪽.

에 의해 이식된 근대적 학교 제도가 관공립 학교 중심으로 정착되어 갔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근대적 교육제도의 정착은 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켰다. 1910년대에는 한말의 부국강병과 국권 수호라는 교육 목적을 대신하여 개인적 성공과 입신출세가 교육의 목표로 만연하였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을 풍미한 사회진화론적 인식이 이어지면서도 식민지적 상황을 반영하여 생존경쟁 시대를 살아낼 개인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었다. 구세대와의 단절을 주장하며 개인의 입신출세와 성공을 교육의 목표로 두는 언설이 공론장에 공공연하게 등장하였다. 교육을 통해 적어도 개인적 삶의 개선과 성공은 가능하다는 언설이었다. 입신출세를 위해서는 학문적 기반을 갖추면서 동시에 '개인'으로서 자조·독립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다.[19]

고학생은 학생이자 독립적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는 존재로 칭송받았다.[20] 고학은 경제적 이유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이들이 독학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교육기관에 다니는 상황을 지칭하므로 고향을 떠나지 않고 할 수도 있었다.[21] 하지만 고향에서 고학을 하려면 통

19 兪鎭億, 〈立身出世의 基礎〉, 《公道》, 1-2, 1914년 11월, 6~7쪽.

20 일례로 한 기사에서는 춘천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한 19세 고학생을 소개하면서 독립적 고학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고학생은 그를 기특히 여긴 일본인 학교장의 학비 제공을 거절하고 신문배달부가 되어 스스로 학비를 벌고 있다는 것이었다(〈獨立苦學〉, 《매일신보》 1915년 5월 27일).

21 일본에서는 1890년대 들어 교육칙어 제정 등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국가주의적 질서가 강화됨에 따라 사회적 안정화를 위해 지방민의 상경 유학 대신에 고향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고학하는 문화가 장려되었다(田嶋一, 《〈少年〉と〈青年〉の近代日本-人間形成と教育の社會史》,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16, 360쪽). 다만, 일본에서는 심상소학교 4년제가 의무화되어 1890년대 남자의 취학률은 80%를 상회했으며, 고

신교육이나 교육잡지 또는 이들을 수용할 교육기관 등의 적절한 인프라가 필요하였다. 일제강점기의 교육 현실상 교육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나마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다.[22] 고학을 가능하게 할 경제적 인프라 역시 서울과 같은 도회에 집중되어 있었음은 물론이다.

《사상의 월야》에서도 상급학교 진학시 가장 선망의 대상은 서울로 묘사된다. 송빈에게 서울은 가난의 설움을 떨치고 성공이 보장된 공간이었다. 그는 "공부만 잘하면 서울 갈 수 있다"고 다짐하며, 서울 가서 공부한다는 매부의 금단추 번쩍거리는 교복을 보고는 "나도 서울로 공부가야 한다!"고 결심한다.[23]

그러나 가난한 송빈은 서울 유학이 불가능한 아이들이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상급학교인 공립 간이농업학교에 진학한다. 간이농업학교는 간이실업학교 중 농업 실무 교육을 위주로 한 학교로서 '보통학교 2년 수료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유자'인 '농업에 종사하려는 의지가 확실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입학 연령은 10세 이상으로 규정되었으나 대체로 15세 이상이 많이 다녔으며, 본래 취지와 달리 실제로 학생들은 상급학교

학이 가능한 인프라도 어느 정도 정비되고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일본에서도 1890년대부터는 기존의 士族 중심의 상경 유학 대신에 민중의 자립자활적 상경 고학이 크게 유행하였다(竹內洋, 《立志·苦學·出世》, 東京: 講談社, 2015, 131쪽).

22 일례로 1917년의 상황을 보자면, 조선인 학교는 전국에 1,444개가 있었다. 보통학교 463개, 고보 8개, 여고보 4개, 전문학교 6개, 실업학교 19개, 간이실업학교 76개, 사립 각종학교 868개였다. 그중 경성부에는 보통학교 18개(관립 2, 공립 13, 사립 3), 고보 3개(관립 1, 사립 2), 여고보 3개(관립 1, 사립 2), 전문학교 5개(관립 3, 사립 2) 등이 있었다. 그 밖에 사립 각종학교 121개(경기도) 및 여러 사립 강습소 등이 있었다. 신식 학교 자체가 적었지만 소수의 중등 이상의 교육기관은 대부분 경성에 위치하고 있었다(조선총독부학무국, 《大正六年 諸學校一覽》, 1918).

23 이태준·상허학회 편, 앞의 책, 2015, 81~85쪽.

에 진학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하는 일이 많았다.[24]

이곳에서 송빈은 좌절을 겪는다. 사립 봉명학교와는 달리 학비도 들고 보증인도 필요했기 때문에 입학할 때부터 애를 먹게 된다. 입학하고 나서 보니 실망은 더 커졌다. 학생들은 대부분 공립보통학교 출신으로 일본어 잘하는 것을 뽐내면서 장래희망으로 면서기, 헌병 보조원, 군청 기수를 말한다. 그리고 송빈과 같은 민족의식 교육을 받은 사립학교 출신을 "못난이"라고 놀리며 일본어로 욕을 한다. 일제하 교육 시책은 관·공립의 정규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준으로 학력 사회가 조성되었다. 이는 학교 간에 일종의 위계를 형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관·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더 높은 위계에 놓이게 된 것이다.[25] 더욱이 조선에서 사립학교의 상당수는 조선인이 설립한 민족 학교인 경우가 많았으므로 관·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민족 차별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식민지 교육을 통해 현실에 순응해 가는 학생들로 가득한 공간에서 송빈은 혼란과 설움을 느낀다. 간이농업학교에 정이 떨어진 송빈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로 결심한다.

서울! 정서방까지도 서울로 공부 오슈 하던 서울! 오 선생도 용담학교서 1년만

24 이명실, 〈일제강점기 실업보습학교 제도 연구〉, 《한국교육사학》 37-4, 2015, 87쪽. 조선에서 공립 실업보습학교는 일제강점 후 간이실업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22년부터 다시 실업보습학교로 변경되었다. 이태준은 실제로 1918년 철원 간이농업학교에 진학했다가 중퇴했으므로 소설 속에서 '간이농업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25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였다. 관학과 사학 졸업자에게 부여되는 자격의 차등을 통해 사실상 뚜렷한 위계가 형성된 것이다(김자중, 〈일제 식민지기 조선의 고등교육체제의 성격〉, 《한국교육사학》 38-3, 2016, 67쪽).

> 더 있다가는 기어이 가야겠다는 서울! 상급학교가 얼마든지 있고 예로부터 송아지는 낳으면 시굴로 보내고 사람의 자식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랬다는 서울![26]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확신은 식민지 학교의 위계가 만든 학력 콤플렉스에 기반한 것이었다.[27] 서울은 곧 입신출세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다. 돈이 없으면 고학을 해서라도 서울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갔다. 송빈도 성공을 위한 목적지를 서울로 정하고 마침내 길을 떠난다.

2) 향학열과 서울의 고학생 증가

1910년대부터 뿌리내리기 시작한 근대적 교육제도는 조선인의 일상과 내면세계까지도 변화시켰다. 입신출세를 위한 교육은 학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상승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만들었다. 이는 정규 교수학습 외에 학교 교육 내에 숨겨진 잠재적 교육과정의 효과이기도 하다. 학교의 성적 평가는 능력주의에 기반한 경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다. 또한 교육과 입신출세를 등가로 두는 가치관은 계층 이동뿐 아니라 상경이라는 지리적 이동도 포함하게 되었다. 즉, 근대적인 학교 건축이나 배치, 교재 등에 내재된 서구적·근대적 문화는 이를 가장 잘 체현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동경으로 전이된다.[28] 조선에서 보통학교 입학률이 191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은 근대적 교육에 대한 내면화도 진행되고 있었음

26 이태준·상허학회 편, 앞의 책, 2015, 93쪽.
27 조윤정, 앞의 글, 2010, 20~21쪽.
28 竹內洋, 앞의 책, 2015, 126쪽.

을 시사한다.

3·1운동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향학열이 고양되었다. 보통학교 입학률은 1919년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이후 조선인들은 기존의 서당과 같은 전통 교육기관을 대신하여 근대적 학교인 보통학교 취학을 지향하였다.[29] 보통학교 뿐 아니라 중등 및 고등교육을 향한 열망도 나날이 늘어갔다. 3·1운동을 전후하여 세계적인 '개조'의 열풍이 조선에도 밀려들어오면서 민족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한 문화운동이 발흥하였다. 문화운동은 특히 교육운동과 결합되었다. 개인의 입신출세에 대한 열망은 민족적 부흥의 수준까지 고양되었다. 교육의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나 도회지, 특히 서울로 유학하는 것은 진취적인 일로 여겨졌다. 그렇다면 상경 유학생들은 어떤 학교를 지망했을까? 당시 서울의 조선인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1921년 5월말 현재 조선인 학교 현황

(단위: 개소)

학교 종류		전국	서울 (*표시는 경기도)
보통학교	관립	3	2
	공립	675	13
	사립	37	3
고등 보통학교	관립	7	2
	사립	10	5
여자고등 보통학교	관립	2	1
	사립	5	3
전문학교	관립	4	3
	사립	2	2

29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15, 114~115쪽.

학교 종류		전국	서울 (*표시는 경기도)
실업학교		농업(공립) 19, 상업(사립) 2, 상공(공립) 1, 수산(공립) 1 총 23	농업(공립) 1, 상업(공립) 2 (*이상 경기도)
간이실업학교		농업(공립) 15, 상업(공립) 5, 공업(공립) 7, 상업(공립) 2, 수산(공립) 1 총 30	농업(공립) 4, 상업(공립) 3, 공업(공립) 1 (*이상 경기도)
각종 학교 (사립)	일반	356	34 (*경기도)
	종교	279	37 (*경기도)
계		1,439	

출처: 조선총독부학무국, 《大正十年五月末現在 朝鮮諸學校一覽》; 경성부, 《京城彙報》 46, 1925년 8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보통학교와 실업학교·간이실업학교는 지방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나 중등 이상의 학교는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사립 고보·여고보는 절반 이상이 서울에 있었으며, 전문학교는 관·사립을 합쳐서 수원고등농림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서울에 위치하였다.[30] 그 밖에 서울의 각종학교 중에는 중등이나 전문 정도의 사립학교도 많았고, 그 밖에 사설강습소 등도 다수 존재하였다. 따라서 당시 상경 유학은 대체로 중등 이상의 학교 교육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당시 《매일신보》 기사에서 상경 유학생이 많이 다니는 학교로 관립고보·배재고보·중앙고보·보성고보·휘문고보·동광고보·경신학교·중동학교를 비롯하여 오성강습소·계명강습소·신명강습소·한성강습소 등을 언급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31] 당시 향학열과 상경 유학생의 증가 상황에 대해서 소설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30 연희전문학교의 경우, 당시 주소는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이나 현재의 서울에 해당한다.

31 〈苦學生의 悲慘한 生活〉, 《매일신보》 1922년 2월 8일.

> 봄이 되었다. 이런 불타는 향학열은 송빈이나 은주뿐이 아니었다. 전조선적으로 서당에서 학교로의 과도기적 침체는 소요 일 년에 큰 자극이 되었다. 총각은 땋은 머리를 깎고, 어른은 상투를 자르고, 면서기 군서기를 다니던 사람, 헌병 보조원, 순사, 그리고 장사하던 사람들까지 '신학문'에로 대진군이 되어 서울로 끓어올랐다. 매년 정원이 차거나 말거나 하던 중학교에들 오륙 배는 보통이요 십이삼 배까지 응모자가 폭증하였다. 조선서 '입학난'이란 말은 이해에 처음 생긴 것이다.[32]

위 인용문에 나온 것처럼 1920년대 들어 연령과 계층, 직업을 불문하고 상경 유학이 늘어났다. 서울의 중등학교는 '입학난'을 겪을 정도로 지원자가 폭증하였다. 1922년 3월에는 중등학교 입학 지원자가 정원의 25배나 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중복 지원이나 과장된 경우를 제외해도 지원자의 20% 정도만 중등학교 진학이 가능하였다.[33] 입학난 현상에 대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민족지는 큰 관심을 가지고 해마다 자세히 보도하였다. 입학난은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모두 큰 문제였지만 중등학교의 경우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였다. 입학난의 주인공이 된 지원자들의 상당수는 지방에서 올라온 유학생들이었으며, 그중에는 고학생도 적지 않았다.

고학생들은 학업과 노동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비정규학교나 강습소 등에 적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34] 1920년대 초반 서울의 고학생이 가장

32 이태준·상허학회 편, 앞의 책, 2015, 142쪽.

33 〈悲慘! 一對六의 此悲慘〉, 《동아일보》 1921년 3월 27일; 〈入學難을 如何히할가(上) 當局의 責任〉, 《동아일보》 1922년 3월 26일; 〈徽文高普의 夜學新制〉, 《동아일보》 1922년 5월 5일.

많이 다닌 학교 중 하나는 사립 중동학교中東學校였다.[35] 1906년부터 야학교 형태로 운영되던 이 학교는 1919년에 사립 중동학교로 개명했으나 정규학교 체제에 편입하지 않고 주·야학 3부제로 운영하였다. 초·중등 과정을 운영하며 입학 연령에 제한이 없었으므로 고학생을 비롯한 지원자들이 몰려들어 1921년에는 정원 1,200명에 입학 지원자가 2,3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에 최규동 교장은 부족한 교실 충원을 위해 개인 사택과 교사 사택을 헐어 새 교실을 건축할 예정이라고 하였다.[36]

서울의 고학생 현황을 다룬 1921년 12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당시 서울의 고학생 수는 765명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골고루 유입되었으나 특히 함경도 출신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37] 《사상의 월야》에서 송빈도 원래 함경도 출신으로서 강원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상경 고학에 나선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서울의

34 《개벽》의 한 필진은 고학생이 대부분인 신종학교나 강습소가 아닌 중등학교는 재산 계급의 전유물이라고까지 말하였다(金松隱, 〈修業料低減決議에 對한 批判〉, 《개벽》 33, 1923년 3월, 32쪽).

35 〈苦學生은 咸北이 最多〉, 《동아일보》 1921년 12월 6일.

36 〈悽慘한 入學難의 絶叫〉, 《동아일보》 1921년 4월 10일; 학교법인 중동학원, 《中東百年史 學園史》, 2007. 중동학교는 1928년에 지정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37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경성부의 고학생 출신 조사를 같은 날 지면 보도했으나 내용에 있어서 부정확한 점이 많아 주의를 요한다. 특히 북부 지방에 대한 조사 내용이 크게 불일치한다.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의 구체적 수자는 차이가 나지만 함경도 전체로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황해	강원	평북	평남	함북	함남	간도	불명
《동아일보》	30	14	30	67	61	47	42	54	32	-	29	124	86	5	-
《조선일보》	30	14	30	67	61	47	42	59	32	29	28	58	86	58	110

출처: 〈苦學生은 咸北이 最多〉, 《동아일보》 1921년 12월 6일; 〈京城의 苦學生狀況〉, 《조선일보》 1921년 12월 6일.

고학생은 해가 갈수록 수가 늘어나서 1920년대 초중반에 1,000~2,000명에 달하였다. 1922년《개벽》1월호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고학생 수는 1,700~1,800명으로 추산되었다.[38] 상경 고학생이 날로 늘어가는 현상에 대해《개벽》의 한 논자는 "고학생 중에는 1~2일의 식사를 거르면서도 능히 수학修學을 계속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이는 육체상의 기아로 오는 고통보다도 무학으로 오는 정신상 고통이 더 심함을 절각切覺"하기 때문이라고 평하였다.[39]

송빈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학교들을 돌아보았다. 휘문·중앙·보성배재 등 사립 중등학교를 구경하다가 배재학당에서 보결생 모집 광고를 보게 된다. 보결생이 생긴 까닭은 "봄에 소요사건으로 학생 이동이 많았"기 때문으로, 3·1운동의 여파가 암시되어 있다.[40] 송빈은 일본어, 영어, 산술, 조선어 작문의 입학시험을 치르고 50명 중에서 12명 안에 들어 합격하게 된다. 하지만 합격의 기쁨도 잠시, 입학 수속과 교과서·교모 등을 사는 비용이 30원圓이나 드는 바람에 돈이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입학을 포기한다. 그 대신 청년회관 야학교 고등과에 등록하고 고학생의 길을 택한다. 우연히 만난 은인의 도움으로 낮에는 좁쌀 무역을 하는 상회에서 일하며 월급 25원을 받고,[41] 저녁 6시부터는 청년회관에서 야학과 함께 강연회에 참석한다. 강연회에서 웅변에 감동하고서는 학생 토론회에 참

38 〈歲在壬戌에 萬事亨通〉,《개벽》19, 1922년 1월, 13쪽.

39 〈우리 社會의 實相과 그 推移〉,《개벽》11, 1921년 5월, 72쪽.

40 이태준·상허학회 편, 앞의 책, 2015, 124쪽.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3·1운동에 관한 직접적 묘사는 최대한 억제되어 있다. 소설이 집필된 1941년의 상황, 즉 전시체제 속에서 집필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41 당시 남성 노동자의 일급이 대략 0.9~1원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25원은 노동자의 평균 월급 정도와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사상의 월야》 삽화

배재학당을 포기한 송빈이 파고다 공원에서 은인을 만나 일자리를 얻는 장면이다. 그림 왼쪽의 학생복 차림이 송빈이고, 그림 오른쪽의 사진 촬영 대상이 된 이가 일자리를 제공한 무역 상회 주인이다. 이 삽화를 통해 당시 파고다 공원이 관광지가 되어 사진사가 사진을 찍어 주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사상의 월야(47)〉, 《매일신보》 1941년 4월 29일.

가하여 "돈 없어 못 다닌 배재학당" 학생에게 토론으로 복수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듬해 휘문고보 2학년에 보결생으로 합격하면서 정규 중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송빈은 휘문고보에 다니면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는 고학 생활을 이어간다. 송빈과 같이 가난한 상경 유학생들은 스스로 일을 해서 공부를 병행하는 고달픈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였다.

3. 상경 고학생의 삶과 지향

1) 고학생의 생활 상태

휘문고보에 다니게 된 송빈은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약 행상에 나선다. 이전에 야학교에 다닐 때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생활이었지만, 정규학교에 다니면서는 낮에 공부하고 밤에 일해야 하였다. 송빈도 당시 고학생들이 많이 하던 일이었던 약 행상에 나서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 대하여 소설 속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송빈이는 먼저 靈神丸 장사를 해보았다. 학교에서 나오는 길로 저녁때까지 공원과 정거장과 음식점으로 다니며 팔면, 잘 팔리는 날은 하루 10봉은 팔았다. 10봉이면 30전이 남는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잘하면 1, 2원의 이익을 보는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고학생은 한둘이 아니었다. '고학생 갈돕회'라는 것이 생겼는데 거기 회원만도 100여 명이었다. 손님들도 이쪽에서 말하기 전에 먼저 "이제 방금 샀어"하고 약봉지를 꺼내보였고, 음식점에서들은 귀찮다고 들어서지조차 못하게 하였다. 약도 팔기가 이내 힘들어졌다. 월사금 4원이 제일 급했다. 매달 초엿샛날 아침조례 시간에서는 으레 월사금 미납자들이 불려나가는데, 송빈이는 이축에 번번이 끼었고, 이축에 끼면 월사금을 가져 갈 때까지는 교실에 못 들어가는 법이었다. 책보 대신에 약봉지 뭉텅이를 끼고 이틀이고 사흘 나흘이고 4원 돈을 채우러 나서야 한다. 한 봉지에 3전씩 남으니까 140봉지를 팔자면, 약을 사줄 듯한 사람만 적어도 1,400명을 만나야 한다. 서울이 넓다하나 새 얼굴만 1,400명은 하루 이틀에는 어려웠다.[42]

송빈이 약 행상으로 충분한 돈을 벌기란 쉽지 않았다. 30전짜리 한 봉을 팔아야 3전이 자기 몫으로 떨어졌고, 월사금 4원을 벌자면 한 달에 적어도 140봉은 팔아야 하였다. 그러나 약을 팔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졌다. 글에서도 묘사되었듯이 서울 시내에는 워낙에 많은 수의 고학생들이 약 행상에 나서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의 호응이 점차 줄어들었던 것이다. 송빈은 월사금을 낼 수 없어 교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행상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처럼 학업과 노동을 함께 하는 고학 생활은 날마다 돈에 쫓겨서 몸도 고달프고 마음도 서러운 일의 연속이었다.

그렇다면 1920년대 초 상경 고학생들에게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는 얼마였을까? 서울 유학생으로서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따라 비용은 다르기 마련이었다. 1920년에 나온 한 조사에서는 서울의 중등학교 유학을 위한 최소 비용으로 남학생은 22원 10전, 여학생은 16원 45전을 제시한 바 있다. 여학생의 경우, 쌀값, 교통비 등이 남자보다 덜 든다고 보았고, 세탁비와 피복비는 계산에 넣지 않은 수치였다. 취사나 세탁, 수선 등을 직접 할 수 있고 사회활동이 적다는 이유에서였다. 남학생의 경우, 월사금을 1원으로 잡고, 그 밖에 매월 쌀값 9원, 부식비 3원, 난방비 1원, 서적비 1.5원, 학용품비 1원, 세탁비 50전, 이발비 30전, 교통비 30전, 기타 1.5원 동·하절기 피복비 3원을 더하여 나온 액수였다. 공동 기숙생활을 기준으로 했으므로 하숙비 등 별도의 집세는 계산되지 않았다.[43] 한편, 1921년 봄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중등 정도의 경성 유학비로 매월 60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입학금 2원, 월사금 2원, 운동비 20전, 교과서 값 5.50원, 양

42 이태준·상허학회 편, 앞의 책, 2015, 143쪽.

43 〈中等學生의 生活費〉, 《학생계》, 1920년 9월, 75~79쪽.

복 값 9원, 모자 값 1.70원, 속옷 5원, 식비 15원, 책보 각반 값 1.20원, 책상 값 3원, 학용품 2원, 구두 13원 등을 합친 비용이었다. 입학 시 지출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매달 고정 비용은 22~23원 정도였다.[44] 중등학생의 1개월 최저 경비가 30원은 든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45] 전문학교는 이보다 약 10여 원 이상이 더 들었다. 즉, 서울에서 중등 또는 전문학교에 다니려면 매달 최소한 20원에서 많게는 60~70원 가까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 경제 악화의 여파가 조선에 미치며 물가가 오르고 학비도 점차 증가했다는 점이다. 수업료의 추이를 관립 고등보통학교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1914년에 월사금은 50전이었으나,[46] 1920년에는 1원으로 배나 올랐다.[47] 1922년에는 2원 50전으로 다시 올랐다.[48] 수업료는 여타 사립 고등보통학교도 비슷하거나 좀 더 높았다. 서울의 사립 고보들은 1921년 2원이었던 월사금을 1922년에 3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조선인 언론에서 큰 화제로 다루어졌다. 50%나 수업료가 인상된 데다가 입학금도 3원으로 인상하고 수험료도 부과하기로 하자 사회적 반발이 일어난 것이다. 학교 측에서는 향학열이 높아지고 학교 경비도 늘어나서 설립자에게 의존하는 학교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49] 더욱이 교과

44 〈校門에 入하는 費用〉, 《동아일보》 1921년 3월 8일.

45 〈中等學校月謝增額問題(6)〉, 《동아일보》 1922년 1월 12일.

46 〈新學期부터 月謝金〉, 《매일신보》 1914년 1월 15일; 〈官立學校授業料規則〉,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3월 13일, 부령 제17호.

47 〈各學校의 授業料도 倍額이 되엿다〉, 《매일신보》 1920년 4월 7일; 〈官立學校授業料規則中改正〉, 《조선총독부관보》 1920년 4월 1일, 부령 제51호.

48 〈學校授業料更定〉, 《매일신보》 1922년 3월 8일; 〈官立學校授業料規則中改正〉, 《조선총독부관보》, 1922년 3월 8일, 부령 제22호.

서도 전해에 비해 30% 인상된 10원이었으므로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50] 1923년 1월 현재, 서울 내 중등 정도 사립학교의 월사금은 최고 3원 50전에서 최하 2원 50전 정도였다.[51] 고학생들은 수업료 인상에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일부 사립강습소 등에서 고학생에게 학비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 고학생들은 늘어난 학비를 감당하느라 생활전선에서 고생해야 하였다.[52]

고학생들이 학비를 버는 방법은 낮에 일하고 밤에 야학을 다니거나, 또는 낮에 학교를 다니고 밤에 일하는 것이었다. 《사상의 월야》의 송빈이 휘문고보에 다닌 시절에는 후자의 경우였다. 송빈은 밤마다 약 행상에 나선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워낙에 많은 고학생들이 약 장사를 했기 때문에 벌이는 시원찮았다. 서울 시내에서 행상하는 고학생이 많아지자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도 점차 줄어들었다. 이처럼 고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은 행상이었다. 행상은 먹거리, 잡지, 편지 봉투 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약 행상과 함께 만주 행상이었다. 약 행상은 원래 고학생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나 경찰서에서 문제가 된

49 〈중등학교월사금증액문제(1)~(7)〉, 《동아일보》 1922년 1월 7일~13일. 1922년에 들어 월사금이 증가한 까닭에 대해 동아일보에서는 '중등학교 교사의 상품화'를 들기도 하였다. 〈제2차 조선교육령〉과 동시에 중학 교사의 자격을 지정한 후 교사의 부족이 생겨 일본에서 교사를 초빙하느라 과다한 금액이 들었기 때문에 학교 경상비가 부족해졌다는 것이다(〈月謝增加의 重大原因〉, 《동아일보》 1923년 1월 22일).

50 일본 교과서를 조선에 들어오면서 정가의 10%를 더 부과했으므로 더 비쌌다(〈入學費는 五割增加〉, 《동아일보》 1922년 3월 7일).

51 〈私立學校學生의 月謝金에 就하여〉, 《조선일보》 1923년 1월 13일.

52 한성강습원, 정칙강습원 등 일부 강습원에서는 고학생에게 학비를 면제하였다(〈漢城講習院改設〉, 《동아일보》 1921년 3월 8일; 〈學費免除講習〉, 《동아일보》 1922년 9월 7일). 또한 1923년에 설립된 경성고학당도 무료로 고학생에게 공부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게 되었다.[53]

만주 행상은 고학생 상조단체인 '고학생 갈돕회'(이하 '갈돕회')에 소속된 고학생들이 이른바 '갈돕 만주'를 팔면서 유명해졌다. 갈돕회는 1920년 결성된 고학생 상조단체로, 경성부 관철동에 사무소를 두었으며 고학생 합숙소를 마련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갈돕 만주 판매를 지원했다. 갈돕 만주는 속에 팥을 넣은 찐빵 겉면에 손을 맞잡은 모양의 갈돕회 낙인을 찍은 것이 특징이었다.[54] 보통 시중의 만주와 달리 팥 껍질을 버리고 정제한 속을 넣었으며 일본인들이 파는 만주보다 3~4배나 컸다고 한다.[55] 만주와 경쟁 관계에 있던 중국인의 호떡과 비교하면 크기는 작으나 호떡처럼 소다를 넣어 부풀린 것이 아니고 정제한 팥 속에 설탕을 넣었다고 하여, 갈돕회는 만주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56]

추운 겨울밤 만주통을 메고 시내 골목을 돌아다니며 처량한 목소리로 "갈돕 만주 호야호야(따끈따끈)"를 외치는 광경은 고학생의 이미지로 굳어졌다. 이 모습은 당시 조선인 신문과 잡지들에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

> ○ 엄동설한 삼경야에 주린 배를 움켜쥐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아무쪼록 널리 음성이 퍼져 누가 만주를 찾는가 하고 한편으로는 귀를 기울이며 "갈돕 만주요 호야호야-"하며 쇠약한 어깨를 기울여 짊어진

53 〈淚裡螢雪 一千名의 苦學生〉, 《동아일보》 1922년 10월 24일.

54 〈民間事業의 創始 當時 로맨쓰, 當任햇든 이의 回想談〉, 《별건곤》 29, 1930년 6월, 74쪽.

55 〈갈돕만주노호야호, 고생으로 공부하는 고학생 요사히 지내는 모양은 여하〉, 《매일신보》 1922년 11월 17일.

56 〈淚裡螢雪 一千名의 苦學生〉, 《동아일보》 1922년 10월 24일.

만주 궤짝을 그○부○는데 유○한 학자로 삼아 경성 시가를 방방곡곡이 방황하고 다니는 그 처량한 소리가 야반의 적막을 깨트리며 사람의 귀를 부딪칠 때에 이 소리를 들은 이는 누구나 다 인상이 아니 깊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경성 시내 각 학교에서 형설의 공을 닦고 있는 고학생들이다. 이 학생들은 어찌하여 운명의 저주를 받고 불행한 핍박을 면치 못하게 되었던지 남과 같이 부모 형제 혹은 친척 고구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로이 쓰린 눈물을 머금으며 어찌하여 이 사회에서 설까하는 욕망과 또는 사회에 공헌을 하려는 포부를 가짐이야말로 그 정성을 살필 때에 측은함을 어느 누가 느끼지 아니하며 동정을 아니 하오리오.[57]

○ 요사이 같은 서리 찬 눈바람에 주린 창자를 움켜쥐고 배고픈 목소리로 힘을 다하여 "만주노 호야호야"하고 서울 네거리를 밤 열두시까지 돌아다니실 때 춥기는 오죽 추우며 가슴은 오죽 아프리오. 그나마 누가 잘 사면 파는 재미로도 하지만은 아이고 못해먹겠다고 낙망한 일도 많았으리다.[58]

○ 원수의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공부도 남과 같이 편안히 앉아 못하고 기나긴 겨울밤에 차디찬 눈바람을 무릅쓰고 어린 몸에 만주통을 둘러멘채로 億萬長安에 아는 곳도 없이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드나들며 '갈돕 만주나 호야-'를 목이 쉬도록 불러 겨우 만주 몇 개를 팔아 돈푼이나 사면 그것으로 그날그날 학비를 보태 쓰며 얼음장같이 찬 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57 〈雪寒風夜에 彷徨하는 苦學生의 情景〉, 《조선일보》 1920년 12월 15일. 이하 신문기사의 직접 인용은 필자가 현대 표기법으로 옮긴 것이다.

58 〈갈돕회 苦學生諸兄〉, 《조선일보》 1921년 2월 5일.

꽁꽁 얼어드는 주먹을 불어가며 공부를 하는 고학생들의 최근 정경이 어떠한지![59]

인용문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듯이 여러 매체에 고학생은 겨울밤 추위에 떨며 만주를 팔러 다니는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다. 고학생의 이미지가 겨울과 연결된 것은 만주를 주로 겨울에 판매했기 때문이었다. 겨울밤 만주 파는 고학생이라는 스테레오 타입은 고학생의 애달픈 처지를 더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고학생들은 만주 1개에 5전씩 팔면 그중 1~1.5전의 몫을 받고 하룻밤 평균 30~40개 정도 판매하여 월사금과 숙박비를 겨우 낼 정도의 액수를 벌었다.[60] 그나마도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루에 한 개도 못 팔고 이튿날 밥을 굶는 일도 비일비재하였다.

갈돕회 기숙사에 소속된 고학생들은 밥 표를 사서 하루에 아침과 저녁 두 끼를 먹을 수 있었다. 6전씩 하는 밥 표를 사면 거칠한 조밥과 멀건 배추된장국 한 그릇이 제공되었다. 식비는 매일 12전, 한 달에 최소 3원 60전은 필요하였다. 전날 저녁에 미리 다음날 밥 표를 구매해야 했지만 충분한 벌이를 하지 못하면 밥 표 살 돈조차 없어서 굶는 이들도 있었다. 소설 속의 송빈처럼 월사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월사금을 못내고 1~2개월 정학을 당하다가 더 길어지면 아예 갈돕회 기숙사를 나가야 하였다.[61] 갈돕 만주는 1920~1921년 무렵에 조선인 사회에 널

59 〈門牌의 來歷談(10) 七顚八起七年間에 내 來歷은 血, 淚, 汗〉, 《동아일보》 1926년 1월 13일.

60 〈饅頭를 行賣하는 苦學生의 情景〉, 《조선일보》 1921년 1월 20일; 〈苦學生을 위하야 社會에 다시 告하노라〉, 《동아일보》 1921년 12월 7일.

61 〈淚裡螢雪 一千名의 苦學生〉, 《동아일보》 1922년 10월 24일; 〈갈돕만주노호야호, 고생으로 공부하는 고학생 요사히 지내는 모양은 어하〉, 《매일신보》 1922년 11월 17일.



〈그림 2〉 현미빵 행상
출처: 《매일신보》 1923년 2월 4일.



〈그림 3〉 고학생으로 변장한 기자
출처: 《조선일보》 1924년 10월 13일.

리 알려지면서 상당한 매상을 올렸다. 그러나 그 인기는 몇 년을 가지 못하고 호떡 장사에 밀렸다.[62]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만주 외에 현미빵(겐마이빵)과 러시아빵 등이 유행함에 따라 다양한 행상이 생겨났다.

〈그림2〉와 〈그림3〉의 사진은 행상하는 고학생의 전형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림 2〉에는 "호야호야노 겐마이빵"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갈돕 만주를 팔 때의 구호와 거의 비슷하다. 〈그림 3〉은 《조선일보》 기자가 르포 기사를 쓰기 위해 러시아빵 행상 고학생으로 변장한 모습으로, 당시 고학생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갈돕 만주를 파는 고학생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밖에도 고학생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 신문 배달, 우유 배달, 고구마 장사, 공장 직공, 상점 직원, 세탁소 외무원, 인력거꾼, 야경꾼, 경

62 〈갈돕만두사오〉, 《조선일보》 1923년 11월 9일.

호원 등 공부와 병행할 수 있는 직업은 모두 망라하였다.[63] 그런데 경성의 학전문학교에 다니던 한 고학생은 인력거를 끌고자 종로서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서장이 학교의 체면을 들어 불허한 일도 있었다.[64] 전문학교에 다니는 엘리트는 사회적 위신 때문에 육체노동에 나서기도 쉽지 않았다. 한편 여자고학생들은 잡지, 편지지, 껌 등을 행상하기도 했지만 주로 와이셔츠, 아동복, 목도리나 장갑 등을 만들거나 수를 놓아 판매하는 등 재봉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65]

고학생들은 일하다가 곤란을 겪는 일도 허다하였다. 만주나 약을 파는 고학생들이 문전박대 당하기는 일쑤였다.[66] 거리에서 행상하는 고학생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뜸해져갔다. 직업을 구해주겠다거나 미국 유학을 시켜준다는 말에 돈을 사기당하기도 했고,[67] 형사라는 속임수에 만주를 주고 돈을 떼이는 일도 있었으며,[68]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하였다.[69] 상경 고학에 대한 부모의 반대나 생활

63 〈苦學生에게 同情 긔부금이 계속〉, 《조선일보》 1920년 6월 29일; 〈아-父兄에게 告하노라 去處업는 學童을 爲하야〉, 《동아일보》 1921년 3월 30일; 〈'치움'과 '눈물'과 '피'의 結晶인 拾圓의 學資〉, 《조선일보》 1921년 12월 14일; 〈내 肉身은 죽드래도 靈魂만은 新幹會를 간직하겟다〉, 《조선일보》 1929년 8월 26일; 〈딱딱이 十二週年〉, 《조선중앙일보》 1934년 12월 12일; 〈一瞥〉, 《개벽》 37, 1923년 7월, 74쪽.

64 〈苦學生이 人力車 끌려다가〉, 《동아일보》 1924년 5월 9일.

65 〈悲境에 陷한 女苦學生〉, 《조선일보》 1923년 6월 1일; 〈겨울밤의 녀자 고학생(1) 언손을 혹혹 불며 공부여가에 로동〉, 《조선일보》 1924년 12월 20일.

66 春坡(박달성), 〈對話, 苦學의 路〉, 《개벽》 18, 1921년 12월, 91~92쪽.

67 〈苦學生을 詐欺〉, 《동아일보》 1921년 4월 3일; 〈苦學生을 詐欺한 者〉, 《동아일보》 1922년 6월 14일.

68 〈饅頭桶의 哀話〉, 《동아일보》 1921년 12월 24일.

69 〈京城市內 强盜頻頻〉, 《조선일보》 1922년 12월 12일; 〈慘殺된 苦學生 金聖淵의 일생(1)〉, 《동아일보》 1925년 12월 11일.



〈그림 4〉 갈돕 만주 등 행상을 하던 고학생들이 주로 다녔던 종로 네거리의 사진
출처: 《매일신보》 1919년 2월 1일.



〈그림 5〉 여자고학생들이 모여서 바느질하는 모습
출처: 《조선일보》 1924년 12월 20일.



〈그림 6〉 일본에 유학한 고학생이 인력거를 끄는 모습
출처: 《조선일보》 1923년 7월 14일.

고로 인해 자살한 경우도 있었다.[70] 서울의 고학생은 일본 동경의 고학생

70 〈頑固한 父兄을 下直하고〉, 《동아일보》 1921년 5월 6일; 〈學費업는 學生 汽車自殺未遂〉, 《조선일보》 1928년 9월 30일.

보다 더 열악한 처지로 여겨졌다.[71] 이러한 고학생의 비극은 종종 신문 지상에 실려 사회의 동정을 샀다.

2) 고학생 단체와 사회활동

(1) 고학생 단체의 설립

1920년대 초부터 고학생에 대한 사회적 동정 여론이 크게 일어났다. 여러 신문과 잡지에서는 연일 고학생에 대한 기사와 사설을 실어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특히 자산가들의 적극적 후원을 주장하였다.

> 조선 형제는 마땅히 사람의 가치를 깨달으며 그 생명의 중한 所以를 밝혀 금전을 이를 위하여 사용하며 사회의 제도를 이를 위하여 개조하라 함이며 특히 인생의 발달을 기하는 교육을 각 개인이 사회의 분자로서 필히 스스로 부담하라 하는 것이니 이러한 정의와 사랑이 없이 인도의 큰 깨달음이 없이 특출한 광명이 없이 어찌 우리 조선 사회의 흥왕을 바랄 수 있으리오 (중략) 이제 고학생을 보라. 매일 경성에 쇄도하는 고학생을 보라. 동경에 유리하는 고학생을 보라. 그 얼굴에는 强壯한 빛이 있고 그 체격에는 늠름한 기풍이 있고 그 가슴에는 이상의 불이 붙고 그 손에는 장래의 풍운을 불활기를 장악하였도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오직 학자가 부족하여서 도로에 방황하며 寒月에 울며 부르짖도다. 돈 있는 자만 공부하는 이 세상이며 부유한 자만 활보하는 이 사회이뇨 (중략) 오호라 조선 형제여, 이들 好漢의 생장 발달이 어찌 그들에게만 유익하며 그들의 교육 수업이 어찌 그들에게만 책임이 될 바이리오. 그들이 또한 우리의 형제이며 부형의 자제로다. 이

71 〈橫說竪說〉, 《동아일보》 1922년 11월 21일.

> 를 위하여 아름다운 천부의 인성을 위하여 황금을 투자함이 가하니 황금이 어찌 스스로 귀하며 중한 것이리오. 신성한 목적을 위하여 공헌함에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것이로다.[72]

이 사설에서는 돈보다 사람이 중한 '정의, 사랑, 인도'의 정신 아래 조선 사회의 발전을 위해 교육에 투자하라고 설파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에 쇄도하고 있던 고학생에 대해 후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1920년대 초부터 여러 고학생 단체가 조직되었다. 여기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 초 세계를 휩쓴 개조의 열풍과 함께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사회진화론을 대신하는 새로운 사회적 원리로 제시된 상호부조론은 아나키즘을 토대로 개조의 가능성을 제시한 이론이었다. 더욱이 동아시아 아나키즘 운동에서는 이상적 사회 건설을 위해 교육과 노동을 강조하여 "일하며 공부한다"는 크로포트킨의 철학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조선에서도 고학생에 대한 자선 담론으로 구체화되었다.[73] 고학생 단체가 설립되면서 고학생들은 상부상조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이들에게 후원하는 인사들은 조선인 사회를 위한 문화운동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여러 고학생 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가장 잘 알려진 단체는 1920년 설립된 고학생 갈돕회로, 이상재·장응진·김명식·장덕수 등 지도적 인사들이 창립에 관계하면서 조직되었다.[74] 갈돕회의 갈돕은 '서로(갈) 돕는다(돕)'는 뜻을 가진 우리말 조어로서 상호부조

72 〈苦學生을 爲하야〉, 《동아일보》 1921년 4월 2일.

73 소영현, 〈아나키즘과 1920년대 문화지리학〉, 《현대문학의 연구》 36, 2008, 10쪽.

74 갈돕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한규무, 앞의 글, 2012를 참조할 것.

와 자조를 내세운 갈돕회의 정신을 표방한 명칭이었다.[75] 《사상의 월야》에는 송빈이 휘문고보에 다닐 당시인 1921년에 갈돕회 회원이 약 100여 명이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무렵 기사에 따르면 16세에서 26세까지 청년 150명이 소속되어 있었다.[76] 더 많게는 400여 명에서 1,000명 이상이라는 추산도 있어 정확한 수치는 알기 어려우나[77] 서울의 고학생 상당수가 소속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소속 고학생들은 행상 외에도 후원을 유치하기 위해 연극 공연에 나서기도 하였다. 갈돕회 연극은 고학생 또는 하층민의 비극을 다룬 내용이 많았으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각지로 순회공연을 다녀 조선인 사회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한동안은 상당한 수입을 거두기도 하였다.[78]

1921년 4월에는 윤익선·오지영 등 유지들이 참여하여 고학생구제회가 창립되었다.[79] 고학생구제회는 갈돕회와 비슷하게 고학생에게 합숙소를 제공하고 후원하는 업무를 하였다. 두 단체는 사업이 중첩되었기 때문에 한동안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80] 고학생구제회는 고학생 자립을 목표로 공장을 만들고자 기부금을 모집하려 했으나 당국의 불허로 실패한데다, 고학생 측과 간부 측의 충돌로 인해 결국 1922년에 해산하였다.[81]

75 權悳奎, 〈갈돕會로 갈돕까지〉, 《갈돕》 창간호, 1922년 8월, 8~10쪽.

76 〈饅頭를 行賣하는 苦學生의 情景〉, 《조선일보》 1921년 1월 20일.

77 한규무, 앞의 글, 2012, 217쪽.

78 〈淚裡螢雪 一千名의 苦學生〉, 《동아일보》 1922년 10월 24일; 한규무, 앞의 글, 2012, 236쪽.

79 〈苦學生救濟會〉, 《조선일보》 1921년 4월 26일.

80 〈苦學生救濟會〉, 《조선일보》 1921년 7월 20일; 〈苦學生救濟會와 同갈돕會〉, 《조선일보》 1921년 7월 25일.

81 〈苦學生救濟會의 解散〉, 《조선일보》 1922년 12월 16일.

1921년에는 반도고학생친목회도 창립되었는데, 이 단체는 전국 순회 강연을 주로 하면서 교육의 필요와 고학생 후원을 주장하였다.[82] 회원은 약 200명에 달했다고 하며, 그중 병이 난 고학생을 병원에 보내 치료해주기도 하였다.[83] 그 밖에 조선교육협회에서도 회관 내에 고학생 숙소를 마련하여 60~100명을 기거하도록 하고 일부에게는 쌀을 보조하거나 편지지 등 행상 판매를 주선하기도 하였다. 갈돕회의 활동이 주춤해진 1920년대 중반에는 '제2의 갈돕회'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고학생들이 몰렸다고 한다.[84]

1922년에는 조선여자고학생상조회가 설립되었다. 정종명·김영준 등 여성운동가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이 상조회는 셋집을 마련하고 20명 가량의 여자고학생을 수용하였다. 초창기에는 후원이 많았지만 1923년 무렵부터는 찬조가 줄어 곤란을 겪었다. 이에 순회강연단을 조직하여 전국을 돌기도 하였다.[85] 이후 활동이 주춤했으나 1932년 신문기사에 신설동에 여자고학생상조회 회관을 신축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명맥이 유지되었던 듯하다.[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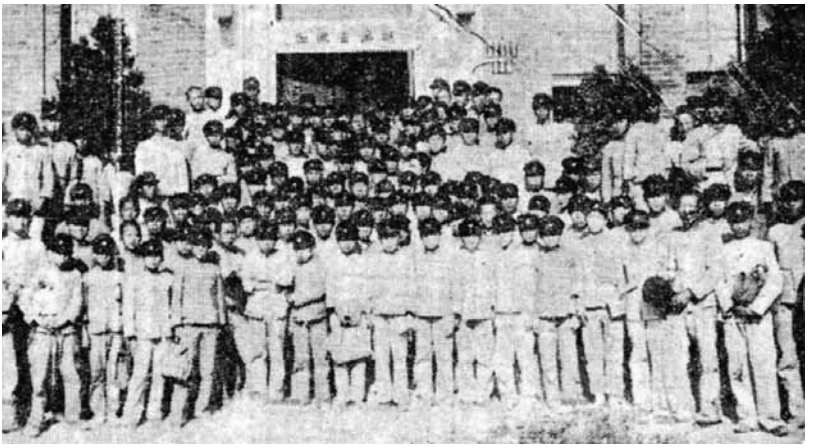
82 반도고학생친목회는 상공진흥회 소속의 유지들이 결성했으며, 고학생 친목 단체를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태평양회의를 앞두고 임시정부 활동을 원조하기 위한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박성순, 〈1920년대 초반 반도고학생친목회 연구〉, 《숭실사학》 41, 2018을 참조할 것.

83 〈때의 소리〉, 《동아일보》 1921년 10월 12일.

84 〈教育會의 新事業〉, 《동아일보》 1921년 11월 22일; 〈苦學生의 新職業〉, 《동아일보》 1922년 4월 5일; 尖口生, 〈까마구의 雌雄〉, 《개벽》 34, 1923년 4월, 52쪽.

85 〈女子苦學生의 상조회가 생기어 금일에 창립총회〉, 《동아일보》 1922년 4월 1일; 〈女子苦學生相助會發會式〉, 《동아일보》 1922년 6월 24일; 〈悲境에 陷한 女苦學生〉, 《조선일보》 1923년 6월 1일; 〈女子苦學生巡講來金〉, 《동아일보》 1923년 7월 30일.

86 〈蘇生한 女子苦學生相助會〉, 《매일신보》 1932년 12월 12일.



〈그림 7〉 경성고학당 1~2학년 학생들이 조선일보사를 견학 방문한 모습
출처: 《조선일보》 1930년 6월 5일.

고학생 상조 또는 후원 단체를 넘어 1923년에는 경성고학당이라는 고학생 학교가 창설되었다. 경성공업전문학교 출신으로 3·1운동에 참여하며 교육운동에 관심을 가진 이준열의 주도로 설립된 고학당은 '무산자 중등학교'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고학생 단체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87] 중학 5년 정도의 수준으로 우선 남자 고학생 100명을 수용하고 자체적으로 산업부를 부설하여 노동을 병행할 계획을 세웠다.[88] 처음에는 현미빵, 만주, 호떡을 만들어 팔다가 1924년 말에는 서울고무공장을 설치하여 고학생들에게 일터를 마련해주기도 하였다.[89] 고학당은 고학생을 대상으로 설치된 중등 정도의 교육기관으로서 학업과 노동을 병행할 수 있

87 남신동, 앞의 글, 2011, 130~131쪽.

88 〈苦學堂의 設立計畫에 對하야〉, 《조선일보》 1923년 3월 23일.

89 〈苦學堂 職員의 熱情과 誠意〉, 《조선일보》 1923년 12월 11일; 〈苦學堂의 喜運 學生作業工場新設〉, 《매일신보》 1924년 12월 28일.

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고학생의 내면세계와 사회활동

고학생들은 일반 학생과 같으면서도 다른 존재였다. 학업을 통해 성공을 꿈꾼다는 점에서는 일반 학생과 같았으나 스스로 노동을 통해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노동자에 가까운 존재였다. 사회적으로 이들은 노동자의 처지였지만 노동자는 아니었다. 거처가 없는 고학생들이 머물기도 했던 화광원 노동자 숙박소에서 고학생은 노동자가 아니라며 숙박을 거절한 일도 있었다.[90] 학생이면서 노동자로서 고학생은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해갔다.

고학생의 정체성 기저에는 성공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있었다. 전술했듯이 이미 1910년대 이래 입신출세와 자립적 성공은 조선인 사회에서 크게 칭송받아 왔다. 성공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고 사회적 또는 개인적 의미에서도 다양하겠으나, 고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성공을 꿈꾸고 상경하여 힘겨운 고학 생활을 이어갔다. 성공은 1920년대 고학의 동기를 대변하는 사회적 통용어였다.[91] 하지만 고학생 중 성공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학생의 성공은 미담으로 언론에 자주 실렸다. 당시 언론에서 고학생의 성공을 기사화할 때 두드러지는 특징은 의사, 법조인, 사업가 등 신흥 부르주아 계층에 진입한 사람들의 성공 미담을 주로 다루었다는 점이다.[92]

90 〈苦學生界에 一條의 光明〉, 《동아일보》 1921년 3월 20일.

91 남신동, 앞의 글, 2011, 119쪽.

92 〈辯護士合格者 朝鮮人이 四名〉, 《동아일보》 1922년 9월 27일; 〈新辯護士李氏〉, 《조선일보》 1925년 3월 15일; 〈逆境에서 順境으로 社會各階級의 實地體驗談(1)~(6)〉, 《동아일

성공에 대한 갈망은 고학생의 상경을 추동한 강력한 동기였다. 《사상의 월야》에서 송빈은 성공하여 돈과 명예를 얻고 세상에 복수하려는 욕망에 이끌려 지식과 권력의 중심지로 향한다.[93] 그가 용담에서 서울로 간 것은 지리적 이동일 뿐 아니라 사회적 이동에 대한 욕망의 발로였다. 사회적 이동은 근대적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지리적 이동과 연동된다. 송빈은 공간의 이동을 통해 성장하면서 점점 더 문명의 중심부로 나아간다.

소설 속에는 송빈이 가난하다고 무시를 당하거나 서러운 일을 겪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온다. 그럴 때마다 송빈은 "복수허자! 돈으로! 명예로!"라며 적개심과 복수심을 불태운다.[94] 성공은 곧 복수를 의미하였다. 문제는 어떤 성공인가였다. 그런데 송빈은 '돈으로, 명예로' 복수를 다짐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의 행보는 돈만을 향해 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입체적이다. 그의 내면에는 세속적 성공에 대한 욕망과 함께 학생이자 노동자로서 정체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송빈으로 상징되는 고학생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학생으로서 고학생들은 지식계급의 일원으로서 민족과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학생은 소수의 선택받은 자로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여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과 사회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사회적 공헌의 일환으로 상경 학생들은 방학 때마다 고향으로 돌아가 농촌활동에 참여

보》 1927년 1월 6일~12일; 〈極貧家庭에 태어나 成家致産十萬圓 事業成功者紹介(5)〉, 《동아일보》 1927년 1월 29일; 〈堅固한 意志 苦學으로 成功〉, 《조선일보》 1930년 12월 17일; 〈南兒立志出鄕關 刻苦工夫十年間〉, 《조선일보》 1931년 7월 31일; 〈苦學生으로 醫師試驗合格〉, 《조선일보》 1932년 5월 28일.

93 정종현, 앞의 글, 2000, 272쪽.

94 이태준·상허학회 편, 앞의 책, 2015, 110쪽.

하였다. 소설 속에서 송빈도 휘문고보에 다닐 때 유학생회에 소속되어 여름방학에 고향 철원으로 가서 지역 청년회와 협력하여 순회 강연회와 정구, 축구대회 개최에 힘을 보탠다.[95]

학생의 사회 참여는 종종 집단적 세력화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3·1운동은 학생의 사회적 힘을 드러낸 일대 사건이었으며, 그 후 1920년대부터 학생들은 각종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어 갔다.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는 부조리에 대항하여 동맹휴학을 일으켰다.[96] 《사상의 월야》에서 송빈은 휘문고보 시절 학교측의 불합리한 처사에 반항하여 동맹휴학을 주도한다. 교주에게 과도한 충성을 요구하는 교장·교사 및 학교의 비리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던 중, 교주의 손자에 대한 특별대우에 분노하여 그와 싸우고 정학을 당한 일이 계기였다. 그는 동료 학생들과 함께 동맹휴학을 주도한 결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그런데 고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학생의 사회 참여 의식이 계급의식과 결합되기 쉬웠다. 고학생들의 노동자로서 계급의식의 성장은 집단적인 '무산자 의식'으로 내면화되었다. 고학생 단체는 점차 무산계급으로서 자의식을 뚜렷이 드러내게 되었다. 애초에 무산계급의 학교를 자처한 경성고학당뿐 아니라 갈돕회도 마찬가지였다. 1922년에 발간된 잡지 《갈돕》 창간호의 발간사에서는 "빈고貧苦와 허무虛無로써 생활生活의 정경情景을 증證하는 우리 무산자無産者"라고 하여 고학생의 정체성을 무산자에 두었

95 이태준·상허학회 편, 앞의 책, 2015, 163쪽.

96 1920년대 중등학생의 동맹휴학(맹휴)의 상당수는 교사·교장 배척을 요구하는 것으로, 1920년부터 1931년까지 185건이 집계되었다. 학교 종류별로 보면 관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서, 그리고 실업계보다 인문계에서 교사·교장 배척 맹휴가 더 많이 일어났다(정연태,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 푸른역사, 2021, 188~193쪽).

다.[97] 무산자 의식은 고학생들이 공유한 사회적 정체감이었다. 이들은 주관적으로는 지식 계층을 지향하면서도 사회경제적 존재양태로는 대도시의 극빈층이라는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98]

고학생 단체가 무산자 의식에 기반한 하나의 세력 집단으로 성장하면서 유지 등 기성세대와 충돌을 빚는 일도 생겨났다. 고학생구제회의 해산 원인 중 하나는 보관금 문제를 둘러싸고 고학생들이 간부에게 항의하면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었다. 또한 1923년에 경성의 명사들이 창설한 고학생구제방법연구회의 강연회에는 고학생들이 난입하여 "우리는 무산자라 유산자가 돈을 내면 우리는 감사히 받고 우리의 마음대로 쓸 뿐이지 그 사용법을 연구한다는 것은 무슨 어리석은 수작이냐"하고 크게 반발한 사건도 있었다.[99]

고학생 단체와 기성세대의 충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은 '국일관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는 당시 가장 대표적 고학생 단체였던 갈돕회가 연관되어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1923년 1월 4일, 경성 유지 70여 명이 간친회를 열고 있던 요리집 국일관에 갈돕회 고학생들이 들어가 과격한 언행을 하다가 체포·구금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고학생들은 간친회에 모인 인사들에게, 추운 날에 밥도 먹지 못하여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데 요리집에 모였다고 비난하고, "이 중에는 교육가라 자칭하고 어려운 학생의 피를 빨아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자"가 있다고 힐난하였다. 또 간친회를 하려면 '음탕한 요리집'이 아닌 "공회당, 청년회관 같이 신성한 좌석"에서 하라고 일갈하였다. 큰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되었으나 경

97 〈갈돕 會報의 發刊에〉, 《갈돕》 창간호, 1922년 1월, 2쪽.

98 남신동, 앞의 글, 2011, 128쪽.

99 〈苦學生救濟方法硏究會 講演會의 風波〉, 《동아일보》 1923년 1월 28일.

찰은 이 사건을 "조선 고학생들이 위험 사상을 품어"서 일으킨 "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 문제"라고 하면서 확대 조사하고 관련자 및 전·현직 회장 10여 명을 체포하고 회원 명부와 장부 등을 압수하였다.[100] 그리고 이 사건을 빌미로 각 경찰서에서는 불량 학생 명부를 만들어 풍기 단속을 강화하였다.[101]

사실 고학생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고학생 단체가 생겨났을 무렵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1921년 11월에 종로서는 고학생들이 갈돕 만주를 파는 만주통에 불온 문서를 가지고 다니며 배부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들을 모두 조사한 일이 있었다.[102] 혐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이 불온사상의 온상으로 고학생을 주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국은 학생 사상 악화의 원인으로 경제 상황 악화를 손꼽았던 만큼, 어려운 경제적 처지에 놓인 고학생은 요주의 대상이었다. 고학생과 불온사상의 강력한 연결은 1920년대 중반 이후 경성고학당의 교사와 학생들이 "무산자 운동의 엄정확립"의 취지로 비밀조직을 결성하고 사회주의 운동에 나섰던 데서 엿볼 수 있다. 고학당은 교사와 학생들의 연이은 체포 등으로 인해 1931년에 당국의 명령으로 폐교되었다.[103]

고학생들이 무산자 의식을 드러내고 사회 활동을 이어가자 당국과

100 〈懇親會에 一風波〉, 《동아일보》 1923년 1월 6일; 〈聯合懇親會席의 風波〉, 《조선일보》 1923년 1월 6일; 〈苦學生六名〉, 《동아일보》 1923년 1월 7일; 〈五名의 苦學生 鐘路署에서 引致〉, 《조선일보》 1923년 1월 7일; 〈金樂善君도 拘禁〉, 《조선일보》 1923년 1월 7일; 〈四人을 又引致〉, 《동아일보》 1923년 1월 8일.

101 〈휴지통〉, 《동아일보》 1923년 1월 9일; 〈學生을 取締〉, 《조선일보》 1923년 1월 9일.

102 〈만주桶에 不穩文書〉, 《동아일보》 1921년 11월 22일.

103 경성고학당의 구체적인 조직과 사회주의 운동 참여에 대해서는 남신동, 앞의 글, 2011을 참조할 것.

언론이 고학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점차 변해 갔다. 기성세대는 고학생들이 자강자결自强自決의 기풍을 가지고 도덕적 생활을 하여 고학생을 후원하는 사회의 동정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조언했는데,[104] 이는 고학생의 사회 활동에 대한 우려이자 경고였다. 점차 고학생에 대한 후원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불온사상의 담지자로 보는 시선도 생겨나고 있었다. 고학 성공의 미담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더 이상 상경 고학은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상경 고학을 위해 도회로 가는 것은 "현대 우리 소년과 청년계의 통유병通有病"으로 "실지를 떠난 교육"이자 "허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나타났다.[105] 서울 고학은 절망 상태이니 차라리 일본으로 가서 고학하라는 권고도 있었으며,[106] 심지어 1930년대에는 서울 및 동경 고학에 대해 모두 비관적으로 언급하였다. 당시《동아일보》,《조선일보》등에 실린 독자 상담 코너에서는 서울 또는 동경 고학의 가능성을 묻는 독자의 질문에 "매우 어렵다"거나 "전연 불가능"이라고 대답하였다.[107]

이와 같이 상경 고학에 대한 인식이 점차 부정적이 되어 간 데에는 경제상황 및 교육정책의 변화와 함께 학생 또는 지식계급에 대한 세간의 인식 변화도 한 몫을 하였다. 1920년대 후반부터 조선총독부는 인문계 중심의 교육을 비판하며 실업·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근로주의 교육방침

104 李敦化,〈最近 社會의 新現狀을 보고 道德心의 樹立을 切望함〉,《개벽》14, 1921년 8월, 9~10쪽.

105 〈虛榮의 弊害(下)〉,《조선일보》1924년 8월 6일.

106 〈學務局의 方針과 日本留學〉,《동아일보》1926년 7월 17일.

107 〈서울서 고학이 되겟습니까〉,《조선일보》1934년 7월 26일; 〈東亞살롱〉,《동아일보》1935년 7월 7일; 〈현직을 버리고 문학을 공부하고 십소〉,《조선일보》1935년 9월 22일; 〈고학할 수 잇슬까요〉,《조선일보》1935년 9월 26일; 〈응접실〉,《동아일보》1936년 4월 16일; 〈응접실〉,《동아일보》1936년 7월 1일.

을 도입하였다. 실용적 교육이 강조되면서 상경 고학은 비실용적이고 허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1920년대 중반 이후 고학력자의 취업난이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학생과 지식계급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나타나고 있었다. 1930년대에 유행했던 '창백한 인텔리'라는 표현에는 지식계급에 대한 세간의 조소가 담겨 있었다.[108] 교육, 특히 인문계 교육은 더 이상 성공적 취업을 보장해주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학생이 노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성공하기란 점점 어려운 일이 되어 갔다.

(3) 또 다른 상경

서울 생활에 적응한 송빈은 이곳도 문명의 중심지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109] 그는 휘문고보에서 부조리에 맞닥뜨리면서 교육공간과 서울에 회의를 느낀다. "서울에 와 있는 몇만 명 학생이 죄다 그래 취직이 목표란 말이냐? 그렇다면 난 오히려 반동하고 싶다!"고 하면서 "비실제 인물"이 되겠다고 말한다.[110] 비실제성은 개인보다는 사회와 민족을 위하는 삶이며 물질보다 정신의 가치를 옹호하는 삶이다.[111] 이는 학교 도서관에서 문학의 세계를 발견하면서 새롭게 설정한 송빈의 목표가 된다. 그가 맹휴의 주도자가 되었던 것도 이러한 비실제성에 대한 추구와 연동된다. 퇴학 위기에 처한 송빈은 더 넓은 세상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동경을 다음 행선지로 정한다.

108 〈知識階級의 本質 中央公論四月號社說(上)〉, 《동아일보》 1936년 4월 9일. '창백한 지식인(青白き知識人)'은 일본에서 1930년대에 유행하던 용어로 조선에서도 자주 사용되었다.

109 권은, 앞의 글, 2015, 280~282쪽.

110 이태준·상허학회 편, 앞의 책, 2015, 218~219쪽.

111 박헌호, 앞의 책, 1999, 249쪽.

> 송빈이는 전에 서울 청년회관에서 여름마다 동경 유학생들의 강연과 음악을 듣던 생각이 났다. 그들이 모두 이 배를 타고 이 현해탄을 건너다녔거나! 그들에게 몸매 나는 검은 세루의 대학 교복을 주고, 그들에게 시대를 투시하는 날카로운 눈과 정열에 찬 주먹으로 연단을 치는 사상을 주는 데가 동경이거니 생각하니, 송빈이는 미국보다도 우선 동경이, 태평양보다도 우선 이 현해탄을 건너는 것만도 여간 큰 감격이 아니다.[112]

송빈에게 동경 유학생은 동경의 대상이었다. 상경 행위에 초점을 두고 송빈과 같은 고학생의 내면세계를 파악하자면 그들의 시선이 서울 저너머 동경에까지 닿을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를 추동한 상경의 욕구는 문명의 중심지이자 제국의 수도인 동경으로 그를 이끈다. 송빈의 동경행은 '또 다른 상경'인 셈이었다.

그런데 송빈의 동경행은 식민지 현실에 대한 인식과 연동되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동경 유학은 조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까지 의미가 확장된다. 이는 용담에서 서울로 향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 지점이다. 상경의 동기에 대하여 서울행이 개인적 성공의 욕망으로 설명되었다면, 동경행은 민족적 성공을 위한 계몽 의지로 포장된다. "길하나 도랑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사는" 동네와 "방엔 벼룩 빈대가 끓고 부엌엔 파리가 끓고 변소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하고 미신만 들어찬 가정"을 구해야한다는 결심이 동경행에 정당성을 부여한다.[113] 개인적 또는 민족적 성공에 대한 욕구는 송빈이 문학의 세계에서 발견한 비실제성과 결

112 이태준·상허학회 편, 앞의 책, 2015, 239쪽.
113 이태준·상허학회 편, 앞의 책, 2015, 233쪽.

합하여 복잡한 층위를 드러낸다.

《사상의 월야》에서 동경 유학을 전후한 내용은 판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114] 두 판본 모두 송빈이 일본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개화파 지식인이었던 아버지도 현해탄을 건넜음을 떠올리고 감격하는 장면은 같다. 광복 후인 1946년 출판된 단행본에서 그의 동경행은 "일본에 협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앞으로 일본과 투쟁하여 조선을 찾을 그런 준비로 학문과 사상을 배우러 가는 진정한 애국청년들"의 행로로 설명되며, 현해탄 장면에서 소설이 끝난다.[115] 그러나 1941년 《매일신보》 연재분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대신에 조선의 현실에 대한 개탄과 문명을 향한 찬사가 두드러진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조선옷을 보고 현대인의 옷일 수가 없다고 민망해하며, 동경행 기차에서 만난 거칠고 무식한 조선인 노파를 창피해한다. 동경에 가서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성과에 감탄한다. 송빈의 동경행에 관한 두 개의 서사는 이태준이 겪었던 시대적 상황의 차이를 감안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겠으나,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에게 있어 근대 문명과 교육의 중심지로서 일본이라는 공간이 가진 의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균질한 시선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고학생의 상경 행위란 성공을 향한 욕망을 기반으로 사회적 이동을 꿈꾸며 지리적 이동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상경 고학의 최종 목적지가 동경을 비롯한 일본 유학인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일본 유학생이 증가함에

114 《사상의 월야》는 2개의 판본이 있다. 하나는 송빈이 현해탄을 건너는 데서 끝나는 1946년 을유문화사판 단행본이다. 또 하나는 1941년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매일신보》에 9회분으로 연재된 판본으로, 여기에 송빈의 동경 고학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15 이태준·상허학회 편, 앞의 책, 2015, 241쪽.

따라 고학생도 늘어나고 있었다. 조선보다 경제적 인프라가 갖춰지고 교육기관이 많은 일본에서 고학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였다. 1921년 무렵 동경에는 약 1,500명이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중 500명 가량 고학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116] 고학생이 증가하면서 1920년에는 조선의 갈돕회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일본 유학생 중 고학생을 결집한 단체인 동우회가 동경에서 설립되었다.[117]

송빈은 동경에서 신문 배달부로 고학 생활을 한다. 다섯 종의 신문을 돌려서 월급은 18원을 받고 숙식은 신문판매점에서 12원에 해결했으니 5~6원 정도 남는 생활이었다.[118] 동경 고학 생활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았지만, 우연히 만난 선교사 베닝호프의 후원을 받으면서 와세다 대학에 진학하고 성공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런데 동경에서도 문학에 대한 지향을 유지하던 송빈은 지진을 겪으면서 문학 대신 과학을 신봉하게 된다. "현대인의 안신입명할 길은 오직 과학의 길"이라고 부르짖으며 "문학이고 사상이고 먼저 과학이란 말이 붙은 것이라야만" 읽기에 이른다.[119] 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과학 예찬은 소설이 작성된 총동원체제 하의 시대적 분위기를 암시하는 것[120]인 동시에 송빈의 복잡한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조선인 유학생 집회 장소 문제로 베닝호프와 갈등을 겪은 송빈이 미국 유학으로 회유하는 베닝호프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곳

116 〈휴지통〉, 《동아일보》 1921년 4월 7일.

117 〈東京에 同友會設立〉, 《동아일보》 1920년 6월 6일.

118 이태준·상허학회 편, 앞의 책, 2015, 246쪽.

119 이태준·상허학회 편, 앞의 책, 2015, 258쪽.

120 일본은 중일전쟁 이후 1938년 〈국가총동원법〉 등으로 과학기술 동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1920년대의 송빈이 1930년대 후반 이후의 국책 담론으로서 과학 만능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김홍식, 앞의 글, 2011, 214쪽).

을 떠나는 것으로 소설은 막을 내린다. 이처럼 송빈의 상경은 개인적 성공이라는 욕망에 의해 추동되는 실제적인 행위였으나 그 지향에 있어서는 민족과 사회라는 비실제에 대한 부채 의식과도 얽혀서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송빈의 의식은 많은 유학생들도 공유했을 것이다. 또 다른 상경은 제국과 식민지의 지리적 거리뿐 아니라 심리적 경계를 넘는 행위였으므로 오히려 '제국의 수도'에서 식민지인으로서 정체성을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군다나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고학생이라면 민족의식에 더하여 계급의식까지 뚜렷이 느끼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문명의 중심부로 상경할수록 소외와 갈등은 더욱 커져만 갔던 것이다.

4. 맺음말

고학을 위해 서울이라는 공간으로 이동한 사람들, 즉 상경 고학생의 존재는 1920년대 조선인 사회를 보다 두텁게 읽어내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1920년대 초반은 고학생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고학생의 수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세계적인 개조의 열풍, 일본의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의 자유로운 풍조 그리고 전국을 뒤흔든 3·1운동의 영향 아래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한 식민통치 방침 속에서 1920년대 조선인 사회는 '우리도 남과 같이 살아보자'는 포부로 가득 찼다. 근대적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이동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서울로 몰려들어 상경 고학생으로 생활하였다. 고학생들은 미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견디는 자들

이었다. 상경 고학생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의 상징이었고, 만주나 약 등 행상에 나선 고학생의 모습은 서울 거리의 새로운 풍경이 되었다. 이들에 대해 조선인 사회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고학생은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건강한 인간형으로 칭송받았고, 후원은 조선인 사회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고학생 갈돕회를 비롯한 여러 고학생 단체들이 결성되었다. 고학생 단체의 등장은 고학생이라는 존재가 조선인 사회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자리매김하며 세력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고학생들은 학생이자 노동자인 동시에 온전한 학생도 노동자도 아니었다. 이러한 처지는 예비 지식인인 동시에 무산계급으로서 고학생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개인의 입신출세와 성공도 중요하지만 민족과 사회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기여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중요하게 여겨졌다. 물론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는 달랐다. 고학생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고학생이 늘어가자 당국과 기성세대의 시선은 고학생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화해 갔다. 그와 반대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나 부를 획득한 고학생 출신자의 성공 미담은 더욱 화려하게 언론에 등장하였다. 19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정치·경제 상황 및 당국의 교육정책 등이 변화하면서 상경 고학에 대한 인식은 회의적으로 변해갔다.

이 글에서는 《사상의 월야》의 주인공 송빈의 행로를 따라 1920년대 상경 고학생의 생활과 내면세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송빈은 함경도 배기미 서당 → 철원 용담 봉명학교, 간이농업학교 → 서울 휘문고보 → 동경의 와세다대학에 이르기까지 상경의 범주를 확장해간다. 송빈의 최종적인 상경의 여로는 한반도를 넘어 일본 유학으로 이어진다. 상승의 욕구라

는 측면에서 상경 행위를 이해한다면 서울만이 아니라 동경 등의 일본에서 고학하는 것도 상경 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적 교육과 문명에 대한 열망이 이른바 '제국의 수도'를 향한 '상경'으로 귀결된다는 점은 오히려 식민지 현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고 하겠다.

제2장

일제강점기 교육 상경의 민중성

-대동학원·대동상업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현명호(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머리말
2. 무산계급 학교의 형성: 대동학원의 성장과 쇠퇴
3. 개인에 집적된 교육 상경의 민중성: 고창한의 대동학원 재건
4. 무산계급 교육기관에서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대동상업학교 회고
5. 맺음말

1. 머리말

3·1운동 이후 진로가 보장된 상급학교를 찾아 "서울로 서울로" 가려는 현상이 나타났다.[1] 이런 상경 교육 현상의 대상이 된 학생은 보통 중산층 이상의 경제·사회적 배경을 가졌다. 그들은 서울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식민지 엘리트층으로 양성되었다. 전라북도 옥구 출신으로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를 다닌 강상규의 사례를 보면, 지방 학생이 서울의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대학이나 전문학교 같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10여 년간 매월 50~60원의 학비를 내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의미했다.[2] 경제력만이 아니라 의식 면에서도 이들은 식민지 억압구조를 넘어섰다. 예컨대 경성사범학교 학생들은 조선인 학생들이 일본인과 비교해 차별이 없었다고 기억했다. 피식민자의 지위에 있으나 '최고의 사범학교'를 다닌다는 엘리트 의식을 내면화했다.[3]

하지만 상경 교육 현상에 참여한 사회계층이 복잡한 양상을 띠던 것 또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1920년대 경성의 고학열이 고조되는 와중에 상경 고학생의 숫자가 급증했다. 이들은 자치적 조직을 만들어 하나의 집단으로 의식화했다.[4] 고학생의 사례는 경성이 단순히 학교가 몰려 있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육열을 생산하고 활성화하는 장소였

1 남신동, 〈최초의 사회주의 학교의 등장: 경성고학당(1923~1931)〉, 《식민지 교육연구의 다변화》, 교육과학사, 2011, 121쪽; 〈大京城生活記(4)〉, 《조선일보》 1924년 11월 8일.

2 정병욱, 〈경성 유학생 강상규, 독립을 열망하다(상)〉, 《역사비평》 47, 2008, 229~300쪽.

3 안홍선, 〈식민지시기 사범교육의 경험과 기억 -경성사범학교 졸업생들의 회고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29-1, 2007, 49쪽.

4 남신동, 앞의 글, 2011, 116~117·120쪽.

음을 시사한다. 고학생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대체로 중산층이며 사회적으로 희소한 교육 자원이 가졌던 당시 고등보통학교 학생 중에서도 입학 전 다양한 사회경험을 한 이도 적지 않았다.[5] 일제강점기 상경 교육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는 이 계층적 다양성·착종성을 같이 고찰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대동학원·대동상업학교를 다룬다. 대동학원은 무산계급 노동자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비인가 강습소로 시작했다. 인가받은 전수학교 기간을 거쳐 재단법인이 되었으며, 결국에는 5년제 갑종 상업학교인 대동상업학교가 되었다. 무산계급 아동의 글방이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운영이 안정적이었다. 정규 실업학교일 때는 역사가 짧고 인지도가 낮았다. 그렇게 하층 계급과 그보다 경제적으로 좀더 안정된 계층, 상층 계급과 그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중간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폭넓게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것이 대동학원의 특징이다. 즉, 기존 연구들이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장기간에 걸쳐 자리잡은 범주인 실업학교·보통학교·전문학교 등의 사례나, 경성사범학교이나 경성고학원처럼 상대적으로 균질성을 가지고 연속성이 있는 학생 집단을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면, 그러한 균질성과 연속성의 전제를 흔들 수 있는 것이 대동학원·대동상업학교 사례이다.

교육 상경 현상에서 대동학원·대동상업학교가 가진 독특한 위치는 민중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6] 민중성은 대동학원이 무산계급에 의한, 무산계급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향했고, 대동상업학교도 이 민중 정체성을 갖고 출발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근대 교육의 형

5 박철희, 〈1920·30년대 고등보통학생집단의 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6-2, 2004, 116~117쪽.

6 서울역사박물관, 《북촌: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터전》, 2019, 148쪽.

성 과정에서 아래로부터의 동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일제 식민 당국은 〈사립학교령〉이나 〈서당 규칙〉 등으로 민족 자본이 투여된 다양한 형태의 근대식 교육 시설을 탄압했다. 1920년대부터 문화 통치로의 전환과 사회 전반의 교육열에 힘입어 보통학교 숫자가 증가하고 각지에 노동야학 운동이 전개되긴 했다. 하지만 대부분 기초 직업 교육 수준에 머물거나 공식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바라는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운 것이 북촌 지역에 있던 보성전문 같은 민족 자본계열의 사립학교였다. 그런데 대동학원·대동상업학교는 다른 민족 자본 학교와 달리 노동단체 자금이 투여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중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7]

대동학원·대동상업학교 사례로 보는 상경은 기존에 '이농離農'이란 개념이 제시한 평면적 경제현상이 아니다. 사회·문화적 유인 요인이 더해진 상경은 입체적 사건이다. 숫자로 보는 상경은 분명 일제강점기 전체 인구의 일부에만 적용된다. 일제강점기 인구 이동은 농업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농촌에서의 인구 유출이 발생했으나 거기에 상응하는 도시산업 경제의 발전이 동반되지 않아서 이농층이 잉여 인구가 되는 결론으로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었다.[8] 식민지에서 공업화가 진전된 1930년대에 관한 연구조차도 비슷한 결론을 되풀이한다.[9] 이러한 통계적 사실의 이면에 놓인 건, 비록 이농 규모에 상응하는 노동 시장이 도시에서 발달하지 못했

7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2019, 148쪽.

8 예지숙, 〈조선총독부 사회사업정책의 전개와 성격(1910년~1936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114쪽.

9 소순열, 〈일제하 전북 농촌인구 유출구조〉, 《농업경영 정책연구》 29-1, 2002, 99쪽.

다 하더라도, 도시로 향하는 교육이라는 이름의 간절한 구심력의 존재이다. 그 구심력의 한 부분을 이룬 것이 바로 대동학원·대동상업학교였다.

이 글은 대동학원·대동상업학교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한다. 우선 2장은 경성차부협회가 무산계급 아동을 위한 강습소인 대동학원을 시작한 1925년 4월부터 이를 횡성 출신 지주 고창한이 인수하기 시작한 1928년 4월 이전까지를 다룬다. 3장은 대동학원이 재단법인으로 바뀌고 1933년 갑종 실업학교 대동상업학교가 창립되기까지를 서술한다. 이 시기 논의는 고창한의 교육 자본 투자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고창한으로 집적된 대동학원의 민중 상징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1933년부터 광복까지의 대동상업학교 역사를 통계 수치와 지방 출신 학생의 회고록을 통해 살핀다. 특히 회고담 속 대동상업학교가 민중성이 사라진 엘리트 양성기관이 된 점에 주목한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참고한 주 자료는《동아일보》,《조선일보》,《중외일보》 등에 실린 대동학원·대동상업학교 기사, 1995년 대동학원에서 편찬한《대동70년사》,[10]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대동70년사》 속에 혹은 별도의 단행본으로 출판된 대동상업학교 졸업생의 회고록[11]이다.

2. 무산계급 학교의 형성: 대동학원의 성장과 쇠퇴

1925년 4월, 수송동 94번지에서 대동학원이 시작되었다. 학교라고 하

10 대동중·상업고등학교동문회,《대동70년사》 1995.

11 李丙昊,《自由人》, 아태변호사협회출판국, 1996; 나익진,《어머님을 그리면서》, 高麗書籍, 1978.

지만 "교양 단체"라거나 "한옥의 한 사랑방"이라는 표현으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서당 수준이었다. 취지는 무산계급 아동의 교육이었다. 인력거꾼의 자제 등 100여 명이 학생으로 모였고 보통과와 고등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했다.[12] 당시 인력거꾼은 토막민으로 분류되기도 할 만큼 사회의 하층 계급이었다. 대체로 '몰락한 도시민이나 도시로 몰려든 이농민'으로 구성됐다.[13] 대동학원 제2대 이사장을 지낸 고홍석(고창한의 아들)은 "시골에서 서울로 노동을 하기 위해 와있는 사람이 많았다"고 회고했다.[14]

당시 인력거꾼의 규모나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발견되지 않지만, 초기 대동학원 자금원이 인력거꾼 조직임은 분명하다. 우선 명월관 지점의 인력거꾼 김경춘 외 2명이 계를 조직하고 자금 200원을 마련했다. 같은 직업군의 노동자들이 '의무계'라는 계를 조직해 공동의 사업을 도모한 것에는 대한제국기 사례가 남아 있는데,[15] 1920년대에도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북촌의 200여 명, 남촌의 800여 명 인력거꾼이 경성차부협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그 아래 교육부를 두어 회원들에게 매월 20전을 거두었다. 이들은 대동학원 유지회(회장 김태룡)가 되어 걷은 돈을 학교 운영의 기본 자금으로 기부했다.[16] '계'와 '협회'는 전자는 전근대, 후자는 근대라는 다른 시대적 기원을 두는 조직이다. 이들이 동시대에 등장하는 것은 경성차부협회가 전환기적 성격을 가졌음을 함의한다.

12 〈大東學院擴張 무산아동의 유일학원〉, 《동아일보》 1925년 9월 5일.

13 문종안, 〈20세기 초 서울의 인력거 연구〉, 목포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24쪽.

14 대동중·상업고등학교동문회, 앞의 책, 1995.

15 현명호, 〈대한제국기 원산항 노동자의 근대적 노동운동〉, 《규장각》 56, 2020, 327쪽.

16 〈赤誠의 饗宴 感激에겨운 主賓〉, 《동아일보》 1928년 3월 17일.

대동학원을 물질적으로 지원한 또 다른 단체는 물장수들의 조직이었다. 1926년 7월, 급수조합과 공수조합으로 나뉘어 있던 경성 물장수 300여 명이 경성수상조합을 결성했다. 그 회장인 된 것은 김만수이다. 그는 1925년부터 1940년까지 대동학원 교장이기도 했다. 김만수는 원래 1924년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인 함경도 북청에서 교육에 종사코자 했다. 하지만 일을 뜻대로 풀리지 않아 고향에서 전답을 판 자금 1,000여 원을 가지고 다시 경성으로 돌아왔다. 이때 나중에 대동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 김희도 함께 왔다.[17] 1926년 10월 이후 경성수상조합이나 대동학원이나 모두 주소가 봉익동 12번지라는 기록이 보인다.[18]

경성수상조합과의 관련성은 다른 뜻도 있다. 대동학원 설립 배후에 조선노동당이 있다는 의미이다. 우선 조선노동당과 물장수 단체의 관계를 보자. 조선노동당은 사회주의 비밀단체 스파르타쿠스당의 표면단체로 1924년 창립한 합법 사상단체였다. 1926년 초에 이르면 산하에 인력거꾼, 물장수, 인쇄직공을 비롯한 10여 개의 노동단체를 두었다. 조선노동당 지도자들은 대부분 함경도 출신이다. 조선노동당 지도부 중 한 명인 전일은 물장수로 유명한 함경도 북청 출신으로, 특히 급수부조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19] 그는 1925년 9월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20] 그 후 1926년 7월에 급수조합은 수상조합으로 발전하며 해체되었다. 김만수가 그 수상조합의 회장을 맡은 것이다.

17 〈숨은 일꾼〉, 《별건곤》 26, 1930년 2월.

18 〈供水給水合同〉, 《조선일보》 1926년 7월 10일; 〈統一된 水商組合〉, 《동아일보》 1926년 7월 10일.

19 박철하,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단체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0, 2004, 90·118쪽.

20 전명혁,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 운동연구》, 선인, 2006, 193쪽.

조선노동당은 또한 노동계급 교육에서 선구적이었던 단체다. 대동학원의 설치 역시 이를 배경에 두고 생각해봐야 한다. 조선노동당의 배후단체인 스파르타쿠스당은 노동계급 교육단체로 1923년 12월 견지동 84번지에 '노동학원'을 개설했다. 특히 전일이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급수부조합 노동자를 교육했다. 노동학원은 학생 수가 150명에 달했다고 하고 1925년 2월에 3개월 코스로 러시아어반을 운영했다고도 한다.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존속하며, 번성했다.[21] 그런데 1925년 9월 조선노동당은 다른 사회주의 운동 단체와의 합동 문제로 내홍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급수조합 전원"과 "대동학원 계열 인력거부"가 개입했다. 이때 인력거꾼은 대동학교 유지회장 김태룡이 이끌었으며,[22] 그중 물장수 5명과 인력거꾼 3명은 체포되기도 했다.[23] 이 시점에 대동학원 교장이던 김만수가 그 이듬해 7월 급수조합을 포함한 수상조합의 회장이 된 것이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대동학원과 조선노동당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밀 결사 스파르타쿠스당의 전일 등이 주도하여 1923년 12월 노동학원을 설치하고 급수부조합과 물장수 등을 교육했다. 전일과 같이 함경도 북청 출신 김만수가 1924년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북청의 전답 등을 팔고 경성으로 돌아와 인력거꾼을 조직해 대동학원을 시작한 것이 1925년 4월이었다. 1925년 9월에는 조선노동당 내에 내분이 일어났는데, 대동학원 유지회장 김태룡이 이끈 인력거꾼 조직은 급수부조합과 행동을 같이했다. 1926년 7월에는 급수부조합이 수상조합으로 흡수되고 그 회장을 대동학원 교장 김만수가 맡았고, 1926년 10월에 대동학원이 수상

21 박철하, 앞의 글, 2004, 79·123쪽.

22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思想要視察人連名簿 追加의 件〉, 1926년 4월 19일.

23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朝鮮勞動黨의 內訌에 依한 暴行의 件〉, 1925년 9월 22일.

조합과 같은 주소지인 봉익동 12번지로 이전 했다. 일제 검사국에서 파악했듯이, 대동학원은 조선노동당 노동학원의 '자매단체'와 같았다.[24]

대동학원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단편적 기록으로부터 대강의 윤곽을 그릴 수 있다. 우선 다음은 초기 대동학원의 원장을 맡았다는 엄정환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 현재 60여 명 학생에 상비반 두 학급 1, 2학년 각한 학급식 합하야 네 학급인데 우리들을 위하야 趙鍾桓 씨 외 네분 선생님이 무보수로 가르쳐 주심니다마는 (후략)[25] (밑줄은 필자 표시)

다른 기사에서는 엄정환은 '고학생'인데 '호의'로 대동학원에서 '오륙십명의 어린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나온다.[26] 이런 정황상 조종환과 다른 교사도 정식 교원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비정규적 봉사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1학년과 2학년 과정을 개설했고 각각 두 학급으로 나누었으니, 교사 한 사람이 한 학급을 담당하는 담임 체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비반 두 학급은 1학년과 2학년 과정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취학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초기 대동학원은 어느 정도의 성장을 거둔 것으로도 보인다. 문을 연 지 1년 후 1925년 9월 개학 때는 학생이 100여 명으로 늘었다. '보통과'와 '고등과'로 과정을 나누자는 말이 나온 것으로 보아 학생의 교육 수준도 다양해졌

24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朝鮮勞動黨의 內訌에 依한 暴行의 件 續報〉, 1925년 9월 28일.

25 〈人力車夫의經營 壽松洞大東學院〉, 《동아일보》 1925년 7월 3일.

26 〈料理店所屬 人力車夫議論〉, 《조선일보》 1925년 6월 28일.

다.[27] 1년 후에는 200명이 등록하고 평균 170~180명이 출석하는 규모로까지 성장했다. 또한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교과과정의 폭도 넓어졌다. 교원은 계속 4명인 상태였는데, 여성 교원도 포함되었다.[28]

대동학원이 보통학교에 준하는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려 했음은 다음의 기사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

> 시내에 보통학교가 만치마는 입학원서에 재산 뎡도가 나타나지 안슴닛가. 시험을 치른다 하야도 돈업는 사람의 자질들은 다 락데가 되고 맘니다. 금년에도 차부의 자뎨로 수송동 보통학교에 여들 아희가 시험을 보앗는데 모다 락뎨하엿슴니다.[29] (밑줄은 필자 표시)

이 부분을 보면, 대동학원 학생이 사회경제적 소외자였던 점이 다시 확인된다. 즉, 일반 보통학교에 들어가려면 입학원서에 쓰는 항목인 재산 정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계층의 자녀였다. 이들은 대동학원과 같은 수송동에 위치한 보통학교 입학시험에서 '락데(낙제)'했다. 당시 6~7세가 되는 아동을 상대로 치러진 입학시험은 의무는 아니었다. 하지만 널리 퍼진 현상으로 1920년에 이미 사회문제가 되어 있었다.[30] 당시 서울 시장 격인 경성부윤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보통학교 입학시험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만, 입학지원자보다 학교 시설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

27 〈大東學院擴張 무산아동의 유일학원〉, 《동아일보》 1925년 9월 5일.

28 〈共同消費所得으로 校舍新築을 計劃〉, 《동아일보》 1926년 11월 6일.

29 〈人力車夫의經營 壽松洞大東學院〉, 《동아일보》 1925년 7월 3일.

30 아직 미취학 연령에 있던 이 아동들에게 입학시험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묘사는 다음의 저서를 참고했다(김진섭, 《일제강점기 입학시험 풍경: 지금, 우리 교육은 과연 일제 잔재가 청산되었을까?》, 지성사, 2021. 126쪽).

상이고, 식민 지방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31] 수송동 보통학교의 설립은 서울 종로 일대에서 심각해지는 조선인 학생의 보통학교 입학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밖에는 해소하지 못했다.[32] 즉, 서울의 이 지역에서는 입학정원 탓에 보통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아동이 있었다. 가정 형편으로 입학시험을 준비하지 못해 보통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아동도 있었다. 이들의 초등 교육을 담당코자 한 것이 대동학원이었다.

동시에 대동학원은 보통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친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학생들도 수용했다. 대동학원이 가진 '민중성'의 특징이기도 했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 년년히 입학난에 뒤밀니는 학동은 물론 시내 3,000명에 가까운 조선인 인력거꾼들의 자데의 대부분과 보통학교에 입학할 나희가 지나서 입학치 못하는 생도들로 인하야 동학원의 생도 수효는 날로 느러 현재 수용할 수 잇는 범위에서만 밧은 생도도 최고학령 23살 된 늙은 학생을 비롯하야 최하 7살 된 생도가 1, 2, 3, 4, 5학년을 통하야 남녀 재적생 200여 명에 평균 출석자가 170여 명에 달하야[33] (밑줄은 필자 표시)

7세부터 28세까지, 학령기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 교육 시기를 놓친 20대 후반 '늙은 학생'도 대동학원이 품었다. 〈그림 1〉을 보면 우측에 댕

31 〈普通學校一年級 入學試驗問題〉, 《동아일보》 1920년 4월 11일.

32 최병택, 〈1920년대 부 학교평의회의 구성과 學校費 논란 -경성부 학교평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77, 2017, 161쪽.

33 〈共同消費所得으로 校舍新築을 計劃〉, 《동아일보》 1926년 11월 6일.

기 머리를 한 어린 여학생과 키가 작은 남학생이 열을 지어 서 있고 좌측 위로 가면 키가 상대적으로 큰 학생들이 열을 지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대동학원이 폭넓은 연령대의 무산계급 학생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대동학원은 상대적으로 중상층 거주지인 종로[34] 인근에서 예외적으로 터전을 마련한 무산계급 자제들에게 교육을 제공했다. 일종의 교육복지시설로 기능했다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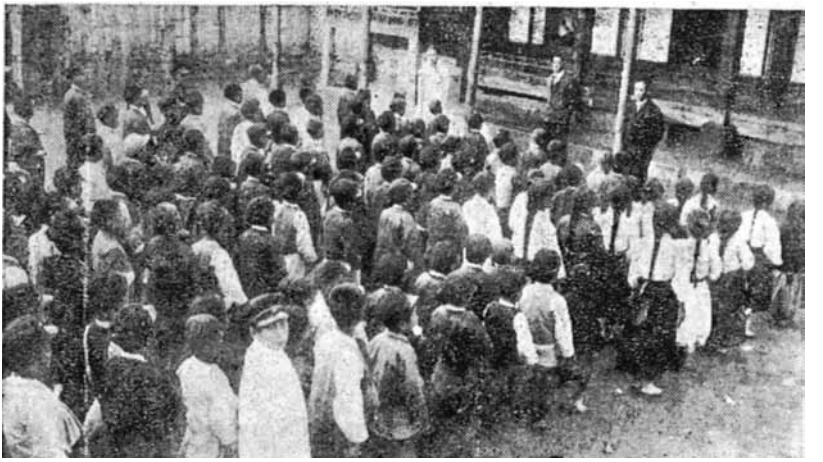
대동학원이 제공하고자 한 보통학교 수준의 교육이 대략 어떠했는지에 대해 사진 자료가 남아 있다. 〈그림 2〉는 당시 대동학원의 수업 모습을 비춘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칠판을 주시하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카메라를 응시하는 듯한 교사의 모습에서 대동학원의 수업 풍경을 보여주고자 의도한 사진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칠판에 하얀 글씨로 보이는 것은 일본어의 기초인 가타카나 'アイウエオ(아이우에오)'이다. 무산계급의 아동을 모으고 일본어를 학습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

당시 보통학교는 조선인의 주요 일본어 학습 기관이었다.[35] 자매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노동학원에서도 일본어 교육을 중시했다. 2~4시까지 하루 2시간 강의, 일주일에 6일, 합계 36시간을 강의하는데, 일본어는 1/3인 12시간이 할당되었다. 조선어, 한문, 주산, 산술보다 시수가 많다.[36] 노동학원이 18~19세 청년과 노동자를 주로 대상으로 했던 점을 보면, 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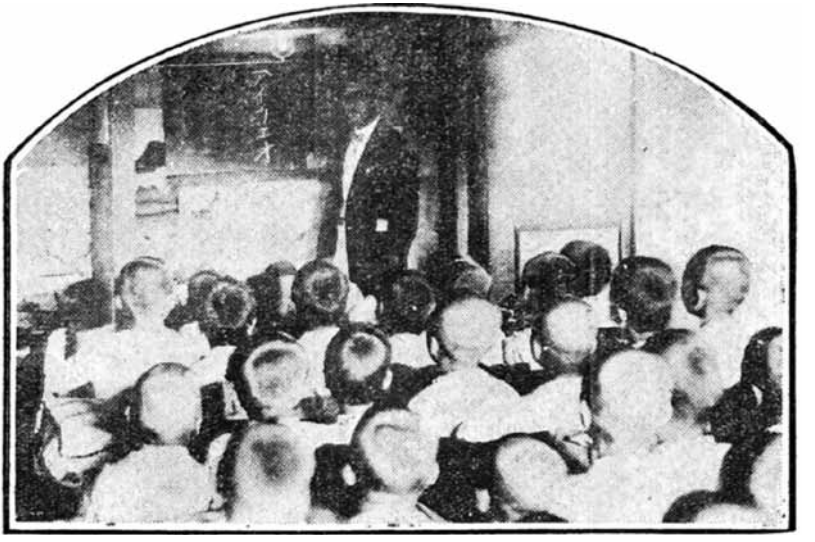
34 대표적으로 수송동에는 갑신정변 주도자 중 한 사람인 민태호 집, 보성사, 천도교 교단 소유 필지, 민영휘가의 토지, 원 보성전문학교, 경성고보 기숙사 등이 있었다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2019, 104·115·118·140·154·160쪽).

35 야마다 간토,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대화와 일본어 교육〉,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 보고서 제4권》, 한일공동역사연구회, 2010, 242쪽.

36 박철하, 앞의 글, 2004, 81쪽.



〈그림 1〉 대동학원 학생들의 모습
출처: 《동아일보》 1926년 11월 6일.



〈그림 2〉 대동학원 수업 풍경
출처: 《동아일보》 1925년 7월 3일.

학원에서 일본어 기초교육을 받고 노동학원에서 계속해서 일본어를 습득할 수 있게 짜여있다.

하지만 한때 300명이 넘는 학생을 자랑하고 러시아어 수업까지 연 노동학원만큼 대동학원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원인은 자금난이다. 다음은 다시 초기 원장을 맡은 엄정환의 인터뷰다.

> 현상으로는 유지하기도 곤난 할 뿐아니라 작구작구 학생이 늘어가는 형편임으로 유지회를 조직 하엿슴니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살아나갈 힘도 업는 차부들이라 아모리 열성이잇다 한들 잘되여가기를 바라겟슴닛가. 사회의 동정을 만히 바라는 바외다.[37] (밑줄은 필자 표시)

대동학원은 인력거꾼의 자금으로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그런데 인력거꾼의 수입은 불안정했다. 따라서 대동학원 운영도 그만큼 불안정했다.

대동학원은 자금난을 기부금으로 극복해 보고자 했다. 1925년 9월 15일에 신학기가 시작되었고, 운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동학원 유지회는 10월 7일에 조선고악연주회를 시내 장곡천정 공회당에서 열고 기부 행사를 벌였다.[38] 이 기부 행사는 도움이 되었다. 같은 달에 대동학원은 봉익동 12번지에 수상조합이 들어와 있던 건물로 이전할 수 있었다.[39] 그

37 〈人力車夫의 經營 壽松洞大東學院〉, 《동아일보》 1925년 7월 3일.

38 노동학원 5원, 안동조 일동 4원 20전, 립목정조합 3원, 백석조 일동 3원, 공화조 일동 3원, 좌창옥 주인 2원, 장송루 이송 2원, 조선호텔 주인 1원 등 인력거 업계와 유관한 인물과 업체들이 참여했다(〈대동학원 동정금 환지 음악회 당일에 만여 원〉, 《시대일보》 1926년 10월 9일).

39 대동중·상업고등학교동문회, 앞의 책, 1995, 551쪽.

리고 기존 수송동 사랑방이 협소해 수용하지 못한 학생을 수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또다시 자금난에 시달렸다. 일본인 집주인은 책상과 다른 집기를 압류하고 학교 문을 닫아 버렸다.[40]

이때의 자금난의 원인을 신문보도는 1927년 4월 조선노동당 내홍 이후 경찰의 탄압으로 인력거꾼 조직의 자금 융통이 경색된 것이라 지적한다.[41] 앞에 설명했듯이 조선노동당 내홍 사건은 1925년 9월이기 때문에 이 기사는 오보로 보인다. 하지만 인력거꾼 조직의 자금 공급 문제는 주목할 만하다.

1920년대를 거치며 자동차나 전차 등의 교통편으로 대표되는 '스피드'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와 함께 인력거는 사양 산업의 길을 걸었다. 1930년, 어느 인력거 노동자의 말에 따르면, '구황제(고종) 돌아가셨을 즈음'에는 벌이가 괜찮았으나,(저자주-1919년) 그 이후 회사에 수수료를 내고, 길이 좋아져서 그 '자동차인지 그 제-길할 놈'이 증가하면서 한 달에 50~60원 수입이 30원도 빠듯하게 되었다.[42] 대동학원 초창기인 1925년 6월만 돼도 '탁시(택시)'에 의한 영향이 인력거 시장에 미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해졌다. 신문에서 이를 기사 내용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였다.[43]

또한 인력거꾼과 같은 이농민의 주된 거주 형태였던 행랑살이가 쇠퇴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부유층 집 행랑에 이농인들이 머물렀다. 부인은 가사 노동을 하고 남편은 인력거꾼을 하는 형태로 행랑살이라는 생활을

40 〈大東商業專修(2)〉, 《중앙일보》 1932년 3월 12일.

41 〈大東商業專修(2)〉, 《중앙일보》 1932년 3월 12일.

42 이병례, 〈193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의 경제공황과 일상의 균열〉, 《역사연구》 31, 2016, 223~226쪽.

43 〈料理店所屬 人力車夫議論〉, 《조선일보》 1925년 6월 28일.

꾸렸다. 하지만 1920년대 이후 학생에게 월세를 받기 위해 행랑살이를 내쫓았다. 전문 가사 노동자의 등장으로 행랑어멈이 필요 없어지기도 했다. 또한 자동차와 전차의 증가로 인력거꾼 수입이 타격을 입었다. 그 결과 이농민 행랑살이가 줄어들었다.[44]

〈표 1〉은 여러 교통수단 중 오직 인력거 수치만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일전쟁기에 도입되어 꾸준히 성장한 인력거 업계는 1920년대 초반 정점을 지나며 양적으로 줄어들었다. 1930년대에도 여전히 '요릿집에 불려가는 기생'과 '왕진을 나가는 의사'를 상대했다.[45] 하지만 1920년대 후반 자동차의 등장으로 이전의 시장 점유율을 잃기 시작했다.

〈표 1〉 1920년대 교통수단의 증감표

(단위: 대)

	1922년	1923년	1928년	1929년
자동차	108	122	162	268
자전거	5,673	6,979	10,293	11,345
자동자전거	14	18	79	99
전차객차수	106	-	-	143
인력거	1,476	1,603	1,281	1,155

출처: 이병례, 앞의 글, 2016, 223쪽에서 재인용.

1920년대 시작된 인력거꾼 생활의 몰락은 소설 안국선의 〈인력거꾼〉(1915)과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1924)을 비교해도 알 수 있다. 안국선은 그의 작품에서 인력거 업계의 구조적 모순보단 개인의 노력을 강조한다. 그 하이라이트는 일확천금한 인력거꾼이 다시 인력거를 끌고 벌이에 나서는 장면이다. 저자는 소설에 직접 개입해 아래와 같이 발화한다.

44 이아리, 〈20세기 초 행랑살이의 확산과 쇠퇴의 맥락〉, 《역사민속학》 65, 2023, 63~64쪽.

45 송찬섭·최규진, 《근현대 속 한국》,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17쪽.

> 이 책을 기록하는 이 사람이 김 서방 부인에게 감사할 말 한마디가 있도다. 이 책 보는 세상의 모든 군자들이여, 김 서방 부인의 "술 끊고도 부지런하여야지"하는 말 한 구절을 기억할지어다. 이것이 치부의 비결[致富之祕訣]인가 하노라.[46]

반면, 현진건은 〈운수좋은 날〉에서 '운'에 좌지우지되는 인력거꾼 삶의 비애를 그린다. 주인공 김첨지는 행랑살이를 한다. 주인 집을 위해 물을 길어주어야 방세 1원을 갈음할 수 있는 처지이다. 가장 '운수좋은 날'에 김첨지는 인력거를 끌어 평소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의 기분은 다음과 같이 불안에 휩싸였다.

> 운 벌이를 하였다는 기쁨을 할 수 있으면 오래 지니고 싶었다. 그는 두리번두리번 사면을 살피었다. 그 모양은 마치 자기 집 곧 불행을 향하고 달려가는 제 다리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 누구든지 나를 좀 잡아다고, 구해다고 하는 듯 하였다.[47]

"불행을 향하고 달려가는 제 다리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이 1910년대와는 달라진 1920년대 인력거 노동시장의 현실이었다. 김첨지가 설렁탕을 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는 죽어 있었음은 잘 알려진 내용이다. '운수 좋은 날'조차 불행을 피할 수 없는 인력거꾼의 삶이 이미 1920년대 초반 소설에 포착되었다.

46 안국선, 현진건, 《한국 근현대 소설 모음집: B사감과 러브레터/인력거꾼》, 내츄럴, 2013.

47 현진건, 《운수좋은 날》, 북소사이어티 eBook, 2022.

인력거 업계와 대동학원의 흥망은 정비례했다. 1927년 11월 대동학원은 신당동으로 이전했다. 평소의 인력거꾼 이용하는 조선, 대정, 한남, 대동의 네 권번이 4~5회 연주회를 열어 자금을 마련하고, 이 자금으로 대동학원은 신당동에 새로운 장소를 찾을 수 있었다.[48] 하지만 사실 신당동 이전은 더이상 학교 운영이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1920년대 신당동은 화장장이 있던 곳으로 시체유기 사건도 발생했다. "견디지 못한 악취와 더러운 파리 떼로" 학생들이 다니기 어려운 곳이기도 했다.[49] 결국 인력거꾼의 자력이나 일시적 동정금으로는 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이었다.

3. 개인에 집적된 교육 상경의 민중성: 고창한의 대동학원 재건

쇠퇴하던 대동학원은 자산가 고창한을 만나면서 회생했다. 회생했을 뿐만 아니라 학력을 인정받는 정식 학교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 과정은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전개되었다. 첫째, 1928년 3월 고창한은 10만 원을 기부했다. 그중 2만 원은 자신의 가택 부지인 가회동 208번지에 이층 양옥의 교사를 신축하는 데 쓰도록 했다. 같은 해 4월 18일에 낙성식을 열었고, 대동학원은 남녀 각각 70명의 학생에게 다시 보통학교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1930년 봄에는 남학생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8 〈擴充된 大東學校의 曙光(上)〉, 《동아일보》 1932년 3월 31일.

49 〈光明을 맛는 大東商業專修(完); 校當局苦心慘澹十八萬圓基金成立 篤志家의 奮發로 前途洋洋 桂山學校까지 合體하야 經營〉, 《중외일보》 1932년 3월 14일.

실업 과정인 상과를 증설했다. 학업을 계속하려는 보통학교 졸업자를 위한 진로와 취직까지 고려한 조치였다. 이를 위해 1931년 대동학원에 전수과 설치를 인가받았다.[50]

둘째, 1931년 8월 대동학원은 계동 36번지의 계산보성학교를 인수하였고, 이듬해 8월부터 고창한이 3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대동학원의 재단법인 만들기에 나선다. 즉, 계산보성학교를 가회동 208번지로 옮기고 계산보성학교가 있던 계동 36번지에는 새롭게 대동상업학교를 신설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고창한이 쾌척한 자금 중 5만 원을 들여 계동 부지에 새롭게 벽돌식 3층 건물을 올렸다. 1933년 10월 대동학원은 재단법인으로 인가받았고, 1934년 2월 대동상업학교가 갑종 학교(5년제 5학급)로 설립을 인가받았다.[51]

북촌에 위치한 학교 중 중앙고보와 대동학원은 모두 지방 출신 상경자 지주의 투자로 운영되었다. 그런데 중앙고보의 김성수가 호남의 거부인 집안 출신인 것과 달리 고창한은 무산계급 출신이다.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출신(1873년 출생)인 그는 서른 살 무렵까지 관청의 잡일을 맡아 생활을 영위했다.[52] 그 후 숫돌, 다듬이돌, 맷돌 등을 횡성에서 나귀로 가져다가 서울에 팔고 서울의 광목을 가져다 횡성에서 파는 장사로 부를 축적했다. 이후 횡성과 양평 등지에 토지를 사들여 천석꾼(당시 5~6만 원)이 되었다.[53] 이렇게 고창한이 자수성가의 과정을 밟은 데다가 지역에서 축적

50 〈無産兒童教育에 全財産을 傾倒한다〉, 《조선일보》 1928년 3월 17일; 〈大東學校 大擴張〉, 《동아일보》 1930년 3월 16일; 대동중·상업고등학교동문회, 앞의 책, 1995, 551쪽.

51 〈桂山普成學校 大東校와 合同〉, 《조선일보》 1931년 7월 26일; 〈發展하는 大東校 校舍를 增築〉, 《동아일보》 1933년 9월 27일; 대동중·상업고등학교동문회, 앞의 책, 551쪽.

52 대동중·상업고등학교동문회, 앞의 책, 1995, 82·84쪽.

53 《동아일보》 1928년 3월 17일; 대동중·상업고등학교동문회, 앞의 책, 1995, 50·84쪽.

한 자본을 중앙에 투자한 사실에 기반하여, 대동학원 자본의 성격이 좀 더 '민중적', '지역적'이라는 평가에 도달한다.[54]

그런데 고창한은 어떻게 대동학원을 인수하게 되었을까? 당시 신문 기사와 현재의《대동70년사》에는 고창한이 인력거꾼 자제를 위한 교육사업인 대동학원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측은지심에 기대어 설명하고 있다. 즉, 그가 신세를 한탄하는 인력거꾼에게 동정을 느끼고 기부를 결심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연성이 있는 설명으로 보인다. 고창한이 교육에 관심이 있었고 또한 인력거꾼을 자주 접할 수 있었던 정황 때문이다.

즉 그가 가회동, 소위 북촌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이사온 이유는 교육으로 보인다. 당시는 북촌은 경성고보, 휘문고보, 중앙고보, 경기여고보(창덕여고), 근화여학교(덕성여고), 풍문여고가 몰려 있는 등 조선인 교육 지구가 형성되고 있는 곳으로 지방 부유층에게 매력적인 주거지였다.[55] 그리고 그의 자택은 재동공립보통학교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앞에 바로 인력거꾼 대기소가 있어 그들과 접촉이 잦았다고 한다.[56]

하지만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 그의 6촌 손자이자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고광수가 매개가 되었을 가능성이다. 고창한은 고광수를 "너무나 현명하고 공부를 잘하여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한다. 그에게 "예금통장과 인감도장"까지 맡길 정도로 신뢰했다고 한다. 1920년 서울로 이사를 온 후 고창한은 고광수를 중동학교에 입학시켰다. 다음 해 고광수는 3·1운동 기념 선전문 배포로 체포되었다가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54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2019, 149쪽.

55 김경민,《건축왕, 경성을 만들다: 식민지 경성을 뒤바꾼 디벨로퍼 정세권의 시대》, 이마, 2017, 22쪽;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2019, 148쪽.

56 대동중·상업고등학교동문회, 앞의 책, 1995, 86쪽.

고창한의 사재 2,000원을 훔쳐 북간도로 망명했다. 이때도 고창한은 고광수가 돈은 더 가져가지 않았다고 우려했다.[57] 고광수는 모스크바 동방노력자대학에서 3년 수학하고 코민테른의 특별 파견으로 1925년 9월 조선에 돌아와 엠엘파 고려공산청년회에 배속되었다. 1926년 2월부터 다시 모스크바로 떠난 9월까지 서울에서 합법 사상단체인 조선노동당에서 활동을 했다.[58] 대동학원과 자매학원인 노동학원을 운영한 그 조선노동당이다. 즉, 고창한과 대동학원의 접점은 인력거꾼뿐만 아니라 손자인 고광수를 통해서도 형성되어 있었다.

고광수가 모스크바에 보낸 활동 보고서에는 대동학원과 고창한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59] 하지만 고광수의 매개를 추정할 만한 근거는 또 있다. 고창한의 계산보성학교 인수를 통해 대동학원의 2차 확장에 나선 것도 고광수와 관련된다. 고광수는 만주와 조선을 넘나들며 독립운동을 하던 그는 1929년 9월 함경남도 북청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체포 과정에서 목을 그어 자살 시도를 했다. 상처가 악화되어 1930년 1월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가회동 고창한 집에서 요양하다 곧 사망했다. 고창한은 피 묻은 의복을 같이 안치할 정도로 애통해했다고 한다.[60] 고창한의 아들 고홍석에 의하면 고창한이 교육사업에 전 재산을 바치게 된 것도 "사랑하는 광수와 그의 동지들에 대한 보답"의 의미가 있었다.[61]

57 대동중·상업고등학교동문회, 앞의 책, 1995, 85~86쪽.

5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고광의〉,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seach.i815.or.kr).

59 이재훈, 《러시아문서보관소 자료집4: 고려공산청년회 II》, 한울아카데미, 2022.

60 대동중·상업고등학교동문회, 앞의 책, 1995, 88쪽.

61 대동중·상업고등학교동문회, 앞의 책, 1995.

그 후에 전개된 것이 계산보성학교 인수이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고광수가 병보석으로 풀려날 때 이를 주선한 변호사 이인이다.[62] 1973년 작성된 이인의 회고록에 따르면, 천도교인이자 계산보성학교 이사였던 오상준이 자신이 시작한 인력거꾼 글방의 곤란을 호소하며 이인에게 고창한을 언급했다. 이인이 고창한을 만나 대화하는 와중에 고창한은 전 재산을 희사하겠다는 뜻을 표했다.[63] 당시 신문기사와 《대동70년사》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전한다. 즉, 계산보성학교 인수는 이인과 김일봉(인력거협회장)이 매개했다. 천도교인 강준(강달준의 오기)이 이를 계산보성학교 이사회 심의에 올려 고창한에 운영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오상준은 고창한의 전 재산 기부를 기리기 위한 축하연에서 축사로 나서기도 했다.[64]

고창한의 교육 투자가 무산계급의 학교를 향한 것은 시대적 의의가 있었다. 당시 무산계급의 교육은 두 가지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앞서 본 조선인 입학난 문제는 식민 당국도 우려하던 부분이었다. 수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지만, 1910년대 말 보통학교 '3면1교'에서 1920년대 말 '1면1교'까지 신속하게 정책적 확장을 추진했다.[65] 하지만 초등 교육뿐이었다. 중고등학교의 증설은 비슷한 속도와 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인 사회계층 상승의 기반을 의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62 〈間共高光洙保釋: 삼십일일오후 네 시에 출옥〉, 《중외일보》 1930년 2월 1일.

63 〈나의 이력서 33〉, 《한국일보》 1973년 4월 3일.

64 대동중·상업고등학교동문회, 앞의 책, 1995, 62·551쪽; 〈桂山普成學校 大東校와 合同〉, 《조선일보》 1931년 7월 26일; 〈無産教育界恩人 高昌漢氏祝宴〉, 《동아일보》 1932년 8월 26일.

65 윤현상, 〈1920년대 총독부 교육재정 정책의 변화와 공립보통학교 설립열의 확산〉, 《역사문제연구》 20-1, 2016, 353·374쪽.

는 비판까지 있었다.[66] 그 결과가 두 번째 소외이다. 즉, 조선인들의 조선인 교육 문제 논쟁 초점이 중고등 교육기관 전체에 맞춰지고, 무산계층 교육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다. 예로, '학교촌'인 북촌에는 경성고보, 휘문고보, 중앙고보, 경성여고보, 동덕여고보 등 조선인 사립학교가 즐비했는데,[67] 무산계급의 정체성을 보유한 것은 대동학원이 유일했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 투자를 했단 점이 고창한의 교육 기부 특징이었다.

기부 액수도 관련이 없지 않다.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가 적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그중에도 고창한의 기부는 액수가 컸다. 그가 기부했다는 10만 원~15만 원은 단순히 학교 운영이나 교사 인건비 지급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학교 건물 새로 지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환경이 열악한 신당동으로 옮겨야 했던 대동학원에 가장 필요한 금전적 토대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새로 건축한 학교 건물은 400명 정도의 학생을 수용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그림 3) 입학난에 시달리던 당시 조선인 교육계가 가장 기다리던 소식 중 하나였다. 특히 "自家를 毁撤하"면서까지 그 터에 학교 건물을 지은 사실은 그



〈그림 3〉 대동학원 학사
왼쪽 아래에 보이는 세 대의 인력거는 경성차부협회가 대동학원에서 가까웠다는 사실과 관련있어 보인다.
출처: 〈大東學院落成式〉, 《조선일보》 1928년 4월 20일.

66 관련 논의는 다음을 참조. 박철희, 〈식민지기 한국 중등교육 연구 -1920~30년대 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67 서울역사박물관, 《북촌: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터전》, 2019, 148쪽.

의 기부가 헌신적이고 사익 추구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했다.[68]

언론은 적극적으로 고창한의 기부 행위를 무산계급 교육에 대한 진정성으로 그려냈다. 1928년 3월 8일과 9일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고창한이 대동학원에 10만 원을 기부하기로 한 사실을 처음 보도했다.[69] 특히 《동아일보》는 다음 날 또 1면 사설을 통해 고창한의 미덕을 찬양했다.

> 오늘날에 유산도 아니오. 오즉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분투로일운 재산을, 그 재산을 모으든 심각한 辛苦를 그대로 觀念界에 가지면서 앗가움이 업시 공공사업을 위하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인격을 여실히 표시하는 사업이라도 할 것이다. 昨紙에 보도한 바와가티 大東學院을 위하야 그 巨財를 제공하는 高昌漢 氏는 그러한 例中의 하나라고 할것이니 사업이 교육인 만큼 吾人은 일반사회와 가티 그 인격에 敬意가 더욱 만히 간다는 것을 附言하야둔다.[70] (밑줄은 필자 표시)

이 사설은 개인과 공공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한 일은 단순히 개인의 일회성 이타심의 발로를 넘어 "오늘날"에 필요한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고창한의 기부 행위를 칭찬함과 동시에 다른 자산가의 기부도 촉구하기 위함이라 생각할 수 있다.

고창한이 기부의 취지를 설명한 말도 직접 실었다. 또 이에 대해 경성차부협회가 감사를 전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이렇게 이 장면에 진정성이

68 〈無産兒童教育에 全財産을 傾倒한다〉, 《조선일보》 1928년 3월 17일.

69 〈大東學院曙光 高昌漢氏十萬圓寄附〉, 《조선일보》 1928년 3월 8일; 〈大東學院 擴張 高昌漢氏 十萬圓寄附〉, 《동아일보》 1928년 3월 9일.

70 〈財産家의 人格과 事業〉, 《동아일보》 1928년 3월 10일.

란 입체감을 부여했다. 1928년 3월 15일 고창한을 위한 축하연이 열렸을 때 대중은 처음으로 고창한이 말하는 대동학원 기부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 현금의 교육 상태를 보건대 공립보통학교는 자산 좀 잇는집 자데를 위한 기관으로 無産者의 자질들은 영구히 공립학교에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형편임으로 근본이 무산인 나는 금번에 나의 자산을 들어서 무산아동의 교육기관인 대동학원을 경영케 된 것으로 끗까지 무산아동의 교양을 위하하야 분투코자 합니다.[71]

특히 대동학원 설립과 경영을 위한 인력거꾼의 그동안의 희생을 강조했다. 그 희생은 이를 "구제한" 고창한의 긍정적 이미지로 축적되었다.

> 양복으로 변장한 차부들은 차례로 일어서서 우리가 이 학원을 유지하기에는 피와 땀을 흘려가며 때로는 억지로 헐덕여지는 갓분 숨을 참어가며 행여나 손님이 보면 미안히 생각할까 봐서 손님 보이지 안토록 수건으로 땀을 씨서가며 벌어가지고 편히 안진주인에게 얼마를 빼앗기고 남어지 중에서 35전식을 거두어 유지해 오든 고심담과 때로는 그것으로도 곤난히야 시내 각권번의 연조를 밧기도 하며 또는 직원들이 4, 5일식 굶다가 참ㅅ다못해 울든 이야기는 듯는 이의 가슴을 압흐게 하얏다. (중략) 이러한 학원을 구제한 고창한씨는 (후략)[72] (밑줄은 필자 표시)

71 〈無産兒童教育에 全財産을 傾倒한다〉, 《조선일보》 1928년 3월 17일.

72 〈赤誠의 饗宴 感激에 겨운 主賓〉, 《동아일보》 1928년 3월 17일.



〈그림 4〉 신문기사에 실린 고창한씨의 모습
출처: 〈적성의 향연 감격에 겨운 주빈〉, 《동아일보》 1928년 3월 17일.

이 신문기사에 첨부된 사진은 인상적이다.(그림 4) 검은 '양복으로 변장한 차부'와 흰 두루마기 입은 '유지 제씨'가 옷 색깔을 제외하면 사회계층의 구분 없이 섞여 앉아 있다. 그리고 계층의 초월이라는 이 상징성은 가운데 앉은 고창한으로 향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고창한의 기부로 대동학원은 공공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기 시작한다. 적은 돈이긴 하지만 인력거꾼의 경성차부협회에서 공동자금을 학교 운영 자금으로 운용한 기간에는 대동학원의 공공성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고창한 개인의 투자금으로 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부터의 대동상업학교는 사유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44년 고창한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은 바로 그의 아들인 고홍석이었다.[73] 고창한이 개인의 명예나 사리를 위해 대동학원에 투자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동학원의 재단법인화도 이 학교가 가진 사

회문화적 자본이 인력거[73]집단이 아닌 고창한 개인에게 쌓이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동학원 경영권이 경성차부협회에서 고창한으로 이전된 일은 1930년대 조선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불거진 학교의 '공공성' 논쟁을 배경에 두고 평가해 볼 수 있다. 당시 일제의 식민 교육 정책에 부응해 중고등학교의 재단법인화가 진행됐다. 이사회 구성의 변화로 학교의 운영이 공공의 통제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이에 조선인 지식인 사이에서 논쟁이 발생했다. 일례로 보성전문학교는 공공의 도구로 남아야 한다는 '공기성公器性' 논쟁을 들 수 있다.

1930년대 초반, 보성전문은 자금난을 겪었다. 이를 해소한 것은 한편으론 김성수의 경영권 인수였다. 이는 재단법인 중앙학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으론 1933년 보성전문학교 창립 30주년 기념사업회가 대규모 모금을 벌인 것이 도움이 되었다. 모금 사업은 기존의 보성전문 재단과 보전교우회가 주도했다. 문제는 양측이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보전교우회 일부는 김성수의 인수가 중앙학원을 통했고 보성전문 재단은 "동전 한 푼 증가된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1935년 보성전문의 정원 초과 모집 사건이 발생해 김성수의 교장직 사임으로 이어졌다. 보성전문의 사유화를 견제해 공공성을 강조한 것이다.[74] 보성전문의 사례만 아니었다. 개인이나 소수가 학교 운영을 장악하는 것을 비판하는

73 고홍석은 고창한이 별세한 직후인 1944년 3월부터 1961년 12월까지 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제3대 고귀동 이사장(1961년 12월~1965년 8월) 이후 재단 경영권은 고창한 가족의 손에서 떠나게 된다. 대동중·상업고등학교동문회, 《대동70년사》, 앞의 책, 1995, 577쪽.

74 김일환, 〈1920~30년대 보성전문학교의 운영과 공공성 문제〉, 《역사문제연구》 25, 2021, 264~268쪽.

현상은 당시 다른 학교나 지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75]

고창한이 대동학원을 인수한 것은 학교를 사유화한 것이다. 다만 보성전문 사례와는 달리 대동학원의[75]사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대동학원은 보성전문과는 달리 존속 기간이 짧았다. 따라서 거기에 얽힌 상징성과 집단적 이해는 크지 않았다. 이 학교에 얽힌 단체들의 이익과 이념이 상충하는 일 또한 없었다. 다음으로 고창한은 김성수와 달랐다. 김성수는 서울에서 교육과 교육 이외의 분야에서 이미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거나 엘리트 사회에서 촘촘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고창한은 그렇지 않았다.[76] 지역 출신인 데다가 자수성가형 자산가인 고창한이었다. 북촌에 자리 잡고 대동학원 인수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사회적으로 무명에 가까웠다. 대동상업학교가 개교한 다음 해 고창한의 환갑 잔치는 학교 차원에서 치러졌다. 그의 명망을 기려 각계에서 축하의 뜻을 담은 시를 보냈고, 동아일보사 송진우, 조선일보사 방응모 등 경성 유력 인사가 포함됐다.[77]

무산계급인 인력거군의 상경 정착 생활을 지원했던 대동학원은 지역 출신 자본가 고창한이 경성의 명사로 거듭남도 매개했다. 이 과정에서 무산계급 교육기관이란 상징성을 고창한의 대동상업학교가 물려받았다. 무산계급을 위한 별도의 특혜가 없는 사립학교였다. 대동학원이 재단법

75 양원철, 〈일제시기 사립고등보통학교의 운영과 공공성 -사립고창고등보통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52, 2023, 261~267쪽.

76 김성수의 초기 자본가적 활동에 관해서는 Eckert, Carter J., 주익종 역, 《제국의 후예: 고창 김씨가와 한국 자본주의의 식민지 기원, 1876·1945》, 푸른역사, 2008, 64~75쪽.

77 대동상업학교, 《수연시집: 서암선생》, 1934.

인화한 1932년 3월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는 각각 2~3차례 연재 기사까지 내며 보도했다.[78] 주요 내용은 그전과 마찬가지로 고창한에 대한 칭찬이다. 그런데 그의 기여 분야가 무산계급 교육뿐만 아니라 "빈약한 조선 교육계" 일반이라는 논조가 추가되기 시작했다.[79] 이때의 대동학원을 보자면, 재단법인화하면서 무산계급 교육은 새롭게 인수한 계산보성학교(前 보성보통학교)으로 분산했다가,[80] 대동상업학교 재정 확충에 우위를 두고 차차 보통학교 교육은 광복 전에 그만두었다.[81] 물론 이러한 전개가 1932년 3월 시점에는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창한이 교육 기부의 중점 분야가 대동상업학교라는 사업으로 바뀌고 있음은 확실했다. 그럼에도 대동상업학교가 부상한 1930년대 후반에도 대동학원 교육사업의 대상 계층이 변했다는 지적은 없다. 오히려 고창한이 상인 시절 기반 중 하나였던 양평에서 소작인에게 표창을 주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렇게 무산계급을 위하는 그의 이미지는 계속되었다.[82]

78 대동학원 재단법인화와 관련한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다.

제목	신문	날짜
光明을 맛는 大東商業專修(1)	중앙일보	1932.03.11
大東商業專修(2)	중앙일보	1932.03.12
光明을 맛는 大東商業專修(完)	중앙일보	1932.03.14.
商業專修校로 昇格(1) 無產者의 學校 大東校의 飛躍	조선일보	1932.03.11
자라가는 大東商業專修(2) 車夫熱誠結晶으로 無產兒童을 敎育	조선일보	1932.03.13
자라가는 大東商業專修(3) 五券番同情演奏와 高氏巨額出資로	조선일보	1932.03.16
擴充된 大東學校의 曙光(上)	동아일보	1932.03.31
擴充된 大東學校의 曙光(下)	동아일보	1932.04.01

79 〈光明을 맛는 大東商業專修(1)〉, 《중앙일보》 1932년 3월 11일.

80 〈大東商業實修認可申請〉, 《조선일보》 1938년 1월 21일.

81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2019, 148쪽.

82 〈楊平서 最初로 小作人을 表彰〉, 《동아일보》 1938년 3월 1일.

고창한의 독지로 대동학원은 가회동 계산보성학교와 계동 대동상업학교를 거느리고 학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제도권 학교로 거듭났다. 이는 곧 원래 취지인 무산계급 아동의 교육에서 멀어짐을 의미하기도 했다.

1920~1922년, 근대 교육열의 탄생기라고 불릴만한 이 시기 경성의 공립보통학교 입학경쟁률은 2:1~3.8:1로 전국 평균 1.3~1.9:1보다 높다. 입학률도 26~48%로 전국 평균 50.1~75.5%보다 낮다. 그만큼 경성의 학교는 입학이 어려웠다. 또한 1921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최저 생활비인 400원을 못 버는 호수가 전체의 75%로, 이들에겐 추가 비용을 들여 자식 교육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1923~1924년 조사에 따르더라도 경성부 최저 생활비는 5인 가족 기준 40원인데, 최소한 월수입이 40원이 있어야 자녀를 보통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 이에 해당한 가구는 당시 조사 대상이던 80호 중 25호에 불과했다. 따라서 1920년대에 학령기 자녀를 가진 부모 중 50% 이상이 입학지원서를 보통학교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고보나 중등학교는 더 어려웠다. 수업료 이외에 교과서비, 학용품비, 의복비, 등을 추가하거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더 큰 비용이 들었다.[83]

즉, 대동상업학교가 정식 신청서를 내고 시험을 쳐서 통과해야 들어가는 교육기관이 된 것은 무산계급에게는 교육 진입장벽이 한층 두꺼워졌음을 의미했다. 고등교육은 본질적으로 엘리트 교육이며 고등교육을 통해 양성되는 지식계급은 특권계급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 1920년대 초반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의 민립대학설립운동을 반대한 이유였다.[84] 고창한의 교육 자본 투자는 인력거꾼의 교육열을 지지하기 위해

83 한우희, 〈일제식민통치하 조선인의 교육열 연구 -1920년대 공립보통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3, 1990, 128~131쪽.

84 김은영, 〈일제하 지식인의 조선인교육 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박사학

서 혹은 친척 손자 고광수의 의지를 이어받기 위해서 출발했다. 그 도착점은 무산계급의 향상이 아닌 유산계급의 재생산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고창한의 가회동 자택에서 기숙을 하기도 한 대동상업학교 제2회 졸업생 김형술은 대동상업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 나이가 많고 사회경험이 있던 사람이 제법 있었다고 했다.[85] 하지만 곧 여느 고등교육기관처럼 대동상업학교는 전국 수재들이 들어가는 엘리트 지식인의 산실이 된다.

4. 무산계급 교육기관에서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대동상업학교 회고

북촌은 당시에 소위 학교촌이라 불릴 만큼 중앙고보, 휘문고보, 여자고보 등이 몰려 있는 곳이었다. 예전부터 상류계급 거주지이긴 했다. 1920년대부턴 가회동 일대에 규모가 큰 저택들이 생기며 "시골로부터 여러 부호들이 이사"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의 자녀가 교육받게 되면서 북촌이 "분위기가 배우는 곳"이 되었다.[86] 등교 시간이면 안국동 네거리로 전차, 자동차, 도보로 이동하는 학생들의 무리가 쏟아졌다. 이들은 조선에서 희소한 정식 인가받은 중등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었다. 높은 경쟁률의 시험을 통과해 교표가 달린 모자와 교복을 입었다. 수업비, 하숙비, 스포츠 활동 참석비 같은 추가 비용을 내며 학교에 다녔다. 졸업 후 상

위논문, 2021, 150쪽.

85 대동중·상업고등학교동문회, 앞의 책, 1995, 44쪽.

86 〈우리아들딸 學園돌이 學校村이자 富村에 씩씩한 千二百兒童 齋洞公普篇(17)〉, 《조선일보》 1936년 6월 3일.

급학교로 진학하거나 금융기관 같은 곳에 취직할 수 있었다. 이들은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이었다. 하지만 역사가 긴지 짧은지, 공립인지 사립인지, 취직에 유리한지 아닌지 등 기준이 이 상위 학교들을 다시 서열화했다.[87]

대동상업학교도 이러한 엘리트 학교 중 하나였다. 1937년 학무국 조사에 따르면 경성의 사·공립 상업학교 10개교(공립 4개, 사립 6개) 중 10학급에 학생 수 591명을 거느렸던 선린상업학교 다음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88] 갑종 학교인 대동상업학교를 졸업하면 조선식산은행 같은 당시 최고 수준의 봉급을 받을 수 있던 금융기관에 전문직으로 취업할 수 있었다.[89] 머큐리의 상징인 지팡이와 상업학교를 뜻하는 "Commercial School"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교표는 대동상업학교 학생들의 자랑이었다. 따라서 〈표 3〉과 같이 지원율이 상당한 높은 편이었다.

1933년 5년제 갑종 학교가 된 이후 대동상업학교는 본격적으로 엘리트 학교로서 사회적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 갑종 학교 과정을 나오면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또 대동상업학교가 상업학교라서 금융기관 취업에도 유리했다. 지원자 통계가 존재하는 1935년부터 이미 1,000명이 넘게 지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듬해 1936년에는 12:1이라는 높은 지원율을 기록했다. 1938년에는 13:1로 동급의 학교 중에 최고의 지원 경쟁률을 보였다.[90] 1941년에도 11:1로 휘문중학 8:1, 경기상업 4:1, 동성상업 5.1:1, 성동중학 2.6:1에 비해 눈에 띄게 높다.[91] 매년 모집

87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2019, 148쪽.

88 조선총독부학무국, 《學事參考資料》, 1937, 33~35쪽.

89 안홍선, 〈식민지시기 중등 실업교육의 성격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2, 2015.

90 〈白熱化한 入學戰況 登落線에 浮沈하는 三萬餘名의 鳳雛群〉, 《조선일보》 1938년 3월 13일.

〈표 3〉 1933~1944년 대동상업학교 학생 통계

(*전수과정 회수, **전수과정 인원, 단위는 명)

회수	연도	모집정원	지원자	합격자	졸업자	진학
1회*	1933	100		139(41)**	20	
2회*	1934	50(100)**			19~20	
	1935		1033	52		
1회	1936	100	1200	117	56	
2회	1937	100		117	79~81	진학희망 7, 취업 10, 기타
3회	1938	100	1341	110~117	117	
4회	1939	100		130	110~132	
5회	1940	100	1300	112	93	은행12, 회사13, 금융조합 10, 관청11, 진학희망 30
6회	1941			115	109	
7회	1941				98	
8회	1942			107	112	은행15, 관청12, 회사63, 진학희망14, 기타7
9회	1943			117	99	
10회	1944				100	

비고: 《조선일보》 1933년 2월 15일, 1936년 3월 24일, 1938년 2월 17일20일, 1939년 3월 4일4월 5일, 1940년 3월 18일4월 2일; 《동아일보》 1933년 4월 11일, 1934년 2월 28일, 1936년 3월 18일, 1938년 2월 3일3월 23일4월 2일, 1939년 3월 23일, 1940년 3월 3일13일; 《매일신보》 1934년 2월 25일. 1936년 3월 7일, 1937년 3월 23일, 1938년 3월 6일, 1940년 2월 15일20일, 1941년 2월 17일4월 8일, 1942년 12월 23일, 1943년 3월 18일; 《조선중앙일보》 1935년 3월 21일, 1936년 1월 30일3월 8일; 《경성일보》 1937년 2월 2일, 1941년 3월 18일.

정원은 100명으로 공고를 냈으나 실제로 110명을 조금 넘게 합격자가 나왔다. 1938년 이후에는 평균 104명의 졸업생이 나왔으니,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비율도 낮은 셈이다.

취업과 진학, 두 가지 진로가 가능한 대동상업학교의 특징은 <표 4>에서도 나타난다.

91 〈大東商業 十一倍 中等校 一部도 磨勘〉, 《매일신보》 1941년 3월 1일.

〈표 4〉 1943년 서울 실업학교 졸업생 동향

(단위: 명)

회수	졸업	취직	진학	기타	취직/졸업	진학/졸업	기타/졸업
경성상업학교	86	39	45	2	45%	52%	2%
경성농업학교	110	60	49	1	55%	45%	1%
경성상예학교	82	42	32	8	51%	39%	10%
경기상업학교	141	84	55	22	60%	39%	16%
선린상업학교	94	55	34	5	59%	36%	5%
한성상업학교	47	32	15	0	68%	32%	0%
경성공업학교	91	66	25	0	73%	27%	0%
협성실업학교	66	47	18	1	71%	27%	2%
동성상업학교	75	40	20	15	53%	27%	20%
대동상업학교	99	68	26	5	69%	26%	5%
경성전기학교	120	82	28	10	68%	23%	8%
보인상업실수학교	60	40	14	6	67%	23%	10%
경성영창학교	121	89	26	6	74%	21%	5%
경성상업실천학교	284	194	59	29	68%	21%	10%
경성상공실무학교	285	206	57	22	72%	20%	8%
경성공업전수학교	115	83	22	0	72%	19%	0%
경성직업학교	719	563	112	44	78%	16%	6%
조선전기공업학교	95	84	10	1	88%	11%	1%
동아공과학교	264	227	27	0	86%	10%	0%
경성상업전수학교	60	55	5	0	92%	8%	0%
대신상업실수학교	68	62	5	1	91%	7%	1%
소화공과학교	430	395	20	15	92%	5%	3%
경성상과학교	50	48	2	0	96%	4%	0%
경신상과학교	60	52	2	6	87%	3%	10%
덕수상업학교	88	86	2	0	98%	2%	0%

출처: 〈進學보다 就職戰線으로 -潑剌한 新役軍群像- 京畿道內 八千中等卒業生動向〉, 《매일신보》 1943년 2월 14일.

경성의 실업학교는 진학보다는 취업에 특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졸업생 중 취직하는 비율이 평균 73%에 달한다. 같은 이유로 졸업 후 취직도 하지 않고 상급학교로 진학도 하지 않는 비율도 평균 5% 미만으로 낮다. 경성의 실업학교에 들어갔다면 계층 상승

을 위한 다음 단계로의 진로는 거의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대동상업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대동상업학교에 경우 진학을 선택하는 비율도 26%로 평균 22%에 비해 높다. 즉 대동상업학교 졸업생에게는 취업으로도 진학으로도 길이 열려 있었다.

대동상업학교 학생의 출신 지역은 구체적 자료는 없으나 한 신문기사가 대강을 전한다. 이 기사에 따르면 1936년 여름 대동학교 학생은 총 557명 중 경기도가 251명으로 1위이고 그 다음이 황해도, 충청남도, 강원도와 경상북도, 함경남도, 전라남북도, 충청북도, 평안남북도 순이다. 경기도 출신 생도가 가장 많은 이러한 학생 구성은 다른 서울 학교와 비교해 예외는 아니다. 조사 기간과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경성제일고보도 경기도 학생 수가 56.7%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북촌에 위치한 중앙고보, 보성고보, 휘문고보는 경기도 출신 학생 비율이 24.3%, 25.8%, 31.6%로 대동상업학교나 경성제일고보보다 낮다.[92]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설명한 충분한 근거는 아직 없다.[93] 다만 대동상업학교가 북촌에 위치한 다른 사립고보와 학생 출신 양상을 다르게 보이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물론 경기도는 서울을 포함하나 인천이나 개성 같은 경성으로 통학할 수 있는 도시도 포함하기 때문에 대동상업학교가 상대적으로 서울 학생이 많은 학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 가지 주지할 사실은 경기제일고보는 예외로 하더라도, 대동상업

92 양원철, 〈일제시기 사립중앙고등보통학교 학생 구성과 졸업생 진로〉, 《서울과 역사》 108, 2021, 69~70쪽.

93 상대적으로 자료가 많은 경성제일고보나 다른 사립고보도 학생 출신 지역이 왜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양원철, 앞의 글, 2021, 70쪽).

학교가 다른 3개의 사립고보다는 전국적 인지도가 떨어졌단 사실이다. 그래서 서울과 그 인근 학생들에게 더 유인력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대동상업학교는 상급학교 중에서는 하위에 속한 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진학은 가능했으나 실업학교로서 당장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학문적 지향이 강한 동급 학교보다는 학문적 명성이 낮았다.

동급 학교에 비해 많은 시설 투자가 이루어진 편도 아니었다. 1930년대 말까지 학생들은 운동장이 없어 운동장 확장 작업에 직접 동원되었다. 대한제국기에 시작한 북촌의 다른 학교에 비해 역사가 짧고 인지도가 낮았다. 계동 언덕에 있는 학교 중에서 휘문고보나 중앙고보는 잘 알려져 있었다. 대동상업학교는 "아는 사람만 알았지 일반이 널리 알지는 못"했다.[94]

당시 대동상업학교에 다닌 학생들의 회고에는 대동상업학교의 이러한 중간적 위치가 반영되었다. 개별 학생의 회고담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요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보자.

> (1) 4회 졸업생 고봉인: 서울 출신에 유복하다. 자가에서 통학했다. 수영부원이었는데, 서울운동장 풀로 가서 졸업 사진으로 다이빙 사진을 찍었다. 체육 시간에 으레 운동장 확장 작업을 해서 불만이었다. 5학년 신학기 때 근처 약초극장(스카라극장)에서 쥬리앙 듀베베 감독의 〈미모자관〉을 몰래 관람했다. 친구들과 함께 재동 중국 호떡집에서 배가 터지게 호떡을 먹기도 했다.[95]

94 〈光明을 맛는 大東商業專修(1)〉, 《中央日報》 1932년 3월 11일.

95 대동중·상업고등학교동문회, 앞의 책, 1995, 148~152쪽.

서울의 유복한 가정 출신인 고봉인이 가정 형편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경험 세계가 다름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가 주로 기억하는 것은 학업보다는 다이빙 사진, 영화관람, 간식 등 학업 외 오락 활동이다. 단, 서울 출신인 그는 이러한 근대적 문화생활을 서울이란 공간과 동일시시키는 지방 학생들의 습관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 (2) 4회 졸업생 김재형: 학교 건물을 언덕에 멋쩍게 서 있는 3층 기역자 벽돌집이라 기억한다. 갑갑한 아카시아 울타리 운동장과 3층 벽돌집에 안 어울리는 어린 오동나무를 기억한다. 500명 학생에겐 갑갑한 운동장이었다. 백색 운동모에 흰 체조복을 입고 확장공사에 투입되곤 했다.[96]

김재형의 회고는 학교의 외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른 졸업생 보다 부정적 인식이 크다. 그 직접적 원인은 운동장 공사에 투입되었던 기억인 것 같다. 그는 특히 상술했듯 고창한 집에 기숙한 적이 있는데, 가정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다.

> (3) 김동진, 5회 졸업생: 보성전문학교와 대동상업학교에 모두 합격했으나 대동상업학교를 선택했다. 최고학부인 보성학교를 못 가서 아쉬웠다. 20:1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는 자부심은 있었다. 취직이 보장되는 점이 상업학교를 택한 이유였다.[97]

96 대동중·상업고등학교동문회, 앞의 책, 1995, 195쪽.
97 대동중·상업고등학교동문회, 앞의 책, 1995, 126쪽.

김동진의 경우는 교육계에서 대동상업학교가 가진 중간자적 위치를 보여준다. 김동진은 최고학부인 보성전문에 합격하고도 대동상업학교를 택했다. 취직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의 높은 지원 경쟁률을 뚫고 대동상업학교에 입학해 자부심도 있었다. 그런데도 보성전문에 가지 못해 못내 아쉬워했다. 학교가 단지 진로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상징적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 (4) 선덕영, 6회 졸업생: 경기도 광주 출신이다. 국민학교 졸업 후 서당에 다니다가 대동상업학교에 남보다 1년 늦게 입학했다. 서울의 학교에 왔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운동장도 없고 교문도 없어 쓸쓸한 느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계동 언덕에 자리 잡은 3층 붉은 벽돌 건물인 학교 교사가 좋았다. 학생들이 체육 교련 시간에 거의 빠짐없이 운동장 정리, 축대 쌓기, 나무를 뽑고 돌을 날라 교문 완성했다고 기억한다.[98]

선덕영은 상경 학생이다. 지방 학생에게 서울 학교에서 다니는 자부심이 있었음을 증언한다. '붉은 벽돌건물'과 같이 근대식 문물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자부심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교문과 운동장이 없어서 쓸쓸했다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 (5) 나익진, 6회 졸업생: 전북 김제군 출신이다. 김제군에서 4~5건으로 드문 유학 사례 중 하나이다. 농부는 매월 수입이 매월 있지 않고 1년 한 번이라 적어도 30석 내외의 벼(1섬 5~6원)를 한 번에 팔아야 자식을 1년 공부

98 대동중·상업고등학교동문회, 앞의 책, 1995, 144~145쪽.

시킬 수 있었다. 시골 중농 수준은 되야 자식 서울 유학 비용을 감당했다는 뜻이었다. 아르바이트할 수도 없었다. 상경해서 현저동에서 하숙했는데, 어머니가 하숙집에서 같이 살며 뒷바라지했다. 당시 현저동에는 수도가 들어오지 않았다. 겨울에는 그릇에 담은 물이 얼었다. 열악한 환경이었으나 현저동 하숙집에 점점 시골 학생이 올라오기 시작해 4~5명이 살게 되었다. 일본인 선생이 경성고등상업학교에 무시험 전형을 추천했으나, 대동상업학교는 신설 학교라서 무시험 전형은 안 된다고 거절당했다. 시험 전형에 도전했으나 신체검사에서 낙방했다. 곽인락이란 동급생이 현저동 근처 살았다. 나이가 4~5세 아래였는데 철도국에 바로 취직했다.[99]

나익진도 상경 학생으로 지방에서 보면 중농 이상의 가정 환경이었다. 하지만 상경한 학생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수도도 들어오지 않은 현저동에서 어머니와 함께 하숙했다. 교육비가 서울 학생보다 더 부담되었다고 말한다. 부모까지 따라와서 뒷바라지하더라도 서울에서 공부를 시키려는 교육열도 보여준다. 경성고등상업학교로의 무시험 전형을 거절당한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설 학교인 대동상업학교가 다른 사립학교와 비교해서 사회적 위치와 인지가 높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6) 이병호 8회 졸업생: 충북 청주 근처 지방 출신이다. 청주의 학교에 다니면 오히려 하숙비가 들 것이었다. 서울은 돈암동에 외가가 있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동상업학교 지원했다. 사실은 경성사범에 지원하고 싶었다고 한다. 대동상업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99 나익진, 앞의 책, 1978, 33~55쪽.

1926년에 문을 연 신생 학교였기 때문이다. 학풍이라고 쌓인 것도 없고, 다른 학교와 구별된 장점도 없었다.[100] 다만 2년제인 을종 학교가 아니고, 5년제 갑종 정규학교라서 다니기로 했다. 그래도 공립 학생들이 거들먹거리는 꼴이 메스꺼워 경성사범에 다시 시험을 치고 싶었다. 경성사범은 칙임관(천황이 임명)이 교장을 맡는 최고의 학교로 생각했다. 대동상업학교는 이웃한 중앙고보와 주먹다짐이나 하는 깡패학교라고 생각했다. 마루보오(둥근 모자)는 경성공립중학교, 용산공립중학교, 경성사범, 경성공업, 즉 칙임관 학교만 쓸 수 있었고, '전투모'나 쓰고 다니는 대동상업학교를 수치스럽게 생각했다.[101] 1943년 3월 졸업할 때 전교 수석을 했다. 그러나 대학 진학 못 해서 교사들은 안타깝게 여기는 분위기였다. 대학 시험 합격한 학우를 보며 마음 편치 않았다.[102] 경제가 어려워 돈암동에서 안국동 학교까지 버스를 타지 않았다. 그 돈을 모아 참고서를 샀다. 나팔바지에 둥근 중학생 모자(원칙적으로 착용 금지)를 쓰고 연애하는 친구도 있었다. 본인은 가난한 누더기 백결선생으로 불렸다. 땔나무 가게를 하는 외가에 의탁해 잔심부름을 많이 했다. 체육 시간에 유도복은 빌려 썼다. 스케이트 수업은 비싸서 결석했다. 5년 동안 중국 호떡 한 개 사 먹은 기억밖에 없다.[103]

이렇듯 이병호는 가난한 상경 학생이었다. 대동상업학교가 5년제 갑종 정규학교라서 지원했다. 하지만 소위 칙임관 학교라는 부르는 공립학교보다 낮게 보는 인식이 있었다. 특히 상경 학생에다 가정 형편이 어려

100 이병호, 앞의 책, 1996, 88쪽.
101 이병호, 앞의 책, 1996, 89~98쪽.
102 대동중·상업고등학교동문회, 앞의 책, 1995, 160쪽.
103 대동중·상업고등학교동문회, 앞의 책, 1995, 96·154~156쪽.

워, 여가·문화 생활을 거의 못 즐겼다. 사회적 계층 상승을 위해 학업에 투신했다. 학교생활은 전혀 즐겁지 않았다.

> (7) 이종임, 1944~1945년 1년 5개월 재학: 동인천 출신으로 경인선을 통해 통학했다. 동인천 창영보통학교 출신이다. 갑종 고등학교를 낙방했는데, 1944년 4월 갑종 학교인 대동과 보인 두 상업학교가 여학생 모집공고(전시 동원을 위해 모집하지 않은 남학생 대체)를 냈다.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해 10대 1 이상이었다. 수험장에 지방 아이들도 많았다.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수업에 열성적이고 실력도 만만치 않았다. 시험에 합격해 대동상업학교를 다니는 데 남학생용 교표를 주었다. 경인선 여학생 전용칸에서 다른 여학교 교표를 단 학생들을 부러워했다. 통학 시간 2시간이 걸렸다. 조선 이름을 유일하게 알았던 '정윤이'란 동급생도 인천이라 같이 통학했다. 담임 현창영은 '명륜정, 혜화정' 부터 가정방문을 시작했는데, 일요일에 동인천까지 방문했다. 하루는 화신백화점에 구경을 가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인천 '짠물'에게는 신기한 문물이었다.[104]

이종임은 전시 예외 상황에 대동상업학교를 다닌 경우이다. 대동상업학교 지원자가 전국에서 왔고 경쟁률을 치열했음을 회상한다. 신문기사의 통계에 보이는 것처럼 경쟁률을 10:1 이상으로 기억한다. 특히 동인천에 살면서 2시간이나 되는 기차 통학을 하며 대동상업학교를 다녔다. 이 학교가 상경의 유인했음을 증명한다. 경기도 출신이지만 서울의 신문물을 신기해한다. 이 유인력이 문화적이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104 대동중·상업고등학교동문회, 앞의 책, 1995, 133~141쪽.

이상의 회고담에서 대동상업학교가 교육 상경에서 가졌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교육 상경이 실재했고 대동상업학교도 그 유인력으로 작용한 점이다. 특히 같은 경기도에서 서울의 학교까지 자가 통학한 사례가 주목된다. 이들은 차라리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 안에서 하숙을 했던 상경 학생보다도 더 먼 거리를 통학했다. 그럼에도 대동상업학교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역시 대동상업학교가 갑종 학교로 인가를 받아 취직에도 진학에도 진로가 열린 정식 학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대동상업학교가 서울에 위치했다는 점도 상경 유인력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 지방 출신 학생이 같은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선호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서울 학교에 시험을 치렀다. 서울이라는 공간이 주는 근대성은 상경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주었다. 다만 대동상업학교가 '학교촌'인 북촌에 다른 쟁쟁한 학교와 같이 위치했음에도, 그 건물이 미비하고 운동장이 협소해 학생들에게 부정적 느낌을 주었다.

셋째, 상경 학생은 졸업 후에도 계속 서울에 남아 있기를 희망했다. 대동상업학교는 지속적 서울 생활을 위한 통과점 역할을 했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취직이든 진로든 상경 학생이 계속 서울에 남아서 다음 사회적 단계를 나아갈 수 있는 청사진을 보여준 것이 대동상업학교의 장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울은 자교와 타교를 직접 비교하게 만드는 공간이었다. 역사가 짧고 규모가 작은 대동상업학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이 나오기도 했다.

넷째, 교육 상경 경험은 학생의 가정 형편에 따라 차이가 컸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학생들은 서울이 주는 여러 학업 외 활동을 향유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꼈다. 다만 빈곤으로 인한 불편

함이 상경 행위 자체를 억지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소외된 현재를 극복하기 위해 더 대동상업학교에 취학했다. 사회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이다. 이런 점에서 빈곤이란 불편한 감정도 상경의 유인력을 더하는 요소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동상업학교 학생의 경험 속에 대동학원의 민중 상징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운동장 공사에 투입되어 불편했던 기억을 토로한 학생은 많았다. 하지만 그 운동장 공사에 사실 인력거꾼과 물장수 등 대동학원과 관련된 노동자가 투입된 일을 기억한 학생은 없었다. 대동상업학교 교가는 현제명 작사, 최남선 작곡이다. 3절에 "애쓰고 땀 흘려 모인 정성을 마음에 새겨서 잊지 맙시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이 노동자들의 노고를 잊지 말라는 뜻이다.[105] 하지만 이 내용도 학생 회고담에 등장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대동세무고등학교는 대동학원의 후신이다. 홈페이지 연혁 편에서 창립년도를 1925년으로 기재한다. 대동학원 설립년도이다. 하지만 같이 게재된 사진은 양복을 입은 교사와 검은 교복을 차려입은 학생들 모습이다. 민중성을 상징하던 대동학원은 찾기 어렵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1925~1945년 대동학원·대동상업학교의 역사를 정리하고 교육 상경의 사회문화적 유인 요인으로서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우선 대동학원은 종로에 위치한 상경 노동자 집단의 아동을 위한 교육기관인 점

105 대동중·상업고등학교동문회, 앞의 책, 1995, 118쪽.

에 주목했다. 1920년대부터 거세진 교육열이 무산자 계층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고 빈곤 혹은 취직만이 아니라 문화와 사회적 향상도 하층 계급의 상경 요인으로 작동했음을 확인했다. 동시에 사회주의자 단체가 비공개적으로 노동자 아동의 교육 활동에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찾아냈다. 동시에 외부의 지원 없이는 무산계급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금이나 일시적 기부금만으로는 그들이 교육기관이 유지되거나 발전하기에 어려웠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대동학원이 대동상업학교로 발전하는 과정을 고창한이란 지방 유지가 상경 교육자본가로 변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은 고창한이 대동학원에 기부하게 된 계기를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한 그의 가족을 통해 검토했다. 그리고 고창한이 무산계급 아동의 대동학원을 엘리트 학생의 대동상업학교로 바꾸었으나 조선인 학교의 공공성 논쟁에서 자유로웠던 이유를 논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지역 출신의 자수성가형 자산가로 서울 사회나 조선인 교육계에서 얽힌 이해관계나 경제 활동이 없던 점, 그리고 무산계급 교육에 희생한다는 긍정적 이미지 만들기가 신문 보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대동상업학교 학생 통계와 졸업생 회고를 교육 상경 경험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5년제 갑종 학교로 인가받은 이후 대동상업학교는 서울의 다른 사립 중등학교처럼 높은 지원율과 낮은 합격률, 그리고 진학과 취직을 보장하는 엘리트 교육기관이 되었다. 하지만 지방 출신에 가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경험과 그 해석이 달랐고, 이름난 학교에 다닌다는 엘리트 의식의 내면화에도 차이를 내는 이유가 되었다. 이는 대동상업의 상경 학생이 성공이 거의 보장된 계층이긴 하지만 그들이 형성할 서울 엘리트 계층에도

내부에 많은 차이가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관련 주제이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무산계급 자녀의 교육과 사회주의 운동의 관계에 대해 다루지 못했다. 주로 야학의 형태로만 존재한 사회주의운동단체의 노동계급 학교가 좀 더 공식적인 형태로 존재한 것은 서울만의 특징이다. 본 연구는 대동학원에서 노동학원으로 이어지는 연결성을 드러냄으로써 사회주의 계열이 서울에서 일반 교육 과정에 비할 만한 사회주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한 정황을 보였다. 대동학원-노동학원으로 이어진 교육 계획이 무너진 후, 어떠한 형태로 사회주의를 전파하려 했고 서울이란 공간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앞으로 더 연구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제3장

1920~1930년대 상경 도시 빈민층과 창신동 토막촌 양상

유슬기(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1. 머리말
2. 구직 상경과 경성부 내외 토막민 증가
3. 창신동 토막촌과 토막민
4. 맺음말

1. 머리말

1905년 통감부를 설치한 이후, 한국에 대한 주도권을 본격적으로 침탈하던 일제는 1908년부터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다. 토지조사사업은 토지 소유권자를 확인하고 이를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소유권자에게 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업의 과정과 평가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이기도 했으나, 사업 이후 근대적 토지제도로 나아갔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1] 그렇다면, 근대적 토지제도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는 농촌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토지조사사업은 실질적으로 토지를 경작하던 농민이 아닌 토지 소유권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수조권收租權을 인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의 농민들이 생산수단, 즉 토지를 보유하지 않은 소작농민으로 전락하는 농촌사회의 위기가 있었다. 이에 더하여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조사한 토지정보들을 토대로 식민지 농업정책의 일환인 산미증식계획을 시행하며 농촌 사회에 혼돈을 가중시켰다. 1920년부터 시작된 산미증식계획은 1918년 일본 내에서 발생한 쌀소동 이후 저가의 쌀 공급을 유지하

1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 일조각, 1984; 배병일,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2021; 배영순, 《韓末日帝初期의 土地調査와 地稅改正》, 영남대학교출판부, 2002; 신용하, 《조선토지조사사업 연구》, 지식산업사, 1982; 신용하, 《일제 조선토지조사사업 수탈성의 진실》, 나남, 2019; 이영호, 《근대전환기 토지정책과 토지조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이영훈, 〈光武量田에 있어서 〈時主〉 파악의 실상〉,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 89~137쪽; 정연태, 〈大韓帝國後期 不動産 登記制度의 近代化를 둘러싼 葛藤과 그 歸結〉, 《법사학연구》 16, 1995; 조석곤,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 해남, 2003; 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토지대장연구반,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기 위한 방책이었다. 궁극적으로는 저미低米와 저임금으로 지탱해오던 일본의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2] 식민당국은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각종 사업과 정책을 펴냈지만, 예상만큼의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이 가운데 농민은 1912년 공포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에 근거하여 일본의 메이지민법明治民法을 그대로 따른 의용민법依用民法에 의해 이전 관행과는 다른 소작관계를 형성해가며 농사를 지을수록 심각한 농가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닥쳤다.[3] 농민들의 농촌 이탈은 본격화되었다.

이와 같은 농촌 사회의 상황을 두고, 1927년 기사에서는 농촌의 몰락으로 이농민들이 발생하였고, 공장공업이 발달한 도시로 이들이 이주하였음을 지적하였다.[4] 도시는 기사에서 말한 이주 요인으로서 공업 뿐만 아니라, 상업, 건설업 등 1차 산업이 주를 이루는 농촌보다 더욱 다양한 직업군을 구성하고 있었다. 농업을 주된 산업으로 삼았던 농촌과는 분명 다른 산업사회였다. 강만길은 그의 저서에서 위와 같은 농민들의 빈민화 과정을 다루며, 이농민들이 선택한 다음의 3개의 길을 설명했다.[5] 깊은 산속에 들어가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화전민火田民이 되거나, 도시로 상경하여 도시 빈민층으로서 토막민土幕民이 되거나, 또는 각종 기반시설 토목공사에 투입되는 공사장 막일꾼이 되었다. 손정목 또한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농촌에서 이탈한 농민들이 도시로 상경하여 남의 집에 얹

2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영학, 《일제의 농업 생산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22, 제3·4·5장을 참고하였다.

3 정연태, 《식민권력과 한국 농업: 일제 식민농정의 동역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154~167쪽.

4 〈十五萬離散民〉, 《동아일보》 1927년 4월 12일.

5 강만길, 《日帝時代 貧民生活史 硏究》, 창작사, 1987.

혀사는 형태의 행랑살이[6]를 하거나 토막민이 되었다고 말한다.[7] 화전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벗어난 형태이다.

이 글은 토막민에 주목하였다.[8] 토막민은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 중 빈민층을 대표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되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민지배에 의해 형성된 도시 계층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막민 나아가 도시 빈민층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축적과 성과를 다져왔다. 식민지 도시 구성원으로서 하층민을 분석하는 주택, 인구, 사회사업, 도시 확장 등 굵직한 연구 주제들의 하위 단위로서 역사학, 사회학, 도시공학, 행정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관심을 가졌다. 토막민을 포함한 도시 빈민 관련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 토막민 형성과 추이, 그들의 생활상을 다룬 연구[9]가 이들을 주목한 1세대 연구라 할 수 있고, 뒤이어 둘째, 일제의 빈민구제대책 및 개선사업을 다룬 연구[10]와

6 1920~1930년대로 갈수록 사람들은 점차 자아 개념이 형성되면서 주인집에 얹혀사는 형태의 행랑살이보다는 더 열악한 주거공간이라도 독립된 형태로 거주할 수 있는 토막집을 점차 자아 개념을 인지하게 되면서 하층민이라도 주인집에 종속되기보다 토막집이라도 독립된 삶을 살고자 했다(손정목, 《日帝强占期 都市社會相硏究》, 일지사, 1996, 250쪽).

7 손정목, 앞의 책, 1996.

8 행랑살이 또한 상경자에 해당하지만, 토막과 같이 불온전한 형태의 집이 아닌, 온전한 주인집에 곁방을 사용하는 형태이므로 빈민 거주지로 부적합하다. 이 글에서는 도시 빈민층이 된 상경자에 초점을 두어 이들 거주지의 위치와 생활상을 파악하기 위함이므로 토막민에 집중하였고, 이들이 집단을 이루며 거주하는 토막촌을 빈민가로 보았다. 토막민 또한 농촌에서 몰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에서 파산에 이른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역시나 '상경자'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였다.

9 김경일, 〈일제하 도시 빈민층의 형성 -경성부의 이른바 토막민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3, 1986; 강만길, 앞의 책, 1987; 남영우, 〈일제하 경성부의 토막촌 형성〉, 《문화역사지리》 창간호, 1989; 손정목, 앞의 책, 1996.

셋째, 일제의 대책에 대한 저항, 토막촌 철거 반대운동으로 대표되는 토막민의 반응을 다룬 연구[11]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구는 농촌과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토막민과 토막촌을 설명하고 토막촌을 통해 근대도시가 갖는 특징을 확인함에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다시 말해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전국 각지에 두루 포진된 토막민과 빈민을 다루거나, 1930년대 중후반 이후 식민 당국이 토막민 이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성한 토막촌까지 연구 대상지로 포함하고 있는 등 공간적으로 광범위한 토막촌을 다루고 있다. 넓은 범위의 토막촌을 다루게 될 경우, 토막민의 토막촌 거주 원인 또한 다양해져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한 구직 상경 요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즉, 농촌 상황과 구직 상경 간의 관계에 한정하여 토막민 발생 배경을 고찰하기 어렵다. 나아가 식민 당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주되어 형성된 토막촌까지 연구 대상의 범주로 본다면, 상경한 토막민을 가려내기가 더욱 어렵다. 이 경우, 기존의 토막촌에서 쫓겨나 새로운 토막촌으로 이주한 것이므로 이들의 토막촌 유입 원인은 구직 상경보다 이전 거주지로부터의 이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당국에 의해 조성된 토막촌을 제외하고 자연발생된 토막촌에 한정해야 상경자들이 도시 내 토막촌으로 모여든 이유, 해당 토막촌의

10 염복규, 〈일제말 京城지역의 빈민주거문제와 '시가지계획'〉, 《역사문제연구》 8, 2002; 유승희, 〈1920~1930년대 경성부 주택문제의 전개와 대책〉, 《아태연구》 19-2, 2012; 예지숙, 〈일제시기 조선에서 불아자의 출현과 행정당국의 대책〉, 《사회와 역사》 107, 2015; 이명학, 〈1920~30년대 불량주택지구 개선사업의 구상과 변질〉, 《민족문화연구》 82, 2019.

11 이명학, 〈일제시기 철거반대운동의 추이와 조직화 양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4, 2021.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며, 도시로 상경하는 시대상이 더욱 명료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토막촌, 그중에서도 창신동에 주목하여 구직 상경한 토막민의 이야기에 집중하였다. 창신동은 경성부 동부에 속한 행정동으로, 한양도성 밖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성벽과 맞닿아 있다. 후술하겠으나, 창신동의 위치적·지형적 특성은 토막촌 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다른 지역의 토막촌보다 철거 및 이주 대상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였다. 이에 이 글은 창신동 토막촌에 초점을 두어 구직 상경한 도시 빈민층을 서술함으로써 자연히 토막촌이 형성될 수 있었던 지역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글을 구성하였다. 2장에서는 경성부 내외로 늘어나는 인구와 더불어 도시 빈민층이 거주하는 토막촌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식민 당국의 대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증가하는 경성 토막민, 특히 이 중에서도 상경한 토막민에 초점을 두어 그들의 생활상을 고찰할 것이다. 이후 3장에서는 경성부 내외의 토막촌 중에서도 그 수로 으뜸이었던 창신동에 주목하여 지역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이 토막촌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창신동에 거주한 상경 토막민의 일화를 들어 살펴볼 것이다.

2. 구직 상경과 경성부 내외 토막민 증가

1) 경성부 내외 토막촌 형성과 대책

몰락한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상경했다. 서울도 마찬가지

였다. 이들이 삶의 터전을 등지고 서울로 상경한 이유는 농촌보다 도시에서의 일자리가 더욱 다양하고 많기 때문이었다. 이는 근대도시로의 변화 과정을 겪은 해외 도시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이었다.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을 계기로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를 경험하며 근대도시로 성장한 영국 런던은 일자리를 찾아온 이민자들로 하여금 극심한 주택난을 겪고 있었고, 불결한 주거환경을 고발하는 "버림받은 런던의 처절한 통곡The Bitter Cry of Outcast London"이라는 글이 확산되면서 슬럼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기도 했다.[12]

> 근대상공업문명의 극도로 발달됨을 따라 그 산물은 도시집중과 농촌퇴폐의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농업 문명을 대하여 공업 문명의 활약하는 위대한 세력 하에서 농민이 농토를 捨하고 공업 문명의 중심지인 도회로 집중되었다. 각국의 인구 상으로 관찰한 도회 집중의 割合을 略擧하건데, 영국은 총 인구의 8할이오, 독일은 7할, 미국은 6할, 불란서와 일본은 5할 등이라 한다. 그리하여 정치상으로나 경제상으로나 교육상 제반시설이 다 도회를 중심으로 하여 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만 도회에만 한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곧 전 사회 문제화하여 도시 생활의 운명이 곧 전 사회생활 운명을 좌우하게 되었도다. (중략) 目今 우리 조선사회에서도 상공업 문명의 자극을 受하야임이 도시집중의 현상을 격렬하며 농촌부진의 경향이 日甚한 今日에 在하야 (후략)"[13]

12 Peter Hall, 안창호·안건혁 옮김, 《내일의 도시: 20세기 도시계획 지성사》, 한울아카데미, 2013, 44쪽; Steffel, R. Vladimir, "The Slum Question: The London County Council and Decent Dwellings for the Working Classes, 1880-1914", *Albion5(4)*, 1973, p. 314.

앞에 인용한 1923년의 기사는 상공업이 발달한 근대도시로 나아감에 따라 농촌을 떠나온 사람들로 인해 도시 인구가 집중되고 그에 따른 "인구과잉, 주택난, 생활난, 취직난 등의 난투에 처한 도시생활"을 타개해야 함을 주장하며 해외 도시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서울을 강조했다. "농촌에서 생활의 지반을 잃어버리고 향하는 곳은 도시뿐이라"[14] 하여 부내 직업소개소를 찾은 구직자들은 1927년과 1933년 사이 20배가 증가했다.

다만, 해외 도시에서와 서울에서의 다른 점은 국유지 또는 개인 사유지를 무단 점거한 토막민의 존재이다.[15] 토막민 생활에 대하여 1940년에 자세히 조사한 바 있는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에서는 토막민을 "일종의 도시 세민細民"이지만, 여타 빈민과 다르게 관유지 및 사유지를 불문하고 비어있는 토지를 불법 점거하고 있어 토막민이라는 특정한 명칭을 붙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16] 토막민은 토굴, 움집, 움막, 토막 등의 용어로 지칭되는 땅을 파서 흙을 벽 삼아 만든 불완전한 주택에 거주하는 도시 빈민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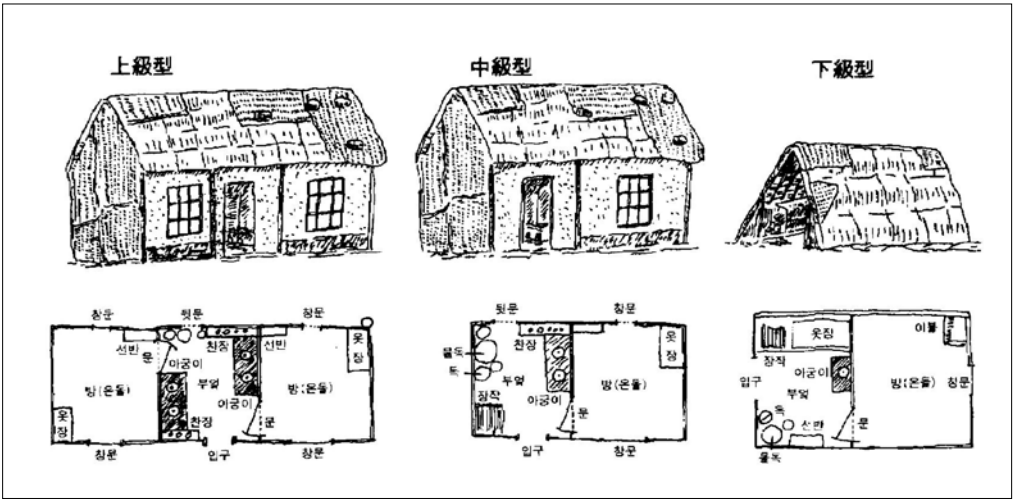
조선시대에도 기근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도성 주변에 유민이 토막을 짓고 머무른 바가 있었으나, 지금의 형태는 일시적 거주가 아닌 정착 거주이므로 오히려 그 수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보았다. 손정목 또한 이전부터 토막민 개념이 존재하였으나, 당시 이들은 잠시 토막 생활을 하다가 다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는 단기적인 토막민들이

13 〈都市集中과 農村의 不振 當局에 一考를 促함〉, 《조선일보》 1923년 8월 27일.

14 〈日傭勞働의 求職者 五年間廿倍激增〉, 《조선일보》 1933년 6월 4일.

15 〈土幕民의 增加〉, 《매일신보》 1931년 11월 21일.

16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박현숙 역, 《토막민의 생활과 위생: 1940년, 경성의 풍경》, 민속원, 2010, 79~80·99~100쪽.



〈그림 1〉 토막집 유형
출처: 남영우, 앞의 글, 1989, 47쪽.



천연동 토막집
출처: 《조선일보》 1931년 1월 23일.



광희문 밖 토막집
출처: 《조선중앙일보》 1928년 11월 22일.



송월동 토막집
출처: 《경성일보》 1931년 10월 8일.



아현리 토막집
출처: 《조선일보》 1933년 10월 8일.

〈그림 2〉 실제 확인되는 토막집 등급별 유형

었던 한편, 1910년대 후반부터 늘어나던 토막민들은 점차 토막에 정주하며 생활하는 장기적 형태로 고착화되었다고 설명했다.[17]

〈그림 1〉은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에서 1940년 발표한 등급에 따라 토막집 유형에 도면을 덧붙인 것이다. 하급 유형에 해당하는 제일 오른쪽 토막집은 과연 동굴과 비슷하다. 〈그림 2〉에서 확인되는 실제 토막집의 모습은 〈그림 1〉의 유형과 비슷하다. 천연동 토막집과 광희문 밖 토막집은 하급 유형의 토막집 형태를 하고 있고, 송월동과 아현리의 토막집은 중급과 상급 유형에 흡사하다.

〈그림 3〉은 언덕으로 이루어진 경사 지형에 형성된 토막촌이다. 홍제외리 토막촌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언덕 지형을 집터로 다져 봉래정 토막촌과 같은 토막집을 짓는다. 경사 지형에 위치한 토막촌은 집의 한쪽 면을 흙 언덕으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더욱 건축이 용이하고 필요한 건축 재료의 양을 줄일 수 있지만, 불완전한 주택의 형태이므로 온습도 조절과 위생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다.

이 사진들은 모두 경성부 내외에 위치한 토막집과 토막촌을 취합한 것으로, 경성부 토막민 상황을 말해준다. 토막집은 안전상, 위생상 모든 면에서 적합한 주거지가 아니였다. 더욱이 경성부 입장에서는 늘어가는 인구로 인해 과밀 도시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토지 무단 점유로 조성된 토막촌을 철거해야 했고, 언덕에 자리한 토막촌이 눈에 띄는 상황에서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았기에, "배설물적 도시의 악"[18]이 쌓이고 있다 말하며 "일소一掃"[19] 해야 하는 정리 대상으로 인식했다. 1936년 전후로 대경

17 손정목, 앞의 책, 1996, 251쪽.

18 本誌記者, 〈京城の土幕民を探る〉, 《朝鮮及滿洲》 339, 1936년 2월.

19 〈林野地를 利用 土幕民 一掃〉, 《매일신보》 1935년 6월 16일.



홍제외리
출처: 《동아일보》 1936년 8월 2일.



봉래정
출처: 《동아일보》 1924년 1월 10일.



동대문 밖
출처: 《동아일보》 1935년 2월 14일.



아현리
출처: 《매일신보》 1934년 4월 13일.

〈그림 3〉 언덕에 위치한 토막촌

성 실현을 고려한 경성부 권역 확장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늘어가는 토막민을 방치할 수 없었다.

경성부 확장 논의는 시가지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하며 토지소유자들의 소유지 내 토막 철거를 부추겼고, 경성부 확장과 더불어 본격적인 시가지계획이 이루어지면서 경성부에서도 토막촌 철거를 진행했다.[20]

20 염복규, 앞의 글, 2002, 제2장.

경성부는 비인도적인 철거에서 나아가 궁극적인 빈민주거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경성부는 1935년부터 매해 500호씩 4개년 이전 계획을 수립해 계획대로 진행하면 모두 수용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21] 그러나 홍제외리弘濟外里와 정릉리貞陵里에 각각 1,000호를 수용하려 했음에도, 1936년까지 홍제외리에만 140호 밖에 수용하지 못할 만큼 산재해 있는 토막민 수에 비해 이주 성공률은 극히 낮았다.[22]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일반주거지와 세민지구細民地區를 분리 설정하여 토막민을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이 계획 또한 실패하였다. 1938년 경성부는 250여 호를 정리했지만 새로 720여 호가 다시 생겨났다며, 토막민 정리가 더 이상 불가하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하였다.[23] "적극정리도 무효"[24]일만큼 토막민은 계속해 늘어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지경이었다.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에서는 토막민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1940년 4월부터 7월까지 경성부 내외에서 거주 중인 토막민 556호를 선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표 1〉은 이들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1 〈京城市內 土幕民 阿峴으로 移住시킬 計劃〉, 《동아일보》 1934년 3월 18일; 〈三千五百戶 土幕民中 年內엔八百戶收容〉, 《동아일보》 1935년 11월 29일.

22 〈土幕民移住失敗는 朝三暮四의政策〉, 《동아일보》 1936년 7월 11일.

23 〈喫緊한 住宅對策의 樹立!〉, 《동아일보》 1938년 12월 26일.

24 〈積極整理도 無効 土幕民은 漸增〉, 《동아일보》 1936년 2월 7일. 경성부에서는 이주비와 집을 건설할 자재를 제공한다 약속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땅을 정비하는 비용을 이주민이 부에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나무를 베어 자재로 사용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도심과 거리가 있어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을 만한 노동시장이 불확실했다. 이주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과 더불어 이주민들의 생활상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과연 "적극정리"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京城府移住政策에 土幕民結束反對〉, 《동아일보》 1936년 6월 8일).

〈표 1〉 경성부 내 토막민 수

(단위: 명)

년도	토막호수	토막민수	경성부 총 인구수
1931	1,538	5,093	514,755
1932	-	-	538,123
1933	2,870	12,378	563,636
1934	2,902	14,179	592,278
1935	3,576	17,320	637,697
1936	-	-	677,241
1937	3,248	14,993	706,396
1938	3,316	16,644	737,214
1939	4,292	20,911	774,286

출처: 토막호수 및 토막민수는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박현숙 역, 앞의 책, 2010, 103쪽.
경성부 총 인구수는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1~1941.

삽입한 토막민 호구 수 변화이다. 경성제대에서 집계한 토막민 수와 신문 기사에서 언급되는 토막민 수가 다소 차이가 있어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표 1〉의 토막민 수를 보면, 이들의 수가 증가하는 양상임은 분명하다. 특히 1930년대 초 토막민 호수와 인구수가 2배 가량 급증하였다. 토막민 이주 정책으로 1935년 이후 일시적으로 그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이내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토막민 이주 대책은 무용지책이었다. 토막민 수는 경성부 총 인구의 2~3%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수로 계속해 증가하였다. 토막보다 조금 양호한 형태의 불량주택까지 합하면, 1940년 기준으로 경성부 내 토막 및 불량주택 거주자 총 7,303호로, 경성부 전체 호수 중 4.9%를 차지하며, 그 인구수는 3만 4,316명으로, 더욱 심각했다.[25] 식민 당국의 대책도 무용지물이 될 만큼 식민지기 동안 토막민은 계속해 늘어갔고, 이들은 토막 철거 및 이주 대책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적

25 조선총독부 후생국, 〈土幕及不良住宅調査〉, 《조선총독부조사월보》 13-3, 1942년 3월.

극 표명하며 삶의 터전을 유지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확보하기도 했다.

2) 구직 상경한 서울 토막민

1930년 《조선국세조사보고》에서는 출생지별 인구를 발표하였다.[26] 유일하게 1930년 자료에서만 이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인구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부내 거주하는 39만 4,240명 중 경성부에서 태어난 사람이 17만 9,226명이다. 즉, 나머지 21만 5,014명은 경성부가 아닌 타지역에서 출생한 사람들로, 경성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상경민이었음을 의미한다.

> 저의 집은 본래 시골인데 지금으로부터 십 년 전에 고모부 되는 어른이 서울 와서 여관을 하면서 지내자고 해서 우리 집안은 멋모르고 가장집물을 팔아가지고 와서는 (중략) 집세는 커녕 먹을 것도 없게 되어 남의 집 겹방으로 다니며 아버지는 막벌이 노동을 하여 가난한 살림을 계속하게 되어 1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조금도 다름없이 아니 점점 가난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무슨 일이든지 하루에 70~80전 받는 모군 일도 해보시고 쌀화인 1되를 떡가루로 빻는데 8~9전 받는 일도 했었고 몇 푼을 못 버는 지게도 져보시고 한 지게에 5전씩 받는 물도 길었고 그 밖에 무슨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어머니도 떡 장사도 하고 나물 장사도 하고 콩국 장사도 해보시고 남의 집 하인 노릇도 하였으나 우리 집안은 그래도 살 수 없어서 나는 학교 갈 나이에 학교에도 못 가고 공장에서 썩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27]

26 조선총독부, 《昭和五年 朝鮮國勢調査報告 全鮮編》, 1934.

실제 당시 발행된 자료에서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서울로 상경한 이들의 이야기를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29년《동아일보》에 실린 위의 기사는 서울로 상경하는 많은 이들의 상황을 보여준다. 어느 한 가족이 넉넉한 살림살이를 기대하며 상경했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임을 보여준다. 부모는 무슨 일이든 해보려 했지만 결국 아이까지 학교를 포기하고 공장으로 나서게 되었다. 부모든 아이든 생계를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서울에 가면 호구지책이 해결될까 상경하였던 바, 취직은커녕 수중에 쇠천한푼 없으니 우선 그날 밤 잠자리가 없어서 장안을 헤매"[28] 거나, "돈 벌이 하러 (중략) 서울로 올라와서 거리로 방황하다가 세브란스 병원 문 앞에서 하룻밤을"[29]새우는 등 허름한 움집이라도 몸 누울 곳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1935년 신문기사 제목 중 하나였던 〈농촌苦에 떠오른 도시夢〉[30] 문구가 당시 상황에 딱 들어맞는 듯, 농촌을 벗어나면 생활고가 해결될 것이라 믿고 상경했지만 도시에서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1940년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에서는 조선에 존재하는 특수 세민을 춘궁민, 화전민, 토막민으로 분류하였고, 이들이 세민으로 전락한 이유에 대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농촌 사정을 꼽았다. 토막민의 전력前歷 조사 결과, 대부분 농촌 출신의 사람들이었고, 세대주의 이전 직업 또한 농민이 대다수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말한 농촌 사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 1호당 경지면적이 적지 않고 토지생산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조건이지만, 아직 근대적인 농업 환경을 구축하지 못하

27 〈직업부인이되기까지 도회살림하랴고(上)〉,《동아일보》1929년 12월 12일.
28 〈잘곳없는 少年 越墻하다 被逮〉,《동아일보》1936년 7월 1일.
29 〈貧困의 二重悲哀!〉,《조선일보》1938년 7월 18일.
30 〈서울妓生 부러워 上京한 三少女〉,《동아일보》1935년 7월 13일.

였고, 둘째, 소수에 의한 토지 겸병과 소작료 문제로 인하여 자작농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일본으로, 만주로 향했고, 도시로 향한 농민들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는 토막민 즉, 특수 세민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조선 농촌의 문제가 "근대 자본주의가 유입한 '일한병합' 이후의 일"[31]이라 말하며 식민 통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정황보다는 문제 현상을 짚어내는데 주안을 두었다. 지극히 지배층의 입장에서 서술한 조사 결과다웠다. 이에 대하여 강만길은 본격적으로 토막촌이 형성되고 사회 문제로 부상한 시기를 1920년대 초로 추정하며,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 일본인 지주 경영, 농지 겸병 등의 식민지 농업정책으로 농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토막민의 대부분을 구성하였음을 주장하였다.[32]

> 금일의 토막민은 사회의 낙오자이오, 생활의 파산자이다. (중략) 사회몰락에 수반되는 일부 산물이다.[33]

> 그들이 그와 같은 암흑굴에 빠지게 된 원인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째로 경성 부근의 농민이 농업에 종사하다가 실패한 것과 둘째로는 무능한 것 셋째로는 농채의 과다한 것 넷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계속 속아서 자금을 빼앗긴 것이라 한다.[34]

31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박현숙 역, 앞의 책, 2010, 80쪽.
32 강만길, 앞의 책, 1987, 42·294쪽.
33 〈社說 土幕民問題〉, 《매일신보》 1932년 5월 18일.
34 〈경성시내 토막민〉, 《신한민보》 1934년 4월 26일.

> 제1로 도시와 농촌과의 대립 내지는 공업과 농업 간에 介在한 모순으로 인하여 농민이 자기의 토지를 떠나 도시세민으로 전락되어 노동시장을 구하여 도시로 몰려든 것이 다시 도시에서도 생활의 방편을 얻지 못하고 드디어는 '룸팬'이 된 것이오. 제2로는 자본의 집중과정에 특성되어 소자본의 대자본에의 예속 내지는 병합으로 인하여 소상인의 파산이 속출하여 드디어 세궁민으로 전락되는 것이니 이 어느 것도 모두 그 근원인 사회적 원인을 가진 것으로서 (후략)[35]

위의 인용문들은 토막민 발생 원인에 대해 신문기사에서 언급한 것으로, 토막민 발생 배경을 알 수 있다. 인용문을 통해 보면, 토막민은 사회적 몰락에 의해 낙오자 그리고 파산자가 된 이들로, 무능을 전제로 한 것에서 약간의 관점 차이가 있어 보이나, 농업 실패와 농사로 인한 과다한 채무를 꼽으며 파산에 이르렀음을 그 이유로 삼고 있다. 또한 농촌 사회와는 다른 산업사회를 꿈꾸며 상경하였으나 적응하지 못해 세민으로 전락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지금의 농촌 사회로부터 탈피하려는 마음이 곧 토막민을 양산하는 가장 두드러진 요인임이 분명했다.[36] 이들에게 현재의 농촌은 미래가 불투명한 곳이었던 셈이다. 김경일은 토막민 발생을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 시기 즉,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토막민 발생 요인이 상이함

35 〈社說: 府內細民과 土幕民〉, 《조선중앙일보》 1935년 10월 20일.

36 인용문에서는 농촌 사회로부터의 탈출을 포함하여 시내 거주자 중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경우도 토막민의 발생 배경으로 꼽았다. 본문에서 김경일, 〈일제하 도시 빈민층의 형성 -경성부의 이른바 토막민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3, 1986, 209~213쪽에서도 도시 내 수평 이동에 의한 토막민 발생 원인 또한 중요하겠으나, 이 글에서는 상경에 주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전자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을 설명했다.[37] 그는 1920년대 후반 이전에는 근대 자본주의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몰락한 도시민의 토막촌 유입이 이루어졌고, 토지조사사업으로 격화된 농민층 분해가 산미증식계획에 의해 가시화되면서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 사이 동안 이농민의 토막촌 유입이 나타났으며, 1930년대 초반에서 1930년대 후반까지 앞선 시기의 요인에 의해 눈에 띄게 토막민이 증가하였음을 지적했다. 다시 말해, 토막민 형성 원인에 있어서 도시 내부에서의 수평 이동이 존재하나, 토막민의 급증과 토막촌의 확산에 있어서는 붕괴된 농촌사회로 인한 상경자들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앞서 강만길이 식민지 농촌 경영에 따른 도시 토막민 증가를 짚은 것과 일맥상통하다.[38]

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 조선에서 제일 큰 대도시인 서울로 향하였다. 경성부는 식민 통치기관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 조선의 수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만큼 경성에는 다양한 일자리가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31년 토막민의 직업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지게꾼, 날품팔이 등 자유노동자自由勞動者가 제일 많았고, 다음은 인부용인人夫傭人, 그다음이 각 공장 직공, 각종 행상, 구루마꾼[荷車夫], 인력거꾼, 기타 순서로 구성되었다.[39] 농촌에서 상경한 이들은 특별한 기술력을 갖춘 기술 노동자가 되는 것도 불가능했고, 상업을 이룰만한 자본력도 충분하지 않았기에 직업군이 제한적이었다.[40] 이들은 대부분 신축 건물

37 김경일, 앞의 글, 1986, 209~213쪽.

38 강만길, 앞의 책, 42·294쪽.

39 〈月收入平均額 不過十一圓 일정한 직업을 가진자 적고 大槪는 自由勞動者〉, 《매일신보》 1931년 11월 20일.

40 강만길, 앞의 책, 1987, 314쪽.

현장이나 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 공사 현장 인근 토막에 거주할 만큼 이동에 소모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였다.[41] 이는 당국에서 외곽으로 토막민을 이주시키려 했음에도 이들이 다시 시내로 돌아온 이유이기도 하다.[42] 제공되는 일자리가 많은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교통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외곽에 거주하게 되면 적은 임금을 받는 부녀자들은 취업을 포기해야 했다.[43] 일터와 멀어질수록 생활비가 더욱 궁핍해지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 뿐이므로, 토막민들은 일자리가 많은 곳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는 토막민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토막민 직업을 조사했고, 직업에 따른 소득 금액과 이들의 생활비 지출액을 함께 설명하며 토막민의 열악한 삶을 그려냈다. 그러나 토막민의 소득과 지출은 이들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활상은 사건사고를 보도하는 당시 신문기사에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토막민 중에서도 시골에서 상경하여 경성부 내외 토막촌에 거주하는 이들의 내용을 주로 살펴보았다. 상당수의 기사가 온전하지 못한 토막집에 발생한 화재 소식이었고, 생활고로 인한 자살, 도박과 절도, 아편 등 범죄와 연루된 사건들이었다.

상경한 토막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을 보여주는 사건들 중 복어 독에 의한 사망사건 또한 자주 등장한다. 개성開城에서 상경한 어느 남매는 날품팔이 부친이 없는 사이에 고기가 먹고 싶어서 같은 번지에 사는 이가

41 〈土幕民 大部分은 基地工事튼 人夫〉, 《조선일보》 1931년 1월 23일.

42 〈土幕民 移住失敗는 朝三暮四의 政策〉, 《동아일보》 1936년 7월 11일; 〈府內土幕이 三千戶民 共同住宅制計劃〉, 《동아일보》 1938년 3월 4일.

43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박현숙 역, 앞의 책, 2010, 90쪽; 강만길, 앞의 책, 1987, 3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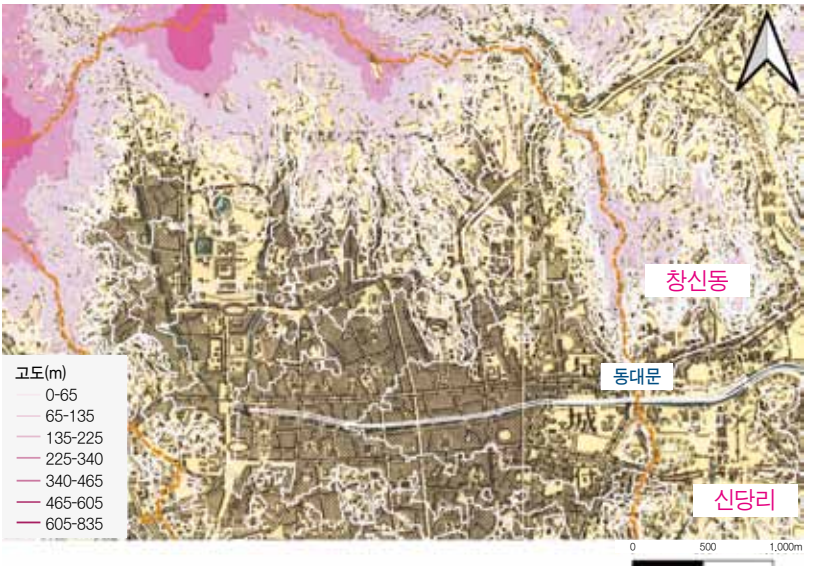
남대문시장에서 주워 온 복어 내장으로 장국을 끓여먹었고, 양평楊平에서 살길 찾아 친구들과 상경한 어떤 이는 길가에서 복어 알을 주워 와 구워 먹었으며, 청주淸州에서 상경해 철물을 주워 팔며 생활하던 어떤 이는 용산철도관사 쓰레기통에 버려진 복어 알을 맛있는 식재료로 생각해 먹은 것이 화근이 되었다.[44] 이 사건들은 상경한 토막민에게 벌어진 한정된 사례를 추린 것이고, 토막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복어 중독 사건은 이들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사고였다. 어딘가에 버려진 쓰레기 중에서 식재료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빈민들의 생활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이다.

구직 상경한 토막민들의 처참한 삶은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소설에도 반영될 만큼 낯선 소재가 아니었다. 1932년《동방평론》에 실린 이태준의 소설 〈봄〉에서는 변변치 않은 시골 생활을 청산하고 당시 가장 인기 있던 월급쟁이의 삶을 꿈꾸며 서울로 상경했지만, 월급쟁이커녕 변변찮은 일을 구하기 어려웠고 거주하던 빈민촌에 떠돈 전염병으로 아내를 잃은 주인공의 사연이 나온다. 일말의 희망이라도 지금보다는 낫겠지 싶어 상경하였지만, 시골생활을 청산한 자금으로 그나마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 어느 빈민가의 불량주택이었던 것이다. 이 소설에서는 새로운 삶을 꿈꾸던 이들을 수용하면서도, 불결한 환경 때문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빈민가의 이중적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44 〈又復二兒가 鰒魚中毒慘死〉,《조선일보》1924년 1월 9일; 〈살길을차저 = 죽음길에 복어알먹고慘死〉,《조선일보》1925년 4월 11일; 〈鰒魚알주어먹고 一名絶命三名危篤〉,《조선일보》1937년 3월 7일.

3. 창신동 토막촌과 토막민

1) 창신동 토막촌 특징



〈그림 4〉 창신동의 위치 및 지형

비고: 〈그림 4〉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오픈 API로 제공하는 1919년 조선지형도를 바탕으로 그 위에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등고선 레이어를 중첩해 이미지 파일로 추출한 결과이다. 자연지형은 당시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음을 전제로, 등고선은 현재 제공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창신동은 현재 서울 종로구에 속한 행정동으로, 동대문 바로 인근에 위치하여 창신동 남쪽에는 청계천을, 서쪽에는 서울성곽을 인접하고 있다. 창신동의 위치적·지형적 특징에서 주목할 점은 동대문과 산, 그리고 천변이다. 창신동은 동대문 바로 옆에 위치해 도성 안과 밖을 드나드는 길목이었고, 산성으로 이루어진 성벽을 행정구역의 일부 경계선으로 삼고 있는 만큼 경사진 형태인 한편, 지대가 낮은 청계천변도 포함하고 있다.

〈그림 4〉를 자세히 살펴보자. 중심부는 높은 고도의 지형에 둘러싸여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 높은 고도의 산세를 따라 축성된 성곽의 동쪽 밖에는 창신동이 있다. 창신동은 남쪽의 청계천변에서 북쪽과 서쪽으로 올라갈수록 경사를 이루고 있다. 경사진 지대는 이동성 측면에서 평지보다 불리하므로 낮은 가격의 거주 공간을 찾는 저소득층 유입이 우세하다. 한편으로는 천변가의 낮은 지대에 있는 빈민가보다 지대가 높으니 여름날 비로 인한 물난리 위험이 적었다.[45]

> 이들은 모두 살기 어려운 번화한 곳이나 살려주지 않는 시내에는 있지 못하고 밖으로 밖으로 쓸쓸한 강변이나 고요한 산 구석 같은데 오막살이에 의지하고 그도 저도 턱이 없는 자는 무너진 성벽 밑이나 풀 엉킨 언덕 밑에 막이나 움을 치고 (후략)[46]

1923년 《동아일보》에서는 서울 빈민 거주지의 특징을 꼽았다. 기사 내용을 보면, 시내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밖으로, 강변이나 산 구석에, 성벽이나 언덕 밑에 찾아 들어가던 서울의 도시 빈민들이었다. 창신동은 천변과 언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도성 밖 성곽 아랫동네로, 경성부 내에서 제일 빈민이 많은 곳이었다.[47] 1931년 창신동 토막민 수는 220호에

45 〈貧民窘探訪記〉, 《동아일보》 1934년 1월 1일.

46 〈萬五千의 貧民〉, 《동아일보》 1923년 1월 25일.

47 〈府內乞人救濟!聯合慈善會成立〉, 《동아일보》 1925년 1월 4일. 동별 토막민 추이를 정확히 할 수 없으나, 1935년 경성부에서 발표한 부내 각 경찰서 관내별 토막민 호구수는 창신동이 속한 東大門署가 2,804호 1만 2,66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지역의 경우, 西大門署 110호 550명, 鐘路署 16호 53명, 本町署 6호 25명, 龍山署 244호 1,045명이었다(〈京城에 散在한 土幕民 5,000호에 2만 명〉, 《동아일보》 1935년 10월 20일).

660명이었고, 1934년 조사에서는 부내 가장 많은 빈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서쪽의 현저동과 함께 창신동이 꼽힐 정도였다.[48] 다만, 주변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수려한 자연풍경을 만끽하기 위한 대자본가의 대저택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창신동에는 자본가들의 별장이 들어서기도 했다.[49]

창신동은 부내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기도 했다. 1929년 경성부청 호적계 조사에 따르면,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부내 지역으로 창신동이 2위로 꼽혔다.[50] 1935년에는 신축 가옥이 가장 많이 들어서는 곳으로 꼽히기도 했다.[51] 경성부 내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경성부 전체 인구가 1925년 33만 6,351명에서 1935년 42만 9,59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도성 밖 동쪽의 창신동은 도성 밖 서쪽의 현저동과 함께 급격한 증

48 〈增加하는 土幕 1,500여 호〉, 《조선일보》 1931년 11월 20일; 〈洞里 地域別로 보면 峴底洞이 首位 일반으로 빈민 동리가 만타 다음엔 東部 昌信洞〉, 《매일신보》 1934년 11월 1일. 창신동과 함께 경성부 내에서 가장 많은 빈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진 현저동은 창신동과 마찬가지로 도성 밖 언덕에 위치한다. 도성을 기준으로 양쪽 바깥 즉, 동쪽은 창신동, 서쪽은 현저동에 빈민가를 형성하고 있다.

49 〈霄壤二相(1) 富豪의 住宅과 極貧者의 住宅〉, 《동아일보》 1925년 1월 1일, "이같이 임종상, 장택상, 조병택 등 백만장자의 대궐 같은 집들이 즐비한 부자촌에서 불과 수십 보 가량쯤 떨어져 있는 산 밑에 눈을 씻고 보아도 사람의 집 같아 보이지 않는 움집이 5~6채 추녀를 맞붙이고 있다. 이 집들의 터가 국유요 사정지 외 무번지[査定之外無番地]라고 써 붙은 번지도 없는 집들이니 이 집에 들어있는 사람이 무슨 명망이 있을 리가 없다.": 1925년 《동아일보》 기사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창신동에는 대부호들의 집이 들어서 있는 한편, 빈민촌이 또 다른 한켠에 자리하고 있어 서로 공존하는 지역이었다. 서로의 공존을 인지하고 있듯, 이들 백만장자는 한 동네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량과 기부금을 전하기도 했다.

50 〈昨年末 京城府 人口 三十四万 二百人〉, 《동아일보》 1930년 2월 21일.

51 〈新裝하는 京城 한달동안 새로진 집 400여 호를 突破〉, 《동아일보》 1935년 7월 14일; 〈激增하는 大京城의 新家屋 9개월 간 2,800호〉, 《동아일보》 1935년 10월 12일; 〈市內에 만8개월간 신축가옥 3,700百〉, 《동아일보》 1935년 12월 18일.

가율을 보인 지역이었다.[52] 창신동 총 인구수는 1925년 6,596명에서 1935년 1만 2,540명으로 10년 사이 2배가량 증가했다. <표 2>를 보면 1925년의 창신동 인구와 1935년의 창신동 인구 중 각각 98%가 조선인이었다. 정리하면, 창신동 대부분은 조선인이었고, 10년 사이 이곳으로 모여든 대다수의 사람들 또한 조선인이었음을 의미한다.

〈표 2〉 창신동 민족별 인구 구성

(단위: 명, %)

		1925년	1935년
경성부 전체 인구		336,351	429,592
창신동	조선인	6,473(98.1)	12,322(98.3)
	일본인	60(0.9)	172(1.4)
	기타	63(1.0)	46(0.3)
	합계	6,596(100)	12,540(100)

출처: 京城府, 《國勢調査 第1回》, 1926; 《朝鮮國勢調査 昭和十年》, 1936.
비고: 괄호 안은 창신동 전체 인구 대비 비율.

창신동 토막민의 직업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1925년 기사에서는 창신동 토막민들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 지게꾼과 회사 직공, 행상인, 하차부와 날품팔이, 인력거꾼, 목수, 미장, 차장운전수이었다고 전했다. 이외 창신동 토막민에 한정한 직업군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1934년 창신동 전체 인구에 대한 직업 구성이다. 1934년 조사된 바에 의하면, 농림 및 목축업 60명, 공업 1,038명, 상업 및 교통업 3,719명, 공무 및 자유업 1,534명, 기타 유업자 2,569명, 무직 1,460명, 미신고자 359명으로, 상업 및 교통업 종사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 유

52 현저동의 경우 1925년 3,436명에서 1935년 1만 2,132명으로 2.53배 급증하였다.

업자, 무직, 공무 및 자유업, 공업 종사자가 뒤를 잇는다.[53]

창신동 주민들의 직업 구성은 지역적 특성과 관련이 깊다. 먼저, 상업 및 교통업 종사자가 창신동 인적 구성에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동대문에 인접해 위치한 창신동의 지리적 특징 때문이다. 창신동은 동대문시장이 인근에 있어 상인층의 거주지로 적합하였고, 동대문 도성 안쪽으로 전차 차고지 및 전차과 행정기관이 입지하여 상당한 수의 전차 운전수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외에도 짐을 나르는 지게꾼과 마부, 인력거꾼 등 교통업 종사자로 분류되는 이들 또한 동대문시장과 동대문 전차정거장의 영향으로 이곳에 모여들었다. 동대문 전차정거장은 청량리 교외선과의 환승지점으로서 도성 안으로 이동하거나 도성 밖으로 이동하려면 열차를 이곳에서 갈아타야 했다. 하지만 전차는 지금의 대중교통처럼 이곳저곳 노선이 연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외선과 도심부 노선 간 환승할 때 추가 요금이 적용되어 돈을 더 지불해야 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토막민이 활동하는 지게꾼, 짐꾼, 인력거꾼 같은 교통업 종사자이다.[54]

직업 구성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기타 유업자가 상업 및 교통업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타 유업자로 분류되는 직업군은 일용직, 심부름꾼, 청소부 및 잡역 등 도시 하층민이 주로 담

53 京城府, 《各町洞職業別戶口調書》, 1934.

54 이전의 연구에서는 토막민에게 전차, 버스 등의 교통적인 요소는 도심과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이 직접 교통수단을 탑승하여 도심으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해석으로 토막민 주거지 분포에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했다(김제정, 〈일제식민지기 京城지역 電氣事業과 府營化運動〉,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10쪽; 염복규, 앞의 글, 2002, 130쪽). 그러나 이보다도 그곳에 승하차하는 사람들을 위한 운수업 및 서비스업 관련 구직활동 가능성을 높인다는 해석이 적합할 것 같다.

당하는 일자리였다. 교통업 종사자인 지게꾼, 인력거꾼 등을 비롯해 기타 유업자에 해당하는 직업군은 앞서 2장 2절에서 살펴본 토막민들의 직업과 일치한다. 창신동 지형을 구성하고 있는 산은 돌을 채석할 수 있는 돌산으로 이루어져 채석장으로 쓰였다. 근대식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돌을 채취하기 위해 채석장은 많은 인부가 필요했다. 채석장은 일용직 인부로 일하거나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며 하루 벌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일터였다. 기사를 통해 확인되는 채석장 인부들은 창신동을 포함하여 숭인동 그리고 신당리, 신설리, 왕십리 등 인근의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55] 채석장이 주변 토막민들의 일용직 일터였던 셈이다. 정리하자면 창신동 주민들의 직업군은 창신동의 위치적·지형적 특성에 따라 파생된 일자리로 구성된 것이었다.

한편, 채석장이 주변에 존재함으로써 창신동은 주거지로서 그리 적합한 곳은 아니었다. 채석장 돌을 떼어내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은 늘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었다.

> 채석 중 무게 천관이 넘는 큰 XX가 높이 120척이나 되는 곳에서 굴러 떨어져서 그 밑에 있던 인가 1호를 여지없이 쓰러트리었는데 (중략) 이 채석장에 가까운 위험지대에 있어서 작년 여름 이래 그 부근 30여 호에 대하여 소관 동대문서에서 철퇴명령을 발하며 동시에 이전비 일절을 지출하였는데 피해자 창신동 3번지에 있는 김명준에게는 무슨 일인지 그 이전비가 오지 않았다 하며 (중략) 동리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아무리 채석장측에서는 이전

55 〈積石崩壞로 五名이 死傷〉, 《동아일보》 1928년 2월 8일; 〈清水採石場 火藥又爆發〉, 《동아일보》 1928년 9월 13일; 〈勞働者二名 一時에 變死〉, 《조선일보》 1929년 3월 15일; 本誌記者, 〈京城の土幕民を探る〉, 《朝鮮及滿洲》, 1936년 2월.

> 비를 지불했다는 구실 아래서 인가의 유무를 불구하고서 화약장치로 채석함에 대하여 동리사람은 다대한 불평을 갖고 말하는 중이라 한다.[56]

> 돌연한 동채석장의 "따이나마이트"의 터지는 폭음과 같이 난비하는 바위돌로 말미암아 동채석장을 중심으로 약 2町 가량의 부근 일대는 바위돌의 소낙비를 맞게 되었었는데 부근의 전선주는 바위돌에 부닥쳐 전전이 끊어지는 동시에 때마침 전기가 들어올 때임에도 불구하고 일시 암흑세계를 이루었었다 하며 부근의 40여 호에 긍한 가옥은 바위돌의 난비로 지붕을 뚫고 방바닥에 돌이 떨어지고 처마가 허다히 무너졌었으며 마당에 놓아두었던 김칫독 장독 등과 같은 많은 가구가 깨어지게 되어 다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데 (중략) 더욱 비참한 사실은 동채석장에서 약 1정 가량 떨어져있는 창신동 583번지의 92호에 사는 정신묵씨의 부인은 임신 중에 그와 같은 놀램을 당하고 병석에 눕게 되었다고 한다.[57]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채석장 인근에 거주하는 창신동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였다. 〈그림 5〉는 채석장에서 돌이 떨어져 집이 무너진 현장을 찍은 사진으로, 첫 번째 인용문이 이것을 다룬 내용이다. 그림을 보면, 돌산을 등지고 그 앞에 무너진 집으로 추정되는 나뭇가지와 지푸라기들이 보이고, 그 옆에 X표시가 되어 있는 떨어진 돌에 어느 한 사람이 기대어 서있다.

두 번째 인용문 또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채석장과 같은 필지

56 〈昌信洞 採石場에서 큰돌 굴러 人家破壞〉, 《동아일보》 1933년 5월 24일.

57 〈紅樹洞 남포爆發로 民家에 岩石이 亂飛〉, 《동아일보》 1933년 11월 29일.

에 있는 초가집 외에도, 돌산이 폭파하면서 부스러진 수많은 돌 파편들이 200m 지점까지 날아가 주변 집들로 떨어졌다. 지붕도, 처마도, 장독도 파편으로 인해 파손되어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불과 100m 떨어진 집에 거주 중인 임산부가 그 같은 굉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보기도 했다.

채석장은 돌 채굴을 위한 다이너마이트 폭발이 종종 발생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돌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잦아 멀리 피하고 싶은 위험한 요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빈민층으로서는 서울 안에 그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요소들이 갖추어진 공간이었다. 피하고 싶은 주거지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이유로 토막집을 지을 수 있었고, 가까운 곳으로 하루 일감을 구하러 가기도 좋았다.

창신동의 이와 같은 위치적·지형적 특징을 종합해 볼 때, 창신동은 토막촌 형성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위치적으로 도심과 가깝지만, 지형적인 면에서 언덕으로 이루어진 돌산이라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대규모의 도시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창신동의 남측에 바로 인접한 신당리[58]만 하더라도,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등고선이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고 북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높아 막힌 느낌의 창신동보다 비교적 평지수준의 지형을 이루고 있어 주택개발 후보지로 선망받

58 신당리는 창신동 남측에 위치해 창신동과 마찬가지로 도성 밖에 위치해 있으면서 성벽과 닿아있어 광희문을 통해 도성 안과 연결된다. 도성 밖 성저십리에 해당했던 신당리는 조선시대 한성부에 속했으나, 1910년 경성부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경기도 고양군 두모면 신당리가 되었고, 1914년 고양군 한지면 신당리로 변경되었으며, 1936년 경성부로 편입되어 경성부 新堂町으로 개칭되었다. 본고에서는 1936년 이전의 지역 상황을 서술할 예정이므로 신당리로 작성하였다. 신당리는 동대문경찰서가 관할하는 지역들 중 창신동과 함께 대표적인 토막촌이었다.



〈그림 5〉 채석장에서 돌이 떨어져 무너진 집의 현장
출처: 《동아일보》 1933년 5월 24일.

았다. 신당리는 용산에서 남산을 둘러 장충단까지 도심부를 통과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는 남산주회도로 건설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일본인 중심지인 용산의 공간적 확장 측면에서 일본인의 교외 주택지 개발로 각광받았다.[59] 1912년 토지조사부 자료에 근거하면, 신당리는 국유지가 전체 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었고, 토막촌이 대거 조성될 수 있었던 공동묘지가 6만 9,616평 존재했다.[60] 국유지의 경우, 개발할 부지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고, 공동묘지의 경우, 곧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신당리 토지는 개발할 여지가 충분한 잠재적 개발지였다.[61] 창신동은 신당리

59 이경아, 〈경성 동부 문화주택지 개발의 성격과 의미〉, 《서울학연구》 37, 2009, 67~68쪽; 염복규, 〈'전원 도시'로 가는 길? -식민지시기 경성 '남산주회도로'의 부설 과정과 의미-〉, 《도시연구》 13, 2015, 66쪽.

60 같은 해, 창신동 국유지는 창신동 전체 면적의 0.25%에 불과했다.

와 위치적으로 인접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차이와 다른 지역과의 상호연계성 측면에서 상이함을 보여 상대적으로 개발의 여지가 적었다.

토막은 그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유지 또는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생겨난 것으로, 토지소유자가 이를 묵인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토막촌은 철거 위기를 겪는다. 당국은 토막촌 철거 및 토막민 이주 계획을 두었으나, 이주비 보상 문제와 수용부지 확보 차원에서 모든 토막촌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국유지 내 토막촌이 우선적인 철거와 이주 대상이 되었고, 사유지에 자리한 토막촌의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맡겼다. 국유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었고, 용산에서 이어지는 교외주택 단지를 개발할 명백한 이유가 있었던 신당리는 사유지 내 토막촌마저도 주택개발 논리에 밀려나고 말았다.[62]

> 이들이 궁민의 움집을 짓고 있는 창신동 산비탈은 國有査定地가 다소 간 섞여있으나 그 대부분이 全北參與官 김영진 소유로 총독부사무관 이범승씨에게 맡겨둔 것이라는데 이범승씨는 이들 궁민이 경찰의 간섭으로 인하여 살던 집을 전부 헐고 다른 곳으로 쫓겨가게 되엿다 함을 듣고 작 24일 아침

61 신당리에 소재한 화장터와 공동묘지는 1928년 전후로 이미 이전 계획과 함께 이전할 부지를 확정하거나 물색 중인 상태였다(〈火葬場移轉 來年에나 신당리찬성 현뎌동반대〉, 《중외일보》 1927년 2월 18일; 〈新堂里墓地近く移轉, 高陽郡の新設墓地へ〉, 《경성일보》 1928년 8월 19일).

62 신당리에 건설된 다수의 문화주택단지는 본래 토막촌이 조성되어 있던 국유지를 주택개발업자 또는 개발회사에서 매입해 형성되었다. 고급주택단지 이면에는 쫓겨난 토막민들의 슬픔이 담겨있다(이경아, 《경성의 주택지: 인구 폭증시대 경성의 주택지 개발》, 집, 2019, 216~220쪽).

> 동대문경찰서 加藤署長을 방문하고 이앞으로 다시 짓는 것은 허락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살아오던 사람의 집을 차마 헐어버리라고 할 수가 없는 즉 국유지의 것은 몰라도 자기가 위임맡은 김영진씨 토지에 지어진 집은 그대로 두어 달라 하였음으로 창신동 주민 200명은 겨우 종래대로 있게 되었으나 (후략)[63]

창신동의 토막촌도 철거 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 앞의 인용문은 "상당히 재산이 있는 이도 이곳에 가옥을 건축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는 폐단이 있음으로"[64] 더 이상의 불법 토막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유지에 조성된 청계천변의 토막촌과 사유지에 형성된 토막촌에 대한 철거를 계획했으나, 토지소유자의 배려로 사유지 토막촌이 살아남고 오간수문 근처 하천 부지의 국유지 토막촌이 철거 결정된 내용이다. 여기서 언급된 토지소유자 김영진金永鎭은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경성흥인학원京城興仁學院을 창신동에 설립하고, 자신의 소유지에 오랜 기간 동대문경찰서 소사小使로 성실히 일한 노인에게 부지 일부를 내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던 인물이었다.[65]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조성된 토막촌을 묵인하고 이들의 거주를 허용하였음을 발견한 유일한 사례이지만, 창신동은 이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빈민에 대한 동정 여론이 만연했다. 창신동의 대표적인 부호로 이름났던 조병택趙秉澤은 매해 음력 연말이 다가오면 이웃 빈민들에

63 〈去處가업스니 警察署留置場에〉, 《동아일보》 1927년 6월 25일.

64 〈淸溪川堤防上 卅戶에 撤去命令〉, 《조선일보》 1927년 6월 24일.

65 〈《小人問安》 廿五年만에 住宅생긴 警察署小使〉, 《동아일보》 1933년 1월 25일; 〈京城 興仁學院 創立二週記念〉, 《동아일보》 1933년 5월 28일.

게 쌀과 반찬, 현금을 보냈고, 경북 대구지역 대지주이면서 창신동에 별장을 짓고 살던 장택상張澤相도, 창신동에 호화로운 창신궁昌信宮을 짓고 살던 임종상林宗相도 지역민들에 대한 자선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66] 창신동은 빈민과 공존해 함께 살아가는 공간임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2) 창신동 토막촌에 정착한 구직 상경자

> 이름이 있다면 한 사람은 이덕순 막벌이꾼 지게꾼이니 눈이 쌓이면 벌이가 떨어져 하루 한 끼 죽으로 입에 풀칠도 못하고 온종일 얼음 언 거리로 떨며 헤매다가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 수 없어서 기어드는 곳이다. 그러나 흙방에 거적자리 몇 잎을 깔았을 뿐이오 이부자리도 똑똑이 없으니 추위에 언 발을 뻗고 편안한 잠을 자볼 수도 없을 것이다. 지붕을 하지 못하여 비가 새어 생철조각을 얻어다 덮고 창에는 눈보라가 들이치니 겨우 공석닙으로 가렸을 뿐이다.
>
> 그나마 이 두꺼비 집 같은 움집도 자기의 소유가 아니요, 한 달에 2원씩 세를 내고 사는 것인데 세전을 못 내는 때에는 눈 깔린 거리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 한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세 칸쯤 되는 이 움집 한 채에 세 가구가 들어 있는 것이다. 컴컴한 들창 속으로 해소병 들린 노파의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와 밥 달라고 보채는 어린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부서진 문틈으로 새어 나온다. 바람이 분다. 깨어진 이남박과 쪽 떨어진 바가지가 온기

66 〈優厚한 歲饌을 동리사람에게 돌렸다〉, 《매일신보》 1918년 2월 11일; 〈趙秉澤氏의 독지자선, 이번 세말에도 백미 기타를 분급했다〉, 《매일신보》 1920년 2월 22일; 〈趙秉澤氏 美擧〉, 《매일신보》 1921년 2월 11일; 〈白屋寒民에게 歲饌〉, 《조선일보》 1923년 2월 18일; 〈張氏施米〉, 《조선일보》 1925년 1월 21일.

없는 부엌 속에서 덩군다. 바람은 차다 허물어가는 움집에 스쳐 부는 바람은 뼈가 얼 듯이 차다."[67]

이 기사에서 소개된 이덕순李德順은 창신동에 지번조차 없는 토지 위에 "사정지査定地 외 무번지"라고 써 붙인 움집을 짓고 사는 토막민이다. 그는 대표적인 최하층민 직업인 막벌이꾼, 지게꾼 일을 하고 있고, 그가 세 들어 거주 중인 움집은 추위에 취약할 만큼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갖추었으나, 그나마도 집이라고 한 집에 세 가구가 들어와 살고 있었다. 이 기사는 다수의 토막민, 토막촌 풍경을 담아 일반화하여 언급한 여타 자료들과 달리, 창신동 토막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귀중한 기사이다.

창신동 토막촌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통해 토막에 거주 중인 창신동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사고를 정리해보면, 앞서 확인한 강제 철거의 위기를 포함하여 주변 이웃으로부터 전해 받는 각종 지원들, 구걸하는 생활, 온전하지 못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화재 및 각종 사고 위험 등등 일반적으로 토막민들에게 처한 상황을 비롯하여 창신동 토막촌 만의 특수한 상황도 확인된다.[68]

이렇듯 수많은 토막민들을 대표해 그들의 처참했던 삶을 보여주는

67 〈霄壤二相(一) 富豪의 住宅과 極貧者의 住宅〉, 《동아일보》 1925년 1월 1일.

68 〈昌信洞에 小火〉, 《조선일보》 1921년 12월 6일; 〈穴居者近千名〉, 《동아일보》 1925년 4월 3일; 〈兩處卅餘戶 突然撤毁命令〉, 《동아일보》 1927년 6월 24일; 〈八十老婆慘死 먹지 못해 죽어〉, 《동아일보》 1928년 6월 15일; 〈土幕火災〉, 《동아일보》 1929년 2월 20일; 〈□□□□□□□分配〉, 《동아일보》 1931년 1월 1일; 〈大岩石이 墜落 人家一棟을粉碎〉, 《조선일보》 1933년 5월 24일; 〈十年土窟을 一朝에 撤退〉, 《동아일보》 1933년 5월 31일; 〈舊正과 人情美 分錢모은 百卄圓 貧民爲해 喜捨〉, 《동아일보》 1935년 2월 8일; 〈火災土幕民에게 따뜻한 同情〉, 《동아일보》 1935년 2월 14일.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1935년 2월 12일 밤 9시 50분경, 일자리를 구하고자 서울로 상경해 창신동 토막민이 된 한 가족의 이야기이다.[69] 창신동 629번지, 8명의 식구가 거주하는 토막민 임종석林鍾石 집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다. 이 사건은 2월 12일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매일 같이 이들을 둘러싼 여러 건의 기사가 약 2주간 게재되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은 사건이다.

임종석은 지게꾼으로, 그의 아내는 빨래질로, 장남은 남의 집 고용인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날, 석유통에 피운 숯불이 화근이 되었다. 화재 원인에 대하여 혹자는 늦게 들어와 밥을 끓여먹은 뒤 그대로 두고 잔 것이라 하는 한편, 또 다른 혹자는 날씨가 추워져 어린 자식들을 위해 숯불을 피운 것이라 말하며 그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나, 토막민 일가족의 안타까운 생활상이 엿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동대문서에서는 보안주임保安主任 이하 서원 20여 명과 시내 각처의 소방대가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나 성 밑에 있는 토막인 만큼 소방자동차는 그 현장에 올라가지 못하고 경관과 소방수만 달려가게 되었으나 불은 이미 타버린 뒤"[70]였다. 이 사고로 부부는 4명의 자식을 잃었고, 부부와 첫째 둘째 아들은 심한 화상을 입고서도 치료받을 돈이 없어 응급처치만 겨우 하다가 이웃들의 동정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 발생과 피해자 가족의 상태, 치료 현황 등 매일 실시간으로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리고 이 기사를 접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언론사를 통해 지원금을 보냈다.[71]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토막 화재와 비교해 보아

69 〈慘!土幕火災〉, 《조선일보》 1935년 2월 14일; 〈貧困에 寒氣難堪 숫불피우고자다失火〉, 《동아일보》 1935년 2월 13일; 〈慘!土幕火災〉, 《조선일보》 1935년 2월 14일.

70 〈山上土幕에 火災 一家族 八名死傷〉, 《동아일보》 1935년 2월 13일.

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생각이 들 만큼 화제성이 있는 사건이었다.[72]

> 거적과 조잇장 같은 판자빨가게 녹스른 양철로 만들어진 토막이 군데 군데 있어 대경성의 도시와는 시간으로 몇 세기와 공간으로 몇 만 리나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토막의 소실된 자최 보통 가옥이라면 아무리 燒且盡의 정도라 해도 木炭으로 火한 재목 만은 남엇을 것이만 가옥이 토막이라 타다 남은 재만 바람에 날릴 뿐.[73]

〈그림 6〉은 임종석 토막집이 불에 타 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이 참혹한 현장을 두고 기자는 위와 같이 묘사했다. 사진을 통해 우리는 위용 넘치는 근대식 건물이 떠오르는 대경성의 이미지와 동떨어진 당시 창신동 토막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불에 탄 임종석 토막집 즉, 창신동

71 〈火災土幕民에게 따뜻한 同情〉, 〈土幕은 冷灰로되고 돈없어 入院도 못해〉, 《동아일보》 1935년 2월 14일; 〈入院한 昌信洞 土幕民〉, 〈洋屋病室도 土幕인양 夢中에도 죽은 子息 불러〉, 《동아일보》 1935년 2월 15일; 〈駱山土幕火災民 同情金翕然〉, 《동아일보》 1935년 2월 15일; 〈昌信洞火災家에 天香園主가 同情〉, 《조선일보》 1935년 2월 15일; 〈昌信洞 火災民 同情金品遝至〉, 《동아일보》 1935년 2월 16일; 〈昌信洞 火災民 同情金品遝至〉, 《동아일보》 1935년 2월 17일; 〈창신동 화재민 同情金品遝至〉, 《동아일보》 1935년 2월 20일; 〈昌信洞 土幕火災 遝至同情金處分〉, 《동아일보》 1935년 2월 22일; 〈昌信洞 火災民 同情金品遝至〉, 《동아일보》 1935년 2월 23일; 〈눈물어린 同情으로 따뜻한 집을 작만〉, 《동아일보》 1935년 2월 24일; 〈昌信洞土幕火災民同情〉, 《동아일보》 1935년 3월 1일.

72 사실 토막의 화재 사건은 빈번히 일어난다. 온전한 상태의 집이 아니므로 불을 피우기조차 어려운 구조일 뿐만 아니라, 불에 타버리는 쉬운 나무와 지푸라기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여러 건의 토막 화재 사건들 중에서도 이웃들로부터 일정한 동정금을 받은 바 있으나, 창신동 임종석 토막 화재 사건만큼의 지속성과 화제성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73 〈土幕은 冷灰로 되고 돈없어 入院도 못해〉, 《동아일보》 1935년 2월 14일.



〈그림 6〉 화재로 소실된 임종석 토막집 흔적
출처: 《동아일보》 1935년 2월 14일.

629번지는 성벽으로 이어지는 산 비탈길에 위치한 곳으로, 이들의 토막집 외에도 다수의 토막이 모여있었다. 좌측 상단에 흙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뒤로 성벽이 보인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 있는 흙길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 성벽 아래로 쭉 내리막 경사가 이어지는 지형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무너진 토막집의 흔적 뒤로 토막집이 몇 채 더 존재한다. 토막집들은 비스듬히 기울어진 언덕을 한쪽 벽면으로 삼고 지어졌다. 성벽 아래, 산 비탈길에 형성된 전형적인 토막촌의 모습이었다.

임종석 일가족은 농촌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일자리를 구하고자 상경한 토막민이었다. 이들이 창신동 토막촌에 들어온 배경에 대해 아래의 두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다.

> 그들도 오래된 옛날에는 의식주에 걱정은 없이 광주廣州 땅에서 농사에 조와했엇으나 인세의 변화란 믿을 수 없어 어언간 가산을 치패하고 여들명의 식구가 이동리 저동리로 살터를 찾엇으나 모두가 여의치 못하야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서울을 최후의 생명선으로 믿고 올라와 지금의 토막에 자리를 잡은 (후략)[74] (밑줄은 필자 표시)

> 그들도 전에는 남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농업을 경영하여 유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다가 세태의 변천됨에 따라서 그들은 몰락하게 되었었다. 그리하여 이리저리 다니다가 경성으로 올라와서 토막을 본거로 삼고 일일 임금 최고 1원 혹은 30~40전, 혹 실직의 상태로 8가족의 생활을 계속하여 오던 것이다.[75] (밑줄은 필자 표시)

두 인용문에서 이들의 농촌 이탈 원인으로 지목된 "인세의 변화"와 "세태의 변천"은 곧 식민지 경영에 의한 농촌의 몰락을 의미한다. 시대적 상황이 안정적이던 일반 농민의 삶을 붕괴시켰고, 이들을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시켰다. 그들이 구직을 위해 "최후의 생명선"으로 자리 잡은 곳은 창신동 토막촌이었다. 불이 나던 그날은 임종석의 아내가 "이집 저집으로 일을 해주다가 3일 만에 집에 들어"온 날이었다.[76] "이 참화를 당한 가족의 경로를 생각하여 보면 우리 사회의 일면상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말한 기사[77]처럼 임종석 토막 화재 사건이 창신동 지역을 초월해 전국적으

74 〈土幕은 冷灰로되고 돈없어 入院도 못해〉, 《동아일보》 1935년 2월 14일.
75 〈社會여! 感激이 잇으라〉, 《동아일보》 1935년 2월 15일.
76 〈洋屋病室도 土幕인양 夢中에도 죽은子息불러〉, 《동아일보》 1935년 2월 15일.
77 〈社會여! 感激이 잇으라〉, 《동아일보》 1935년 2월 15일.

로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많은 이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농촌 몰락으로 일자리를 구하고자 서울로 상경해 토막민이 된 사람들,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어려운 생계를 이어나가던 이들의 모습은 이 사건 하나에 모두 담겼다.

> 창신동 화재민 임종석의 화재에 대하여 사회 여러분의 동정으로 그들의 눈물을 걷을 만한 집을 200원에 사게 되어 시내 창신동에 그들의 집 한 채를 사게 되었다. 이 같은 사회의 각 방면의 동정으로 이제는 그들이 집 한 채까지 차지하게 되었는 바 (후략)[78]

임종석 가족은 구호금으로 창신동에 새로운 집을 장만했다. <그림 7>의 집 지붕을 보니 새로운 집은 초가의 형태로 번듯한 기와집은 아니더라도, 흙 언덕을 한쪽 벽면으로 삼았던 토막과 달리, 탄탄하게 세워진 외벽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다른 지역의 주택을 매입해 가지 않고 또다시 창신동으로 온 것일까? 사료에서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으므로 그 이유를 추정할 수 밖에 없어 아쉽지만, 아마도 창신동의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임종석은 집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과 불안정한 주거 안정을 해결한 자가自家 거주자이지만, 여전히 그의 직업은 날품팔이이고, 매일매일 벌어오는 적은 생활비로 이전 토막민 생활과 다를 바 없이 지내야 한다. 즉 임종석은 토막민의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최적의 장소를 선택한 것이다. 앞서 3장 1절에서 살펴본 창신동의 특징, 즉 크고 작은 일자리

78 〈눈물어린 同情으로 따뜻한 집을 작만〉, 《동아일보》 1935년 2월 24일.



〈그림 7〉 임종석 가족이 지원금으로 새로 구한 집
출처: 《동아일보》 1935년 2월 24일.

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적 특징, 그리고 돌산으로 이루어진 지형적 특징에 의해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개발 가능성이 도시 빈민층의 정착 생활을 보장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맺음말

토지조사사업에 이은 산미증식계획은 소작농 몰락 현상을 격화시켰고 농민들의 농촌 이탈을 촉진시켰다. 이 글은 식민지기 몰락한 농민들의 구직 상경을 배경으로 1920~1930년대 토막민에 주목하였다. 일자리를 찾아보려 서울로 상경한 수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도, 투자할 자본도 없이 지게꾼, 날품팔이, 인력거꾼 등 자신의 신체를 노동수단으로 삼

아 생활해나가는 도시 빈민층이 되었다. 토막민은 국유지 또는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불완전한 움집이나 토굴, 토막을 짓고 사는 당시 대표적인 도시 빈민층이었다. 토막민의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였다. 먹고 살 길을 찾아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할 수 있는 도시로 이주하였으나,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열악한 거주환경과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매일매일의 일상이었다.

창신동은 경성부 내에서 가장 빈민 거주가 많은 곳 중 하나로 꼽혔다. 이는 위치적·지형적 요인에 기인한다. 위치적으로 한양도성의 동쪽 경계에 맞닿아 있어 도성 안과 밖을 드나드는 길목에 있었고, 지형적으로 산성인 성벽에 인접해 있어 경사진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따라 창신동은 자연적으로 토막촌이 형성될 수 있었다. 위치적 요인은 동대문시장 형성과 교외 전차선의 환승지로 이어지는데, 이는 토막민들의 일거리 확보에 유리하다. 동대문시장에서 행상으로 일하거나 짐을 운반하는 짐꾼 등 다양한 소일거리들을 찾을 수 있었고, 동대문 정거장에서 전차노선 환승이 이루어지므로 지게꾼과 짐꾼, 인력거꾼 등 사람과 사물을 운반하는 교통업 종사자가 될 수도 있었다. 또한 돌산으로 이루어진 지형 덕분에 창신동에는 채석장이 있어 토막민들의 일터가 될 수 있었던 동시에, 채석 과정과 운반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주거지로서 토막민들이 정착할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창신동의 지형은 향후 개발 가능성과도 연관된다. 비교적 평지로 이루어져 인근 지역과의 연계된 개발을 계획할 수 있는 동부지역의 남측, 즉 신당리와 달리, 창신동은 동대문에서 청량리로 이어지는 대로를 제외하고 언덕으로 이루어진 막힌 지형이라, 개발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토막촌 철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 빈민가가 계속해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1935년 창신동에서 발생한 토막 화재 사건은 구직 상경한 토막민의 현실과 빈민가 형성 요인이 된 창신동의 특징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변화로 말미암은 농촌 이탈과 도시로의 상경, 최후의 생명선으로 지게꾼 일을 하며 창신동 토막에 거처를 마련한 임종석은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4명의 자식을 잃었다. 기사를 통해 이 소식은 전국으로 퍼졌고, 동병상련을 느낀 전국 각지의 사람들로부터 10여 일 동안 구호금이 끊이지 않았다. 구호금으로 마련한 새집 또한 창신동에 위치했다. 온전한 자가를 소유했을 뿐, 여전히 토막민의 생활 수준을 이어가야 했던 이들이 선택한 지역은 창신동이었다. 이는 곧 토막민이 이곳에 모여들 수 밖에 없는 창신동의 특징을 다시금 방증한다.

식민지기 후반에도 농촌에서 건축장이나 토목 공사장 등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상경한 이들은 끊이지 않았다. 대경성을 이루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던 1920년대 중반 이후로 토막촌을 철거하고 토막민들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계획하던 경성부는 1940년 토막민 주거 대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79] 이주 지역을 마련할 토지를 확보하거나 이주비를 지원할 재정이 부족했던 탓도 있으나, 경성부는 토막민 정리 사업을 거듭하여도 늘어나는 토막민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했다. 창신동 또한 마찬가지로, 토막촌 철거 및 토막민 이주계획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토지소유자의 배려가 있었던 등 토막촌은 계속해 존속되었다.

그동안의 토막민 연구는 도시 빈민, 도시 하층민에 대한 관점에서 그들의 생활상, 사회적 위치를 서술한 것이라, 근대도시의 특징과 연결하여

79 〈京城府의 새頭痛거리 農村貧民들이 모여들어 움집짓는 통에 土幕整理에 또혹이 달렷다〉, 《조선일보》 1939년 8월 10일; 〈繁榮하는 京城의 癌〉, 《동아일보》 1940년 4월 12일.

해석함에 아쉬움이 있었다. 근대도시로의 변화는 수많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과정에서 구직 상경자를 수용하게 되었고, 이는 곧 토막민을 발생시키는 중요 요인 중 하나였다. 또한 근대도시 안에서 이들이 갖는 직업과 관련해 자신들의 터전을 마련하는 위치를 결정짓기도 했으며, 도시개발에 따른 토막촌의 존속 여부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구직 상경한 창신동 토막민에 집중한 이 글은 기존의 연구에서 나아간 성과를 이루었다. 물론 이 글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도시 하층민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의 절대적 양 뿐만 아니라, 상세한 정보들의 부족으로 구직 상경한 토막민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막민 중에서도 특정 부류, 여러 토막촌 중에서도 자연 발생된 창신동에 초점을 두어 서술함으로써 도시를 구성하는 특정 집단과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의 근대도시적 성격 및 특징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인지, 근대도시 경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기대한다.

제4장

상경 학생의 거처

-하숙과 기숙사-

김광규(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1. 머리말: 상경 학생을 어디서 먹이고 재울 것인가
2. 하숙
3. 기숙사
4. 맺음말

1. 머리말: 상경 학생을 어디서 먹이고 재울 것인가

> 경성학교 영어 교사 이형식은 오후 2시 4년급 영어 시간을 마치고 내려쪼이는 6월 볕에 땀을 흘리면서 안동 김장로의 집으로 간다.

이광수李光洙의 소설 《무정》(1917)의 첫 문장이다. 주인공 이형식이 재직하는 학교의 이름이 '경성'인 것이 흥미롭다.

일제강점기 중고등교육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일반계 중등교육은 사립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1] 사립 고등보통학교(이하 고보)는 총 11개 교 중 5개 교(양정, 배재, 보성, 휘문, 중앙), 사립 여자고등보통학교(이하 여고보)는 총 10개 교 중 5개 교(숙명, 진명, 이화, 배화, 동덕)가 서울에 있었다. 대학은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 전문학교(이하 전문)는 관립으로 수원고등농림학교, 경성의학전문, 경성법학전문,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5개 교, 공립으로 대구와 평양에 의학전문 각 1개 교, 사립은 12개 교가 일제 말까지 존속했다. 대학과 관립 전문은 학교 명칭에서 보듯이, 수원고등농림학교 외에는 모두 서울에 있었다. 사립 전문도 12개 교 중 서울에 소재하지 않은 학교는 평양의 숭실전문과 대동공업전문뿐이었다. 지방에서 일반계 중등학교나 대학, 전문에 진학하려는 학생 대다수는 상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 일제강점기 고등보통학교는 27개 교(공립 16개 교, 사립 11개 교), 여자고등보통학교는 21개 교(공립 11개 교, 사립 10개 교)가 있었다. 고보는 1924년에야 1도 1교가 되었고, 여고보는 1945년까지 그나마도 되지 못했다. 1924년 이후 공립 고보는 1925년 경상남도에 진주고보가, 1936년 평안북도에 안주고보가 추가 개설되었을 뿐이다. 공립 여고보는 1930년대 후반까지도 13개 도 중 8개 도에만 있었고, 결국 강원도와 충청북도에는 설립되지 않았다.

《무정》이 연재되던 1917년 당시 이희승李熙昇은 서울의 중앙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이희승은 국권 피탈 전부터 외국어학교, 경성고보, 양정의숙 등 여러 학교를 전전하던 중 가세는 기울고 어쩔 수 없어 낙향했다. 집안의 농사일을 거들다 19세 되던 1914년 봄에 어른들이 모두 집을 비운 틈을 타 무작정 상경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중앙학교를 마치고 경성제대에 진학하여 소원하던 국어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2] 보통학교, 간이실업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홍봉진洪鳳珍도 1918년 이른 봄 어느 날, 서울 남대문 시장에 물건을 떼러 상경했다가 마침 시기가 맞아 입학시험을 치르고 선린상업학교에 들어갔다. "늙은 아버지가 너를 떼어 놓고 어떻게 사느냐고, 시골로 도로 내려가자고 달랬지만" 듣지 않았고, 이후 보성고보를 거쳐 경성제대까지 졸업했다.[3]

일제강점 초기인 1910년대 중등학생이었던 이희승과 홍봉진은 진학 상경을 위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거나 가출해야 했지만, 그들의 자식 세대인 리영희李泳禧는 아버지의 권유로 서울 유학을 했다.[4]

> 나의 국민학교 졸업반에서는 그 해(1941년 말)에 갑종 공립 중등학교에 합격한 것은 나와 늘 1, 2등을 다투어 온 김순사의 아들 김기헌 군과 나밖에 없었다. 김군은 평안북도의 명문인 신의주의 동중학교에 갔지만 고향에

2 이희승, 〈딸깍발이 선비의 일생〉, 《일석이희승전집》 9,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28~33쪽.

3 홍봉진, 《양촌일기》, 일심사, 1986, 22~25쪽.

4 이희승은 1896년생, 홍봉진은 1903년생, 리영희의 아버지는 1895년생이다. 평안북도 초산군 출신인 리영희의 아버지는 상경하지 않고 평안북도의 의주농업학교를 졸업한 뒤 광복될 때까지 營林署에서 근무했다(리영희, 《역정 -나의 청년시대》, 창작과 비평사, 1988, 40쪽).

서의 찬사는 나에게 집중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압록강변의 시골학교에서 경성의 1급 중등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 해에 한 사람 정도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골에서 경성에 간다는 것은 '유학'으로 불려졌었다. 더구나 칙임관이 교장이라는 학교 소개는 곧 면의 큰 화젯거리가 됐다. 교장을 비롯한 학교 선생들은 아버지를 찾아와서 제각기 아들 칭찬을 하고, 그 댓가로 큰 술잔치가 벌어졌다. 이어서 면의 유지들이 모여와 축제를 벌였고,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부인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지금 한국에서 옥스포드에 합격하여 영국엘 간다거나, 하버드에 입학해서 미국을 간다 해도 그 유학의 의미는 나의 고향 대관에서 경성의 '갑종·공립·칙임관 교장 중학교'에 유학한 의미보다는 덜 할지 모른다. 어쨌든 그것은 학교의 자랑이고 전체 면의 기쁨이었다.[5]

리영희는 국민학교 졸업을 앞두고 신의주사범학교와 경성공업학교 두 곳에 응시하여 모두 합격했다. 학교에서는 사범학교 진학을 권했지만, 아들이 기술자가 되길 바랐던 아버지가 리영희의 서울 유학을 결정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공업학교가 북부 지방에 집중적으로 증설되었기 때문에,[6] 공업학교 진학을 위해 반드시 상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리영희의 아버지가 아들을 거주지인 평안북도의 신의주공업학교 대신, 경성공업학교에 응시하게 한 것은 이 학교를 "경성제대 이공학부-경성고등공업학교-경성공업학교의 서열에 위치하는 실업 중등학교로서는 최고의

5 리영희, 앞의 책, 1988, 34~36쪽. 이하 리영희에 대한 서술의 인용문 출처 동일함.

6 본래 공업학교는 전국에 경성공업학교 1개 교밖에 없었지만, 중일전쟁 발발 이후 1939년 평양, 1940년 이리·부산·흥남, 1941년 신의주와 청진에 공립 공업학교가 개설되었다.

시설을 갖춘 학교"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7]

1939년 6월 경성보도연맹[8]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중등학교 조선인 남녀학생 중 자택에서 지내는 학생은 남학생은 1만 5,462명 중 6,263명, 여학생은 4,790명 중 3,014명이었다.[9] 즉, 1939년 당시 서울의 조선인 중등학생 중 남학생의 59.5%, 여학생의 37.1%는 부모의 슬하를 떠나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었다.[10] 이들 대다수가 바로 이희승, 홍봉진, 리영희와 같은 상경 학생이었다.

상경한 학생들은 어디서,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했을까? 이 글은 상경 학생의 주요 거처인 하숙과 기숙사를 중심으로 상경 학생의 생활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7 리영희는 "조선의 어디 어느 학교라도 합격은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적이 좋았다. 경성공업학교는 1938년 관립에서 공립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동양 제일의 학교라거나 공업계의 중간 간부급 양성 학교라는 선전, 공업학교 진학을 유도하는 교육정책과 맞물려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입학하면서 경성공업학교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이병례, 〈일제하 전시 경성공립공업학교의 설립과 운영〉, 《서울학연구》 50, 2013, 45~48쪽).

8 1933년 학생의 교외생활을 감독·통제하기 위해 지역 단위 학교들의 연맹으로 보도연맹이 창설되었다. '보도'는 불량학생, 불온학생을 보호·선도한다는 뜻으로 붙인 명칭이다. 경성보도연맹은 경기도 학무과가 주관하여 1933년 7월 22일 조직했다. 경성보도연맹에 대해서는 최규진, 〈'불량학생 숙청'과 보도연맹〉, 《내일을 여는 역사》 46, 2012; 황혜영, 〈1930~1940년대 경성보도연맹의 설립과 운영〉, 《역사연구》 22, 2012 참조.

9 京城保導聯盟, 〈中等學校生徒の下宿調査〉, 《保導叢書》 3, 1939, 2~6쪽. 경기도 학무과와 경성보도연맹에서는 1939년 5~6월 학생 하숙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경성의 주택난 악화, 물가 폭등에 따라 학생의 '하숙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으므로, 실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가정과 학교의 관리 밖에 있는 하숙 학생의 일상생활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기도 했다. 해당 조사는 조선인·일본인, 공사립 사범계, 일반계, 실업계 중등학교와 각종학교를 모두 포함하여 남자중등학교 35개 교의 학생 2만 1,127명, 여자중등학교 18개 교의 학생 9,9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0 경성보도연맹, 앞의 글, 1939, 7쪽.

〈표 1〉 서울 조선인 중등학생의 거처

(단위: 명)

	자택	친척집	지인집	기숙사	하숙	기타	계
남학생	6,263 (40.5%)	1,850 (12.0%)	643 (4.1%)	766 (5%)	5,875 (38%)	65 (0.4%)	15,462
여학생	3,014 (62.9%)	400 (8.4%)	48 (1%)	1,199 (25%)	121 (2.5%)	8 (0.2%)	4,790

출처: 경성보도연맹, 앞의 글, 1939, 5~6쪽에 의거하여 작성.
비고: 이하 본문과 표에서 학생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조선인 학생을 가리킴.

〈표 1〉과 같이 경성보도연맹의 조사는 학생의 거처를 자택과 친척집, 지인집, 기숙사, 하숙, 기타의 6가지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는데, 그중 자택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곳은 조선인·일본인 모두 남학생은 하숙, 여학생은 기숙사였다. 이희승과 리영희도 하숙을 했다. 학생이 아닌 교사이긴 하지만 《무정》의 주인공 이형식도 하숙생이었다. 홍봉진은 친척집에서 지냈다.

일제강점기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대체적인 상을 파악할 수 있다. 관공립학교는 대체로 기숙사를 운영했고, 특히 사범학교는 원칙적으로 전 재학생을 기숙사에 수용했다. 따라서 개별 학교사나 학생의 일상생활, 학생문화에 대한 연구들은 부분적으로라도 기숙사의 규칙과 생활 모습 등을 다루어 왔다.[11] 그 내용은 대체로 학교 기숙사는 학생의 의식과 행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기숙사마다 갖추고 있던 기상부터 취침 점호까지 꽉 짜인 일과표, 엄격한

11 김성학, 〈경성사범학교 학생 훈육의 성격〉, 《논문집》 15,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9; 안홍선, 〈경성사범학교의 교원양성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이기훈, 〈일제하 식민지 사범교육 -대구사범학교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9, 2002;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화 기숙사 110년 이야기》, 1998; 최규진, 《일제의 식민교육과 학생의 나날들》, 서해문집, 2018.

규율과 생활 규칙 등이 보여주듯이, 학생을 수용하여 단체생활을 영위하는 학교 기숙사를 살필 때 통제와 관리, 규율이 부각되는 것은 일면 타당하고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기숙사나 하숙집이 배경이거나, 그 안에서 생활하는 학생, 기숙사 사감, 하숙집 주인 등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소설 연구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경훈은 근대 문학에서 하숙방은 토지와 가문의 결박에서 벗어나 근대인으로서의 일상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보았다. 하숙이란 하숙비를 내지 못하면 나가야 하는, 철저히 돈에 매개되는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12]

소설 속 기숙사와 하숙, 관련 인물이 그려지는 서술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히 젠더화 된 장소성과 규율, 인물형에 착목하게 된다. 일제강점기 대중 매체나 소설에 등장하는 기숙사는 여학교 기숙사가 대다수이다. 1920년대 이후 신문과 잡지에 실린 기숙사 탐방기도 거의 대부분 여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하숙하는 여학생과 남학교 기숙사가 실제로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서울의 남자 중등학교 중 기숙사를 갖춘 학교는 드물었다. 공립학교로는 경성제일·제이고보와 경성농업학교, 사립학교로는 배재고보, 양정고보, 경신학교, 동성·대동상업학교 등이 기숙사를 갖추고 있을 뿐이었다. 〈표 1〉에서 남학생의 거처는 하숙이 38%, 기숙사가 5%이지만, 여학생은 기숙사가 25%, 하숙이 2.5%이다. 게다가 기숙사에 거처하는 남학생의 약 42%는 기숙사 입소를 원칙으로 하는 사범학교와 경성농업학교 학생이었다. 그러나 여학

12 이경훈, 〈하숙방과 행랑방 -근대적 주체와 사회적 감수성의 위치에 대한 일 고찰-〉, 《사회와 역사》 81, 2009.

생은 자택에서 통학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범학교, 공사립 여고보, 실업학교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13]

상경 여학생의 주요 거처인 기숙사에 대한 관심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남성 중심적 관점의 산물이기도 하다. 황지영은 여학교 기숙사와 그 안에서 생활하는 여성 인물이 등장하는 현진건의 〈B사감과 러브레터〉(1925), 이태준의 《구원의 여상》(1932), 장덕조의 《은하수》(1937) 세 소설에 대하여, 이중적인 젠더규율을 지적하였다.[14] 세 소설 모두 여학교 기숙사를 낙원, 화원으로 은유화·정형화한다. 또한 불우한 여학생, 명랑한 여학생, 노처녀 사감 세 유형의 여성인물이 등장하지만 모두 죽거나,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미친 사람으로 부정당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 학교, 군대, 감옥 등 규율공간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여타의 근대소설에서 남성 주인공이 육체적·정신적·사상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신의 삶을 찾는 것과 다른, 이중화된 젠더규율[15]의 소설적 재현인 것이다. 실재하는 공간인 여학교 기숙사를 낙원이나 화원으로 은유화하는 것은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인간과 그들의 삶을 타자화·대상화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감이든 학생이든, 규율을 잘 따르든 일탈하든, 여성인물의 비극은 이미 예정된 결말이다.

소영현은 여학교 기숙사를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규율화의 공간인 동시에, 여성이 경험하는 시공간의 확장이라는 차원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여성에게 학교와 기숙사 생활이란 동년배와의 공동생활이자 가

13 경성보도연맹, 앞의 글, 1939, 6쪽.

14 황지영, 〈근대 여학교 기숙사와 젠더규율의 이중성 -〈B사감과 러브레터〉, 《구원의 여상》, 《은하수》에 나타난 은유화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53, 2018.

15 황지영, 앞의 글, 2018, 98쪽.

족으로부터의 분리 경험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속에서 여학생이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감정과 감각에 주목한 것이다.[16] 진학 상경으로 생활의 변화와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데는 남녀 구분이 있을 리 없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젠더체계에 의해 서로 다른 경험과 기억을 하게 되며, 경험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방식도 성별화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17] 소영현의 연구는 상경 학생의 주거 생활을 살피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이 글은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상경 학생의 주요 거처였던 하숙과 기숙사라는 공간의 일단을 여러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대상은 중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였고, 자료로는 1939년 경성보도연맹의 중등학교 학생 하숙 조사연구[18]와 신문, 잡지, 학교사, 동창회지, 그리고 일제강점기 하숙·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서울의 중등학교를 다녔던 인물의 자서전·회고록 등을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소설 속의 중등학교 기숙사와 하숙, 관련 인물에 대한 묘사도 참고하였다. 이들 자료에서 찾아낸 사례들을 통해 상경 학생의 하숙·기숙사 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이에 대해 기존의 규율적 공간 담론을 바탕으로 하되, 또 다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16 소영현, 〈일제강점기 기숙사의 공간성과 여학생의 이동성〉, 《일제강점기 경성지역 여학생의 운동과 생활》, 서울역사편찬원, 2020.

17 이재경 외, 《여성(들)이 기억하는 전쟁과 분단》, 아르케, 2013, 14쪽.

18 경성보도연맹, 앞의 글, 1939. 여기에는 경성의 조선인·일본인 남녀 중등학생의 거처 종류를 비롯하여, 하숙에 대해서는 하숙하는 이유, 하숙집의 위치와 규모, 하숙방의 넓이와 동거자 수, 하숙비, 하숙과 학교의 거리 등 상세한 데이터가 실려 있다.

2. 하숙

1) 학교의 서울 집중과 학교 근처 하숙촌의 형성

> 이때, 동행하던 학생이 옆에 서서, 두 사람의 수작하는 말을 듣다가, 한 걸음을 나서며, 나직한 말소리로, "영감이 여관으로 가실진대, 저 있는 여관으로 가심이 어떠하오리까. 저 있는 곳은 청진동 중흥여관이온데, 房舍도 청결하고, 음식도 淨히 하며, 위치가 중앙이 되야, 출입이 편의하오니 제가 모시고 감이 어떠하오니까."
>
> 이승지는 그 학생의 말이 가장 다정함을 탄복하고 중흥여관의 객이 되기를 결정한 후 (중략) "이애, 네 집이 안변인 줄을 알았거니와, 네 성명은 무엇이냐" "魚成龍이 올시다" "학비는 어찌하느냐" "학비는 가친께서, 매삭 7원씩 보내주시면, 그것으로 略略히 절용하나이다" "공부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어찌하여 시골을 갔더뇨" "신년 휴가를 겨를하여 잠시 近親하고 오나이다"
>
>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동시에, 두 사람은 어언간 여관 문전에 다다렀더라. 粉壁紗窓은 극히 청결하고 전기등 광선은 휘황찬란한데, 한편 책상 위에는 교과서적을 단정히 쌓아놓고, 한편 화로에는 沸沸히 차를 다려, 그 맑은 향기가 사람의 심신을 상쾌하게 하니, 이는 곧 어성룡의 공부하는 처소라.[19]

1917년《신문계》에 발표된 소설〈경성유람기〉의 주인공 이승지는 상경길 경원선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안변 출신의 서울 유학생 어성룡의

19 벽종거사,〈경성유람기〉,《신문계》5-2, 1917년 2월.

숙소에 묵는다. 장차 도쿄 유학을 갈 것이라 하고, 사위 자리를 제안하는 이승지에게 아직 학업 중이며 미성년이라 불가하다고 사양하는 대목을 보면, 저자는 어성룡을 중등학교 학생으로 상정한 듯하다. 어성룡의 숙소는 여관인데, 그가 학생이고 자기 방에 자유롭게 손님을 데려와서 재우는 상황 등을 통해 볼 때, 어성룡의 여관 생활은 장기 숙박 형태인 하숙이라고 할 수 있다.[20]

당시 하숙업은 크게 하숙인 4~5인 이상으로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집 하숙과 하숙인 3인 이하로 영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여염집 하숙[素人下宿]이 있었다. 그러나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4~5인 이상의 하숙생을 받아 운영하는 하숙도 상당히 많았다.[21] 기숙사가 충분하지 못하니, 학교 주변에는 자연히 하숙촌이 형성되었다.

경성보도연맹은 통학상 편의에서나 학생 지도상으로나 학교와 하숙의 거리는 2km 이내가 적절하다고 했다. 〈표 2〉에서 보듯이, 하숙하는 남학생의 75.4%, 여학생의 72.7%가 학교까지 2km 이내 거리에서 하숙하고 있었다.

서울에서도 북촌에는 경성고보(1921년 이후 경성제일고보), 경성여고보, 대동학교(1934년 이후 대동상업학교), 동덕여학교(1926년 이후 동덕여고보), 숙명여고보, 오성학교(1927년 이후 협성실업학교), 중동학교, 중앙고보, 휘문고보, 근화여학교(1934년 이후 근화여자실업학교) 등 중등학교와 하숙이 밀집되어 있었다.

경성보도연맹은 경성부를 "조선인·일본인 거주 분포 및 지역적으로

20 1929년 간행된 백관수의 《경성편람》에 실린 여관 숙박료에 의하면, 1개월 단위 숙박은 '하숙'이라고 나와 있다(백관수, 《경성편람》, 홍문사, 1929, 217~218쪽).

21 〈무허가 하숙옥 300호〉, 《매일신보》 1922년 1월 18일; 〈素人下宿流行で本職が悲鳴, 斷乎行政處分をと警察に願出る相談〉, 《京城日報》 1932년 2월 9일.

〈표 2〉 서울 중등학생의 하숙과 학교 간 거리

(단위: 명)

	거리 / 학교	300m 이내	600m 이내	1km 이내	1.3km 이내	2km 이내	3km 이내	4km 이내	4km 이상	계
남학생	사범학교	1	11	23	4	11	14	5	·	69
	공립중	83	108	69	92	63	55	29	18	517
	사립중	313	439	458	383	302	267	148	77	2,387
	공립상업	7	5	7	7	7	5	1	12	51
	사립상업	366	216	120	174	143	91	111	161	1,382
	공업학교	87	159	181	174	197	169	87	56	1,110
	각종학교	2	9	36	68	102	84	38	20	359
	계	859	947	894	902	825	685	419	344	5,875
여학생	사범학교	1	1	7	14	15	1	2	·	41
	공립고녀	·	1	1	·	·	·	·	·	2
	사립고녀	5	8	10	5	4	7	11	3	53
	실업학교	·	·	1	13	2	2	7	·	25
	계	6	10	19	32	21	10	20	3	121

출처: 경성보도연맹, 앞의 글, 1939, 34쪽.

〈표 3〉 서울 조선인·일본인 중등학생 중 하숙생의 하숙 소재지 분포

(단위: 명)

하숙 소재지	조선인		일본인		계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도심구	506	18	100	11	635
동구	477	9	21	1	508
서구	1,384	41	38	5	1,468
남구	25	1	148	7	181
북구	1,591	36	12	1	1,640
용산구	331	3	123	34	491
신동구	89	4	6	0	99
신서구	419	6	1	1	427
신남구	829	0	59	0	888
신북구	198	0	0	1	199
기타	26	3	0	0	29
계	5,875	121	478	61	6,535

출처: 경성보도연맹, 앞의 글, 1939, 32쪽.

파악된 주민의 기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구區로 구분하고, 각 구별 하숙생 수를 조사했다.[22]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① 도심구: 총독부 광화문통에서 남대문을 지나 경성역에 이르는 선, 고시정과 길야정부터 욱정을 거쳐 소화통을 동으로 달려 본정4정목에 이르러 끝나는 선, 4정목부터 원남정, 원남정부터 총독부까지의 선으로 둘러싸인 지구

② 동 구: 동숭정 이남 일대와 연건정, 명륜정4정목 일대부터 창경원통을 남으로 달려 청계천을 경계로 하고 그것을 동으로 가는 선으로 둘러싸인 舊부내의 지구

③ 서 구: 총독부 서쪽 효자정 방면부터 광화문통을 거쳐 태평통에서 서소문정에 이르고, 다시 마포선에 이르는 구부내의 지구

④ 남 구: 창경원-본정4정목을 잇는 선의 동부 중 청계천의 남부 일대와 소화통 이남 일대를 포함하는 구부내의 지구

⑤ 북 구: 도심구의 북부 접경지 중 동구의 경계와 총독부 동부 사이에 낀 구부내의 지구

⑥ 용산구: 도심구의 남부 접속지 중 서구와 남구 중간에 낀 구부내의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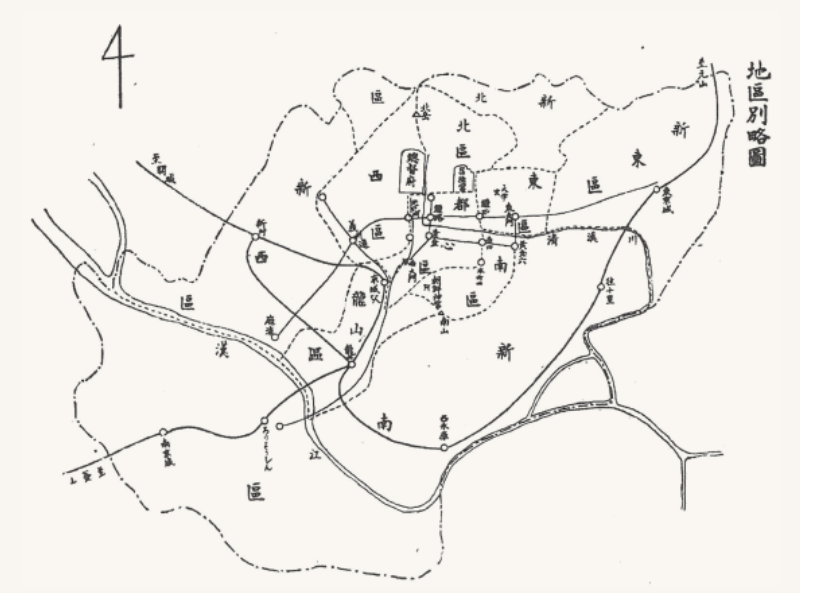
⑦ 신동구: 동구의 동부에 접속된 새 편입지 일대의 지구

⑧ 신서구: 서구의 서부에 접속된 새 편입지 일대의 지구

⑨ 신남구: 남구와 용산구의 남부에 접속된 새 편입지 일대의 지구

⑩ 신북구: 북구의 북부에 접속된 새 편입지 일대의 지구

22 경성보도연맹, 앞의 글, 1939, 27~29쪽.



학생 하숙 소재 지구별 약도
출처: 경성보도연맹, 앞의 글, 1939, 29쪽.

〈표 3〉에서 하숙 소재지가 조선인 학생은 서구와 북구에, 일본인 학생은 남구와 용산구에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성보도연맹은 이에 대해 하숙은 보통의 소시민 주택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인, 일본인이 각각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필연적으로 하숙이 밀집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표 3〉, 〈표 4〉에서 보듯이, 일본인 집중 거주지역이 몰려 있는 남촌에서[23] 하숙하는 조선인 학생은 드물었다. 남구에 비해 용산구에 조선인 하숙생이 많은 것은 남구에는 조선인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기숙

23 이준식, 〈일제강점기 경성부의 공간구조 변화와 인구변동-1925~1935년의 민족별 거주지분리를 중심으로-〉, 《향토서울》 69, 2007, 331~332쪽.

〈표 4〉 서울 중등학교별 남자 하숙생의 하숙 소재지 분포

(단위: 명)

	사범학교	공립중	사립중	공립상업	사립상업	공업학교	각종학교	계
도심구	15	11	260	2	111	71	36	506
동구	19	68	198	2	56	103	31	477
서구	6	172	645	25	174	251	111	1,384
남구	1	2	6	·	1	10	5	25
북구	15	230	839	8	336	90	73	1,591
용산구	·	2	92	1	48	168	20	331
신동구	4	4	35	2	22	14	8	89
신서구	·	11	95	6	30	235	42	419
신남구	9	5	85	2	574	134	20	829
신북구	·	11	129	1	28	21	8	198
기타	·	1	3	2	2	13	5	26

출처: 경성보도연맹, 앞의 글, 1939, 32쪽.

사 입소가 원칙인 경성사범학교뿐이었지만, 용산구에는 성남중학교[24]와 선린상업학교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10구 중 가장 많은 조선인 중등학교가 있는 구이자, 조선인 학생 하숙이 가장 많은 구는 북구, 즉 북촌이었다.

1929년 《별건곤》에 실린 〈학생하숙촌 탐방기〉의 무대도 바로 이곳이다.

> 바람 쌀쌀한 12월 14일의 어두운 저녁 (중략) 재동 네거리 어느 책사에서 꽃봉투 몃 축, 꽃편지지, 편전, 잡지 4, 5권, 학생들이 살 듯 싶은 것을 사서 책보에 싸들고 나서니 탐방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안국동의 동창이발관 뒷골목을 들어서니 여기서부터가 원동 학생하숙이라고 만주장사가 가르쳐

24 성남중학교는 학교 명칭이 고보에서 중학교로 바뀐 1938년, 김석원이 설립한 사립학교이다.

줍니다. 100번지의 야트막한 기와집 대문을 삐걱하고 열고는 안내켜지는 발을 결단하고 들여놓았더니 이상하지요, 방문은 쉽게 열어집니다. (중략) 남학생 세 분이 (중략) "저희들은 전라도 나주에서 왔습니다" (중략) 나는 방내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책상에는 교과서 외에 딴 서적이 없고 고리짝 둘밖에 없는 것을 보니 하나는 손님인 듯하고, 조선옷과 학생복이 줄줄 걸려 있고 모자는 멀리 걸려서 (중략) "어느 학교들을 다니시는지요"하고 물으니 "중앙 1년에 다닙니다"하고 선뜻 대답을 하여줍니다. (중략) 별궁 동쪽 담장 옆 골목 6X번지 꼭 닫혀있는 대문으로 들어가서 (중략) 깜깜한 골목을 더듬더듬 하숙문패를 찾아가다가 중동학교 체조선생님댁 앞에 조선생님댁 앞에 아주 큰 대문 앞에 와서 보니 학생문패가 군대교련 받듯 쭉 붙었는데, 여기는 안국동 7X번지 백씨집 안동을 지나 화동골을 들어섰습니다. 별궁담을 끼고 올라가서 안동예배당 못 미쳐서 안국동 X번지 4호라는 집 우물 속같이 깊은 마당에 들어서니, 첫 방에서는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학생에게 봉투를 하나 팔았는데 (중략) 그다음 방에 가니 (중략) 한참을 올라가서 중외일보사 앞을 지나 올라가 제일고보 옆 어느 학생 사숙집에 들어가니까 대문 옆방에서 두 학생이 앉았다가 (중략) "어느 학교에 계시는지요"하니까 그들은 웃으면서 "중동에 있습니다" 합니다. 소격동 3X 정씨의 하숙실에 들어갔더니 (중략) 팔판동 15X번지에 있는 학생들을 찾아갔더니 또 "들어오십시오" 하고 조릅니다. 방 안에는 7, 8인의 양복장이와 조선옷 입은 사람이 담배들을 피우며 테이블도 있고 걸상도 있어 밑에 앉은 사람, 걸상에 앉은 사람 (중략)

둘째 날 오늘도 장사할 물건을 한 보퉁이 사 가지고 재동 어느 골을 들어서서 보니까 어떤 대문 옆에 유리문이 있는데 학생 모자가 걸렸기에 그리 얼른 들어갔지요. 학생이 두 분 (중략) 이 집은 재동 3X번지인데 한 분은 일

고, 또 한 분은 이고 학생이었습니다. (중략) 다음 골목 어느 집에 들어가니 (중략) "어느 학교 다니십니까"하였더니 "일고에 다닙니다"하는데, 그 옆에 학생은 학교는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벽에 걸린 WM의 응원기를 보니 휘문고보생인 줄 알았습니다. (중략) 재동학교 위에 조금 들어간 골목 여학생 사숙에 들어갔더니 (중략) 첫 방에서도 퇴박, 둘째 방에서도 퇴박 맞고, 셋째 방에 가니까 사범과에 다니는 여학생 세 분이 있는데 (중략) 그 집에서 나와 가회동 15X번지로 들어가니까 (중략) 또 나서서 가회동 14X 곽씨집을 들어가니 그길로 보전 문 뒤의 간동으로 들어서서 또 여학생 사숙에 갔더니 모두 잠을 자고 사범과 둥근 모자들만 걸리었습니다. 한 방문을 열어보니 이 방은 가운데 방인데 이것도 연습과(사범과) 생도 방인데 (중략) 그 다음에는 여관으로 몇 군데 가보았으나 재미를 못보고 관훈동 X성여관에 갔더니 한 방에서는 (중략) 그 방문은 못 열고 말았습니다.[25]

기자는 첫째 날 저녁에는 재동에서 안국동, 소격동, 팔판동을, 둘째 날에는 재동에서 가회동, 사간동, 관훈동을 돌았다. 기자가 지난 곳 중 "별궁"은 안동별궁이고, "안동예배당"은 《무정》에서 이형식이 "내려쪼이는 유월 볕에 땀을 흘리면서" 찾아갔던, 김장로가 다니는 안동교회이다. "하숙문패"가 붙어있는 집, "학생문패가 군대교련 받듯 쭉" 붙어있는 집은 영업집 하숙, "사숙私宿"은 여염집 하숙에 해당한다. 들어간 하숙집에서 중앙고보, 휘문고보, 중동학교, 경성제일고보, 경성제이고보, 사범과[26] 학생

25 백시라, 〈부인기자 암행기(2), 여자고학생으로 변장하고 학생하숙촌 탐방기〉, 《별건곤》 18, 1929년 1월.

26 고보 부설 사범과는 1925년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사범과"와 "연습과(사범과)"는 경성사범학교 연습과, 경성사범학교 여자연습과를 가리킬 것이다. 인용문에서 "일고"



안동별궁
출처: 《매일신보》 1928년 12월 6일.

등을 만났다. 경성제이고보와 경성사범학교를[27] 제외하면 모두 기자가 돌아다닌 북촌에 있는 학교들이다.

최서해의 소설 〈전아사〉의 주인공도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면서기로 일하다, 고학을 결심하고 상경하여 이곳 "계동 막바지 어떤 학생 하숙"에하숙을 정하였고,[28] 상경 학생이던 홍봉진도 졸업 후 계동에서 하숙을 운영했다. 홍봉진은 1921년 3월 선린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조선식산은행 서기로 취직했다. 이때 나이 만 18세,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경기도 남양의 본가에는 17살부터 10살까지 공부시켜야 할 동생이 줄줄이 넷이나 있었다. 봉급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여러 생각 끝에 하숙을 치기로 했다. 홍봉진에게 하숙집 운영이 전혀 생소한 일은 아니었

와 "이고"는 각각 경성제일고보, 경성제이고보를, "재동학교"는 재동공립보통학교를 말한다.

27 경성보도연맹의 경성부 구분에 따르면 청운정의 경성제이고보는 서구에, 황금정의 경성사범학교는 도심구에 있었다.

28 최서해, 〈전아사〉, 《동광》 1927년 1월.

다. 1913년 남양군에서 토지조사사업이 진행될 때, 토지조사국 측량원 수십 명이 그의 집에서 1년 이상 하숙을 했다. 매달 들어오는 하숙비도 상당했거니와 모친은 그 돈을 여러 가지로 투자하여 홍봉진이 취직한 1921년 당시, 10여 칸짜리 서울집을 장만할 수 있을 만큼의 목돈을 쥐게 되었다. 홍봉진은 그 돈으로 계동 100번지에 땅을 사서 19칸 기와집을 지었다. 마루 2칸, 부엌 칸 반, 대문 2칸, 사랑마루 1칸 외에는 모두 방으로 만들어 방 수는 11개, 하숙생 17~18명을 충분히 칠 수 있었다. 〈학생하숙촌 탐방기〉에서 기자가 들어간 하숙집 중 "학생문패가 군대교련 받듯 쭉" 붙어있는 집, 첫 번 방, 다음 방, 이렇게 방이 줄줄이 있다는 곳이 이러했을 것이다.

홍봉진은 1922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하숙 영업을 해서 2년 만인 1924년 여름에는 계동 90번지의 초가집 대지 45평을 사들여 요즘 말로 2호점까지 열었다. 가능한 학생을 많이 받으려고 2호점은 2층 한옥, 그것도 2층까지 온돌방으로 지었다. 그러나 "방이 늘어나서 학생은 더 칠 수가 있지만, 100번지만 가지고 할 때는 여염집으로 알고 방이 나기가 무섭게 잘 들었는데 학생 수용이 30~40명으로 늘어나자 조용한 분위기가 사라져 장바닥 같아서 하숙집으로서의 평가"가 떨어졌다고 한다.[29] 실제로 다음 기사에서도 보듯이, 하숙은 대규모 영업집보다 "가족적" 분위기의 여염집 하숙이 선호되었던 모양이다.

> 요사이에 시내 하숙업자의 수가 점점 줄어가는 반면에 여염집 하숙업자가 많이 늘어간다는데, 그 원인은 일반 손님들이 하숙옥에 있는 것보다 여염집에 유숙하는 것이 가족적 대접을 받는 이익이 있는 고로, 여염집을 구하

29 홍봉진, 앞의 책, 1986, 73쪽.

는 손이 많게 되므로 영리한 하숙업자들은 종래의 간판을 떼버리고 하숙업 폐지 신고까지 하고도 의연히 손님을 치우는 자가 많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도 장차 취체하려니와, 경성부 재무과에서 하숙업자이고 여염집을 물론하고 손을 치우는 집에 대하여는 금후부터 용서 없이 상당한 세금을 부과하리라더라.[30]

홍봉진이 하숙업을 시작한 지 10년 이상 지난 1939년 경성보도연맹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5.2%만이 영업집 하숙에 거주하고 있었고, 하숙집의 하숙인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는 응답자의 0.9%에 불과했다.[31] 또한 〈표 5〉와 같이 여학생은 본인 외에 다른 하숙생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남학생도 하숙생이 6명 이하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는 상경 학생의 부모·보호자들이 가능한 가정과 같은 하숙집, 집안의 어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주인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하숙은 여학생에게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긴 했지만, 남학생에게도 권장되는 거처는 아니었다. 학교 기숙사가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기숙사와 같이 잘 감독할 만한"[32] 친척이나 지인의 집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1920~1930년대 신문과 잡지에서 상경 학생의 하숙을 경계하는 글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대개 내용의 초점은 학생의 건강, 위생, 정서 등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 지도·감독 없이 자유롭게 놔두면 위험하다는 데 있었다. 하숙은 자고 일어나는 시간, 외출, 손님 방문, 외부 통신, 방과 후 시간 활용에 별 제약이 없다.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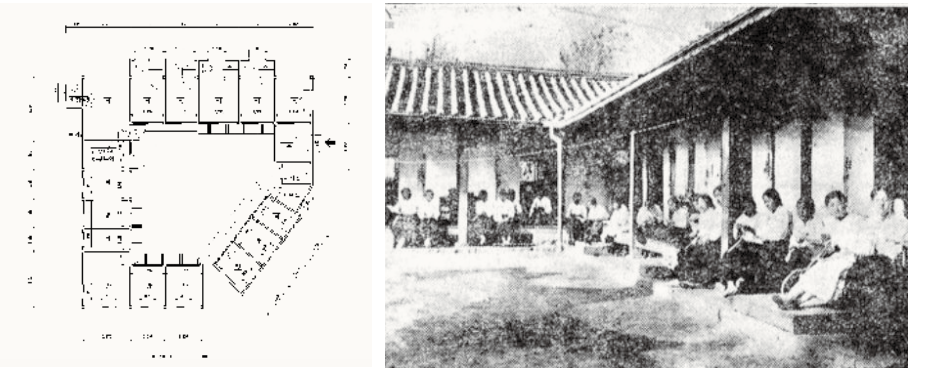
30 〈여염가의 하숙업자〉, 《동아일보》 1924년 12월 13일.
31 경성보도연맹, 앞의 글, 1939, 18~19쪽.
32 〈여학생의 감독없는 도회류학은 위험〉, 《동아일보》 1928년 2월 21일.

〈표 5〉 서울 중등학생 중 하숙생의 동일 하숙의 하숙인 수

(단위: 명)

하숙인 수	남학생	여학생	하숙인 수	남학생	여학생
0	461	49	10	163	1
1	644	19	11~15	183	1
2	823	20	16~20	45	0
3	730	13	21~25	10	0
4	912	8	26~30	1	1
5	572	2	31~40	3	2
6	541	3	41~50	2	1
7	295	1	51 이상	31	0
8	321	0	계	5,875	121
9	138	0			

출처: 경성보도연맹, 앞의 글, 1939, 18~19쪽에 의거하여 작성.
비고: 하숙인 수는 동일 하숙의 하숙인 수를 지칭함. 응답자 본인을 제외한 수치임.



영업집 하숙을 추정할 수 있는 북아현동 한옥 여관 도면(좌)과 배화여고보 기숙사 전경(우)

출처: (좌) 서울역사박물관, 《안산자락, 고갯마을 북아현: 북아현의 역사, 경관, 주거》, 2009, 229쪽.
(우) 《조선일보》 1925년 4월 26일.

을 매달 받는다. 게다가 대다수가 또래와 동거했다. 1939년 경성보도연맹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하숙 남학생의 63.0%는 2명, 21.4%는 3명이 한 방에서 생활했다.[33] 자연스럽게 공부에 소홀하고 흡연, 음주, 음담, 방탕,

도박, 싸움, 욕설 등 좋지 못한 습관을 갖게 되기 쉬운 환경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34] 또한 남녀 학생이 어울릴 수 있으니 이른바 풍기문란에 대한 경계도 빠지지 않았다. 하숙집엔 부모나 그를 대신할 어른도, 담임도, 기숙사 사감도 없다. 상경 학생의 보호자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는 존재는 하숙집 주인뿐이다. 보호자들은 하숙의 위치, 주인의 인격, 동숙인의 종류 여하를 따져가며 노심초사했다.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35] 출신으로 동덕여고보, 호수돈여고보 교유로 재직했던 김순영金順英이란 인물이 있다. 김순영은 중앙고보 교장을 지낸 최두선崔斗善과 중혼을 했다. 부인과 자녀가 있는 최두선과 결혼하면서 김순영은 자의건 타의건 공직생활에서 물러났다. 두 집 살림을 하는 최두선이 생활비를 넉넉히 가져오지 못하자, 김순영은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 하숙을 쳤다.

> 계동에서는 4년 동안에 8명의 하숙생을 쳤고 성북동으로 이사 와서도 3년 동안 4~5명의 하숙생을 두었었다. 당시의 하숙생은 거의 중앙고보의 학생이었다. 나는 줄곧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큰 살림을 하시던 분이라 학생들을 자식처럼 돌보고 잘 먹이고 친절하게 해 주니까 학생들이 마루방도 좋다하며 우리집에서 하숙하겠다고 하여 즐거운 비명을 올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36]

33 경성보도연맹, 앞의 글, 1939, 14~15쪽.

34 〈도회로 오는 학생제군에게〉, 《동아일보》 1931년 3월 31일; 〈학교교육과 기숙사〉, 《동아일보》 1932년 9월 12일; 〈자녀 서울 보내실 때 하숙을 잘 골르십쇼〉, 《조선일보》 1935년 2월 27일.

35 고등사범학교는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일본의 관립학교이다. 남학교로 도쿄와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 여학교로 도쿄와 나라여자고등사범학교가 있었다.

김순영이 운영한 하숙집은 홍봉진의 경우와 다른, 소규모 여염집 하숙이다. 하숙생 수도 적고, 학교와 거리도 가깝고, 주인이 "자식처럼 돌보고 잘 먹이고 친절하게" 해 주는, 상경 학생의 보호자들이 원하는 하숙집의 전형이라고 할 만하다.

홍봉진이 하숙을 운영할 때, 그의 두 남동생은 각각 보성고보와 중동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2호점을 연 다음해, 홍봉진은 중동학교에 다니던 동생과 함께 보결시험을 치고 보성고보에 편입했다. 삼형제가 같이 보성고보를 다니며 공부에 매진해서, 1925년 모두 우등으로 졸업하고 홍봉진은 경성제대에, 큰 동생은 경성고등공업학교에 합격했고, 작은 동생은 1년 재수를 거쳐 경성제대 의학부에 들어갔다. 1929년 무렵 홍봉진은 계동 100번지 하숙집을 팔았는데, 구매자는 아들 둘을 서울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학생 하숙을 운영하려는 "충청도의 어떤 과부 마님"이었다. 그 마님의 두 아들도 모두 경성제대에 진학했다.[37] 한 신문기사에 상경 학생이 하숙을 잘 정하는 요령으로 "학교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공부 잘하는 상급생이 있는 하숙집을 찾아 같이 두라"[38]는 내용이 제시된 바 있다. 홍봉진의 계동 100번지 하숙집은 적어도 이 점에서는 상경 학생의 보호자에게 더할 나위 없었을 것이다.

2) 하숙생의 제한된 자유와 마음 고생

너희와 같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남의 집에 손이 되고 보면 공연히 무엇

36 김순영, 《한 빛을 따라: 김순영자서전》, 익문사, 1976, 67쪽.

37 홍봉진, 앞의 책, 1986, 76~85·98쪽.

38 〈자녀 서울 보내실 때 하숙을 잘 골르십쇼〉, 《조선일보》 1935년 2월 27일.

이 먹고 싶기도 하고, 고프지 않은 배도 고픈 듯하며, 춥지 않은 방도 추운 듯한 것이니라. 너도 이제 1학기만 지나고 보면 서울이란 곳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다소 짐작하게 되고, 거기 따라서 객지의 맛이 몸에 배이게 되며, 또 부모형제가 같이 사는 가정과 다른 사람의 집에 기식하고 있는 情味의 다른 것을 점차로 알게 될 것이다. 공연히 거리에 나가서 한눈을 팔며 돌아다닌다든지, 아무 볼일도 업는 점방을 기웃기웃 들여다 본다든지, 쓸 소용 업는 물건을 보기에 이상한 것이라고 하나 둘씩 사모으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짓을 하지 않게 하여야 될 것이다. 더구나 구경 좋아하는 너희에게 특별히 주의시킬 것은 활동사진이다. (중략) 활동사진은 중학생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독소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중략) 다달이 보내는 학비는 모두 활동사진관의 입장료로 들어가고 하숙료를 치루지 못하여 쩔쩔매는 어린 학생들이 또한 적지 아니하다는 말을 들을 때, 이 아버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던 것이다. 기남아 네가 그러한 불량학생 중에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지 않는 바이다. 그러나 어린이의 마음이란 어떻게 장래가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때그때의 재미에 팔리는 수가 많은 것이니, 네가 먼저 너 자신의 마음을 굳게 갖는 동시에, 또 너의 한 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우라든지, 같은 하숙에 유숙하고 있는 학생들과 서로 친근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잘 살펴서 사귀어야만 할 것이다. 너의 담임선생이 되실 분에게와 너의 하숙집 주인님에게까지 거듭거듭 감시를 해줍시사고 부탁은 한 바이지마는 (중략) 불량학생! 이 말만 들어도 입맛이 없구나.[39]

39 申○順, 〈입학은 되었으나, 시골 아버지의 걱정〉, 《별건곤》 62, 1933년 4월.

이어지는 편지 내용을 보면, 신기남은 가구 수는 100여 호, 굶지 않고 봄을 무사히 지낼 수 있는 집이 몇 안 되는 가난한 농촌 출신이다. 즉 신기남도 〈표 6〉처럼 "집이 멀어서", 즉 "다른 지방에서 면학을 위해 상경했기 때문에 경성에 자택도 친척도 없어서"[40] 하숙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하숙생 중 한 명이었다.

〈표 6〉 서울 중등학생 중 하숙생의 하숙 이유

(단위: 명)

	집이 멀어서	식사 건강	가정사정 경제	한정(閑靜) 독거 선호	수양 면학	안잠자기 [住込]	기숙사 만원	계
남	5,812	1	22	3	10	8	12	5,868
여	77	2	1		2	5	34	121

출처: 경성보도연맹, 앞의 책, 1939, 12쪽에 의거하여 작성.

신기남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불량학생이라는 말만 들어도 입맛이 없다"에 이어, "너 때문에 앞으로 집에서는 무서운 절약 생활을 해야 한다, 너를 실업학교 대신 중학교에 입학시킨 것은 네 미래를 위해 특별히 생각한 것이니 뼈에 새겨야 한다, 밥도 못 먹는 사람이 많은데 너는 서울 유학을 하니 행복인 줄 알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아버지는 몰래 상경해서 고학하며 갖은 고생을 했다"는 잔소리를 퍼부으며 오로지 학업에만 집중하라고 훈계한다.

> 어린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해서 좋을지 어떨지를 아버지도 잘 모르겠으나 너도 우리 집의 형세를 짐작할 것이다마는, 매월 보내줄 너의 학비가 여간

40 경성보도연맹, 앞의 글, 1939, 12쪽.

> 거북한 것이 아니구나. 벼를 한 섬을 팔고 보면 겨우 10원 밖에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너에게 보내는 한 달의 학비를 위해서 2섬 반의 벼를 팔지 않으면 아니 될 터이니, 다른 것은 죄다 치지 않더라도 우선 이것만으로도 1년에 20석이란 것을 따로 봉해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만약 다시 월사금이라든지 너의 학기말 귀성에 들 비용이라든지의 여러 가지를 합하고 보면 1년에 30석의 벼로서는 도저히 턱이 맞지 않는구나. (중략) 너에게 이러한 걱정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도 역시 우리 집의 가세가 어떠하다는 것을 머릿속 깊이 넣어두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41]

집에서 이런 편지를 받는다면 일부러 노력하지 않는 한 "불량학생"이 되기도 어려울 것 같다. 월사금이나 잡비와 달리 하숙비는 상경 학생이라서 드는 비용이다. 1939년 경성보도연맹 조사에 의하면, 월 하숙비는 18원 내외가 일반적이었다. 남학생은 응답자의 89.4%, 여학생은 52.9%가 15~18원의 하숙비를 내고 있었다. 여학생은 15원이 가장 많고, 이하 10원, 17원, 18원, 16원 순인데 비해, 남학생은 18원이 가장 많고 이하 17원, 16원, 15원 순으로, 남학생의 하숙비가 더 높은 것이 흥미롭다. 1939년 3월 상경한 남녀 중등학교 학생의 한 달 학비에 대한 신문기사도 여학생은 "대체로 20원 정도면 서울 와서 공부할 수" 있지만, 남학생은 "대체로 여학생들보다 많이 써서 전부가 30원 내외"라고 보도하고 있다.[42] 이 기사가 소개한 "가장 중용을 취한 생도"의 사례는 식비 17원, 세탁비 50전, 서류대 1원 50전, 과자 3원, 이발·목욕비 기타 1원 50전, 통신대 36전, 양말

41 申○順, 〈입학은 되었으나, 시골 아버지의 걱정〉, 《별건곤》 62, 1933년 4월.

42 〈적어도 탈이지만 너무 많아도 걱정〉, 《조선일보》 1939년 3월 15일.

50전, 내의 1원, ○○○ 20전, 약값 50전, 영화 2원, 호떡 50전, 기타 합계 28원 56전이었다. 매달 "2섬 반의 벼"를 판 돈 25원을 받는 신기남의 서울 유학 생활은 이보다도 여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리영희는 상경하여 광복전까지 4년 동안 서울 밖으로 나가본 적은 인천에 다녀온 단 한 번뿐일 정도로, "하숙집과 학교 사이의 고정궤도를 벗어나지" 않은 "공부벌레"였다.[43] 리영희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 나는 가난한 부모님이 어렵게 보내주는 학비를 아껴야 한다는 소년다운 일념 때문에, 생활은 하숙집과 학교 사이의 고정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생활은 그 당시 중학생들이 하숙집 벽에 즐겨 써붙이고 있던 "소년이여 웅지를 품어라!"의 표어와는 인연이 멀었다. 소년이 웅지의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가난이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서 부쳐오는 한달 학비는 40원 정도였다. 월사금이 4원 몇십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숙비가 26원, 잡비 10원 안팎으로 쪼개졌다. 확실치는 않지만 아버지의 월급이 90원 정도였을 것이다. 용산우편국까지 전차를 타고 가서 우편대체로 온 40원의 돈을 찾아가지고 나올 때, 시골의 부모님의 정성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곤 했다. 봉급의 반가량을 아들의 학비로 비워야 하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명심하여 학교공부 이외에는 눈을 팔아서는 안된다는 결심을 새롭게 다지는 것이었다.[44]

리영희가 공부벌레 생활을 한 것은 비단 용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

43 리영희, 앞의 책, 1988, 66쪽.
44 리영희, 앞의 책, 1988, 66쪽.

라, 진학 상경을 시켜준 부모님의 "정성, 사랑, 희생"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울 출신 유진오兪鎭午는 경성제일고보를 자택에서 다녔는데, 학생 시절 교우 중 "시골 지주의 아들이어서, 집에서 돈을 흠뻑 가져다가 읽고 싶은 책을 한꺼번에 10여 권씩 사다가 쌓아놓고 읽을 수 있는" 하숙생 이재학李在鶴이 부러웠다고 한다.[45] 이재학에게는 서울 유학이 부모나 일가 어른, 사감의 눈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였을 것이다. 즉 상경 하숙생의 자유는 고향의 본가에서 보내주는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송금하는 가족의 "정성, 사랑, 희생"을 외면해야 가능한 자유였다.

3. 기숙사

1) "숙소는 학업과 동격으로 중요하다": 학교 기숙사의 존재 가치

> 가장 부모나 선생의 지도와 감시가 필요할 중학생으로서 기숙사 시설의 부족 때문에 이렇게 도회의 유혹은 물론이고 불편하고 불결하고 그러고도 비용은 더 나가는 하숙생활에 그대로 맡겨둔다는 것은 보도와 보건상으로도 중대한 문제로서 무엇보다도 기숙사의 시급한 확충이 요망되고 있다.[46]

> 수일 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경성에 하숙하는 학생들의 하숙생활이 여간 살풍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비싸니 불을 잘 때지 못하는 데

45 유진오, 〈나의 교우록〉, 《구름 위의 만상》, 1966, 253쪽.
46 〈재경 지방 학생 하숙생활 조사 완료〉, 《조선일보》 1939년 10월 6일.

다가 밥값만 비싸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붙일 곳이 없어 공연히 길에서 방황하게 되고 나쁜 동무 사귀게 되니까 공부도 공부려니와 실상 학생 하숙 문제는 무엇보다도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학무당국이나 각 사회단체에서 좀더 여유가 있다면 고향을 떠나 도회지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의 숙소문제를 큰 문제로 취급해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47]

좋은 환경은 정히 교육의 좋은 모태일 것이다. 그런데 현하의 학생 하숙문제는 비단 훈육상에서 뿐만 아니라 보건이 또한 문제이며, 그보다도 지금 목전에 절박된 문제는 그나마도 하숙 구득난 문제이다. 훈육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어든 여기에 보건과 하숙난 문제가 가중되어 있으니 이 문제의 해결을 어찌 하루인들 늦춰서 좋을 것인가.[48]

해종일 학교에서 시달린 몸을 끌고 하숙으로 돌아오는 학생에게 어떠한 따뜻한 손이 기다립니까. 방은 차고 밥을 대하면 영양 부족에 마땅하고 누가 반갑게 맞아주는 이 없으니 (중략)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숙소를 그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입니다. 좋은 숙소를 준 후에 학업의 여하를 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49]

요즘 외지에서 온 학생들은 하숙 구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하숙비도 비싸져가므로 가벼운 주머니에 겨울의 쌀쌀한 바람이 스며들어 큰 곤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보성중학교 당국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47 〈학생생활과 하숙〉, 《동아일보》 1939년 10월 6일.
48 〈학생 하숙 문제〉, 《조선일보》 1939년 11월 29일.
49 〈학생에게 좋은 숙소를 주자-학생과 숙소 문제 좌담회〉, 《동아일보》 1940년 1월 4일.

"지방에서 온 생도들은 본래 학교 기숙사에 전부 수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기숙사가 작아서 보통 하숙집에 들게 됩니다마는, 그것부터 생도 지도상 좋지 못합니다. (중략)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하루바삐 생도들을 전부 기숙사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책입니다마는, 어디 그리 손쉽게 됩니까 운운.[50]

1939년 경성보도연맹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신문지상에는 학생 하숙 문제를 우려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인용한 기사에서 보듯이, 이때 하숙은 학생 훈육상 차원보다는 생활 보호·보건상의 차원에서 문제시되었다. 이는 중일전쟁 발발 후 심화된 서울의 주택난, 미곡 수급 문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대적 산물"이었다.[51]

일제의 전시 병참기지화 정책에 따라 노동인구는 집중되는 데 전쟁이 지속되면서 자재난·자금난이 겹쳐 가옥 신축은 어렵고, 인구 증가 속도를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니 자연 주택난이 심화되었다.[52] 또한 1939년 대가뭄의 대흉작 영향으로 식량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전쟁이 확대·장기화 되면서 물자 부족도 심화되었다. 조선총독부는 물가 통제 법령을 공포하고 관권을 동원하여 단속했지만, 암거래와 매점이 유행하고 물가는 상승했다.[53] 이러한 상황에서 폐업하는 하숙이 늘어났다. 쌀

50 〈주택, 반미, 시탄 3난으로 학생은 하숙난 대두〉, 《조선일보》 1940년 2월 7일.

51 〈학생 하숙난 대책〉, 《동아일보》 1940년 6월 8일.

52 김윤경, 〈경성의 주택난과 일본인 대가업자들 -본정대가조합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78, 2020, 2·6쪽. 경성의 주거 부족율은 1930년대부터 크게 상승하여 1935년 19.4%, 1938년 23%, 1940년 25%, 1944년 40%로 더욱 악화되었고, 임차료도 폭등하였다(이승일, 〈1930~40년대 경성 거주 급여 생활자의 주거 생활〉, 《한국민족문화》 58, 2016, 379~380쪽).

과 식료품, 연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월세가 오르니 하숙을 접고 셋방을 놓는 것이다.[54] 자연 하숙비는 오르고, 식사는 나빠지고, 같은 면적에 거주자는 늘어나고, 그나마도 학교 가까운 곳은 구하기 어려운 "하숙 구득난"이 발생한다. 1939년 경성보도연맹의 조사는 하숙생의 열악한 상황을 수치로 확인시켜 주었다.[55]

앞에서 인용한 기사에서 확인되듯이, 하숙난에 대한 대책으로 조선총독부, 경성보도연맹, 조선인 사회가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은 기숙사였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는 기존의 학교 기숙사를 확장할 것과 학생회관 같은 공동기숙기관 설치를 대책으로 내놓았다.[56] 경성보도연맹에서도 공동기숙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57] 《조선일보》는 당장 각 학교에서 기숙사를 완비하기는 어려우니 학교별 기숙사 설치는 장기적 과제로 차차 실행하고, 민간 유지들이 재단을 만들어 기숙사를 설립·경영하자는 논설을 실었다.[58] 동아일보사는 중등학교 교원·교장 등을 초청하여 〈학

53 이에 대해서는 송규진, 〈일제말(1937~1945) 통제경제정책과 실행과정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42, 2011, 4쪽; 이송순, 《일제말 전시 총동원과 물자 통제》, 동북아역사재단, 2021, 321~336쪽 참조.

54 〈여기서 나올 완화책은 무엇?〉, 《매일신보》 1940년 1월 22일.

55 1939년 경성보도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인 하숙생의 하숙비는 "18원 내외가 일반적"이었다. 북촌인 계동, 가회동 일대가 18원으로 가장 높고, "봉래정, 이태원정, 아현정, 신당정 각 지대"는 17원, 혹석정은 16원이 시세였으며 "위치의 양부, 방의 넓이, 동거인의 다소에 따라" 1, 2원 또는 4, 5원의 차이가 있었다(경성보도연맹, 앞의 글, 1939, 26쪽). 그러나 1939년 9월경에는 평균 20원으로, 1940년 2월에는 25~26원으로 크게 인상되었다(〈신입생의 하숙 문제〉, 《매일신보》 1940년 3월 15일). 앞 장에서 인용한 리영희의 회고에도 한달 하숙비가 26원이라고 나온다. 리영희의 하숙은 4대문 밖인 혹석동에 있었다.

56 〈부내 학생 하숙난 완화 대책〉, 《조선일보》 1940년 2월 7일.

57 〈학생 공동 기숙사〉, 《조선일보》 1940년 3월 26일.

58 〈학생 하숙난〉, 《조선일보》 1940년 3월 25일.



1910년대 경신학교 기숙사(좌)와 존디웰스기념당(우)
출처: 경신사편찬위원회, 《경신사》, 경신중고등학교, 1991(경신고등학교 소장).

생에게 좋은 숙소를 주자!>라는 제목으로 "학생과 숙소 문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의 부제는 "숙소는 학업과 동격으로 중요하다"였다.[59] 좌담회 참석자들은 적어도 자택에서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은 학업 면에서나 훈육 면에서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는 데 동의했다.

여기서 기숙사가 이전 시기와 달리, 상경 학생을 위한 거주·후생시설로서 강조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 기숙사를 학생의 일상을 관리·통제하는 규율·규칙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근대 일본에서 모리 아리노리[森有禮]가 사범학교에 시행했던 병영식 기숙사 정책은 조선의 사범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기숙사를 억압과 통제, 감시와 처벌이라는 관점에서만 보기 어렵게 하는 많은 기사와 회고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1925년 경성제이고보와 경신학교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대한 기고를 보자.

59 〈학생과 숙소 문제 좌담회〉, 《동아일보》 1940년 1월 4~5일. 좌담회에는 동아일보사에서 6명과 보도연맹 임철재를 비롯하여, 중등교육계 인사로 이만규, 나사균, 유각경, 김의형, 이극로, 조영하, 고황경, 이규현, 장용하, 서웅성이 참석했다.

나는 4년 동안의 긴 세월도 짧은 듯이 우리의 낙원에서 즐겁게 보내었습니다. (중략) 우리의 70여 명의 사생은 네 분의 사감선생 밑에, 선배는 형으로 후진은 아우로 커다란 가정을 이루고 살아옵니다. 우리 형제들은 아침에 같이 학교에 가서 배우고 돌아와서는 5시 반이 되면 모두 기쁜 낯으로 하루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면서 저녁 식탁에 모여 앉았다가 저녁 후에는 넓은 운동장으로 뛰어나와 각기 즐기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6시 반이 되면 일제히 자기 방으로 들어와 공부를 하고 10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 제각기 단꿈에 취합니다. 우리는 춘추로 사내 정구대회를 열어 평상에 연마한 기술을 시험하고 또 사생의 위안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다과회며 담화회도 열고, 혹 규모는 적으나마 음악회도 열어 모두 즐겁게 놀기도 합니다. 겨울이 되어 바깥 운동을 못하게 되면 오락실로 모여 핑퐁과 잡지 신문 등에 재미를 붙입니다. 이와 같이 지덕체 3면으로 빠지는 것 없이 닦아갑니다. 이야말로 이상적 생활이라 아니할 수 없지요. 누가 찬미치 아니하며 흥양치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 재미있는 낙원에서 이상의 생활을 할 기한이 많이 남지 아니한 것을 매우 서러워합니다.[60]

기상 종소리는 꿈 속에 깊이 잠든 우리를 깨웁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즉시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사감 선생의 호각소리를 따라 운동장에 모입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행복스러운 시간이외다. 20분간이라는 이 호흡체조시간에 있는 새 정신은 하루 종일 학과와 싸우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한 에너지를 갖게 합니다. (중략) 반양제에 위생적 온돌로 만든 우리 기숙사는 외관으로나 실제로 조금도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중략) 붉

60 〈이상생활 못하는 일 없이 갖은 방면에 취미대로〉, 《동아일보》 1925년 1월 1일.

은 노을이 서편을 물들일 때에 우리는 읽던 책을 덮어놓고 식당으로 모여 갑니다. 붉은 얼굴에 기쁨을 띤 우리의 하루 동안 교실에서와 운동장에서 지내던 이야기가 쾌활한 웃음소리와 함께 계속될 때는 인간의 파라다이스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밤 10시 반까지 책상을 마주한 피곤한 뇌는 소등 종소리가 들릴 때에 다시 화평의 꿈세계로 쉬러 갑니다.[61]

두 학생은 기숙사 생활을 "커다란 가정", "재미있는 낙원", "이상의 생활", "파라다이스"라고 말한다. 기상부터 취침까지, 온종일 정해진 시간과 규칙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말이다. 근대인 양성에 필수적 요소인 시간 규율이 근대식 학교가 일반화된 1920년대 서울의 학생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독방을 쓸 수는 없었지만, 기숙사는 하숙보다 비용도 덜 들었다. 1925년 당시 배화여고보의 경우 처음 입사할 때 사비 5원을 받고 이후 매월 식비 10원에 김장, 시탄 등의 비용으로 1원을 더하여 합 11원을 받았다.[62] 숙명여고보는 1921년 12원,[63] 1926년에는 10원이었는데,[64] 〈표 7〉에서 보듯이 1928년 13원으로 인상했다. 1928년 당시 여학교 기숙사비는 대체로 월 11~13원이었고, 10여 년 뒤인 1939년에도 거의 비슷했다.[65]

61 〈독립사회 실사회의 축소, 구속도 실상은 자유〉, 《동아일보》 1925년 1월 1일.
62 〈각 여학교의 기숙사 방문기(3)〉, 《조선일보》 1925년 4월 26일.
63 〈금춘 각 학교 입학할 안내〉, 《조선일보》 1921년 2월 20일.
64 〈각 여학교 입학안내(3)〉, 《조선일보》 1926년 2월 1일.
65 1939년 배화여고보의 기숙사비는 12원, 정신여학교는 11원, 경성여자상업학교는 13원이었다(〈여학교 신춘보(4)~(6)〉, 《조선일보》 1939년 2월).

〈표 7〉 1928년 당시 서울 여학교 월 기숙사비

이화여고보	경성여고보	정신여학교	숙명여고보	배화여고보
식비 11원 사비 2원	식비 11~약 13원 사비 약 2원	식비 8원 50전 사비 2원	식비 13원	식비 10원

출처: 〈여학생의 감독없는 도회 유학은 위험(2)〉, 《동아일보》 1928년 2월 22일.

1930년 당시 하숙비는 16~17원이었다.[66] 1930년 서울 조선학생회에서 하숙비 인하를 요구하며 2인 1실의 적정 하숙비를 13원으로 산정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쌀값 3원, 연료비와 반찬값 1원 50전, 전등료 30전, 방세 2원, 수도료 20전, 주인 이익 4원 50전이었다.[67] 대체로 하숙비에서 '주인 이익'을 뺀 금액이 기숙사비라고 볼 수 있겠다.

1939년 경성보도연맹의 하숙 조사 항목에 하숙생활의 편익과 불편곤란이 있다. 하숙생활에서 얻는 편익은 아무 것도 없다는 대답이 남녀학생 모두 가장 많았고,[68] 하숙생활에서 생기는 불편곤란에 대한 응답은 〈표 8〉과 같다.

〈표 8〉 서울 중등학생 중 하숙생의 하숙생활에서 생기는 불편곤란

(단위: 명)

	없다	거소 불량	세탁 곤란	식사	병이 났을 때	부자유	통학상 불편	기타	계
남	3,078	704	628	566	269	239	131	260	5,875
여	70	15	2	1	·	10	13	10	121

출처: 경성보도연맹, 앞의 글, 1939, 37쪽에 의거하여 작성.

66 〈미가 저락과 류경학생, 하숙비 감하 운동〉, 《매일신보》 1930년 10월 17일.

67 〈하숙료 감하 결의〉, 《매일신보》 1930년 10월 25일.

68 남학생은 응답자의 53.9%, 여학생은 47.1%였다(경성보도연맹, 앞의 글, 1939, 37쪽).

경성보도연맹은 불편곤란이 없다는 대답과 아무 편익이 없다는 대답이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인 데 대해, 학생들이 불편곤란이 있어도 자기 집이 아니니 왠만하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무엇이 불편곤란한지, 즉 응답한 항목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거소 불량에 해당하는 대답은 방이 좁다, 어둡다, 벌레가 많다, 주위가 더럽다, 시끄럽다,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 등이었다. 부자유하다는 대답은 신경 쓸 일이 많아 조심스럽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기타에는 가정적 정취가 없다, 주인이 불친절하다, 목욕 곤란, 비싼 하숙비, 불규칙한 생활, 통학상 불편, 면학상 불편 등이 포함된다.

꽉 짜여진 일과표에 따라 여러 명이 한방에서 지내야 하는 기숙사에서도 개인적 시간·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기숙사는 〈표 8〉의 불편곤란 사항들에서는 일정 정도 비켜나 있는 공간이었다. 그것은 주인 이익이 필요 없고, 장보기, 요리, 설거지, 청소, 빨래 등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상당 부분을 사감과 학생이 나누어 맡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1940년 1월 동아일보사 주최 "학생과 숙소 문제 좌담회"에서 보성고보 교유 조영하는 "학생은 오락기관을 포함한 좋은 운동장과 좋은 기숙사와 좋은 도서관만 있다면 만족할 것이며 또한 감독하기도 극히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상 세 가지가 어서 속히 각 학교에 완비되기를 원하여 마지않습니다"라고 하였다.[69] 기숙사를 교육기관인 학교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다. 일상생활을 교육과정으로 삼는 교육시설이자, 학생이 학업을 다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돌보는 거주시설·후생시설로서 기

69 〈학생과 숙소 문제 좌담회〉, 《동아일보》 1940년 1월 5일.

숙사의 본질을 시사하는 견해라고 하겠다.

2) 규율적 생활 공간을 유지시키는 규율 외의 요소들: 여학교 기숙사의 경우

> 이 B여사가 질겁을 하다시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소위 '러브레터'였다. 여학교 기숙사라면 으레히 그런 편지가 많이 오는 것이지만 학교로도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여학생이 많은 탓인지 모르되 하루에도 몇 장씩 죽느니 사느니 하는 사랑 타령이 날아들어 왔었다. (중략) 아무 까닭 없이 그런 편지를 받은 학생이야말로 큰 재변이었다. 하학하기가 무섭게 그 학생은 사감실로 불리어 간다. (중략) 두 시간이 넘도록 문초를 한 끝에는 사내란 믿지 못할 것, 우리 여성을 잡아먹으려는 마귀인 것, 연애가 자유이니 신성이니 하는 것도 모두 악마가 지어낸 소리인 것을 입에 침이 없이 열에 띄어서 한참 설법을 하다가 닦지도 않은 방바닥(침대를 쓰기 때문에 방이라 해도 마루바닥이다)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린다. (중략) 둘째로 그의 싫어하는 것은 기숙생을 남자가 면회하러 오는 일이었다. 무슨 핑계를 하든지 기어이 못 보게 하고 만다. 친부모, 친동기간이라도 규칙이 어떠니, 상학 중이니 무슨 핑계를 하든지 따돌려 보내기가 일쑤다. 이로 말미암아 학생이 동맹 휴학을 하였고 교장의 설유까지 들었건만 그래도 그 버릇은 고치려 들지 않았다.

현진건의 〈B사감과 러브레터〉(1925)에서 B사감이 기숙사 학생의 '자유연애'를 경계하여 단속하는 장면이다. B사감이 "찰진 야소꾼"이고 독신이라는 점, 남자와 면회를 통제하는 문제로 동맹휴학(이하 맹휴)이 일어났다

는 구절을 보면, 1922년 10월의 정신여학교 맹휴가 떠오른다.[70] 맹휴 학생들이 내건 조건에는 "기숙사 사감 교원이 학생을 노예같이 보고, 전제적이고 학생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으니 갈아달라는 것"과 교장이 "학생을 너무 구속하여 한번 외출할 수도 없고 또는 누가 면회를 와도 면회도 허락지 아니하는 터인즉 할 수 있는 대로 시대에 합리한 교육을 베풀어 달라"라는 내용이 있다.[71] 맹휴 직후 양주동梁柱東은 〈여자교육을 개량하라〉라는 논설을 통해 조선의 여학교 교육은 "자유의 결핍이 너무 심하다"라고 비판했다. 양주동은 여학교 기숙사 사감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 나는 어떤 여학교 생도에게 편지한 일이 있었다. 편지한 지가 1개월이 지나도록 회답이 안 온다. 어떤 연고인가 하였더니 나중에 알아본즉 그 학교 기숙사 사감 되는 어른이 그 편지를 압수하고 당자에게 주지 않았다 한다. 그리고 수신인인 생도는 사감에게 질책을 당하였다 한다. 그이는 내 편지가 무슨 나쁜 말이나 포함된 줄 알고 찍소리 못하고 예예, 퇴출하여 나를 욕하였다 한다. 그런데 사감께서 불온당하다고 인정한 내 편지는 어떤 문구가 있었느냐 하면 "사랑하는 누이여-당신의 사랑을 많이 입은 모"라는 모두와 결미가 있었다. 사랑이란 두 자가 있기 때문에 소위 당국의 기휘에 촉하여 압수까지 당한 세음이다. (중략) 통신검열을 마치 일본경관이 소위 불온문서를 취체하듯 한다. (중략) 또 일례를 들자. 나의 어떤 우인이 그의 이종 누이동생을 방문하려고 어떤 여학교 기숙사를 방문하였

70 정신여학교는 미국 북장로교계 미션 스쿨이다.

71 〈해방을 절규하고 맹휴〉, 《동아일보》 1922년 10월 19일.

다. 사감되는 이가 성명을 물어보더니 성자가 다르다고 면회를 불허한다. 그러나 수백 리 길에 서울까지 올라왔다가 대면도 못해보고 돌아갈 수 없으므로 수삼 차 애걸복걸한 공로로 특히 허가는 내렸으나 그 면회의 수속이 골계이다. 먼저 학생더러 "너 아무개 아느냐" "형제간이 정말 옳으냐" 심문을 단단히 한 후에 대면을 시키는데 (그때 그 친구는 우스워 눈물이 나오더라 한다) 한 십분 시간의 규정으로 이야기하는 동안 사감은 곁에서 감독을 하더라 한다.[72]

이 기사에서 두 학교의 사감이 학생의 외출과 면회를 통제하는 것이 B사감과 비슷하지 않은가? 〈표 9〉에서 보듯이, 학교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여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의 편지 왕래와 외출, 면회를 통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기숙사에는 면회, 외출뿐 아니라 자고 일어나는 시간, 하루 세 끼 식사 시간, 자습 시간, 목욕 가는 날, 빨래하는 날도 정해져 있었고, 독서, 용돈 사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규칙이 정해져 있었다. 당시 상경 학생의 거처로 하숙보다 기숙사가 우선시된 것도 이 때문이다. 기숙사는 학생의 일상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단속이 가능한 규율적 공간이었다.

규칙·규율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유지시킨 또 다른 요소는 학생 자율·자치다. 예를 들면, 경성여고보 기숙사생은 "사감 지도 아래 차례로 당번을 정하고 기숙생 일동의 기거 동작과 면회, 외출, 음식에 관한 일체를 스스로 처리"했다.[73] 배화여고보 기숙사에서도 "모든 것을 학생 자치제로

72 〈여자교육을 개량하라(4)·(5)〉, 《동아일보》 1922년 11월 16·18일.

73 〈각 여학교의 기숙사 방문기(3)〉, 《조선일보》 1925년 4월 26일.

〈표 9〉 1925년과 1928년의 서울 여자중등학교 기숙사 면화외출 규칙

년도	학교 / 규칙	정신여학교	이화여고보	배화여고보	진명여고보	숙명여고보
1925	면회	주 1회(토) 13:30~17:30	주 1회	매일 16:00~18:00	매일	주 3회
	외출	주 1회(월) 13:30~17:30	월 2회	월 2회(토)	주 2회	주 2회
1928	면회	주 1회(토) 13:00~17:00	주 2회(화수) 16:00~17:00	/	/	주1회 (사감 동석)
	외출	월 1회(월)	월 2회	월 2회(토) 14:00~18:00	특별 외출 많음	주 2회(수월) 방과후~17:00

출처: 〈각 학생의 기숙사방문기(1)~(5)〉, 《조선일보》 1925년 4월 22~30일; 〈여학생의 기숙사생활(2)~(8)〉, 《동아일보》 1928년 10월 16~22일.

하여, 매달 첫째 토요일마다 기숙사회를 열고 제반 사항의 처리 방침을 토의"했다.[74]

중요한 것은 기숙사의 자율·자치가 자취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취사를 돕는 고용인, 사감이나 가사 담당 교원의 조력이 있긴 했지만, 자취는 여학교 기숙사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다음 배화여고보 기숙사규칙을 보자.

> 제13조 기숙사 임원은 다음과 같음
>
> ① 사감 1인(본교 여직원), ② 기숙사 간사 1인(본교 남직원), ③ 방장 매방 1인, ④ 식당 위원 3인(회계 2인, 서기 1인), ⑤ 취사 당번 12인, ⑥ 방 당번 매 방 1인

74 〈각 여학교의 기숙사 방문기(6)〉, 《조선일보》 1925년 5월 7일.

제14조 임원의 선거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음

① 사감은 교장이 선정하되 체임하지 아니함

② 기숙사 간사는 매 학년 초에 직원회에서 선정하되 임기는 4월부터로 익년 3월까지 1년간으로 함

③ 방장은 매 학기 초에 방생의 투표로 학식과 품행이 우수한 자를 선거하되, 임기는 학기간으로 함. 단 중간에 방장이 缺座될 경우에는 다시 선거함

④ 식당 위원은 매월 제1 토요일 오후 기숙사회에서 투표로 선거하되, 임기는 차월 기숙사회까지 1개월간으로 함. 단, 중간에 식당 위원이 險缺될 경우에는 임시회를 열고 다시 선거함

⑤ 취사 당번은 사감이 12인씩 윤회로 선정하되, 임기는 1주간으로 하여 매 토요일 밤에 체번함

⑥ 방 당번이 순서를 지정하여 1인씩 순차로 근무하게 하되, 매 토요일 밤에 체번함. 단 이상 임원은 동시에 겸임하지 못함

제15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음

① 사감은 기숙사 안에 학생과 동거하면서 교장의 지휘를 받으며 기숙생을 관리, 보호, 훈련하고 매일 1차 이상 각방을 무시로 순시함

② 기숙사 간사는 사감과 협의하여 기숙사의 일체 외무를 관리함

③ 방장은 사감의 지휘대로 방내 학생을 지도하여 규칙을 존행하게 하고, 방 당번을 지도하여 매일 취침 전에 방안 학생의 품행, 진퇴, 질병, 기타 사고 유무를 사감에게 보고함

④ 식당 위원은 사감과 협의하여 1개월 간 기숙사 비용이 부족이 없도록 예산하며, 기숙사회에 통과한 뒤에 각인에게 분담되는 금액을 수합하

여 경제적이고도 영양적이 되도록 음식재료에 관한 것을 그 금전의 출납을 명세히 문부에 기입하여 월말에 그 결산을 기숙사회에 보고하되, 결산에 잔금이 남을 시에는 차월분으로 계입하고 좀 부족될 때에는 더 징수함. 단 월말 결산 부족금이 매인 1환 이상이 될 듯하면 임시회를 열고 전 학생의 의견을 들을 일

⑤ 취사 당번은 사감의 지휘를 받으며 주방에서 요리에 종사하며 식후의 청결과 정돈을 행함

⑥ 방 당번은 방장의 지휘대로 매일 기침 후와 취침 전에 방안을 청결하며 사감의 지휘대로 사내를 청결하되 매 토요일 오후에는 대청결을 행함[75]

기숙사 사감과 간사 외에 모든 임원을 학생이 맡고, 학생 임원은 학생이 직접 선거로 뽑으며, 예산과 결산, 식단 작성과 식품 구입, 취사와 청소까지 학생 자치로 이루어지고, 모든 학생들이 취사와 방 당번을 맡도록 규정되어 있다. 당시의 여러 신문기사를 통해 배화여고보 기숙사에서 위의 조항들이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76]

경성여고보 기숙사도 식당 당번 학생을 두고 식단에 따라 식재료 주문과 식사 준비, 일기와 회계장부 작성을 맡도록 했고, 진명여고보 기숙사에서는 취사만 고용인에게 맡기고 식단 짜기, 식품 구입은 학생들이 직접 했다.[77] 숙명여고보 기숙사생은 음식도 직접 만들었다. 1~3학년 학생

75 배화80년사편찬위원회, 《배화80년사 1898~1978》, 배화학원, 1979, 113쪽.

76 〈언니야, 아우야〉, 《조선일보》 1924년 11월 1일; 〈각 여학교의 기숙사 방문기(3)〉, 《조선일보》 1925년 4월 26일; 〈여학생의 기숙사생활(2)〉, 《동아일보》 1928년 10월 16일.

77 〈여학생의 기숙사생활(3)·(7)〉, 《동아일보》 1928년 10월 17·21일; 〈어두운 밖으로 내비치는 행복스런 등불〉, 《조선일보》 1939년 2월 9일.

들이 2인 1조로 일주일씩 돌아가며 당번을 맡아 직접 찬거리를 구입하고 반찬을 만드는 등 식당 일을 전담했고, 4학년은 1인씩 돌아가며 사감 대리 역할을 했다.[78]

끼니와 관계된 일뿐 아니라, 방 청소는 물론 기숙사 대청소, 빨래, 다음이질과 바느질 등 옷 손질도 학생들이 직접 했다. 김장도 전 기숙사생이 모두 참여하는 연례행사 중 하나였다. 정신여학교는 해마다 며칠씩 휴학까지 하면서 김장을 했고,[79] 조선인·일본인 공학인 경성여자사범학교에도 김장 담그는 날이 있어 전교생이 참여했다.[80] 이러한 자취제는 장래 가정부인으로서 연습으로 간주되어, 여학교 기숙사의 특색이자 자랑으로 일반화되었다. 정신여학교 기숙사는 "학생들이 빨래 잘하는 것이 특색"이라고[81] 소개되기도 했는데, "세탁방"이라고 부르는 빨래터도 있었다.

> 세탁방은 좌우를 세멘트로 언덕을 만들고 사이마다 빨랫돌을 박아놓았으며, 가운데로 시내와 같이 물이 흐르게 하였으니, 수통을 트는 사람, 빨래를 헹구는 사람, 돌에 비비는 사람, 방망이질을 하는 사람, 실로 한 폭의 그림을 펴 놓은듯하였다. 사감 김영순 양은 기숙사의 내부를 일일이 구경시키고 마지막으로 세탁방으로 들어서며 "이것이 우리 기숙사의 가장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풍속이올시다"하고 얼굴에 웃음을 띠며 말하더라.[82]

78 〈학원별경〉, 《동아일보》 1925년 1월 1일; 〈여학생의 기숙사생활(5)〉, 《동아일보》 1928년 10월 19일.

79 〈장래 주부의 김장〉, 《조선일보》 1924년 11월 9일; 〈그들의 청년학도시대 유각경씨〉, 《조선일보》 1937년 1월 13일.

80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스기야마 토미: 1921년 7월 25일생 杉山とみ》, 눈빛, 2011, 149쪽.

81 〈여학생의 기숙사생활(8)〉, 《동아일보》 1928년 10월 22일.

일반계 중등학교에서 기숙사의 제일 자랑이 빨래라니, 중등교육과 기숙사의 젠더적 특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치·자취제가 여학교 기숙사의 전유물은 아니다. 남학교인 경성농업학교 기숙사에도 학생자치기구가 있고 그 안에 취사계를 두었으며, 취사반에서 자치적으로 메뉴를 정해 식사를 만들었다고 한다.[83] 경성사범학교도 취사위원을 두고 사감의 지휘 명령 하에서 취사사무를 맡도록 했다.[84] 그러나 여학교 기숙사와 달리 남학교 기숙사는 빨래, 취사, 청소 등에 대한 기록을 찾기 어렵다. 앞에서 제시한 "학생과 숙소 문제 좌담회"에서 "남학교 기숙사와 여학교 기숙사의 경영 방법은 좀 틀립니다. 여학교 기숙사에서는 학생들이 거의 자취하다시피 하는데 남학교에서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바 있다.[85] 남학교와 여학교 기숙사 운영의 차이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여학교 기숙사의 자치·자취제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배화여고보 기숙사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는 "당번제"다. 번갈아 맡는 방 당번, 식당 당번은 모든 학생이 기숙사에 거처하는 동안 몇 번은 하게 된다. 당번제에 의한 자취는 나라여자고등사범학교(이하 나라여고사) 개교 초기 교장이었

82 〈각 여학교의 기숙사 방문기(1)〉, 《조선일보》 1925년 4월 22일.

83 서울시립대학교90년사편찬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80년사》, 서울시립대학교, 2008, 66~68쪽.

84 경성사범학교, 《경성사범학교총람》, 1929, 260쪽. 경성사범학교 기숙사 취사위원의 직무는 "식료품의 연구 조사, 식단표를 제작하고 사감의 검열을 받을 것, 구입 물품의 양부·수량 검사, 사입 물품의 절약·보관·출납 감독, 급수전과 전등의 취급에 유의하고 절약을 꾀할 것, 취사에 관한 장부의 보관·정리, 매월말 취사 보고, 취사장·목욕탕·세면장의 위생·정돈·장식에 주의하고 구비 물품을 보관할 것" 등이었다. 여학교의 경우와 달리 식재료 구입, 조리와 식후 정리는 취사위원의 일이 아니었다.

85 〈학생에게 좋은 숙소를 주자〉, 《동아일보》 1940년 1월 5일.



여학교 기숙사 김장 만평
출처: 《조선일보》 1938년 11월 24일.



진명여고보 기숙사생들이 김장하는 모습
출처: 《조선일보》 1939년 2월 9일.





정신여학교 기숙사생들이 빨래하는 모습(좌)과 김장하는 모습(우)
출처: (좌) 《동아일보》 1928년 10월 22일, (우) 《조선일보》 1924년 11월 9일.

던 노지리 세이이치[野尻精一]가 만들어 낸, 독특한 기숙사 제도였다.[86] 노지리는 여성교육의 목표는 '부덕의 함양'에 있으며, 훌륭한 여교원은 반드시 훌륭한 부인이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기숙사생으로 하여금 자취를 하도록 했다. 다음은 1930년대 나라여고사에서 유학했던 임옥인林玉仁의 기숙사 생활 회고이다.

86 奈良女子大學アジア·ジェンダ·文化學研究センタ 編, 《奈良女子高等師範學校とアジア留學生》, 奈良: 敬文舍, 2017, 67쪽.

> 나라여고사는 전교생 기숙제의 철저한 생활교육 표방 학교였다. 5료 22사가 있어서 1사에 12명씩 합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중략) 12명의 사생들 중에는 사장이 있어 한 가정의 가장같은 구실을 맡아야 했고, 부사장은 흡사 주부같은 구실을 맡았는데, 세 끼니의 기본 메뉴는 1주일에 한 번씩 사장단이 짜지만, 사생 전부가 12일에 한 번씩 취사 당번이 되어 일하게 된다. 찬거리 구입서부터 아침, 점심, 저녁의 세 끼 식사 마련, 설거지에 이르기까지 혼자서 다 하는 것이다. 나는 다행히 어려서부터 부엌일을 많이 해왔고 조리에 취미가 많았으므로 별 어려움이 없이 이 당번을 해낼 수 있었지만, 12명 대가족의 밥상을 혼자 알뜰히 차려내기란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다. 부엌일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일본 아이들 중엔 밥 지을 줄도 모르는 신입학생들이 더러 있어서 징징 울며 일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본 적이 있다.[87]

임옥인의 회고에서 자취제를 통한 부덕의 함양, 주부 훈련의 실제를 살필 수 있다. 또한 나이, 성적, 출신, 가정 환경 등과 상관 없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경험이 많든 적든, 무조건 돌아가며 취사 당번을 맡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나라여고사뿐 아니라 조선의 여학교 기숙사도 마찬가지였다. 즉 당번제를 기초로 한 자취제는 기숙사를 차별 없는 생활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도 할 수 있다.

엄격한 규칙과 규율, 통제 덕분에 기숙사에서는 돈 자랑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다. 외출을 자주, 오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복장도 자유롭지 않은 데다,[88] 용돈도 마음대로 쓰기 어려웠다. 집에서 매달

87 임옥인, 《나의 이력서》, 정우사, 1985, 55~56쪽.

학비가 오면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제하고 회계 담당 교원이나 사감이 맡아두었다. 경성여고보의 경우, 집에서 용돈을 보내주면 사감이 보관하고 있다가 "용돈 청구장"을 작성해 와야 소액을 내주었다.[89] 진명여고보도 기숙사에서 현금 50전 이상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용돈을 청구하면 그대로 주지 않고 지출 내역을 상세히 적도록 하여 교원이 검토한 후 지급했다.[90] 경성여자사범학교에서는 기숙사 사감이 각 학생에게 매달 오는 돈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사용한 금액은 모두 출납장에 쓰게 하여 월말에 지출 총액과 내역까지 검사했다.[91] 1939년 배재중학교 교유 신영묵辛永默은 상경 하숙생의 부모들이 "수업료와 학용품을 제외하고 한 달 22, 23원이면 넉넉한 것을 50원 이상을 보내주어 도리어 생도로 하여금 돈 쓰는 맛을 알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경계했는데,[92] 여학교 기숙사생에게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기숙사가 학생을 통제·관리하는 규율·규칙의 공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통제·관리와 보호의 경계는 모호하다. 학생의 의식주와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규율·규칙은 다른 한편으로 학생을 성폭력의 위험과 자본의 유혹, 경제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긴장에서 비켜나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39년 당시 진명여고보 교원 진서림陳瑞林의 말을 빌면, 기숙사는 "부잣집 따님이라고 특히 돈 자랑할 기회가 없고 넉넉지 못한

88 진명여고보에서는 기숙사에서도 교복과 운동복을 입고 지내도록 했고(〈적어도 탈이지만 너무 많아도 걱정〉, 《조선일보》 1939년 3월 15일), 경성여자사범학교에서는 외출할 때도 교복을 입도록 했다(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앞의 책, 2011, 153쪽).

89 〈여학생의 기숙사생활(7)〉, 《동아일보》 1928년 10월 21일.

90 〈적어도 탈이지만 너무 많아도 걱정〉, 《조선일보》 1939년 3월 15일.

91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앞의 책, 2011, 162쪽.

92 〈학교의 부탁〉, 《동아일보》 1939년 1월 9일.

집 자제라고 해서 남의 축에 빠질 염려가 없는",[93] 계급 평등한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4. 맺음말

이 글은 상경 학생의 주요 거처인 하숙과 기숙사에 대하여 학생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일상생활이 이루지는 거주시설이자 후생시설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대체로 하숙은 남학생, 기숙사는 여학생의 거처였다. 서울에서도 특히 북촌에는 남녀 중등학교가 집중되어 있어 하숙촌이 형성되었다. 일제강점기 하숙업은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영업집 하숙과 하숙인 3인 이하로 영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여염집 하숙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고도 4~5인 이상의 하숙생을 치는 하숙도 많았다. 본문에서 사례로 들은 홍봉진의 하숙은 영업집 하숙, 김순영의 하숙은 여염집 하숙에 해당한다. 어느 쪽이든 하숙생은 기숙사생에 비해 비교적 일상생활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하숙은 자고 일어나는 시간, 외출, 손님 방문, 편지 왕래 등에 별 제약이 없다. 부모나 그를 대신할 어른도, 담임도, 기숙사 사감도 없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매달 들어온다. 자녀를 상경 진학시킨 사람들은 가족적 분위기에서 하숙생을 자기 자녀처럼 돌봐줄 하숙을 기대했지만, 하숙생의 일상생활을 세심하게 돌보는 것은 하숙 영업의 목적이 아니다. 하숙은 영업집 하숙이든 여염집 하숙이든 수

93 〈적어도 탈이지만 너무 많아도 걱정〉, 《조선일보》 1939년 3월 15일.

익을 내야 하는 사업이므로, 중일전쟁 후 서울의 주택난, 물자난, 식량난에 따라 하숙문제가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남녀학생 모두에게 권장된 거처는 하숙이 아니라 기숙사였다. 하숙생이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란 것은 훈육상 경계의 대상이었고, 비용면에서도 대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숙사가 하숙보다 유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숙사는 충분하지 못했다. 기숙사는 학교와 별도의 건물·시설이 필요할 뿐 아니라 고용인도 두어야 하니 설립·유지 비용이 든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여학교가 기숙사를 둔 것은 여성의 집 밖 생활을 통제하려는 젠더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기숙사가 규칙과 규율, 지배와 통제만으로 유지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여학교 기숙사의 경우, 부엌일, 청소, 빨래, 김장 등을 학생들이 직접 하는 자취제, 누구나 번갈아 가며 청소, 취사 등을 맡는 당번제에 기초한 학생 자율·자치가 기숙사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또한 외출, 복장, 용돈 등에 대한 통제·관리는 성폭력의 위험, 자본의 유혹이나 학생 간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긴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었다. 기숙사가 엄격한 규율·규칙이 지배적인 공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숙사를 강제적인 통제, 감시와 처벌이라는 관점에서만 보기 어렵게 하는 다양한 자료들이 존재한다. 이 글은 그에 주목하여, 일제강점기 학교 기숙사가 상경 학생이 학업을 다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돌보는 거주시설·후생시설로서 역할을 했다는 점, 기숙사의 규율은 기숙사를 계급 평등한 거처가 되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제5장

소년 상경의 문학적 재현 양상

손동호(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학술연구교수)

1. 머리말
2. 학업형 상경: 식민지 교육 제도 비판과 협력 및 연대의식 제안
3. 생계형 상경: 농촌 붕괴로 인한 도시 이주와 계급의식 각성 유도
4. 맺음말

1. 머리말

1900년대 한말 지식인들은 근대적 문명을 추구하며 근대적 지식 전달과 민중 계몽을 목적으로 수많은 잡지를 발간하였다. 특히 아동잡지는 애국과 계몽을 목표로 어린이, 소년, 청년 등의 용어를 통해 미래세대를 적극적으로 호출하였다. 국권 상실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성인보다는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대상에게 관심을 기울인 결과였다. 최남선은 잡지《소년》을 통해 애국주의를 고취하여 독립정신을 함양하였다. 그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으로 소년을 부각하고, 신대한을 건설할 수 있는 근대적 주체로서 소년에 주목하였다.[1] 이후 최남선은 안창호와의 만남을 통해 청년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는 실력양성을 위주로 하는 민족운동의 가능성을 잡지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면서 소년 대신 실천의 주체로서 청년에 주목하였다.[2]

소년은 아동도 어른도 그렇다고 청소년을 지칭하는 개념도 아니었다. 소년은 시대적 전환을 감당해야 하는 과제를 짊어진 개념으로, 미래의 희망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창안되었다. 소년은 다가올 시대를 위해 단지 준비하고 훈련받는 세대가 아니고, 그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등장하여 국민 역할을 하고 독립적 정신 혹은 반항적 정신으로 무장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로 인해 소년을 단지 미성숙한 예비 성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던 세대의식을 전복하여 소년이라는 세대를 그 자체로 인정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세대의 독자적인 인식

1 김지녀, 〈《소년》지에 나타난 '독립' 개념의 특징과 그 배경〉,《어문연구》36-2, 2008.
2 윤영실, 〈국민국가의 주동력, '청년'과 '소년'의 거리〉,《민족문화연구》48, 2008.

과 그에 따른 사회적 운동은 이후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이들이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는 데에서 볼 수 있듯 근대적인 세대감각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3]

그렇다면 국권 상실 이후 식민 통치 아래에서 소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구체적으로 당대 도시문명을 대표하는 서울에서의 생활상은 어떠했을까? 이 글은 이러한 교차점에 착안하여 소년 상경에 주목하였다. 이는 미래세대에 해당하는 소년을 식민당국이 어떻게 취급했으며, 신대한을 책임질 근대적 주체로서의 소년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하는지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글에서 다룰 소년은 대략 13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소년소녀를 의미한다. 사실 잡지《소년》이 발간되던 1900년대에도 유년·아동·소년·청년의 경계는 모호하였다.[4]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1920~193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다.[5] 다만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학교에 다니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학령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는 방식이 서서히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3 권희영, 〈20세기 초 잡지《소년》에 나타난 소년의 정체성〉,《한국학》31-3, 2008.

4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권희영, 앞의 글, 2008, 368~371쪽 참조.

5 식민지 시기에는 지방과 교육 보급의 정도에 따라 입학연령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대개 평균 7, 8세에 보통학교를 입학하였으며, 18세 이하를 소년이라 칭했다(〈보교교육내용〉,《동아일보》1927년 2월 9일). 1920년대 소년회 조직에 가입하려면 연령 10세 이상 18세 이내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은율소년회조직〉,《동아일보》1920년 7월 17일). 그리고 소년체육대회 참가선수의 자격은 만 20세까지였으며(〈남조선소년정구 우승은 화순군〉,《조선일보》1926년 8월 13일), 소년단원의 제한 연령은 18세 미만의 소년소녀였다(〈어린이날을 마지며 부노형자께〉,《조선일보》1928년 5월 9일). 심지어 고등보통학교의 생도 정도인 18세로부터 최고 22세를 소년이라 칭한 경우도 있었다(〈학생의 취체 당국의 반성을 촉함〉,《동아일보》1929년 6월 16일). 이와 반면에 청년회의 연령 제한은 17세로부터 35세까지였다(〈나주청년총회〉,《조선일보》1926년 11월 28일).

근대 시기 서울은 신기한 구경거리가 넘쳐나는 매혹적인 장소였다. 수원 팔탄 공립보통학교 학생인 한계순의 작문[6]에는 서울 구경에 대한 기대감이 잘 드러난다. 서울로 수학여행 간다는 말을 들은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나 서울 이야기로 수근대기에 바쁘다. 선생님이 수업에 방해가 된다며 주의를 주고 벌까지 세웠으나 시골에서 자란 남녀학생은 누구할 것 없이 서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박람회 구경, 진고개 구경, 동물 구경 등 한번도 서울을 구경하지 못하고 말로만 들었던 '나'는 어서 빨리 수학여행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고대한다. 이들에게는 전차가 거리를 달리고 하늘 높이 솟은 고층건물이 즐비한 도시 자체가 큰 볼거리 중의 하나였다. 서울은 문명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또한 상급학교가 밀집한 곳이자 체육을 비롯한 각종 대회의 개최지로서 서울은 성공을 꿈꾸는 이에게 희망과 선망의 장소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은 생존을 위해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노동의 장소이자, 구직에 실패하면 자칫 빈민이 되거나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는 환멸의 장소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소년 상경은 그 동기가 다양한 만큼 상경 이후의 양상 또한 매우 다채롭다.

이 글은 근대 시기, 소년 상경을 문학에서 재현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년을 등장인물로 설정하여 이들의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소년소설에 주목하였다. 소년소설은 1924년 4월 방정환이 《어린이》지에 〈졸업의 날〉을 발표하며 처음 등장하였다. 이후 1930년부터 신문 아동란에 본격적으로 연재되기 시작하였다. 소년소설은 소녀소설, 소년소녀소설, 학생소설, 농촌소설, 공장동화, 학교소설 등으로 다양한

6 한계순, 〈기다리든 서울 여행〉, 《동아일보》 1929년 10월 30일.

표제를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동화가 '옛날 어느 마을' 등 불특정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삼은 반면에, 소년소설은 구체적인 시공간을 배경으로 사건이 펼쳐진다. 특히 공간적 배경은 작중인물이 본격적인 사건을 겪는 장소로,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 사건 전개의 필연성, 작품의 주제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소년소설은 소년 상경의 사회경제적 배경, 상경 이후의 생활상, 소년 상경의 의미 및 문제의식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전명희는 성장기 소년, 소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지적 성장과 정서적 성숙의 변화를 형상화한 특수한 문학형태를 소년소설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소년소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소년소설은 소년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나 관심거리를 찾아내 제재 및 주제로 삼아 소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된 소설이다. 주요인물은 연령이 대략 13세에서 19세이며, 소년적 시점을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세계인식이란 주인공의 관점 즉 주인공의 현실 인식도를 의미하며, 이는 서사적 개인인 주인공에게 외부 세계에 대한 낯설음으로부터 온다. 둘째, 소년소설은 묘사가 객관적이며 사실적이고 또 구체적이다. 그리하여 현실의 세계를 묘사하되 가능한 세계를, 그 속에는 필연적인 내적 리얼리티를 구현해야만 한다. 셋째, 어휘 역시 동화와 달리 성숙한 언어로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정교하게 언어화해야 하며, 지나치게 어려운 어휘사용으로 관념화되지 않고, 소년이 읽기에 적합한 요소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넷째, 설정된 인물들에게 각자의 개성을 부여하고, 특히 주인공은 뚜렷한 자아를 지닌 인물형으로 창조한다. 다섯째, 성인소설에 못지않은 내적 리얼리티를 지닌 긴밀한 짜임새를 갖추며 다양한 서술기법을 활용한다.[7]

7 전명희, 〈한국 소년소설의 형성과 전개양상〉, 《한국아동문학연구》 15, 2008, 11~15쪽.

결국 소년소설은 소년의 생활모습을 그려내는 동시에 이들의 사회적 각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장르로 볼 수 있다. 이때 소년의 시점은 유아의 환상적 시점이나 성인의 실리적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점을 드러내기에 알맞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소년 상경을 소재로 한 시, 동시, 동요, 동화, 단편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문학작품을 참고하되 소년소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소년소설 연구는 아동잡지에 실린 작품에 한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소년 상경'이라는 주제에 대한 논의가 파편화되어 있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었던 신문 소재 소년소설을 중심으로, 소년 상경을 다루고 있는 작품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연구 대상 설정 및 연구 목적은 기존 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학문적 도전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은《매일신보》,《동아일보》,《조선일보》에 수록된 소년소설 중에서 소년 상경 모티프가 등장하는 작품을 추려냈다. 그리고 이들 작품을 대상으로 주인공이 상경한 목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표적인 상경의 이유 두 가지를 확인하였다. 하나는 보통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상경한 학업형이고, 다른 하나는 농사지을 땅을 잃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상경한 생계형이다. 본문에서는 각 유형별로 소년 상경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 후, 문학에서 소년 상경이 재현되는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학업형 상경:
식민지 교육 제도 비판과 협력 및 연대의식 제안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조선에도 서구의 근대식 학교 교육이 도입되었다. 아동에게 근대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소학교 및 소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학교를 설립하고,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하지만 이때 중심이 된 대상은 중등이나 고등교육이 아니라 초등교육이었다. 중학교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대한제국 시기인 1899년 무렵이다. 이해 4월에 중학교 관제를 공포하고, 이에 의해 1900년 10월 3일 관립 중학교를 설립하였다. 교육 기간은 심상과 4년, 고등과 3년으로 모두 7년 과정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등과가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상급학교가 없어서 졸업 이후 진로가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일제는 1905년 통감부 설치 이후 〈고등학교령〉에 의해 1906년 9월 1일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바꾸고, 7년제였던 중학교를 4년제로 축소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개정하는데, 그 방향은 외국어 및 과학 교육을 약화하고 실업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결국 조선에 고등학교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고등보통학교를 실업교육 중심의 종결 교육기관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강제병합 이후인 1911년에는 〈제1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고등학교를 고등보통학교(이하 고보)로 바꾸고, 실업 중심적인 성격을 더욱 강화하였다. 겉으로는 덕성의 함양과 근검을 훈육해 충량한 국민으로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그 속내는 조선인에게 낮은 수준의 실업교육만 제공하여 피지배민의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데에 있었다.

일제는 3·1운동 이후 기존의 무단통치에서 내지준거주의內地準據主義에 입각한 문화통치로 정책전환을 시도한다. 이에 따라 교육 제도 역시 일본과 조선의 차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총독부는 먼저 임시조치로 1919년 12월 고보의 교과 내용을 변경한다. 또한 1920년에는 임시 교육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그해 11월 종전의 교육령을 일부 개정한다. 이에 의하여 고보의 수학 연한은 종전대로 4년제로 하되, 별도로 2개년 이내의 보습과補習科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일본 내의 상급학교와 직접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이때 교과 내용도 수정하여 일본의 중학교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일제는 1922년 11월 기존의 〈조선교육령〉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교육령을 공포한다. 이 교육령의 취지는 교육에 있어서 조선인과 내지인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개혁의 중심내용은 학제 변경이다. 종전의 학제는 일본과 달리 보통학교 4년, 고보 4년이었다. 이를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이르러 보통학교 6년, 고보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학제상 일본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과목을 조정하여 실업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던 고보의 교과목을 일본인 중학교와 유사한 형태로 변경하였다.[8]

학제를 일본과 동일하게 만들고, 교육과정을 일본의 중학교와 유사하게 재편함으로써 고보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이 이전보다 용이해졌다.

8 일제강점기 교육 제도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안귀덕 외, 《한국 근현대 교육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박철희, 〈식민지학력경쟁과 입학시험준비교육의 등장〉, 《아시아교육연구》 4-1, 2003;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최규진, 《일제의 식민교육과 학생의 나날들》, 서해문집, 2018.

그리고 1924년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설립하고, 1926년 경성제국대학 본과를 설립함으로써 조선에서도 대학 진학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초등, 중등, 고등교육의 체제가 형식적으로나마 갖추어졌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경성제대의 설립 등으로 상급학교 진학의 길이 열리자, 학생들의 학구열은 더욱 뜨거워졌다. 게다가 일제는 관료, 의사, 교사, 변호사 등 인기 있는 근대 직종의 진입에 각종 학력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교육열은 더욱 높아져 갔다.[9]

〈표 1〉은 총독부 조사자료를 토대로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고등보통학생의 졸업 후 진로를 나타낸 것이다. 진로 구분에서 관공서 취업자는 총독부 산하 중앙 또는 지방 관청의 취업자이며, 교원은 대체로 초등학교 수준의 교원, 은행·회사·상점의 취업자는 2·3차 산업의 정규취업자를 의미한다. 연도별 누적 총수와 백분율을 보면 관공서 7.5%, 교원 7.5%, 은행·회사 6.2%로 전체 졸업자 중에서 취업자는 21.2%를 차지한다. 가사는 28.4%, 진학은 34.9%를 차지한다. 고보 졸업생 중에서 상급학교 진학자가 가장 많으며, 가사종사자와 취업자가 그 뒤를 잇는다.

9 샤쿠오 순조[釋尾春芿]는 1900년에 渡韓하여 부산과 대구의 일어학교를 경영하고, 1908년에 조선잡지사를 설립한다. 그는 1908년《조선》5의 21~22쪽에 〈韓人教育に就て〉(한인교육에 대하여)를 게재한다. 그는 조선인이 보통학교 등의 입학을 기피하여 신교육의 보급이 미진하므로 관리채용과정에 신교육 이수를 자격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통감부기에 학부 내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한 세력은 일본인 관리들이었으며 이들은 보통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일본어 등의 매주 교육시수를 확대함으로써 이와 같은 학교교육을 동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선인이 보통학교 등의 입학을 기피하자 그는 관리채용제도를 신교육 보급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샤쿠오는 1912년 10월에 식민지 조선에서는 최초로 통신교육기관 朝鮮斯文學會를 설립하고 중학강의록을 발행한다(김자중, 〈일제 식민지기 통신교육기관과 중학강의록에 관한 연구〉,《한국교육사상연구회 학술논문집》82, 2018, 3~5쪽).

〈표 1〉 고등보통학생의 졸업 후 진로

(단위 : 명, %)

진로 / 연도	관공서	교원	은행회사	가사	진학	기타	사망	합계
1919	44(9.8)	55(12.3)	55(12.3)	125(28.0)	121(27.1)	40(8.9)	7(1.6)	447(100)
1920	38(10.8)	44(12.5)	34(9.7)	59(16.8)	142(40.5)	31(8.8)	3(0.9)	351(100)
1921	29(8.6)	64(19.0)	12(3.6)	47(13.9)	157(46.6)	28(8.3)	0(0.0)	337(100)
1922	23(5.6)	61(14.8)	5(1.2)	66(16.0)	192(46.6)	60(14.6)	5(1.2)	412(100)
1923	16(3.7)	49(11.2)	1(0.2)	112(25.6)	192(43.9)	67(15.3)	0(0.0)	437(100)
1924	12(2.3)	69(13.3)	2(0.4)	128(24.7)	247(47.7)	60(11.6)	0(0.0)	518(100)
1925	21(2.0)	221(21.6)	22(2.1)	342(33.4)	225(22.0)	190(18.5)	4(0.4)	1,025(100)
1926	54(5.3)	111(10.9)	36(3.6)	320(31.6)	260(25.6)	231(22.8)	2(0.2)	1,014(100)
1927	99(7.7)	107(8.3)	74(5.8)	409(31.9)	298(23.2)	290(22.6)	7(0.5)	1,284(100)
1928	90(6.8)	64(4.9)	72(5.5)	477(36.2)	353(26.8)	254(19.3)	7(0.5)	1,317(100)
1929	92(7.0)	43(3.3)	49(3.7)	502(38.0)	296(22.4)	330(25.0)	8(0.6)	1,320(100)
1930	135(10.7)	44(3.5)	77(6.1)	407(32.4)	325(25.8)	267(21.2)	3(0.2)	1,258(100)
1931	95(7.2)	103(7.8)	89(6.7)	354(26.8)	422(32.0)	248(18.8)	8(0.6)	1,319(100)
1932	115(8.9)	50(3.9)	105(8.1)	349(27.0)	483(37.4)	180(13.9)	9(0.7)	1,291(100)
1933	116(7.5)	49(3.2)	93(6.0)	522(33.9)	593(38.5)	164(10.6)	4(0.3)	1,541(100)
1934	168(9.6)	100(5.7)	107(6.1)	526(30.2)	642(36.8)	198(11.4)	2(0.1)	1,743(100)
1935	158(8.6)	122(6.7)	121(6.6)	448(24.4)	819(44.7)	155(8.5)	10(0.5)	1,833(100)
1936	134(6.7)	179(8.9)	181(9.0)	534(26.6)	817(40.8)	153(7.6)	6(0.3)	2,004(100)
1937	200(9.1)	133(6.0)	178(8.1)	541(24.5)	854(38.7)	291(13.2)	7(0.3)	2,204(100)
1938	178(7.3)	144(5.9)	180(7.4)	565(23.3)	964(39.7)	391(16.1)	6(0.2)	2,428(100)
합계	1,817(7.5)	1,812(7.5)	1,493(6.2)	6,833(28.4)	8,402(34.9)	3,628(15.1)	98(0.4)	24,083(100)

출처: 박철희, 〈일제강점기 인문중등학교 졸업생의 진로를 통해 본 식민교육의 차별성〉, 《교육사회학연구》13, 2003, 114쪽 〈표 2〉 재인용.

비고: 해당 자료는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1919~1924년 《조선총독부관보》, 1925년 〈조선교육령개정참고자료〉, 1926~1935년 〈학사참고자료〉, 조선총독부학무국, 1936~1938년 〈朝鮮ニ於ケル教育ノ概況〉, 조선총독부학무국, 1941.

1920년대 초반까지는 고보에 설치된 사범과로 인해 상급학교 진학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1925년 사범과가 폐지되며 진학률은 급격히 하락한다. 그러나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급학교 진학률은 점차 상승하여 40%대의 진학률을 보여준다. 반면 관공서, 교원, 은행회사와 같

은 근대적 직종으로 나아가는 취업률은 약간 하락한다. 1919~1921년 사이에 30% 이상의 취업률을 보여주지만, 그 이후로는 20% 내외의 취업률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사 종사율은 1930년대 초반까지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이후 감소한다. 하지만 일본인 중학생과 비교하면 가사 종사율은 1930년대 초반에 일시적으로 그 격차가 좁혀지지만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진다.

박철희는 일제가 1920년대 초반까지 조선인이 다니는 고보를 실업 중심의 종결교육기관으로, 일본인이 다니는 중학교는 아카데믹한 보통교육을 지향하여 상급학교와 연결되는 기관으로 운영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고보 졸업생은 중학교 졸업생에 비해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가 적고, 전근대적 직업인 농업에 잔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았다. 하지만 3·1운동 이후 〈제2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며 고보의 교육 기간이 연장되고, 교육과정이 변화하면서 고보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기관으로 점차 변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인이 다니는 고보와 일본인이 다니는 중학교를 비교하면 그 차별은 여전하였다. 조선인 고보 졸업생의 진학률은 가사 종사율과 취업률을 능가했으나, 일제의 민족 차별적인 학생 선발로 인해 일본인 중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에 비해서는 훨씬 낮았다. 그리고 가사 종사율은 고보 졸업생이 중학교 졸업생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차별적인 교육제도로 인해 일본인은 상급 관리자, 조선인은 하급 실무자라는 식민지적 위계구조가 확립되어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10]

10 고보와 중학교 졸업생의 진로와 차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철희의 앞의 글, 2003

이러한 민족적 차별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보 졸업생 수가 꾸준하게 증가한 이유는 보통학교 졸업 학력만으로는 면서기나 사환도 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보통학교 학력 소지자가 매우 희소했던 1910년대에도 취업자의 비중은 겨우 11%에 불과했고, 1920년대 후반에는 5%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보통학교 졸업생의 취업자 비중은 6%를 넘지 못하였다. 보통학교 졸업생의 70% 내외가 취직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가업에 종사하였다.[11] 비록 하급 실무인력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취업하기 위해서는 보통학교가 아닌 고보 졸업 학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자 비중만 놓고 보더라도 보통학교는 6%, 고보는 21% 정도였으므로 고학력이 취업에 유리한 것만은 분명하였다. 아래의 작품은 이러한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 "우리 창준이는 두 해만 잇스면 서울 공부 마치고 무슨 벼슬이고 할기요. 저 압마을 김좌상 아들은 소학교 졸업하고 면서긔가 되엇스니싸 우리 창준이는 못해도 군청 주사는 넉넉하지오" 이러케 말하는 그의 심리에는 출세하는 제 자식이 여러 사람들이 "군주사", "군주사"라고 부르며 존경하는 것

참조했다. 이밖에 정연태의 〈한·일공학 중등학교 졸업생의 일제하 진로와 해방후 변화: 충남 강경상업학교의 사례〉, 《한국문화》 60, 2012에서는 한·일공학 중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를 분석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선인 졸업생의 진로가 취업에 집중된 반면, 일본인 졸업생은 취업, 가업종사, 진학으로 분산되었다. 취업의 경우에도 조선인은 식민지 지배의 하급 실무인력으로 주로 금융조합에 취업하거나 식민지 금융기관, 일본인 회사와 상점에 진출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일본인은 일본 자본의 회사와 상점 등 다양한 방면에 취업했다. 이 외에도 이 연구에서는 인력 선발과정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민족적 차별과 연줄 특혜가 있었음을 실증하였다.

11 오성철, 앞의 책, 2000, 374~379쪽.

이 그 이상 업는 영화로 알앗다.[12]

이 작품은 서울에서 공부만 마치면 출세할 수 있다는 욕망과 환상을 잘 보여준다. 창준은 지방에서 소학교를 마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상경한다. 창준의 어머니 순남은 서울까지 따라가 하숙업을 하며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먼저 고향으로 내려온다. 이후 순남은 동리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아들 창준이를 자랑하기에 바쁘다. 아들이 서울 공부만 마치고 돌아오면 군주사가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速히 成功의 月桂冠을 바다가지고 깁거웁게 어머니 옵헤 가 뵈여야지 그러자면 몃해는 걸닐가 인제 겨우 小學校를 卒業하얏스니 언제나 學業을 맛치나 그것도 남과 갓치 豐足한 時間으로 工夫를 한다면 그러ᄂᆞ 나는 남의 절반밧게는 더 時間이 업겟지 그러나 오리동안 憧憬하던 京城에 오ᄂᆞᆯ 드러가면 어대로 가ᄂᆞ 그리도 산ᄉᆞ람이 굴머죽으란 法은 업겟지 어대던지 가게 되겟지』하고 그는 결심하얏다 그리고 그는 엇더한 工夫를 하ᄂᆞ 世上ᄉᆞ람들이 모다 成功 成功한다 나도 成功이라고 말을 하지만 成功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아마 成功이란 돈 만히 버는 것이 成功하는 것인가보다 그리고 큰장ᄉᆞ하는 것이 成功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하얏다. 「그러면 工夫는 무엇을 하나 農業, 工業, 商業, 銀行家, 참 銀行은 무엇하는 곳인가 銀行이란 말만 들엇지 시골쑥인 나로는 도모지 모를 것이다 아마 銀이 만히 잇는 곳인가 보다」라고 生覺하얏슬 ᄲᅮᆫ이다.[13]

12 이향, 〈남편과 아들(10)〉, 《동아일보》 1929년 11월 27일.
13 이만복, 〈성공하기까지〉, 《매일신보》 1924년 5월 4일.

작품의 주인공은 소학교를 졸업하고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상경한다. 그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막연하게 성공이라 짐작할 뿐 뚜렷한 목표가 없다. 심지어 학업을 위해 상경하지만 정작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저 그는 서울만 가면 어떻게든 길이 생기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서 오랫동안 동경하던 서울로 향한다. 언뜻 무모해 보이는 상경이지만 출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력이 필요하다는 인식만은 적확하였다. 관계官界로 나가거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입신출세의 최소요건이 중학교 졸업장이었기 때문이다.

일제의 관리임용시스템에서 중급관리에 해당하는 판임관 이상이 되려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그러한 조건을 충족할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를 졸업해도 마땅히 취직할 곳이 없었던 조선인들의 불만이 식민지 체제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18년 1월, 칙령 제8호로 〈보통시험령〉을 공포한다. 보통시험은 연령과 학력 제한 규정이 없고, 합격자에게 판임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 외에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였다.[14]

이어서 조선총독부는 1921년 4월 25일 〈전문학교입학자검정규정〉(이하 전검제도)을 제정한다. 중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전검제도에 합격한 경우에는 전문학교 입학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중학교 불취학자에게 중학교 졸업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중학교 졸업이라는 학력은 관리나 교원과 같은 전문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14 장신, 〈1919~43년 조선총독부의 관리임용과 보통문관시험〉, 《역사문제연구》 8, 2002; 장신, 〈1920, 30년대 조선총독부의 인사정책 연구〉, 《동방학지》 120, 2003.

격이었다. 따라서 중학교 불취학자 중에 이와 같은 전문직을 지망하는 사람도 전검제도를 통해 중학교 졸업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15]

일제의 교육 및 인사정책으로 인해 학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학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또한 확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보통학교 및 고등보통학교 학과 내용을 담은 중학강의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920년 이후 다수의 통신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당시 통신교육기관은 광고를 통해 자사의 강의록이 학력 취득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강조하였다. 두 광고는 학력이 성공의 보증수표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주입하며 출세 욕망을 부추기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학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라며 해당 교재의 장점을 부각하였다.

《국민모범중학전과강의록》 광고

입신 출세는 중학 졸업부터 독학의 최신법 발표

현대에 성공하려고 하면 普校 졸업만으로는 안 된다! 아무리 하여도 高普 졸업 정도의 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점원이나 직공이나 학문이 없는 분은 늘 남에게 뒤진다. 하물며 장래 대성을 희망하는 청소년에 있어서는 하루라도 등한히 하지 못할 緊急事다. 가정사정 등으로 상급학교에 못 가고 번민으로 지내는 청소년 제군이여, 결코 비관할 것은 아니다. 금번 大阪市 東淀川區 木川西の町 현대출판사에서 발매한 《국민모범중학전과강의록》은 문부성 중학교령에 준거한 수신·국어·작문·한문·영어·물리·지리·역사·박물·산술·대수·기하·도화 등의 중학 전과를 정연하게 통제한 것으로 대소간 빼지 않고 만든 강의로서 독학자의 일대 지침으로서 참으로 이상적인 강의

15 통신교육기관 및 중학강의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자중, 앞의 글, 2018 참조.

록이라고 할 수가 있다. 전학기 12권 합본을 겨우 1원 50전(송비 21전)으로 대특매 중이다. 중학을 졸업함에는 5개년의 장시일과 약 500원의 月謝가 필요한 외에 교과서, 참고서, 용돈 등 막대한 비용을 안 들이고 또 다른 강의록으로 공부하려고 하면 적어도 1개년 내외의 시일과 십수 원의 회비가 필요한 바 금회 특매중인 국민모범중학강의록은 단지 1원 50전의 대금으로 자택에서 자유로 공부가 되고 더구나 중학 졸업과 동등의 학력이 얻어지므로 목하 대평판이다. 희망자는 전기 현대출판사에 엽서로 申込하면 대금은 引替로 送費 공히 1원 95전에 送冊한다. 同店의 진체번호는 대판 56014번이다.[16] (밑줄은 필자 표시)

조선고등보통학회에서 발행한 《가정자습강의록》 광고



출처: 《동아일보》 1928년 11월 29일.

16 해당 광고는 《동아일보》 1936년 3월 25일 조간 6면, 《조선일보》 1936년 4월 15일 석간 3면 등을 비롯하여 신문에 수차례 실려 있다.

먼저 《국민모범중학전과강의록》은 큰 성공을 꿈꾸지만 가정형편상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비와 시간을 아끼면서 중학 졸업 정도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며 독학용 강의록을 홍보한다. 다음으로 《가정자습강의록》은 "학문을 배우지 안으면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된다"고 협박하며, 강의록을 구독하여 적은 학비로 단기간에 보통학교, 고보 졸업과 동등한 실력을 얻으라고 유혹한다. 근대적인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려면 학력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회구조가 정착하면서 이러한 시류에 재빨리 편승한 출판업체는 자극적인 수사로 독자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력 취득이 곧 성공을 보장한다는 인식이 유통되었다. 앞서 인용한 문학작품에는 출세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획득해야 한다는 당대 인식이 반영되어 있 다. 그리고 상급학교를 가기 위한 최종 목적지는 당연히 서울이었다.

옵바 가시든 날
언니는 울엇서요
서울로 공부가시든 날에
언니는 밧고랑에
안저서 울엇어요

秋夕을 안날 두고서
冊褓를 둘너메고 가든
그날이 갓가워오니
언니는 또 웁니다[17]

17 순이, 〈가시든 날〉, 《동아일보》 1924년 10월 27일.

> 열다섯이 되든 해 나는 중학을 다니기 위하야 서울로 떠나지 안으면 아니 되게 되엿다. 어린 소년의 가슴은 희망에 날뛰엿다. 그러나 내 고향을 리별하고 내 부모를 떠나서 멀리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엇다. 아니 그것보다도 나에게는 동모 순이색시를 두고 혼자서 외로히 떠나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업시 설엇다.[18]

〈가시든 날〉과 〈황혼에 서서〉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상경하는 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먼저 동요에서는 화자의 오빠가 공부를 하기 위해 서울로 떠난다. 이때 언니가 밭고랑에 앉아 울었다고 했는데, 정황상 화자의 친언니라기보다 오빠의 부인일 수 있다. 당시 조선에서는 조혼이 보편적이었고, 거의 남성에게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부인 입장에서 자신만 시골에 두고 남편 홀로 서울로 유학을 갔으니 그 그리움의 깊이는 헤아리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해를 넘겨 다시 추석이 돌아오자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인용한 소설에서도 주인공 '나'는 중학교 입학을 위해 상경한다. 하지만 앞선 동요에서 느껴지는 정서와는 사뭇 다르다. 고향을 떠나 정들었던 부모와 동무들과 이별해야 하는 상황에서조차 먼저 느끼는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다.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합격했다는 감동과 서울 유학을 통해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학력은 계급 상승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으며, 이로 인한 입학 경쟁도 무척 치열하였다.[19]

18 진주태수, 〈황혼에 서서〉, 《동아일보》 1925년 4월 26일.

19 이승원, 〈식민지 조선의 학벌과 입신출세주의〉, 《문학들》 29, 2012, 34~35쪽.

교육 제도가 정비되고 학생들의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근대적인 문명을 습득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보통학교를 제대로 졸업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상경한 극소수의 청소년은 주변 동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소년소설 〈영일의 낙제〉[20]는 상경에 대한 열망과 좌절이 그려진다. 금년 열여섯 된 영일이는 봄에 소학교를 졸업한다. 그는 '나도 어서 상급학교에 가서 흰 줄 두른 모자를 쓰고 동무들에게 자랑하리라' 하고 얼마나 속으로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는 옆집에 사는 동무 수길이가 작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하다가 여름에 내려와서 새로운 이야기도 들려주고 영어도 가르쳐주는 것을 보고 선생보다도 수길이를 더 용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빨리 서울 가서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품는다. 그래서 동무들에게 졸업하고 서울로 공부하러 간다고 자랑하였다. 그럴 때마다 상급학교에 못 가는 동무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영일은 시험에 낙제하여 상급학교 진학은 좌절된다.

작품에서는 부모의 강제적인 조혼으로 인한 출산, 그리고 아이의 사망 때문에 시험에 낙제한 것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입학 경쟁이 치열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상급교육기관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1918년 말에 소위 보통학교의 '3면1교제三面一校制' 계획을 수립하여 이듬해인 1919년부터 8개년 계획으로 실시했으며 3·1운동 이후 조선인 교육열의 고조에 대응하여 이를 4개년 계획으로 단축하였다.[21] 보통학교

20 민봉호, 〈영일의 낙제〉, 《조선일보》 1930년 3월 27~28일.

21 오성철, 앞의 책, 2000, 26쪽.

가 전국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보통학교 취학률은 1920년에 약 4.4%(남자 약 7.4%, 여자 약 1.2%)에서 1937년에 약 28.8%(남자 약 43.8%, 여자 약 13.4%)로 증가한다.[22] 보통학교가 시골까지 보급된 반면 중등교육기관은 그 수가 적었으며 그마저도 서울에 집중되었다. 다음의 〈표 2〉는 총독부 당국이 가장 유의한 교육 부문이 보통교육임을 보여준다. 고보의 수가 수년간 정체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고등교육을 막으려는 총독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총독부는 1936년부터 중등교육조사위원회를 열고 1937년부터 10년간 계속사업으로 중등교육을 대확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내용은 10년 동안 여자고보 2~3개, 실업학교 6~7개소를 설립하는 것에 그쳤다. 남자고보만 해도 지원자 중 1만 명이 낙오되어 수용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 없는 것이다. 일본 내지인 중학교는 12개교 138학급이나 조선인 고보는 15개교 173학급이다. 그리고 일본 내지인의 고등여학교는 27개교 198학급이나 조선인 여자고보는 9개교 46학급이다. 2,124만 8,000명의 조선 인구와 58만 3,000명의 일본 내지 인구에 비하면 일본 내지인은 조선인의 4분의 1이다. 학급으로 보면 공립고보는 중학교보다 겨우 34학급이 많으나 공립여자고보는 고등여학교보다 152학급이나 부족하다.[23] 일본 내지의 중학교가 1934년 현재 554개소, 고등여학교가 790개소으로 합계 1,344개소이다. 조선의 고보는 1937년 현재 27개소, 여자고보 22개소로 합계 49개소이다. 같은 조선 안에서도 일본 내지인은 56만 명밖에 안 사는데 중학교 14개소, 고등여학교 27개소, 합계 41개소가 설립된 반면에, 2,300만 명이나 사는 조선인을 위해서는 남녀공사립고보 합

22 오성철, 앞의 책, 2000, 133쪽.

23 〈조선 인구로 보아서 한심한 고등보통교육〉, 《조선일보》 1937년 1월 30일.

〈표 2〉 1919~1932년 관공립 조선인 교육기관 및 학생 성장표

(단위 : 개소, 명)

교육기관 / 년도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고보통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1919	537	76,837	5	1,247	2	220	96	2,335	5	330
1920	643	102,546	5	1,346	2	268	75	2,553	5	336
1921	758	153,053	7	1,953	2	393	64	3,578	5	424
1922	903	229,685	11	2,966	2	479	60	4,257	5	423
1923	1,043	294,715	12	3,844	2	523	62	4,513	5	502
1924	1,155	334,441	14	4,324	2	560	63	4,566	5	477
1925	1,244	368,585	15	4,937	2	666	65	5,086	5	376
1926	1,311	390,858	15	5,413	4	827	77	5,945	5	403
1927	1,397	402,752	15	5,699	6	1,103	105	6,946	5	374
1928	1,465	412,431	15	6,060	6	1,346	111	8,510	5	361
1929	1,622	423,359	15	5,971	6	1,457	121	9,229	5	355
1930	1,752	438,410	15	6,198	6	1,556	132	9,699	5	346
1931	1,862	448,378	15	6,279	6	1,619	140	10,174	5	355
1932	1,982	472,513	15	6,586	7	1,744	143	10,981	7	537

출처: 오천석, 〈기미 이후 15년간 조선교육계의 변천(4)〉, 《동아일보》 1935년 4월 10일.

쳐서 49개소(공립 26)밖에 설립하지 않았다.[24] 이처럼 인구에 비해 조선인을 위한 교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필연적으로 입학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었다.

〈표 3〉은 서울의 공사립 남자고보의 지원현황을 보여준다. 학교를 불문하고 모집인원에 비해 지원자 수가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서울에서는 중등학교의 입학전入學戰으로 대혼잡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매년 격화되었다. 서울의 공립 중등학교는 제일고등보통학교, 제이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세 곳에 불과했다. 게다가

24 〈입학난의 근본대책〉, 《조선일보》 1937년 4월 17일.

〈표 3〉 경성부 내 공·사립 남자 고등 지원현황

(단위 : 명, %)

인원 / 학교	모집 인원	지원 인원	초과 인원	초과율
일고	209	739	530	2.54
이고	150	560	410	2.73
중앙	289	962	673	2.33
배재	243	581	338	1.39
휘문	약 200	826	약 626	3.13
양정	약 100	770	약 670	6.70
보성	약 150	505	약 355	2.49
계	1,341	4,943	3,602	2.69

출처: 《동아일보》 1934년 3월 28일.

종래 매 학급에 70명까지 학생을 수용하는 것을 묵인해 왔으나, 획일주의를 단행하여 각 학급에 50명 이상은 불허하게 되면서 입학난은 더욱 격화되었다.[25]

일제강점기의 교육 제도는 초등교육인 보통학교에 집중되었으며, 중등교육기관 수는 매우 부족하였다. 그리고 중등교육기관의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경이 불가피했다. 애초에 인구 대비 상급학교 수가 너무 적어서 입학 경쟁도 매우 치열하였다. 아래의 동화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밤이 되어 날이 어두워지자 달님이 주인공 '나'를 찾아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 달님, "나는 어제ㅅ밤 서울의 곳곳을 도라다녓는데 려관방에서 혹은 조고마한 집 속에서 열네댓살쯤 된 소년소녀들이 목이 터저라 하고 울고 잇지

25 〈중등학교의 입학난〉, 《동아일보》 1936년 2월 3일.

를 안켓니? 대체 무슨 일로 그러케 눈물 속에 흐드기고 잇슬가? 하고 분주하게 그들이 울고 잇는 들창으로 엿보앗드니 "금년에 입학이 못됏스니 일년 동안을 또 묵어야 하잔어요" 하고 자긔 어머니인 듯 아버지인 듯한 어른에게 말하고 잇겟지, 그래 나는 아! 이 소년소녀들이 아마 상급학교 입학시험에 떠러진 모양이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알게 되엿지 "성적두 조쿠, 또 나도 시험을 잘친 줄 아는데 어떠케 돼서 그러케 떠러진지 몰우겟서요! 우리집도 돈이나 만허서 청이나 좀 햇드면 입학이 됏슬걸요! 나보다 공부 잘못하든 보영이도 입학이 됏는데 나는 그애보다 실력이 충실한데두 입학이 못되엿스니 억울하지 안허요" 하고 그애는 울음을 끄치지 안는구나" (중략) 달님은 자긔도 가엽서 견딜 수 업다는 듯이 애연한 빗을 띄웁니다 그래서 나도 측은한 정을 못이겨 "글세 학교에 입학을 못해서 공부를 못한다면 이것은 교육 제도가 조치 못한 게 안야요? 입학도 어렵고 졸업하고 취직도 어렵고 또 여자는 결혼하기도 어렵고… 이것이 조선이 안이고는 볼 수 업는 현상이 안일가요?" 달님도 내 말을 올타고 하는 듯 내 들창가로 밧작 닥어섭니다 "참말 조선의 소년소녀는 가엽서 (중략) 나는 세게 안 도라단인 곳이 업는데 조선의 소년소녀가티 행복 밧지 못한 어린이들은 거이 업써 조선에는 소학교도 늘리고 중학교도 늘려야 되여… 배움에 불타는 어린 사람들이 교육긔관의 부족으로 공부 못한다는 건 이게 무슨 일야 글세!" 달님도 분하다는 듯이 얼골을 쯩그립니다.[26] (밑줄은 필자 표시)

이 동화는 달님과 '나'의 입을 통해 당시의 교육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 비판 내용은 부정한 입시 청탁, 과도한 입학시험 경쟁, 졸업 후의

26 韓尼寶, 〈구름 속의 명경-달님에게서 드른 이야기(4)〉, 《조선일보》 1935년 3월 15일.

취업난 등이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교육기관 수의 절대부족을 꼽고 더 많은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여러 기사를 통해 확인했듯이,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인을 위한 교육시설이 매우 부족했다. 동화는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까지 제안하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서울에 있는 상급학교에 진학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 학교를 계속해서 다니기 위해서는 학비를 포함한 경비가 필요했는데 이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 1937년 당시 공립고보의 수업료는 보통 1개월에 3~4원이었다.[27] 이외에 기숙사 및 하숙비, 교재비, 식비,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다. 어렵게 상경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경제적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 공진회로 분주한 종로. 해가 지자 형준은 힘없이 서대문을 바라보고 걷는다. 갈 바를 정하지 못한 그의 발걸음 무겁다. 오늘밤에 당장 잘 자리를 찾는 생각만 분주할 뿐이다. 그는 광화문통까지 오도록 별생각이 없다. 夜珠峴를 지나 貞洞 골목으로 옮겨 정동예배당 가까이 온 그는 예배당 문이 잠기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돌계단을 올라 문을 열어보니 부드럽게 열린다. 그는 목사가 자다가 깨지나 않을까 조심스레 들어간다. 하지만 좁은 골목을 들어가 방문을 여니 꼭 닫혀 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는 골목 흙바닥에서 자려다 비운에 빠진다. 그가 자려는 모퉁이 한쪽 구석에 형준과 같은 처지에 놓인 이가 잘 곳을 찾아 그곳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

27 〈증대되는 학비부담 공사립각 중등학교 월사금 증액기도〉, 《조선일보》 1937년 12월 23일.

람의 옷은 학생 하복이고 모자는 학생모이다. 형준은 모자를 들어서 모장을 보았으나 어느 학교 모자인지 모르겠다. 하여간 경성 내의 학교 모장은 아니다. 아마 시골에서 용감한 용기를 내고 든든한 결심으로 고학할 목적으로 서울을 올라온 모양이다. 그 사람은 문지방에 베개 삼아 코를 골며 잔다. 자던 사람은 양복을 다시 덮으며 뒤척거린다. 몰려드는 추위에 결국 그는 일어나 양복을 입고 모자를 쓰더니 예배당을 나간다. 그의 발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장충단 공원에서 자던 것이며, 잘 곳이 없어 밤새 시내를 빙빙 돌던 생각이 난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울다가 어느덧 잠이 든다.[28]

위의 인용은 어느 고학생의 모습을 그린 작품의 경개이다. 소설은 서울의 상급학교에 진학했다고 하더라도 잘 곳이 없어 서울 시내를 방황하는 고학생의 현실을 보여준다. 서울은 상급학교가 밀집한 곳으로 학생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곳이다. 입신출세를 꿈꿀 수 있는 욕망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고통과 절망의 공간이었다. 실제 신문에는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고학생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였다.[29]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장 현상윤은 보통학교 졸업생은 해마다 늘어가는데 고등보교 지원자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학비의 곤란으로 계속하지 못하는 것이외다 돈이 없어서 배우던 것을 중지하는 형편에 새로 시작

28 GG생, 〈바람 찬 토요일밤〉, 《동아일보》 1923년 10월 28일.

29 1922년 9월 29일 《동아일보》에 실린 〈학생의 철도 자살〉은 옥천군 김대홍의 철도 자살을 다뤘다. 그는 "지식 없는 자는 지식 있는 자에게 노예됨을 면치 못하니 남의 노예가 될진대 죽어 욕을 면함만 같지 못하다."는 유언을 남겼다. 1925년 1월 24일 《조선일보》의 〈학비 업서 음독한 배재학생 리종털은 절명〉은 지방에서 상경해 배재고등보통학교 다니던 이종철이 부모가 학비를 보내주지 않아 세상을 비관하고 모루히네를 먹고 자살했다는 내용이다.



〈진실한 동무〉의 삽화

선생님이 졸업 후 진로를 묻자 집에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대답하고 주눅이 든 창수의 모습.
출처: 강승한, 〈진실한 동무(1)〉, 《매일신보》 1937년 3월 21일.

하려는 기운이 날 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늘어가야 할 학생이 줄어드는 까닭은 별 수 없이 조선인 전체가 밥을 굶어가는 까닭"[30]이라고 단언하였다.

소년소설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문제상황에 대해 협력과 연대의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소년소설 〈사이 조흔 동무〉[31]에서는 보통학교를 졸업한 두 소녀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상경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을순은 부잣집 딸이고, 옥희는 가난한 집 딸이다. 졸업식 때 옥희가 첫째, 을순이가 둘째 우등을 한다. 을순이는 오빠가 서울로 데리고 가서 고등학교에 넣어준다고 기뻐한다. 하지만 집이 가난한 옥희는 더이상 공부하지 못한다며 처지를 한탄하고 흐느껴 운다. 이에 을순은 집

30 〈증가할 고보지원자가 작년보다 반히 감소〉, 《동아일보》 1924년 3월 31일.

31 이형월, 〈사이 조흔 동무〉, 《동아일보》 1923년 9월 2일.

에 가서 부모에게 옥희가 장래에 크게 될 재목이지만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게 되었다는 사연을 들려준다. 그리고 자신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교과서와 월사금을 두 배로 달라고 부탁한다. 옥희의 학비를 돕겠다는 을순의 마음에 탄복한 부모님은 을순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준다. 그렇게 몇 해 후 옥희와 을순이는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해외에 가서 성공해서 귀국한다.

소년소설 〈진실한 동무〉[32] 또한 두 친구의 우정을 다루고 있다. 졸업을 앞둔 어느날 담임 선생님이 반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조사한다. 창수는 집이 가난하여 졸업하면 집에서 농사를 지을 예정이다. 잔뜩 주눅이 든 창수를 보고 영식은 몹시 통쾌한 듯 크게 웃음 짓는다. 영식은 가난하지만 학업 성적이 우수한 창수에게 열등감을 느끼던 터다. 그래서 "네싸짓 자식이 암만 공부를 잘해봐라 너이가 돈이 잇서야 평생 공부를 더하지 흥 나는 몃칠만 휫딱 지나면 새모자 새구두 새교복을 입고 당당한 중학교 학생이 된다 흥 네가 공부를 잘해도 쓸데가 업구나 두더지처럼 땅이나 쑤시겟지"라며 상급학교 진학을 못하는 창수를 업신여긴다. 영식은 하굣길에 강가 얼음판길을 걷다가 얼음이 깨져 강물에 빠지고 만다. 위기의 순간 창수가 영식을 구해주자, 영식은 창수를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뉘우친다. 이후 영식은 창수에게 용서를 빌고 서울로 입학시험을 보러 간다. 시험에 떨어진 영식은 창수에게 내년에는 함께 시험보러 가자며 창수의 학비는 자기 아버지가 대주기로 했다고 말한다.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경쟁보다 우정에 기반한 협력을 지향한다. 그리고 사적 차원의 경제적 원조로 취학길을 뚫을

32 강승한, 〈진실한 동무〉, 《매일신보》 1937년 3월 21~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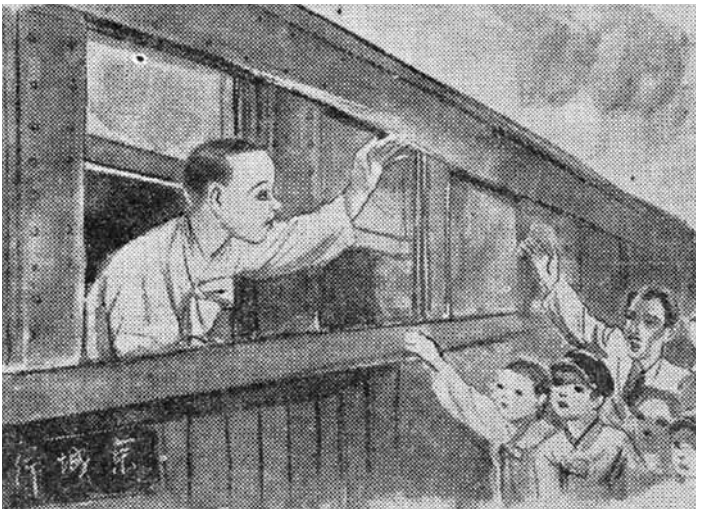
수밖에 없는 결말을 통해 공적 차원의 교육 지원정책이 부재한 교육 현실을 간접적으로 비판한다.

앞서 언급한 작품들이 일제강점기 교육 현실에 대해 우정에 기반한 사적 원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면, 소년소설 〈열세 동무〉[33]는 이들 작품에서 더 나아가 동무들 간의 협력과 연대의식을 강조한다. 노양근은 작품 연재에 앞서 '작자의 말'을 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마다 봄이면 각 학교에서 쏟아저나오는 수만흔 졸업생들 중에 더욱이 농촌에서 보통학교나 마치고 상급학교에도 갈 수 없는 소년들이 울며 불며 갈팡질팡하는 것을 나는 늘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늘 마음으로 울엇습니다. 물론 그들도 울기도 하고 한숨도 만히 쉬엿겟지오! 그러나 여기에 울지도 안코 낙망도 하지 안코 오직 꽃피는 앞날을 위하야 할 수 잇는 범위에서 씩씩하게 일하는 소년, 소녀들이 잇음을 보고 나는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의 얘기를 적어 수만흔 소년들(특히 보통학교 졸업 정도로 고보 일이학년될 만한)과 함께 웃고 울며 생각하여 보려는 것이 감히 이 《열세동무》의 붓을 든 목적입니다.[34]

이 작품은 나만 성공해서 잘 살면 된다는 태도를 지양하고, 동무들이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협력과 연대의식을 지향한다. 주인공 장시환은 반장을 지낼 정도로 수재였으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다른 동무들과 마찬가지로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한다.

33 노양근, 〈열세 동무〉, 《동아일보》 1936년 7월 2일~8월 28일.
34 노양근, 〈열세 동무〉, 《동아일보》 1936년 7월 2일.



〈열세 동무〉의 삽화

서울로 입학시험 치르러 가는 윤걸을 배웅하는 친구들. 열차에 '경성행' 표지가 있다.
출처: 노양근, 〈열세 동무(16)〉, 《동아일보》 1936년 7월 21일.

하지만 장시환을 비롯한 졸업생 13명은 상조회를 조직하기로 협의한다. 그리고 윤걸이를 대표로 뽑아 서울로 유학을 보낸다.

이들은 우물을 파거나 목간통을 지어 윤걸이의 학비를 마련한다. 이처럼 소년소설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소재로 삼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작품은 단순히 일제강점기의 교육 제도를 비판하는 데에 그치지 않은 점, 조력자에 의한 학업 지속이라는 비주체적인 해결방식 대신에 협력과 연대의식이라는 주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점, 이러한 주제의식을 통해 아동의 행동을 촉구함으로써 문학의 사회적 효용가치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동소설 〈팔니는 몸〉[35]의 주인공 병철은 3년 전 서울 청화학관 고등과에 입학하여 내년에는 전문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그는 조선고학생

상조회 간부로 일하고 있다. 그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만주, 영신환, 정시환 등을 판다. 병철이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장차 동생 복희를 서울로 데려와 공부시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복희의 앞길을 개척해 주기 위해 한글독본을 비롯한 유익한 책도 꾸준히 보내주었다. 하지만 가난으로 인해 동생이 왕서방에게 곧 팔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병철은 분노한다. 병철은 수완을 발휘하여 돈을 융통한 후, 고향으로 내려가 복희를 무사히 구조한다. 동생을 서울로 데려온 병철은 혹시 모를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복희를 고학친목회 명부에 최경순이라는 이름으로 올린다. 그리고 소격동 명화여학교에 보낸다. 병철과 그의 동무 일동, 그리고 복희는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기 위해 소년의 책임이 크니, 소년 소녀가 친목 단결하여 새조선의 건설자가 되자며 굳게 다짐한다. 그리고 작품은 세 소년 소녀가 희망을 품고 서울 거리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일제강점기 교육 제도는 보통학교와 같은 초등교육에 집중되었다. 중등교육의 경우 조선인이 다니는 고보는 실업 중심의 종결교육기관으로, 일본인이 다니는 중학교는 아카데믹한 보통교육을 지향하는 등 차별적으로 운영하였다. 3·1운동 이후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고보의 교육 기간을 연장하고,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외형적인 차별은 해소된다. 하지만 조선인이 다니는 고보와 일본인이 다니는 중학교의 규모와 내용을 비교하면 실제적인 차별은 여전하였다. 이러한 민족적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학교 진학 열의는 뜨거웠다.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입신출세의 최소 요건이 중학교 졸업장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중등교

35 정홍교, 〈팔니는 몸〉, 《조선일보》 1932년 4월 5일~5월 15일.

육기관의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경이 불가피했다. 그리고 중등교육기관의 수를 통제하였기 때문에 입학 경쟁도 무척 치열하였다. 입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개인의 역량 부족 탓으로 돌리기 쉬웠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진학하더라도 학비 문제가 남아 있었다. 소년소설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문제상황에 대해 협력과 연대의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결국 학업형 상경 모티프를 활용한 작품은 당시 교육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생계형 상경: 농촌 붕괴로 인한 도시 이주와 계급의식 각성 유도

일제강점기 농촌의 생활상태는 궁핍과 빈곤의 악순환이었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상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된 한편, '산미증산계획'으로 대표되는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농촌사회는 빠르게 붕괴되고 있었다. 1930년대에는 준전시체제 하의 공업화정책 추진기를 거쳐 공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형태로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전면적으로 재편성되었다. 이러한 공업화의 기조 아래에서 농촌경제는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36]

〈표 4〉는 1920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인 농업 인구 통계를 정리한

36 방기중, 〈1930년대 조선 농공병진정책과 경제통제〉,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혜안, 2004.

〈표 4〉 일제강점기 조선인 농업 인구 통계

(단위 : 명, %)

연도	농업 인구	전체 인구	농업인구 비율
1920	14,743,569	16,916,078	87.16
1921	14,739,815	17,059,358	86.40
1922	14,738,126	17,208,139	85.65
1923	14,809,139	17,446,913	84.88
1924	14,821,242	17,619,540	84.12
1925	15,441,290	18,543,326	83.27
1926	15,463,774	18,615,033	83.07
1927	15,376,401	18,631,494	82.53
1928	15,328,152	18,667,334	82.11
1929	15,371,281	18,784,437	81.83
1930	15,853,332	19,685,587	80.53
1931	15,740,970	19,710,168	79.86
1932	15,954,567	20,037,273	79.62
1933	16,079,207	20,205,591	79.58
1934	16,126,747	20,513,804	78.61
1935	16,598,923	21,248,864	78.12
1936	16,493,858	21,373,572	77.17
1937	16,606,624	21,682,855	76.59
1938	16,615,771	21,950,616	75.70
1939	16,486,959	22,098,310	74.61
1940	16,724,972	22,954,563	72.86

출처: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20~1940.

것이다. 해당 통계는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수록된 '현주現住호구戶口직업별'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당시 조사에서 농업 인구는 임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전체 인구는 내지인과 외국인을 포함하였으나, 〈표 4〉에서는 이를 제외한 조선인 인구만 추출하여 통계를 작성하였다.

〈표 4〉에 따르면 해마다 농업 인구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농업 인구의 비율로 따진다면 그 비율은 오히려 해

가 갈수록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당시 대다수의 조선인은 농업에 종사하여 1920년의 농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87.16%를 차지하였다.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1925년에는 83.27%, 1930년에는 80.53%, 1935년에는 78.12%, 1940년에는 72.86%로 떨어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해당 시기 공업 인구는 1920년 32만 2,492명(1.9%), 1930년 44만 9,262명(2.28%), 1940년 70만 2,868명(3.06%)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그리고 상업 인구 역시 1920년 94만 1,728명(5.57%). 1930년 125만 3,895명(6.37%), 1940년 159만 592명(6.93%)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농업 인구가 감소하는 동시에 농촌의 계급 양극화도 진행되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조선인 소유의 토지를 상당수 강탈하여 식민기업의 첨병인 동척회사 등에 불하하였다. 그에 따라 자작농의 소작농화, 소작농의 궁핍화를 촉진시켰다. 1920년대에 소작농이 전체 농가 중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40~50% 정도이고, 반자반소작농까지 합하면 약 80% 정도를 차지하였다. 일제는 1919년부터 산미증산계획을 실시하여 자국의 쌀소동을 해결하고자 착취를 강화하였으며, 지주들은 이러한 부담을 소작농에게 떠맡겨 수확량의 20~90% 정도를 소작료로 수득하였다. 부채에 허덕이던 소작농에게 고리대금을 통해 잉여수확물까지 수탈해 감으로써 소작농의 궁핍화를 가속화시켰다.[37]

영세한 토지를 소유 내지 경작하는 자소작 하층, 소작농들은 1910년대부터 의식주 중심의 최소한의 생활상태를 통해 간신히 농가경제를 유지하거나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1920년대 들어서도 전혀 호전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불안정한 소작권 하에서 지주들이 상

37 주종환, 《한국자본주의사론》, 한울, 1988, 303~316쪽.

품성 있는 미곡 생산을 위한 농업개량을 추진하며 소작료율의 상승 등 이들의 농가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결국 1920년대 말 세계대공황을 맞이하며 농촌사회의 전반적 몰락으로 식민지배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38]

1920년대에는 일제가 미곡증산정책을 시행하여 농가경제는 계급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조선의 농촌 사회는 자작농과 자소작농이 몰락하고, 소작농이 증가하였다. 1913년에는 지주, 자작농층이 25% 이상을 차지하고 소작농은 41.7%였다. 1920년대까지 지주계급은 증가하였지만 자작농은 감소했다. 1926년 18.8%로 감소하였고, 1932년에는 15.7%로 크게 감소했다. 1933년부터는 조사방법을 바꿔 지주, 자작농을 합쳐 통계를 냈지만 18%를 넘지 못했다. 자소작농층 역시 꾸준히 감소하여 1926년까지는 34%였으나 1932년 27%로 감소하고 이후 계속 감소 추세로 24% 정도로 줄었다. 반면 소작농은 꾸준히 상승하여 1932년에 51%에 달했다.[39]

조선의 소작쟁의는 소작료에 대한 지주와 소작인의 이해 상충이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소작권의 불안정이 근본적인 문제였다. 조선의 소작제도는 소작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 가혹한 지주에 대한 그 어떤 제한도 없었기 때문에 지주는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 소작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생활을 위협할 수 있었으며, 소작인은 소작을 빼앗겨도 호소할 곳조차 없었다. 소작료 역시 별다른 기준 없이 지주의 의지에 따라 평균 5할에서 최고 9할에 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불완전한 제도 하

38 이송순, 〈1920~30년대 전반기 식민지 조선의 농가경제 분석〉, 《사학연구》 119, 2015, 310쪽.

39 이송순, 앞의 글, 2015, 313~314쪽.

에서 지주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소작인 계급의 불리한 처지는 더욱 심화되었다. 농촌에서 지주는 소작인의 생사여탈권을 장악한 막강한 존재였다.[40]

이러한 상황에서 소작인이 생존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소작쟁의가 거의 유일하였다. 소작쟁의는 보통 농경을 시작하는 3~5월, 그리고 수확기를 전후한 10~12월에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소작쟁의의 원인은 소작권 이동이 70% 이상을 차지하여 지주의 무리한 소작권 박탈로 말미암은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소작료 인상 반대, 소작료 감면 요구 등도 소작쟁의의 원인으로 꼽혔다. 〈표 5〉는 일제강점기 소작쟁의의 현황[41]을 보여준다.

소작쟁의 통계는 조사 주체에 따라 그 수치가 달랐다. 구체적으로 식산당국이 조사한 바와 경무당국이 조사한 결과가 배치되었다. 식산국에서는 소작권 이동으로 인한 작은 쟁의도 소작쟁의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큰 쟁의건수만 조사하여 식산당국의 통계 수치가 경찰당국의 조사보다 높았다. 그리고 지역별로 소작쟁의 건수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조사 시기가 다른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전체 조선의 소작쟁의를 다룬 신문기사 중에서 수년 치의 결과 값을 제시한 자료를 추출하여 통계를 작성하였다.

1922년까지는 소작쟁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제1차 세

40 〈다시 소작쟁의에 대하야〉, 《동아일보》 1929년 12월 22일.

41 1934년부터는 전체 조선의 소작쟁의를 집계한 통계가 보이지 않으며, 지역별 소작쟁의 건수를 보도하였다. 특히 기사마다 조사 시기와 통계 값이 달라 〈표 4〉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참고로 농림국에서 조사한 1935년 소작쟁의 건수는 2만 5,834건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소작쟁의 격증〉, 《조선일보》 1936년 6월 21일).

〈표 5〉 일제강점기 소작쟁의 통계

(단위 : 건, 명)

연도	쟁의 건수	참가 인원
1920	27	5,843
1921	27	2,967
1922	25	2,539
1923	176	9,060
1924	164	6,929
1925	204	2,646
1926	198	2,053
1927	275	3,285
1928	247	3,878
1929	433	5,440
1930	726	1,312
1931	667	1,382
1932	300	4,686
1933	1,975	10,337

출처: 〈소작쟁의〉, 《조선일보》 1923년 3월 2일; 〈작년도 소작쟁의〉, 《동아일보》 1929년 12월 19일; 〈소작쟁의 빈발〉, 《동아일보》 1932년 5월 27일; 〈작년 중 소작쟁의 총수 삼백건〉, 《동아일보》 1933년 6월 4일; 〈격증한 작년 소작쟁의〉, 《동아일보》 1934년 7월 19일.

계대전 이후 경제계의 변동에 따라 각종 소작단체가 생겨나면서 1923년부터 소작쟁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42] 1924년에는 치안유지법이 발포되어 소작쟁의에 참가하는 인원이 감소하였다. 1930년부터는 공황이 오고, 지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소작쟁의가 차츰 증가하였다.[43] 당국에서는 소작관을 파견하여 조정에 힘쓰고 〈소작쟁의조정령〉을 제정하여 쟁의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소작관의 수가 턱없이 적었고, 소작쟁의 조정법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근본적인 대안은 소작인에게 소작권을 보호하고 소작료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신문

42 〈조선의 소작쟁의 상황〉, 《조선일보》 1926년 8월 19일.

43 〈격증하는 소작쟁의〉, 《동아일보》 1935년 9월 11일.

에서는 소작법을 제정하라고 당국에 강하게 요청하였다. 그 결과 1933년 2월부터 〈소작조정령〉이 실시되고, 근본법인 〈조선농지령〉이 1934년 11월에 공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작쟁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원인은 지주가 소작령 실시를 예상하고 미리 소작권을 함부로 옮기고 소작료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작인도 소작조정령을 활용하여 합법적인 쟁의가 격증하였다.[44]

농촌의 경제적 위기가 극대화되는 상황 속에서 하층 농민들은 생계 유지가 어려워져 가족 전체가 농촌을 떠나기도 하였다. 1930년대가 되면 농업 실패로 인해 전업轉業하는 농민이 급증하였다. 1927년과 1930년의 경남지방의 농민 전업 상황을 보면, 1927년 현재 전업 원인이 밝혀진 농민 중 41.4%인 1만 2,676명이 농업 실패로 전업한 반면, 1930년에는 72.2%인 2만 20명이 농업 실패로 전업하였다. 또한 전업한 총 호수를 계급별로 보면 지주나 자작농가는 각각의 총호수에 대하여 0.7%만이 전업한 데 반하여, 자소작농가는 2.0%, 소작농가는 6.1%가 전업하였다. 소작농일수록 전업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업 원인이 밝혀진 총 호수 중 농업 실패로 인한 전업호수를 계급별로 보면 지주는 겨우 14.7%인 데 반하여 자작농가는 51.3%, 자소작농가는 64.3%, 소작농가는 72.3%에 이른다. 지주는 주로 자기 편의에 따라 상업 등으로 전업한 데 반하여 소작농가일수록 농업 실패에 따라 농촌으로부터 방출되었던 것이다.[45] 이에 따라 1925~1930년 사이에 대략 20만 명(연평균 4만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였고, 1930~1935년 사이에는 대략 30만

44 〈격증하는 소작쟁의 금년들어 사천여건〉, 《동아일보》 1935년 5월 7일.

45 정연태, 《식민권력과 한국 농업: 일제 식민농정의 동역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277~278쪽.

명(연평균 6만 명), 1935~1940년 사이에는 약 110만 명(연평균 22만 명)이 농촌을 떠났을 것이라고 추계하였다.[46]

이와 같은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듯, 생계형 상경 유형의 작품에서는 농촌에서 농사 지을 땅을 빼앗겨 생계를 위해 상경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동화 〈집 업는 남매〉[47]는 생계를 위해 상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16살 재호와 12살 점순이는 원래 시골에서 살았다. 그들의 부모는 시골 어떤 부자의 소작인으로 그럭저럭 밥 근심없이 살아 왔다. 하지만 어머니가 병에 걸려 약값 때문에 한해 소작료를 물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작을 빼앗긴다. 아버지는 공장에 취업하지만 익숙하지 못한 일을 하다가 기계에 치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어머니도 병이 심해져 곧 생을 마감한다. 부모를 잃은 남매는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온다. 남매는 셋방을 얻고 재호는 엿장사, 점순은 꽃을 팔아 그날그날을 살아간다. 집주인은 집세를 독촉하고, 점순은 추운 겨울에 늦도록 꽃을 팔다 눈밭에 쓰러진다.

소년소설 〈엄마를 위하야〉[48]의 주인공 순남은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토굴에서 구차한 살림을 한다. 아버지는 1년 전 나무를 베다가 높은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후 순남은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비나 눈이 오면 집안에서 신을 삼거나 새끼를 꼬아서 그것을 장에다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어느 날 순남이 나무를 하는데 배불뚝이 양복쟁이들이 순남의 곁을 지나면서 "이런 곳에서 자유롭게 사는 저 초동은 얼마나 행복할

46 正久宏正, 〈戰時下朝鮮の勞動問題〉, 《殖銀調査月報》 38(印貞植, 《朝鮮農村再編成の研究》, 人文社, 1943, 156쪽 재인용).

47 김철수, 〈집 업는 남매〉, 《동아일보》 1931년 1월 7~16일.

48 송창일, 〈엄마를 위하야〉, 《조선일보》 1930년 3월 20~22일.



〈서울!〉의 삽화
생계비를 벌기 위해 한겨울에 만주장사를 하고 그날 번 돈을 헤아리는 김지일.
출처: 이명식, 〈서울!〉, 《조선일보》 1930년 3월 29일.

까" 이런 대화를 나눈다. 순남은 그들이 지껄이는 말을 배부른 놈들의 비웃는 소리라 여기고 분노한다. 봄이 되자 사람들은 밭을 갈지만, 순남에게는 농사 지을 땅이 없다. 얼마 전에 측량 인부들이 동리를 몇 번 지나간 후, 화전민은 다 떠나가라는 해산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순남은 어쩔 수 없이 전재산인 소를 판다. 그러나 집에 오는 길에 도적을 만나 돈을 빼앗기고 만다. 며칠 후 순남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난다.

소년소설 〈서울!〉[49]의 주인공 김지일은 지난봄에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는 소작인 노릇조차 할 힘이 없어 어머니와 어린 동생과 함께 상경한다. 서울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어머니는 곧 공장에 취업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기계를 다루다가 팔이 잘려 움막 속에서 송장처럼 지낸다. 소년가장이 된 지일은 나무값과 밥값 그리

49 이명식, 〈서울!〉, 《조선일보》 1930년 3월 29일.



〈인호〉의 삽화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교를 중퇴하고 산으로 나무하러 가는 인호.
출처: 이명식, 〈인호(3)〉, 《조선일보》 1930년 4월 5일.

고 어머니 약값을 벌기 위해 서울 바닥을 돌아다니며 만주 장사를 한다. 추운 날 밤, 조선은행 앞 광장에서 하루종일 만주 판 돈을 셈해 보지만 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해 눈물을 흘린다. 지일은 도시 한복판에서 신음 섞인 거지의 울음과 카페에서 흐르는 레코드 소리에 술취한 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환멸을 느낀다. 이 작품은 가난에 허덕이는 이와 흥청망청 돈을 쓰는 이를 대조함으로써 계급 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부조리한 도시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작품 말미에 화자가 직접 등장하여 "농터를 빼앗기고 공장으로 향하는 것은 비단 지일의 집뿐만과 운명은 아니겠지요"라는 말을 통해 당시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소년소설 〈인호〉[50]에서도 지주와 소작농 사이의 계급 갈등이 그려진다. 김생원은 동리에서 제일가는 부호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답을 소

작하여 살아간다. 인호 아버지는 원래 자농自農을 했으나 작년 여름 홍수에 제방이 터져 밭이 전부 떠내려갔다. 그래서 인호 아버지도 금년 봄부터 김생원의 소작인이 되었다. 지금 사는 집도 김생원네 밭을 부치고 얻어 있는 농막이다. 그래서 김생원이 집에서 나가라면 겨울에라도 나갈 수밖에 없는 가엾은 신세다. 인호는 월사금을 못 낸다는 이유로 보통학교를 중퇴하고, 읍내 잡화점에서 급사로 일을 한다. 길에서 만난 학생들은 인호를 볼 때마다 놀린다. 상점마저 불경기로 파산하자 인호는 지게를 지고 두부를 팔거나 나무를 한다. 인호가 나무를 하러 산으로 향할 때, 스케이트를 타던 학생이 인호를 두부장사라며 놀린다. 그 아이는 이곳 면장의 아들 최일이며 인호와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다. 화가 난 인호가 최일의 뺨을 때리자 김생원의 아들 귀남이 인호의 뺨을 때린다. 귀남은 인호보다 한 해 위인 17살로 올봄에 인호와 같이 읍내 보통학교 5학년에 진급했다. 귀남은 집에서 귀하게 길러 버릇이 없고 제멋대로 군다. 귀남은 자신은 상전, 인호는 자기집 소작인의 자식이므로 하인이라 여긴다. 그래서 자기의 말에 절대복종하라는 의미로 인호를 때린 것이다. 하지만 인호는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귀남의 얼굴을 때리고 달아났다. 인호는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자기 아버지가 귀남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이고 꿇어앉아 용서해 달라고 비는 모습을 떠올렸다. 돈 없고 세력 없는 집 아이는 모든 학대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현실에 울분을 느낀 인호는 이곳을 떠나고자 한다.

농촌동화 〈밧가는 어린 동무 로득이의 압길〉[51]도 앞서 언급한 작품들

50 이명식, 〈인호〉, 《조선일보》 1930년 4월 3~8일.

51 정홍교, 〈밧가는 어린 동무 로득이의 압길〉, 《조선일보》 1931년 10월 17~23일.

과 유사한 서사구조를 보여준다. 박첨지와 그의 아내는 김연산의 집에서 고용살이를 한다. 그들에게는 15살 된 아들 노득老得이 있다. 노득은 글을 모르고 8, 9세부터 나무를 하고 김을 맸다. 어느 날 노득이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김연산의 작은아들 학성이 노득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노득이 일이 바빠서 할 수 없다고 대답하자 학성은 다짜고짜 노득을 때렸다. 화가 난 노득이도 학성을 때렸다. 울면서 집으로 간 학성은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다. 그러자 화가 난 김연산은 노득 아버지를 불러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학성 어머니도 화가 나서 노득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하며 집을 나가라고 했다. 이때 해질 때까지 김연산의 집안일을 하던 노득이 돌아왔다. 김연산이 담뱃대를 들고 노득에게 달려들자, 노득 아버지와 어머니는 용서해 달라고 울며 빌었다. 노득이는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학성이를 때린 것은 잘못하였습니다. 학성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하면서 쌍놈이니 무엇이니 하면서 덤벼들기에 때렸지요! 아버지 저이들은 왜 쌍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이 집에 일은 일대로 하여 주고 영감마님이니 마님이니 서방님이니 아씨이니 도련님이니 하면서 지내어 가게 됩니까? 사람은 다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네 아버지!"라며 하소연했다. 노득 아버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다며 김연산의 집을 나섰다. 노득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중국 북만주를 향해 살길을 찾아 떠나고, 노득이는 앞날에 원대한 희망을 품고 서울로 떠난다.

이처럼 생계형 상경 유형의 작품은 공통적으로 상경 원인을 농토의 상실에서 찾았다. 이는 일제강점기 농촌의 현실을 작품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지주와 소작농, 고용주와 고용살이 등 대립적인 관계를 노골화하여 계급 간의 갈등을 상세하게 묘사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성을 지닌 작품은 주로 《조선일보》에 발표되었다. 《조선일보》

에는 아동문학 이론가가 창작이론을 다수 연재하였다. 이들은 당시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된 아동문학을 직접 거론하며 평론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아동문학 창작 방식에 대해서도 그 방향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평론은 개인 차원의 주장이 아니라 그가 소속된 문예운동 단체와 공유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각 매체에 작품을 발표하는 작가 역시 이들이 요구한 창작 방식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동문학가 김태오는《조선일보》에〈소년문예운동의 당면에 임무〉[52]를 연재하며 동화의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첫째 미신적 동화를 배격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미신적 관념을 심어주어 무기력하고 용기를 말살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허위적 동화를 버려야 한다. 진정한 지식과 배치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대신 아동의 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신앙에 배치되지 않는 작품을 주어야 한다. 셋째 건전한 동화를 수립해야 한다. 조선의 객관적 정세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모든 것이 비참한 것뿐이라고 어린 소년소녀들에게 센티멘탈한 동화나 애화 같은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운동가 안덕근은《조선일보》에〈푸로레타리아 소년문학론〉[53]을 발표한다. 그 대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 사회의 계급적 대립은 엄연한 사실로 소년도 예외일 수 없다. 아동은 천진난만, 순진무구, 천사와 같은 별천지의 초계급적 존재가 아니라 계급전사임을 자각해야 한다. 소년문학은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의 목표 사명을 위해 해방전선에 세

52 김태오,〈소년문예운동의 당면에 임무〉,《조선일보》1931년 1월 30일~2월 10일.

53 안덕근,〈푸로레타리아 소년문학론〉,《조선일보》1930년 10월 18일~11월 7일.

운 무기이다. 오늘날 조선의 소년문학은 시적 공상화, 종교적 우상화, 미신적 신성화, 영웅주의적 내지 개인주의적 견지에 입각한 반동적 작품이 횡행한다. 그 원인은 소년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종교단체의 소속 인물이고, 소년문예 지도이론이 통일되지 못한 탓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동화작가들은 무산아동을 위한 동화를 다량 생산하여 프롤레타리아 아동대중 노농소년소녀에게 많이 읽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예술에 대한 이해와 계급적 의식을 높여야 한다. 이처럼 그는 평론 제목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아동에게도 계급의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주의 아동문학가 이주홍 역시 《조선일보》에 〈아동문학운동 일년간〉[54]을 연재하여 프롤레타리아 문예운동을 옹호하였다. 그는 아동문학의 참 사명에 대해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슬로건을 직접 해설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슬로건을 생장과 함께 저절로 포회시켜 실현치 않고는 않을 만큼 참으로 근본적으로 아동을 프롤레타리아의 일원으로 성육시키는 데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어른의 문학과 아동의 문학은 그 사명과 기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가 내린 결론은 아동문학을 통해 과학적, 사회적, 마르크스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아직 비판력과 인식력이 부족한 그들의 관념을 어른의 프롤레타리아트가 가질 관념에까지 유도하는 것이 우리 마르크스주의적 예술가의 근본적 사명이라는 것이다. 이주홍은 소년소설이 동화보다 더 현실적, 구체적, 설명적, 교화적이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문학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평론가의 창작 지도와 작가의 창작이

54 이주홍, 〈아동문학운동 일년간〉, 《조선일보》 1931년 2월 13~17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일관된 창작 방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소년소설이 다룬 소재와 그 경향이 유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소설은 농촌에서의 계급 갈등을 주로 묘사하였다. 특히 주인공을 계급 갈등의 피해자이자 당사자로 그려냄으로써 아동의 계급의식 각성을 유도하였다. 계급 간의 대결에서 패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난다. 이러한 서사는 공통적으로 현실 농촌사회의 붕괴를 반영한 결과였다. 농토를 잃은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 서울로 향했으나 서울에서의 삶도 만만치 않았다.

파-란달 춤추는 치운겨울밤
양양웅 고양이 슲히움니다
치워떨며 부엌압헤 안저세시간
누나는 아즉도 올락머럿나

낮과밤 일해두 벌이적다고
새벽에 울며가신 공장간누나
잔별도 다잠자고 새ㅅ별뿐인데
누나는 웬일이야 올락머럿나[55]

작품의 〈공장 간 누나〉의 화자는 추위에 떨며 공장에 간 누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부엌 앞에서 누나를 기다린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누나가 와야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처지임을 짐작케 한다. 화자의 누나

55 진주 정상규, 〈공장 간 누나〉, 《동아일보》 1929년 11월 18일.

는 밤낮으로 일을 해도 벌이가 적은 탓에 새벽부터 공장에 나가야 한다. 작품은 성실 근면한 태도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울면서 공장에 출근하는 누나의 모습을 통해 고단한 노동자의 모습을 드러냈다.

유진오의 〈여직공〉은 제사공장에 다니는 여직공의 일과를 더욱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56]

> 옥순이는 통근공이다. 이 공장에 들어온 지 벌서 삼 년째 된다. 새벽 네 시 반이면 녀름이나 겨울이나 한결가티 공장의 「쑤-」 소리에 눈이 번쩍 깨인다. 놀난 사람 모양으로 급히 니러나 머리를 만적어리고 얼골에 물칠을 하고 밥을 데어 먹고 「벤도」 싸지 싸 가지고 나면 어느듯 다섯 시 반이다. 다섯 시 반이면 공장에서는 다시 한번 「쑤-」 소리가 포학한 채쭉가티 직공들을 공장으로 몰아넛는 것이다. 옥순이는 온다간다는 인사 한마디 업시 문을 덜컥 닷고 나와 언덕길을 공장을 향해 내리닷는다. 멀리 건너다 보면 긔운차게 치소슨 양회굴둑에서는 벌서 식컴언 연긔가 새벽 하늘로 무렁무렁 피어올르는 것이다.
>
> 첫여름 공장 안은 새벽부터 — 는 가마ㅅ속가티 더웟다. 이곳에서 맨들어내는 비단실은 조선사람이 입는 것이 아니고 미국으로 실어내가는 것이라 하야 광채가 나게 하느라고 특별히 공장 안의 온도를 놉게 한다. 사시를 통해 일백이십 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 공장은 짜러서 삼복 중이라도 절대로 밧갓바람을 들이지 아니한다. 삼백 명 젊은 녀자의 짬내와 고치 삼는 내음새가 끈적끈적하게 공장 안에서 용두리첫다. 지옥이다. 산지옥이다.

56 〈여직공〉, 《조선일보》 1931년 1월 2일~2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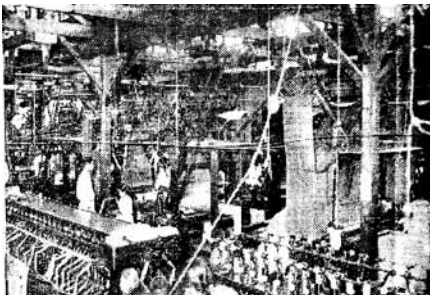
옥순이는 싯벌거케 살머진 손끗흐로 씃는 남비의 고치로부터 실머리를 잡어내어 련해 도라가는 긔계에다 대어 놋는다. 고치는 씃는 물속에서 번데기와 함씌 춤을 추고 잇다. 일을 할 때면 아모 생각도 업섯다. 왼 공장 안에서 덜거덕거리고 돌아가는 긔계의 한 부분이나 다름업시 옥순이의 눈, 손가락, 왼몸은 긔계적으로 도라간다.[57]

산지옥과도 같은 공장에서 하루종일 일한 끝에 받은 일급이 60전이다. 회사에서 경제공황을 트집잡아 세 번이나 조금씩 삭전을 깎은 결과였다. 급여가 적더라도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아동들은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바로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근래 조선에서도 지식계급의 여성들이 각종 직업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가장 특기할 만한 사실이어니와 보통학교만 졸업한 13~14세의 소녀들이 또한 각종 직업전선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관청, 은행, 회사, 신문사 등의 급사 등으로 일하게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지마는 각종 공장과 백화점 등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보통학교를 마치고 같은 동창생들은 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전문대학으로 가는데 그만한 은덕을 입지 못한 소년소녀들은 벌써 12~13세 때부터 자기의 생활은 자기가 맡을 뿐 아니라 일가정을 유지하여 가지 않으면 안 될 불운아들입니다.[58]

57 유진오, 〈여직공(1)〉, 《조선일보》 1931년 1월 2일.

58 〈취직의 봄 보통학교를 마친 소년소녀들의 직업을 선택할 때의 주의〉, 《동아일보》 1934년 4월 1일.



조선견직회사 작업부 사진
출처: 《조선일보》 1933년 9월 2일.



동양염직공장 사진
출처: 《동아일보》 1938년 8월 7일.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생산과정에 기계가 도입되고, 공장제 생산에 의한 대량생산체제가 확립되면서 유년노동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계제 대공업의 발전에 따라 숙련 노동을 미숙련 노동으로, 남성노동을 여성노동으로, 성년노동을 유년노동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성 유년노동자는 비교적 취업에 유리했다.

1931~1945년 사이 공장 유년노동력의 수요가 증가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는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반 세계대공황에 대한 대응으로 조업단축 등의 '산업합리화' 정책을 단행한다. 이 정책의 특징은 일제와 자본가 집단에 의한 각 공장의 기계 도입 추친, 노동자의 대량해고, 저임금구조의 유지, 유년노동의 이용 등이었다. 특히 방직공장을 중심으로 임금을 절감하기 위해 유년노동자를 고용하였다. 둘째 1930년대 일본 독점자본의 조선 진출과 그에 따른 기계제 대공업의 이식이다. 예를 들어 1941년까지 서울 지역의 창업 연도별 공장수의 추이를 보면, 1934년 이후에 56%의 공장이 설립되었으며, 특히 1937년 이후에 세워진 공장만도 40%에 이른다. 대체로 각 업종별로 30% 내외의 공장이 1937~1941년 사이에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계기구공장은 50%가 이 기간에 세워졌다. 일

본 독점자본에 의한 조선 내 공장 설립의 특징은 규모면에서 노동자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공장이라는 점, 기계화된 공업을 이식한 점 등이다.

당시 방직공장의 링방적기 사용은 미숙련 노동력을 고용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링방적기는 근력이 약한 여성 유년노동자도 운전이 가능했으며, 대체로 3~4일 간의 훈련만으로도 작업할 수 있었다. 여성 유년노동자는 견직공장의 방적공으로 환영받았다. 누에고치는 끓는 물 속에 들어 있으므로 여자 아동들은 작은 손을 잽싸게 그 속에 집어넣어 홈이 패인 손톱을 이용해 가느다란 실을 끌어내고 그것을 방적기계의 회전하고 있는 방추에 연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방직공업에서 여성 유년노동자를 양산해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셋째 1938년 이후 일제의 전시 노동력 동원정책의 결과 유년노동자가 급증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생산력 확충 및 군수공업의 강화를 추진하여 노동력 수요가 더욱 증가했기 때문이다.[59]

유종석의 〈어린직공의 사死〉는 연초공장에서 일하는 어린 직공 길영의 죽음을 그린 작품이다.[60] 길영은 "남덜은 다 내 나이에 공부를 하랴고 학교에를 다니는데 이 신세는 웃지나 되어 그 하고 싶은 공부 하나 못하고 죽을 기를 다 쓰고 일을" 하는 처지이다. 그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자동차에 치어 목숨을 잃는다. 자동차에는 금테안경에 분홍와이셔츠를 입고 금강석 반지를 낀 청년과 오색 의상에 팔뚝에는 금시계 머리에는 금비녀를 꽂은 기생이 탔다. 청년의 눈에는 세상에 자기 한 사

59 곽건홍, 〈1931~1945년 공장 유년노동자의 형성과 성격〉, 《역사와 현실》 20, 1996, 232~234쪽.

60 유종석, 〈어린직공의 死〉, 《동아일보》 1920년 4월 2일.

람만 사람다운 사람 같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만 못한 사람으로 보였다. 황금에 눈이 멀어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는 그에게는 해어지고 때묻은 옷을 입은 빈한한 사람들은 사람같지 않았다. 대한문 앞 넓은 마당을 지날 때 연초회사 공장에서 몰려나오는 가난한 직공들을 보고 그는 기생에게 "저것도 무슨 재미로, 그래도 살겠다며" 하며 조롱하다가 사고를 냈다. 길영의 어머니는 조운동의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좁쌀이 반 넘게 섞인 밥을 해 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작품은 "창창한 남산, 외외한 북악, 용용히 흐르는 한강수, 그 속에 담긴 경성 시가, 30만 시민이 하루 세끼 밥을 얻어먹으려고 피와 눈물로 싸우는 이면에는 이러한 슬픔을 싸고 있더라"라며 서울의 모습을 비관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작품은 가난한 어린 직공과 부유한 청년을 대조적으로 그려내며 계급 간 차이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들이 사고를 낸 청년과 대치하는 장면을 통해 계급 간의 갈등을 드러냈다.

공장 노동자의 삶도 힘겨웠지만 어렵게 상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조차 구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다음 기사는 구직하기 위해 상경했다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국은 남의 집에 들어가 밥을 훔쳐먹다가 경찰서에 붙잡힌 소년의 일화를 소개한다.

> 3일 동안 굶은 향촌 구직 소년이 짠발잔이 될 때까지
>
> 향촌에서 자라난 소년이 번화한 도시를 동경하던 나머지 취직할 꿈을 꾸고 서울에 올라와 구직을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소지금까지 떨어져서 사흘동안이나 밥을 굶고 방황하던 끝에 마침내 밥을 훔쳐 먹고 경찰에 붙잡힌 소년 짠발잔이 있다. 경남 양산군 상서면에 사는 이해서(18)란 소년은 지난 닷새날 오랫동안 서울을 그리워하던 나머지 자기 아버지의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서 흠빡 있는 9원 30전을 얻어 가지고 취직을 유일한 목표로 상경하였다. 그리하여 생소한 서울 장안을 향방 없이 헤매이며 상점마다 찾아가서 써주기를 간청해 보았으나 근본이 분명치 못한 이 소년을 누구나 거두어 써줄 리는 없었다. 그리하는 동안에 하루 이틀 소지금은 전부 보행객주집 밥값으로 소비하고 나서 쫓겨나자 밥을 먹을 수 없어 연 사흘동안이나 밥을 굶고 풍찬노숙을 하던 끝에 그는 생각다 못해 지난 14일 오후 6시경 한강통 철도관사에 들어가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갈 목적으로 자전거 한 대를 훔쳤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전거를 훔치기는 했으나 그것을 처분할 생각은 아니하고 그대로 끌고만 다니다가 심해오는 기갈을 참다 못해 할 수 없이 그날 밤을 원정4정목 112번지 손득삼이란 사람의 집 처마 밑에서 발키다가 그 집안 식구들이 잠들기를 기다려 대문 빗장을 비틀고 들어가서 부엌에 두었던 찬밥 덩어리를 훔쳐먹다가 그집 주인에게 발각된 바 되어 마침내 용산서에 인도되고 만 것이라 한다.[61]

《조선일보》의 기사는 일자리를 찾아 상경한 소년이 범죄자가 되는 경위를 밝히고 있다. 경남 양산에 살던 이해서란 소년이 취직을 목적으로 상경하였다. 그 소년은 서울 곳곳을 헤매며 상점을 찾아가 일자리를 구해보았으나 근본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번번히 거절당한다. 그러는 동안에 지니고 있던 돈을 다 쓰고 사흘이나 밥을 굶는다. 그러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전거를 훔치고, 그날 밤 어느 민가에 들어가 찬밥을 훔쳐 먹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어 용산경찰서에 붙잡힌다. 기사에서는 이를 시골 구직 소년이 장발장이 된 사연으로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에

61 〈원수의 밥한덩이〉, 《조선일보》 1935년 9월 17일.

는 도시를 중심으로 소년범죄가 날로 증가하여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 경기도 형사과 조사집계를 보면 작년 1년동안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즉 만 14살 미만의 유년범죄 건수는 1,595건, 14살 이상 성년 만 21세 미만의 소년범죄건수가 4,971건으로 이것을 합한 소년범죄건수(소위 '찐비라')는 1년간 범죄 총건수 2만 6,799건 중에서 실로 2할 5푼 즉 4분의 1을 점령하고 있으며 관계 인원도 14살 미만이 707명, 이상이 959명의 다수이다. 14살 미만의 유년범죄 중에는 대부분이 부모 없는 고아와 집 없는 거지가 많으며 14살 이상에는 춘기발동기의 악영향을 받아 발작적으로 저지른 범죄도 많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 무대는 거의 전부가 조선의 중앙도시 경성임을 볼 때 대도회가 일반 범죄자의 온상일 뿐 아니라 소년시대의 위험지구임을 알 수 있어 도시에서 자녀를 기르는 가정이나 그들을 가르치는 교육자 한걸음 나아가서는 일반사회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함을 알 수 있으며 위정당국자로서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그들의 방범과 보호선도시설에 절대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62]

범죄가 도시에 집중되어 일어나는 현상은 농촌에서 생계수단을 잃은 농민들이 도시로 모여들면서 인구 수가 증가한 데서 비롯되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조선인들은 도시에 가면 어떠한 방식이든 먹고 살 수 있다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도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에는 직업을 가지는 것도 있었지만, 자립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경우에는 범죄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아동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범죄는 도

62 〈도회는 범죄의 온상〉, 《조선일보》 1938년 5월 8일.

둑질과 소매치기와 같은 절도였다. 이러한 아동은 친권자가 있음에도 가정환경이 어려워 집에서 방치된 아동이 스스로 집을 나온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부모에 의해 도시에 유기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소매치기, 도둑질과 같은 범죄로 생계를 이어갔다. 이들에게 있어 도시는 농촌보다 생활 형편이 나아 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할 수준은 되었다. 또한 도시의 인구수가 많은 만큼 범죄 대상이 많은 것은 물론이며 또한 범죄 행각을 벌이다 발각되더라도 도주하기에 수월했다.[63] 소년소녀들은 형법상 책임연령인 만 14세에 달하지 못해 이들에 대해서는 기소 처분도 하지 못하고 부량자 원부에 등록을 하고 설유 석방을 했기 때문이다.[64]

이무영의 〈똘똘이〉[65]는 똘똘이와 수동이의 모험담을 그린 작품으로 소년범죄의 일단이 그려진다. 방물장수 노파에게 동생이 납치되자 똘똘이는 친구 수동과 함께 서울로 향한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에 도착한 둘은 서울까지 타고 온 자동차 값과 식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자동차부에서 손님의 짐을 들어주는 일을 한다. 잘 곳이 없던 그들에게 거지 아이가 자신들의 소굴로 안내한다. 그곳에는 어른 거지 하나와 거지 아이 여섯이 살고 있다. 자동차부에 일이 없을 때마다 어른 거지는 그들에게 식사를 주더니 이제는 돈벌이를 해야 한다며 영신환을 팔아오라고 한다. 하지

63 신정윤, 〈일제하 미성년자의 범죄문제와 조선총독부의 대책〉, 《역사와 세계》 55, 2019, 188쪽.

64 〈대평양의 발전 따라 범죄소년이 격증〉, 《동아일보》 1935년 6월 11일과 〈28회의 절도 소년〉, 《조선일보》 1934년 5월 21일에는 부산에서 28회의 상품 절취를 한 김상룡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다. 김상룡이 절도 혐의로 부산서에 검거되어 부산지방법원 공판에 심리중인데 호적은 없고, 김상룡의 외모가 11~12세로 보여 담임판사가 형벌시행 연령인 만 14세인지 그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의사의 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65 이무영, 〈똘똘이〉, 《동아일보》 1936년 2월 9일~5월 20일.

만 한 봉지도 팔지 못하자 똘똘이와 수동이의 뺨을 때리고, 다른 돈벌이라도 하라며 남의 구두와 가방을 훔쳐오라고 지시한다. 똘똘이가 도둑질을 거부하자 어른 거지는 똘똘이의 팔다리를 묶고 사정없이 때렸다. 어른 거지는 똘똘이와 수동이가 버티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두면 자신이 경찰에 잡힐까 두려워 화로에 쇠꼬챙이를 달궈 협박까지 하려 한다. 이 모습을 본 거지 아이는 어른 거지에게 달려들어 두 아이를 구출하고, 그렇게 둘은 마굴에서 벗어난다.

신문기사는 소년범죄를 자세하게 다루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지만, 문학작품에서는 소년범죄를 자세하게 다루지 않거나 성인에 의해 강제된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소년범죄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간파했기에 가능한 서술 전략이다. 실제로 도시를 배회하는 많은 소년소녀들은 부모가 사망하여 보호자가 없거나, 대규모 재난 등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위기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소년범죄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은 식민지적 여건으로 인해 빚어진 비극인 셈이다.

〈표 6〉은 조선에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통계만 놓고 봤을 때 조선은 범죄의 나라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범죄의 절대다수는 절도가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사기였다.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그 범행동기가 대부분 생활난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에게도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당국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소년범죄는 사회적 안전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신문 사설에서도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교도소 및 소년형무소 증설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표 6〉 일제강점기 조선의 범죄 통계

(단위 : 건, 명)

연도	범죄 건수	검거 건수
1920	80,568	65,458
1921	82,901	73,909
1922	89,735	77,676
1923	100,603	88,053
1924	120,106	104,786
1925	133,330	121,557
1926	136,982	124,662
1927	148,342	137,975
1928	159,056	153,738
1929	167,806	159,895
1930	178,013	169,095
1931	175,273	164,963
1932	187,608	170,187
1933	186,520	176,795
1934	195,025	186,754
1935	199,720	188,170
1936	197,404	181,267
1937	196,721	175,320
1938	183,058	167,165
1939	167,914	144,802
1940	181,195	147,068

출처: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20~1940.

경성이라 한복판인 종로의 대도상에도 걸인떼가 얼마나 종횡하며 골목 골목마다 빈민을 상대한 고구마 장사가 얼마나 서 있는가? 경성의 空家는 千으로 算한다 하나 집세에 쫓겨 가두에 방황하는 이는 그 얼마이며 금융기관에는 적체된 화폐가 전보다 늘었다 하나 火氣를 못 돌려 냉돌에서 떨고 있는 빈민의 수는 그 얼마이뇨. 누상동, 누하동의 게딱지 같은 초가집들은

그만두고라도 시내서 새로 이사하여 신축하는 행촌동의 집들은 얼마나 참혹하냐. 조선인의 빈곤상은 都鄙가 마찬가지다. (중략) 궁민 구제사업과 이재민 구제사업이 시급치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반영구적인 기근상태와 전민족적인 빈한상태를 이같은 미온적인 사회정책으로서만 광구될 바 아닐 것이다. 조선인을 본위로 한 산업정책, 재정정책이 확립되기 전에는 그 개선은 바랄 수가 없다.

200만 호 소작인으로 하여금 제각기 토지를 갖게 할 자작농 창설정책은 쓸 의사가 없는가. 低資를 융통하여 대규모의 공업을 발흥시킴으로써 조선의 부를 증진하고 수십만 호의 실업자로 하여금 그 생활에 안도케 할 의사는 없는가. 거액의 사회사업비를 計上하여 조선의 기근위생 등에 備하려는 의사는 없는가. 만일 당국으로서 이상의 의도가 없고 오직 현상과 같이 농촌을 고리금융업자의 착취의 수단에 방임하며 조선을 영구히 공업원료의 공급지로 방치하려 할진대 조선의 빈곤, 기아, 질병은 그치지 않을 뿐 아니라 날로 더 증가해 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의 대중은 밥을 요구한다. 당국은 이 소리를 듣는가 못 듣는가.[66]

사설 〈범죄와 빈곤〉에서도 대규모 토목사업 전개, 세궁민 면세 방법, 국비 또는 지방비로 세궁민 의료기관 설치, 노임이나 소작료 등에 국가의 간섭 등을 제안하였다.[67]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세궁민으로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아동범죄와 관련해 육아, 감화, 특수교육, 아동건강상담소, 탁아 등 아동보호사업

66 〈우리에게 밥을 다고〉, 《동아일보》 1932년 3월 24일.

67 〈범죄와 빈곤〉, 《조선일보》 1936년 7월 13일.

을 제안하거나, 영흥학원, 목포학원 등 총독부 경영의 감화원을 증설하여 아동을 구제해 달라고 촉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끝내 수용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수탈적 토지 제도는 농촌 붕괴를 촉진하였다. 토지조사사업으로 자작농의 소작농화, 소작농의 궁핍화가 이루어졌으며, 산미증산계획으로 농촌의 경제적 위기가 극심해져 농민들은 농촌을 떠났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생계형 상경 유형의 작품에서는 농촌을 떠나 생계를 위해 상경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소년소설은 지주와 소작농, 고용주와 고용살이 등 대립적인 관계를 노골화하여 계급 간의 갈등을 묘사하였다. 농촌을 떠나 상경했으나 서울에서의 삶도 만만치 않았다. 공장제 생산에 의한 대량생산체제가 확립되면서 유년노동자가 필요했고, 소년소녀들은 공장 노동자로서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 소년소설은 노동자의 비극적 결말을 의도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이들의 계급의식을 각성시키고자 하였다. 심지어 취업에 실패한 경우 범죄의 길로 빠지기도 하였다.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도덕심에 기대어 범죄 문제를 봉합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이에 문학작품에서는 소년범죄를 자세하게 다루지 않거나 성인에 의해 강제된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소년범죄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였음을 방증한다. 소년범죄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은 식민지적 여건으로 인해 빚어진 비극이었던 셈이다. 결국 생계형 상경 모티프를 활용한 작품은 식민 당국의 기만적 정책을 고발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소년의 계급의식 각성을 촉구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4. 맺음말

이 글은 소년 상경 모티프가 활용된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소년 상경을 학업형과 생계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이후 여러 사료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각 유형별로 소년 상경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추적하였다. 끝으로 소년 상경을 문학에서 재현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아동 상경을 다룬 문학작품의 주제와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고, 그러한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데에 서울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학업형 상경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차별적인 교육 제도가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일제강점기 교육 제도는 조선인이 다니는 고보와 일본인이 다니는 중학교를 차별적으로 운영하였다. 3·1운동 이후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며 일부 개선되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차별은 여전하였다. 이러한 민족적 차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학교 진학 열기는 뜨거웠다.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입신출세의 최소요건이 중학교 졸업장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중등교육기관의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경이 불가피했다. 그리고 중등교육기관의 수를 통제하였기 때문에 입학 경쟁도 무척 치열하였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진학하더라도 여전히 학비 문제가 남아 있었다.

학업형 상경 모티프가 적용된 작품에서 서울은 출세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찬 욕망의 공간으로 묘사되었다. 서울은 상급학교가 밀집한 곳으로 학생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치열한 입시 경쟁의 공간이자 학비를 벌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고통과 절망의 공간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학작품은 일제의 교육 제

도를 비판하는 동시에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의식을 통해 아동에게 협력과 연대의식이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전달하였다. 실제로 많은 작품에서 상경한 이들이 고난에 직면했는데 개인이 홀로 문제를 감당할 때에는 환멸, 좌절, 죽음 등 부정적인 결말을 맞이하나, 조직이나 단체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협력을 통해 문제를 극복하거나 희망적인 미래 전망 등 긍정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생계형 상경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수탈적인 토지 제도와 공업화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 수탈적 토지 제도는 농촌 붕괴를 촉진하였다. 농촌의 경제적 위기가 극심해져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상경했으나 서울에서의 삶도 만만치 않았다. 공장제 생산에 의한 대량생산 체제가 확립되면서 유년노동자가 필요했고, 소년소녀들은 공장 노동자로서 힘겨운 삶을 살아갔다. 심지어 취업에 실패할 경우 범죄의 길로 빠질 위험도 있었다.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하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지 않은 식민지적 여건으로 인한 비극이었던 것이다.

생계형 상경 모티프가 적용된 작품에서 서울은 유일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묘사되었다. 서울은 공장을 비롯한 일자리가 가득한 곳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고단한 노동의 공간이자 자칫하면 범죄의 소굴로 빠질 수 있는 환멸의 장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문학작품은 일제의 사회제도를 비판하는 동시에 어두운 전망을 제시하였다. 작품 속 등장인물은 근면 성실하게 노동하지만 그 결말은 비극으로 끝맺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일자리를 찾아간 서울에서 힘겹게 일을 해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었다. 이는 개인의 능력

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지주와 소작농의 대결, 고용주와 고용인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들은 농촌에서도 도시에서도 설 자리가 없었다. 작품에서는 노동자의 비극적 결말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사회 비판의 의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실인식을 통한 계급의식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식민지의 교육 제도는 형식적이나마 일본의 제도와 유사하게 시행하면서 제도 개선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토지 제도와 경제 정책 그리고 사회 안전망 구축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업형 상경 유형 작품의 희망적 결말과 달리, 생계형 상경 유형 작품의 암울하고 비극적 결말은 어쩌면 이미 예견된 것이었는지 모른다. 애초에 소년을 학생, 노동자, 빈민, 범죄자 등으로 수직적 위계 속에 배치하는 구조 자체가 일제의 기만적인 정책일 수 있다. 좁디 좁은 숨구멍을 열어놓음으로써 희망적 미래를 꿈꾸게 하고, 실패할 경우 개인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직접적인 식민 통치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문학작품에서 보여준 비극적 결말은 이러한 제도 시행의 결과를 선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장

시골 사람의 박람회 관람

-상경과 경성 인식-

김태웅(서울대학교 교수)

1. 머리말
2. 조선총독부의 박람회 관람객 유치와 교통망·편의시설 정비
3. 시골 사람의 관람 상경과 경성 유람
4. 시골 사람의 착종된 경성 인식과 민족주의 계열 식자층의 안내 코스
5. 맺음말

1. 머리말

전근대 시기에 시골 사람의 상경은 관직을 비롯하여 각종 일자리를 구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1] 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상경도 적지 않았다.[2] 서울은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관아의 추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시적인 체류滯留가 아니라 정주定住에 가까웠다.

한편, 일시적 상경도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양반들의 과거 응시가 대표적인 예였다. 이들 응시자는 상경하여 과장科場에 들어갔다가 귀향하였던 것이다.[3] 간혹 지방관리가 공무상 서울을 방문하였다.[4] 그 밖에 재난을 피해 구휼을 받거나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상경하였고,[5] 여성들도 조상의 신원伸冤을 위해 상경하였다.[6] 또한 어떤 시골 사람은 궁궐과 각종 이색적인 풍물을 구경하기 위해 잠시 상경하기도 하였다. 서울은 새로운 세계와 경험을 겪어보고 싶은 동경의 대상이고 단조로운 일상 생활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갈망의 분출 장소였던 것이다. 제주도 상인 김만덕도 금강산

1 최기숙, 〈도시, 욕망 환멸: 18·19세기 '서울'의 발견-18·19세기 야담집 소재 '上京談'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3, 2003.

2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鄭伯賢 서울일기》, 삼희, 1995, 21~87쪽.

3 김혈조, 〈科場의 안과 밖 -18세기 한 지식인이 본 科場의 百態-〉, 《대동한문학》 38, 2013; 유영옥, 〈頤齋 黃胤錫의 科場 出入 풍경〉, 《역사와 경계》 97, 2015; 이현진, 〈조선시대 '上京'을 통해 본 수도 한양의 성격〉, 《서울학연구》 60, 2015.

4 권수용, 〈19세기 해남 鄕吏 鄭愚衡의 수신간찰 연구〉, 《고문서연구》 51, 2017; 김도형, 〈19세기 경향 간 채무 분쟁의 일면-고창지역 債訟 관련 고문서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55, 2019.

5 김덕진,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 푸른역사, 2008, 232~234쪽.

6 강수진, 〈20세기 초 여성 지식인의 시각으로 본 서울 공간과 그 의미-최송설당의 《송설당집》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3, 2021.

구경과 함께 서울 구경을 갈망했다.[7] 그러나 이러한 구경마저 부유한 양반이나 부자들 같은 특정 계층에 한정될 뿐 일반민에게는 실현할 수 없는 욕망이었다.[8] 교통시설이 매우 불편할뿐더러 상경에 따른 경비가 매우 비쌌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세기 말 철도의 부설과 통신 시설의 발달, 근대 지식의 전파는 전근대의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른바 "서울이 좋다라는 말을 듣고" 상경하는 이야기가 신문에 연재되었는데 기차를 타고 상경하는 시골 상경자가 겪는 다양한 체험 이야기가 소개되었고 지방 각지에 알려졌다.[9]

이러한 추세는 1910년 8월, 나라가 망하고 수도 한양이 경기도 소속 경성부로 격하되었음에도 이어졌으며 오히려 확산되었다. 인천 학생이 경성(서울)에 수학여행을 와서 경성 종현 천주교성당, 동물원, 박물관 등을 관람하였다.[10] 당시 이러한 행위를 우리 고유어를 따서 '구경求景'이라고 부르거나 일본식 한자어를 따서 '견물見物'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경성견물'이 유행하였다.[11]

이런 가운데 시골 사람의 상경을 부추기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1915년 '시정始政5주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朝鮮物産共進會'(이하 조선물산공진회로 줄임)

7 김나영, 〈18·19세기 제주사회와 김만덕 생애 재고찰〉, 《역사민속학》 56, 2019.

8 이송순, 《한국철도, 추억과 희망의 레일로드》, 선인, 2016, 100~102쪽; 이상균, 《조선 선비들의 로망, 관동유람》, 세종출판사, 2023, 18~19쪽.

9 〈편편긔담〉, 《대한매일신보》 1908년 2월 28일; 〈편편긔담〉,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26일; 〈편편긔담〉,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25일.

10 동물원, 박물관은 1909년 창경궁 내에 설치된 시설물을 가리킨다. 1911년 이들 장소는 '昌慶苑'으로 통칭되었다(《순종실록부록》 2, 순종 4년 4월 26일).

11 〈경성견물〉, 《매일신보》 1914년 5월 7일.

와 1929년 조선박람회였다. 이 두 행사에서 조선인들이 주된 관람자가 된 까닭에 시골 사람들이 이 행사를 구경하기 위해 대거 일시에 상경하였다.[12] 그 관람자의 규모가 공히 100만 명을 넘었고 물산공진회의 경우, 시골 상경자도 70만 명을 초과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제의 정치 선전과 전시물의 구성 및 성격에 중점을 둔 나머지 상경자의 시선과 경성 인식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13] 이는 근대적 하위 주체의 욕망과 시선보다는 식민권력의 통치 정책에 비중을 두고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식민권력의 통치정책을 염두에 두되 시골 상경자의 박람회 구경과 경성 관광을 통해 드러난 그들의 욕망과 시선, 체험이 서울 이미지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교차적 시선에 입각하여 검토

12 하세봉은 박람회가 구경꾼의 탄생을 이끈 이벤트로 파악하였다. 전근대의 경우, 민중이 왕조권력의 공적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으며 설령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았다(하세봉, 《동아시아 엑스포의 역사》, 산지니, 2019, 54~60쪽).

13 최석영, 〈조선박람회와 일제의 문화적 지배〉, 《역사와 역사교육》 3·4, 1999; 김태웅, 〈1915년 경성부 물산공진회와 일제의 정치 선전〉, 《서울학연구》 18, 2002; 박성진, 〈일제 초기 '조선물산공진회' 연구〉, 《식민지조선과 매일신보 1910년대》(수요역사연구회 편), 신서원, 2002; Tae-woong, Kim, "Industrial Exhibitions('Gongjin-hoe') and the Political Propaganda of Japanese Imperialism in the 1910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3*, 2002; 주윤정, 〈조선물산공진회와 식민주의 시선〉, 《문화과학》 33, 2003; 이각규, 《한국의 근대박람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김제정, 〈식민지기 박람회 연구 시각과 지역성〉, 《도시연구》 9, 2013; 염복규, 〈조선박람회 전시관 양식에 보이는 제국과 식민지, 수도와 지방〉, 《인문논총》 75, 2018; 토드 A 헨리, 김백영 외 옮김, 〈제3장 물질적 동화: 경복궁과 식민지 박람회〉, 《서울, 권력도시: 일본 식민 지배와 공공 공간의 생활 정치》, 산처럼, 2020; 최병택, 《욕망의 전시장: 식민지 조선의 공진회와 박람회》, 서해문집, 2020; 君島和彦, 《日本の朝鮮支配と景福宮: 創建·毀損·復元》, 明石書店, 2024, 211~275·391~455쪽. 이하 물산공진회와 박람회 관련 내용은 위 저술들에 의존한 까닭에 일부 전거는 생략하였다.

하고자 한다.[14] 즉 조선인과 시골주민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근대에 대한 욕망이 일제의 관제 동원 및 정치선전과 어떻게 결합되고 어떻게 상충하면서 근대 서울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가를 해명하는 것이다. 다만 상경 관람객들이 직접 남긴 기록이 없어 신문이나 소설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오는 감상기와 식자층의 비평기를 적극 활용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2. 조선총독부의 박람회 관람객 유치와 교통망편의시설 정비

1) 박람회 관람객 유치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린 조선물산공진회는 여느 박람회와 마찬가지로 관람객 유치가 최우선과제였다. 그 전사라 할 1907년 통감부 치하 이른바 경성박람회 사무국에서 박람회의 취지를 두고 "산업의 발달과 무역의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인민으로 하여금 널리 구경하게 하여 지식을 발달케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듯이 산업의 발달 및 무역의 증진 도모와 함께 인민들이 널리 구경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15] 따라서 조선물산공진회는 계획 취지에서 "본회의 취지를 달성하

14 1915년 물산공진회는 1929년 조선박람회에 비해 규모나 수준이 떨어짐에도 개최 목적과 성격상 조선박람회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박람회' 범주에 포함시켰다. 별도로 논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산공진회를 '박람회'로 부른다.

15 경성부, 《경성부사》, 1934(서울시사편찬위원회, 《국역 경성부사》, 2012, 667쪽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한규무, 〈1907년 경성박람회의 개최와 성격〉, 《역사학연구》 38, 2010 참조.

기 위해 다수의 조선인 및 일본인 관람객을 유치하는 것은 지극히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16] 특히 조선물산공진회는 인민의 지식 발달보다는 식민통치의 미화에 목표를 둔 시정사업의 선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왕 5년의 진보를 구체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17] 심지어 조선총독부는 성인 남성은 물론 "부인과 소아도 한번 보고 능히 신정新政의 효과를 알게 한다"는 점에 진력하였다.[18] 이 점에서 조선물산공진회의 개최는 '이른바 "축제"와 "놀이"에 민중을 동원하는 종합연습'에 치중하는 일본 본국과 달리 자신들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조선인들에게 자신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키는 정치선전에 주된 목적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9]

그런데 이러한 구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필요했다. 대중 역시 단조로운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갈망하였고 새로운 문명에 대한 동경을 담아내는 스펙타클을 요구했다. 구경이 인간 욕망의 또다른 탈출인 셈이다. 이러한 구경은 전통시대부터 지속되었지만 값비싼 비용을 치를 수 있는 양반 지배층이나 부자들이 주로 향유했다면 근대에 들어와서는 인프라의 발달로 인해 일반인들도 점차 먼 곳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구경할 수 있었다.

1915년 물산공진회의 경우, 조선의 산업과 그 밖의 개선 진보 상황을 보여주는 데 부합되는 각종 시설과 함께 미술관·음악당·연예관·여흥장 등을 설치했다.[20] 또한 일제의 의도대로 개선 진보 상황을 보여줄 수 있

16 鮮于日 편, 《共進會實錄》, 博文社, 1916, 2쪽.
17 〈공진회를 개최하는 목적〉, 《매일신보》 1915년 9월 4일.
18 〈공진회를 개최하는 목적〉, 《매일신보》 1915년 9월 4일.
19 요시미 순야, 이태문 역, 《박람회: 근대의 시선》, 논형, 2004, 261쪽.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입구로 사용된 광화문과 연예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는 각종 물산시설이 미비한 상황에서 관람객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볼거리에 치중해야 했다.[21] 일제가 미술관·음악당·연예관·여흥장 등

20 신근영, 〈조선물산공진회(1915) 여흥장 고찰〉, 《아세아연구》 60-1, 2017; 조성운,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의 관광적 성격〉, 《서울과 역사》 110, 2022.

21 1915년 물산공진회는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이 '박람회'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을

부대 시설에 힘을 기울인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연예관에는 영화, 연극, 곡마단, 마술 등 여러 가지 공연을 벌여 공연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활동사진도 관람객의 인기를 끌었다. 구경꾼의 심리를 자극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릴뿐더러 식민지 민중의 비판적 사고를 통제하고 쾌락과 감탄, 경외의 감정만이 남아있는, 현실과 유리된 세계로 이끌었다. 또한 이러한 시설과 공연은 조선 사회에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이른바 여가 문화의 시작을 의미했다.[22]

한편, 가정박람회와 '조선 만주 대만 철도 대경쟁' 등 각종대회가 공진회 개최 기간에 열렸다.[23] 특히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성일보와 매일신보가 공동 주최한 가정박람회의 경우, 일본 본국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기업들이 소비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재조 일본인 여성들을 가정용품과 주택의 주된 고객으로 삼을뿐더러 '모범'적인 향도嚮導 국민을 양성한다는 '제국가정담론帝國家政談論'을 유포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또한 조선인 여성들에게는 일본인 가정의 모습을 이상적인 모델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수용토록 하고자 하였다.[24] 그리고 현대 대중문화의 총아라 할 활동사진(영화) 등의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선보였다. 전기를 이용해 야간의 경성 시내를 전기 조명(일루미네이션)으로 장식

반대할 정도로 자신들의 관점에서도 그들의 업적을 과시하기에는 물산 시설이 매우 미비했다. 이에 관해서는 최병택, 앞의 책, 2020, 102~104쪽 참조.

22 조광익, 《여가의 사회이론》, 대왕사, 2010, 338~344쪽.

23 鮮于日 편, 앞의 책, 1916, 827~828쪽.

24 요시미 순야, 이태문 역, 앞의 책, 2004, 175~182쪽; 김명선, 〈1915년 경성 가정박람회 전시주택의 표상〉,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3, 2012; 송혜경, 〈재조일본인의 가정담론 형성과 식민지주의-조선에서 개최된 가정박람회(1915)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46, 2018; 최병택, 앞의 책, 2020, 147~152쪽; 토드 A. 헨리, 김백영 외 역, 앞의 책, 2020, 207~208쪽.

함으로써 별천지를 제공하였다. 불꽃놀이, 변장 미인 탐정대회, 9차례에 이르는 비행기의 축하쇼 등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구경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그 밖에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력거를 대대적으로 검사한다든가 부랑배를 사전에 검거하고 소방대를 정비하였다.[25]

또한 조선총독부는 경성협찬회京城協贊會를 조직하여 공진회 운영은 물론 관람객 동원에 만전을 기했다.[26] 이어서 각도와 각지에 각각 도단위 협찬회와 정동위원회町洞委員會를 조직하여 지역 주민의 공진회 참가를 적극 독려하였다. 심지어 공진회를 지원하기 위해 울산 등 여러 지역에 관람장려회觀覽奬勵會가 조직되기도 하였다.[27] 또한 1915년 6월에 '공진회관람단체'가 이미 조직되었으며, 9월 2일 각도 각군의 공진회 관람단이 각기 출발하였다. 단체 관람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공진회 단체 관람단 현황

도	보통단체	보통단체	도	보통단체	보통단체
경기도	26,107	19,373	경상북도	3,086	108
강원도	4,200	500	평안북도	1,831	119
전라북도	2,426	155	함경북도	734	-
충청북도	1,879	241	황해도	5,301	221
전라남도	2,324	103	평안남도	2,010	828
충청남도	3,218	727	함경남도	2,231	350
경상남도	2,403	431	합계	57,750	23,156

출처: 조선물산공진회경성협찬회, 《시정5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경성협찬회보고》, 1916, 119~120쪽.

25 〈인력거 대검사, 공진회 안에 인력거 검사〉, 《매일신보》 1915년 8월 4일; 〈共進會와 소방대, 구비한 소방설비〉, 《매일신보》 1915년 8월 17일; 〈京城全市에 亘하여 浮浪者 大檢擧〉, 《매일신보》 1915년 9월 7일.

26 鮮于日 편, 앞의 책, 1916, 810~812쪽.

27 〈각지통신-울산 공진회관람장려회 조직〉, 《부산일보》 1915년 6월 15일.

〈표 1〉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접근성이 높은 경기도 지역 주민 관람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함경남도 주민이 인구밀도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물산공진회 개최 직전에 부설된 함경선 철도의 일부 구간 개통(1915년 8월, 원산역-상삼봉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생단체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로 인해 경성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경기도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그럼에도 당시 학생 인구가 매우 적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통단체의 40%에 육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비율이다.[28] 학생의 경우, 학교에 소속하였기 때문에 동원이 상대적으로 용이했을 것이다. 또한 1세대 신민臣民이 될 학생층을 집중 공략한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경성협찬회나 지방기관이 동원할 수 없는 개인의 경우,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했다.[29] 《매일신보》는 공진회 개최 직전부터 폐막에 이르는 60여 일 기간 공진회 소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심지어 공진회 소식을 위해 4면을 증쇄하고 날마다 지면을 공진회 소식으로 도배할 정도였다. 또한 매일신보사는 물산공진회에 편승하여 금강산탐승회를 조직하여 금강산유람단을 모집하였다.[30] 여기에는 일본 본국의 관광객과 함

28 공진회 全會期 50일간 총 입장인원은 주간과 야간 각각 70만 2,745명과 39만 1,638명이고 총계는 116만 4,383명이다(鮮于日 편, 앞의 책, 1916, 817쪽).

29 언론매체의 동원은 일본 본국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각 신문은 개막 전부터 박람회의 새로움과 흥미로움을 소개하는 특집을 꾸미거나 박람회 관람을 권장하는 사설을 실었다. 민간 기업과 밀접한 미디어 매체로서는 기업 광고주의 매출을 올리는 것에 이바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요시미 순야, 이태문 역, 앞의 책, 2004, 258~266쪽 참조.

30 〈금강산 탐승회는 如斯한 대대적 대성황〉, 《매일신보》 1915년 5월 4일; 조성운,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금강산 관광개발〉, 《한일민족문제연구》 30, 2016, 22~25쪽 참조.

께 재조 일본인과 조선인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관보》에서도 1주일 단위로 연일 공진회 관람객을 공시하여 각 단체와 기관들에게 관람객 동원을 독려하였다.[31]

소설 같은 문학매체도 관람객 동원에 이바지했다. 안국선安國善의 소설집 《공진회》는 공진회 개최를 앞두고 공진회의 여흥을 돕고자 이 소설을 집필했다고 밝힐 정도였다.[32] 또한 "이번 공진회를 구경한 사람은 누구든지 조선의 문명진보가 오륙 년 전에 비교하면 대단히 발달되었다고 할 터이라"라고 하면서 일제의 통치를 찬양하고 조선인 관람객 동원에 힘을 보탠 셈이다.[33] 실제로 조선인들에게서 "경성에 가보니 시가지가 종횡으로 정연하고 도로는 넓으며 정연히 정리되어 있어 놀랐다"라는 반응이 나왔다.[34]

그 결과 11월 1일 조선물산공진회가 폐막할 즈음 집계한 바에 따르면 공진회 총관람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시골 상경자가 70%를 초과하였다.[35] 이 중에는 관제 동원이 적지 않아 무료 관람객이 12만 명을 넘었다. 경성부의 경우, 약 25만 명이 입장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어린이, 병자 등을 제외한 모든 부민이 관람했다.

그러나 관람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제공된 볼거리가 정작 자신들이 추구한 정치선전의 효과를 퇴색시키고 오히려 이와 괴리되는 개인의 볼거리 욕망만 부추기는 부작용을 야기하였다.[36] 단적인 예가 10월 30일 원

31 김태웅, 앞의 글, 2002, 154쪽.
32 안국선, 〈서문〉, 《공진회》, 修文書館, 1915.
33 안국선, 〈기생〉, 《공진회》, 1915.
34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3, 268~269쪽.
35 토드 A. 헨리, 김백영 외 역, 앞의 책, 2020, 200~201쪽.
36 토드 A. 헨리, 김백영 외 역, 앞의 책, 2020, 209~212쪽.

숭이의 공중 곡예를 보여주는 '원숭이의 날'에 조선인 입장객이 9만 명을 초과했는데 이런 수치는 1일 평균 관람객 2만 명을 훨씬 넘는 수치였다. 그만큼 많은 조선인 시골 상경자들이 일제의 정치선전을 전시하는 시설물보다는 여흥과 볼거리에 깊은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한편, 1929년 조선박람회도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와 마찬가지로 식민통치를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고 통치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37] 나아가 조선 내의 식산흥업을 이전에 비해 훨씬 강조하였으며 상품홍보의 규모를 조선물산공진회를 능가하도록 하였다.[38] 각 관館을 천천히 구경하는 데 80여 리로서 사흘이 걸린다고 추정될 정도였다.[39] 이에 관람객 유치가 상품 선전과 판매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었다.

경성협찬회는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구경거리 설치에 힘을 기울였다.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 경성역 앞에 커다란 환영게이트 구조물을 건립하였고, 숭례문에 조명 시설을 부착하여 휘황찬란한 야경을 연출하였다. 경성의 얼굴이라 할 경성부청 건물과 1925년에 준공된 경성 역사驛舍의 외관과 특징은 상경 관람객들에게 경성부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심는 데 일조했으리라 본다.[40]

우선 조선물산공진회에 비해 선전 매체를 적극 활용했다. 즉 "사람

37 하세봉, 〈식민지권력의 두 가지 얼굴-조선박람회(1929년)와 대만박람회(1935년)의 비교〉, 《역사와 경계》 51, 2004.

38 1929년 박람회 행사 명칭을 '공진회' 대신에 '박람회' 명칭을 쓴 이유가 규모와 수준의 차이에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최병택, 앞의 책, 2020, 188쪽 참조.

39 〈朝鮮博覽會前記(終) 各館의 一巡路程 實로 八十餘里 천천히 구경하려면 적어도 사흘〉, 《매일신보》 1929년 9월 11일. 박람회 전시관의 규모와 특징에 관해서는 최병택, 앞의 책, 2020, 200~209쪽 참조.

40 京城驛舍의 외관과 특징에 관해서는 김지화, 《모던철도》, 책과함께, 2022, 175~179쪽 참조.

의 눈길이 닿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선전매체로 활용했다."[41] 예컨대, 현수막·스탬프·연초 카드·그림엽서·영화자막·애드벌룬·전광판·달력·지도 등이다. 구경꾼을 유도하는 데 이만큼 효율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성협찬회가 관람객을 유도하기 위해 각 군별로 단체, 각 학교, 개인 순으로 목표 수치를 설정하였다.[42] 그리하여 군이나 면 단위로 관람객이 모집되었고 관공서와 각 학교, 여러 조합에서 시찰단을 조직하여 도별 각 면별로 안내하였다. 단체 관람객의 경우 30만 명을 목표로 삼았는데 실제로 초과 달성했다. 각도, 각군청, 각면 등의 관공서, 각 학교, 여러 조합을 동원하여 성취한 결과였다. 단체 관람의 주된 대상인 학생의 경우, 1,400개교의 12만 명으로 예상하였다.[43] 물산공진회가 개최된 1915년에 비해 학생수가 증가하였음을 감안한 결과 동원력에 자신감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매일신보사 역시 1915년 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와 마찬가지로 선전활동에 주역이 되었다. 《매일신보》는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반년 전부터 조선박람회가 사상 최고의 박람회가 될 것이라고 선전하며 박람회 관련 기사를 끊임없이 생산했다. 예컨대 9월 12일자 〈滿都의 朝博氣分과 관객을 기다리는 會場〉을 비롯한 여러 기사를 통해 박람회에 다수의 관람객을 모으고자 했던 조선총독부 당국의 방침에 적극 부응했다.[44] 그 결과 시골

41 堂本敏雄, 〈朝鮮に於ける情報宣傳〉, 《朝鮮》 294, 1939, 40쪽. 이와 관련하여 최규진, 《포스터로 본 일제강점기 전체사》, 서해문집, 2023, 10쪽 참조.

42 최병택, 앞의 책, 2020, 195~199쪽.

43 〈각도 학생관광단〉, 《매일신보》 1929년 9월 7일.

44 〈滿都의 朝博氣分과 관객을 기다리는 會場〉, 《매일신보》 1929년 9월 12일.

벽지에 사는 주민들의 귀에도 박람회 소식이 전달되었고 일부는 상경하였다. 예컨대 전라도 진도군 북면에 거주하는 유학자 최병채崔炳彩도 자신의 일기 9월 8일(양력 10월 10일)에 조선박람회를 열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복수면에서 박람회를 구경하려는 관광단이 출발하였다는 내용을 적었다.[45] 또 9월 3일(양력 10월 5일) 조선박람회 안내장 1매가 전달되었음도 부기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일보 등 조선인 언론계는 박람회의 성과를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즉 조선총독부의 100만 명 관객 유치 계획에 대해 직전 해 홍수와 재난 등으로 인해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시내의 임대료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46]

2) 교통망·편의시설 확충

일제는 관람객을 최대한 유치할 요량으로 구경거리와 함께 교통망과 편의시설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침 아래 인프라 확충과 숙박 시설 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우선 1910년 착수한 경원선 부설을 1915년에 완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차, 기선의 운임을 할인하고 여관을 확충하였다. 그 결과 조선물산공진회 개최 기간에 여객 운송 실적은 〈표 2〉와 같다.

〈표 2〉에 따르면 철도이용자가 전체 관람객 114만 명 가운데 90만 명을 초과하고 있다. 통계의 한계상 지역별 이용객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경원선과 호남선 여객 수치로부터 1인당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음을 추산할 수 있다. 반면에 함경선은 당시 개통 구간(상삼봉-원산)이 짧아

45 《崔炳彩日記》 1929년 9월 8일.

46 〈百萬觀客上京과 一攫千金의 夢遊病〉, 《조선일보》 1929년 4월 1일.

〈표 2〉 조선물산공진회 기간 중 여객운송 실적

선별	단체승객, 경인간 승차, 연락승차 출품인 관계, 역원 등 인원(명)	운임료수입 (원)	일반여객 인원(명)	운임료수입 (원)	인원합계 (명) (A)	운임료수입 합계 (원) (B)	B/A (%)
경부선	146,206	104,146	405,990	341,090	552,196	445,236	80.6
경의선	25,841	39,803	166,712	121,052	192,543	160,855	83.5
경원선	8,349	12,101	48,477	38,477	56,826	50,580	89.0
호남선	12,598	27,828	86,943	60,741	99,541	88,569	89.0
함경선	534	1,018	4,059	1,048	4,593	2,102	45.8
합계	193,518	184,896	712,181	562,446	905,699	747,342	82.5

출처: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 앞의 책, 1916, 119~120쪽.

1인당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산역이 공진회 개최로 말미암아 수익을 올려 번창하였다.[47]

다음 1912년부터 이른바 경성 시구개정사업市區改正事業이 추진되고 있었으며[48] 치도사업도 1915년에 마칠 예정이었다. 비록 1917년에 가서야 치도사업이 마무리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물산공진회 개최가 이러한 치도사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물산공진회 개막 직전 광화문에서 경성역에 이르는 도로가 준공되어 광화문광장에서 조선물산공진회장인 경복궁까지 관람객의 이동이 훨씬 편리하게 되었으며 전차의 복선화(황토현—독립문통)도 이루어졌다.[49] 또한 철도국은 1914년 84만 원의 경비를

47 〈원산역의 대번창〉, 《매일신문》 1915년 10월 8일.

48 경성부, 《경성도시계획조사서》, 1928(서울역사편찬원, 《국역 경성도시계획조사서》, 2016, 8쪽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염복규, 〈《경성시구개정사업 회고이십년》에 재현된 1910~20년대 경성 도시화의 양상과 특징〉, 《미술사논단》 44, 2017, 192~193쪽 참조.

49 〈전차공사 進捗〉, 《매일신문》 1915년 8월 25일;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도로〉, 《매일신문》 1915년 9월 7일.

투자하여 경성에 대규모 서양식여관 조선호텔을 건축하여 10월 10일부터 개시하였다.[50] 아울러 100명 이상의 숙박이 가능한 여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분히 조선물산공진회 개최 기간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1915년 8월 외금강 산기슭에 금강산호텔을 건설하였다.[51] 상경자 일부를 금강산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금강산 관광개발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 결과 조선물산공진회 개최 직전 해인 1914년 경성역과 용산역의 승하차객을 합친 수치가 124만 495명인 데 반해 조선박람회 개최 2년 전 1927년에는 363만 3,219명이었다.[52] 13년 동안에 승하차객이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순수 시골 상경자를 별도로 추출하지 않아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시골 상경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일제는 1929년 조선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철도 인프라 확충보다는 운영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철도국은 서울에 도착하는 인원이 1일 평균 1만 4,000명으로 추산하였다.[53] 철도의 경우, 철도국 내에 여객방송계旅客輸送係를 두고, 박람회의 여객수송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또 박람회 기간에 주요 간선철도에 임시열차를 편성하였다. 하루 평균 2회에서 8회까지 운행하였다. 단체 관람객의 운임 할인도 단행하였다. 그 결과 기차탑승객이 박람회 개최 기간 중에 평소보다 2~3배 증가하였다. 아울러 박람회 개최일에 맞춰 박람회장 위주로 전차노선이 확장되었고 증설

50 정영효, 〈'조선호텔'-제국의 이상과 식민지 조선의 표상〉, 《한국어문학연구》 55, 2010, 321~322쪽.

51 이송순, 앞의 책, 2016, 120~128쪽.

52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6, 135쪽.

53 최인영, 〈1929년 조선박람회에 활용된 경성의 교통망〉, 《서울학연구》 72, 2018, 41쪽.

되었다.[54] 신용산-한강 인도교 노선이 복선화되었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에 박람회 관람객을 경성관광으로 유도하였다. 모든 정류소가 박람회 입구와 출구에 맞추어졌다. 심지어 택시요금도 20~30% 인하하고자 했다.[55]

또한 조선총독부와 경성부는 상수도 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했다. 1929년 현재 경성부민 물소비량이 4,000만 석인데 박람회 개최에 따른 상경객의 소비를 감안하면 현재의 상수도 급수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56] 3년 뒤 완공할 예정이지만 물 부족량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속성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일제는 박람회 관람객이 숙박할 여관 확보에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당시 100명 이상을 숙박할 수 있는 여관만 해도 12곳에 이르렀다.[57] 1929년에 간행된 《경성편람》과 《대경성》은 이들 여관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였다.[58] 이때 만들어진 김영환 작곡 〈조선박람회가〉 (1)(2)의 가사를 보면 "무궁화"와 "삼천리"를 넣어 조선인의 정서를 자극하였고 후렴구에 "가자가자 서울장안 떠들썩한다. 박람회는 우리 것이 모인 집이다"이라는 구절을 넣어 조선인의 관람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59] 또한 여관을 운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박람회 특수特需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조선인 시골 상경자의 증가에도 조선인 여관은 일본인 여관보

54 최인영, 앞의 글, 2018, 46~51쪽.

55 〈박람회 개기중 자동차삭이 헐하다〉, 《조선일보》 1929년 8월 23일.

56 〈경성부민의 水消費 일년에 사천만석 확장공사는 삼년 후나 완성〉, 《조선일보》 1929년 5월 24일.

57 이채원, 〈일제시기 경성지역 여관업의 변화와 성격〉, 《역사민속학》 33, 2010, 335쪽.

58 백관수, 《京城便覽》, 弘文社, 1929; 매일신보사, 《大京城》, 1929.

59 조선박람회경성협찬회, 《조선박람회경성협찬회보고서》, 1929, 3쪽. 이와 관련하여 염복규, 앞의 글, 2017, 135~136쪽 참조.

다 시설과 운영면에서 뒤떨어져서 수익성이 낮았다.[60] 아울러 여관 숙박 수용 인원이 시골 사람 숙박 수요보다 2~3배 많아 급격한 수지 악화를 초래했다. 염상섭은 소설《광분狂奔》에서 등장 인물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그러게 말씀이올시다. 8월, 9월 10월 석 달 동안에 시골서 적어도 200만 명은 들끓어 올 터라고 하지만 이런 한참 농사 때에 박람회 구경하러 올 놈이 누구겠습니까? 이런 농번기에야 하기휴가의 학생이나 군청 직원들이나 올라올까요. 10월달 들어서는 몰라도 9월까지는 아무리 돼지 떼 몰듯이 목을 매어 끌어올리려 해도 안 될 노릇이니 부지중에 죽을 놈은 우리 같은 여관업자뿐일 게올시다.[61]

그리하여 다수 조선인 여관업자들이 경성협찬회에 찾아가 항의하였다. 일제가 관람객 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빚어진 조선인 여관업자의 몰락이었다.

3. 시골 사람의 관람 상경과 경성 유람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를 관람하기 위해 상경한 시골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조선물산공진회장이었다. 이 곳에서 문명의 위광에 도

60 〈명일로 종막되는 조선박람회〉,《동아일보》1929년 10월 31일. 이와 관련하여 이채원, 앞의 글, 2010, 342~345쪽 참조.

61 염상섭,《광분》, 프레스21, 1996, 202쪽.

취되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품어 왔던 상경의 꿈을 실현했다. 또한 여관업자를 비롯하여 경성상인들도 이들을 반겼다. 이들의 셈법에 따르면, 각 군에서 상경한 단체 관람객이 하루에 1,000명이고 음식비, 선물 물품구입비로 1인당 평균 지출 금액이 1,000원이었다. 그리하여 공진회 기간 중 총 수입 금액 7만 5,000원이 경성 시내에 융통되리라고 예상했다.[62]

또한 경성협찬회는 조선물산공진회 개최를 계기로 시골 사람들의 경성관광을 유도했다. 코스는 다음과 같다. 우선 창덕궁 후원(비원)을 비롯하여, 식물원, 동물원이다. 이 곳은 창덕궁 경내로서 예전 같았으면 출입할 수 없었던 궁궐을 공개함으로써 시골 주민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조선왕조를 희화화시킬 수 있었다.[63] 이어서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용산총독부인쇄소, 조선총독부의원, 공업전습소, 철도국 용산공장, 경성우편국, 일선와사전기주식회사日鮮瓦斯電氣株式會社 영등포발전소, 와사제조소와 동아연초회사공장, 광흥상회 연초공장 등을 방문했다. 근대 보건·문화시설과 산업시설을 방문하였다는 점에서 산업시찰에 가까웠다. 조선총독부와 재조 일본인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그 결과 〈경성유람기〉의 주인공 이승지(노인)가 상전벽해의 탄식을 마지 않듯이 많은 시골 상경자는 관공서·은행·호텔·상점·경성우편국 건물·도로·전차·마차·자전거·가스가로등·학교·병원·극장·요리집·동물원·이왕직 미술공장·동아연초주식회사 등의 '번창한 시가와 화려한 물색'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64] 그리고 쇠미한 기색을 보이는 조선여관을 멀리하고

62 〈공진회 구경(16) 경성 내의 시황〉, 《매일신보》 1915년 9월 24일.

63 〈대공진회: 각 관의 관람순〉, 《매일신보》 1915년 9월 17일.

64 碧鐘居士, 〈경성유람기〉, 《신세계》 5-2, 新文社, 1917. 이와 관련하여 권보드래, 〈1910년대 '新文'의 구상과 〈경성유람기〉〉, 《서울학연구》 18, 2002 참조.

입맛이 맞지 않음에도 위생적인 일본 여관을 부지기수로 찾았다. 또한 귀향 뒤 가족들에게 선물을 선사하기 위해 여러 상점가에서 화장품이나 주단 등을 구입하였다. 시골 노인의 이러한 구경은 '문명 공기'를 마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자녀와 손자들이 서울로 유학하는 것을 꿈꾸었다.

물론 조선총독부는 공진회 조선인 관람객의 감상을 받아내어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조선의 개발을 찬양하고 교통기관, 도로 정비, 위생 확충, 치안 강화에 감사하는 글이 주요 핵심이었다.[65] 또 1910년 이전과 이후 산업화의 수준을 비교하며 일본 통치 시정의 산물이라고 밝히는 감상문도 보이는데 면장과 군수, 헌병대 관내 관람단의 일원이 이러한 감상기 제출자였다.[66]

그러나 《매일신보》마저 100만 명을 넘는 관람객 수치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감상을 조사한 뒤, 공진회 개최의 효과를 의심하였다. 우선 시골 단체관람객은 '서투른 일이 많'고 '신풍조新風潮와 시체時體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 '시골띠기(시골띠기의 사투리)', '촌뜨기'라 불렸는데 이들 시골 상경자는 자발적으로 관람하기보다는 관의 압력에 못이겨 억지로 참가했음을 실토하였다. "옛날 공고公故 치르는 셈으로 알고 있다"고 하며 군청의 강요로 상경하여 관람했던 것이다.[67] 공고는 벼슬아치들이 조회朝會·진하進賀·거동擧動 및 그 밖의 행사에 참여하던 일로 시골주민들도 경성에 상경하는 것을 조

65 《매일신보》는 1915년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19회에 걸쳐 〈공진회 구경〉 연재물을 실었다.

66 〈共進會觀覽鮮人の感想〉, 《조선휘보》 1915년 12월; 〈共進會視察の感想と記念事業〉, 《조선휘보》 1916년 4월.

67 〈공진회 구경(5) 구경꾼의 구경꾼〉, 《매일신보》 1915년 9월 13일; 〈공진회 구경(8) 각지방의 단체와 관람 후의 개인감상〉, 《매일신보》 1915년 9월 16일.



박람회장 내 혼잡한 광경

출처: 조선총독부, 《조선박람회기념사진첩》, 1930(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선시대 관리들이 서울에 올라가 참석하는 일로 이해한 셈이다. 그래서 이들 상경자 가운데 공진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인솔자의 손에 이끌려 상경하였다. 마지못해 책임을 면해 보고자 하는[塞責] 심산으로 따라나선 사람도 적지 않았던 셈이다. 따라서 이들은 각호관과 진열품은 보지 않고 여흥장과 연예관만 배회하였다. 심지어 여관업자가 전하는 시골 관람객의 말을 빌자면 "공진회라고 어디 볼 것이 있던가 하는 사람이 많"았다. 물론 매일신보 기자는 이러한 전언에 대해 "진상을 알지 못하고 단지 구경거리로만 알고 무슨 신출귀몰한 일이나 알고 보기에 그러"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일제 당국과 조선인 시골 관람객의 괴리를 보여준다. 시골 관람객으로서는 일제의 정치선전에 현혹되기보다는 힘들고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날뿐더러 기존의 지배층만이 향유했던 새로운 구경거리와 여흥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물론 시골 주민의 경성관람은 문명의 효과에 비해 비싼 값을 치러야 했다. 군중의 일부가 거리에서 이른바 쓰리를 당한다든가 동반한 자식들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전차에 치여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68] 심지어 종로 경찰서가 '부랑배'와 밀매음녀를 대거 검거할 정도로 이들의 활동이 활발하였다.[69]

한편, 1929년 조선박람회도 조선물산공진회의 이런 패턴을 따랐다. 시골 관람객이 조선박람회장을 방문한 뒤에는 경성관광에 나섰다. 경성부가 운영한 부영[府營] 버스의 박람회 노선은 이들 시골 관람객이 방문했던 박람회와 시내 장소를 잘 보여준다. 특히 교외 관광에 힘을 기울였다. 코

68 〈注意하시오 此際에 此事를〉, 《매일신보》 1915년 9월 17일.

69 〈서대문감옥행〉, 《매일신보》 1915년 9월 8일.

스는 다음과 같다.

> 경성역-상품진열관-남대문-조선신궁-남산공원-과학관-장충단-동대문-경학원-창경원-파고다공원-경복궁-미술품제작소-본정-경성역 또는 여관[70]

이 코스는 조선왕조의 문화유적과 식민통치의 주요 관청, 일본 신사 등을 관람하도록 짜여져 있다. 요컨대 조선왕조의 잔영을 통해 국망의 필연성을 자각하고 식민통치의 성과를 내면화하는 데 중점을 둔 셈이다. 이후 이러한 코스는 1931년 대폭 확장되어 상설 영업으로 발전되었다. 기존의 코스에 조선총독부와 박문사博文寺가 추가되었고 경복궁이 덕수궁으로 대체되었다. 물론 창경원도 4월 벚꽃철이 지났지만 1929년 9월 23일 6,700여 명이 올 정도로 대단히 인기있는 장소였다.[71] 조선총독부의 위세와 이토 히로부미의 추모, 그리고 조선왕조의 마지막 잔영을 대조시키는 것이었다. 나아가 교외 지역의 명소로 알려진 청량리, 왕십리, 마포 양화진 등으로 확장되었다.[72] 이때 주요 교통수단으로 전차, 버스, 대절자동차, 철도 등이 활용되었다.

또한 조선박람회 개최의 목적이 일본제품 소비에 있으므로 본정 거리에 대한 소개가 빠지지 않았다. 다음은 조선박람회에 맞추어 발행된 《별건곤》 경성특집회에 실린 기사이다.[73]

70 철도국, 〈조선박람회 관람단체 승차편람〉, 《조선철도협회회지》 8-10, 1929, 81쪽; 철도국, 《경성, 개성, 인천, 수원》, 1929, 8쪽.

71 〈日曜와 祭日로 박람회 대혼잡〉, 《동아일보》 1929년 9월 25일.

72 최인영, 앞의 글, 2018, 55쪽.

朝鮮銀行 앞헤서부터 京城郵便局을 엽해 끼고 이 진고개를 들여다 보고 갈때에는 좌우로 즐비하게 늘어슨 상뎜은 어느 곳을 물론하고 활긔가 잇고 풍성풍성하며 陳列窓에는 모다 갑진 물건과 찬란한 물품이 사람의 눈을 현혹하며 발길을 끌지 안는 것이 업다. (중략) 캉캄하고 적적하고 무취미하든 《시골》에서 온 우리 동포들이 한번 이곳을 구경하고 이 땅을 발 불때에 얼마나 놀나며 얼마나 찬란할 것인가. 이 놀남과 찬란이 드듸여 부러움과 憧憬의 표뎍으로 변하야 그네들의 머리 속에다 깁고 기픈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서울 구경을 하얏다는 사람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모다 진고개의 자태와 용모를 입에 침이 업시 칭찬하고 일커르게 되며 또 그 다음 사람이 이것을 보고저 하야 서울 구경의 삼분지이 이상은 이 진고개를 보고저 하는 心理로 꽉차고 마는 것이다. 얼마나 이 진고개의 유혹이 강렬할 것인가?[74]

이에 따르면 시골에서 상경한 주민들의 2/3 이상은 진고개 즉 본정통과 그 상점을 반드시 방문하여 놀람과 찬탄을 넘어 부러움과 동경의 표정으로 일본 제품을 다량 구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박람회 역시 관의 동원에 의한 관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기사들이 속출하였다. 그 문제점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한발의 피해가 어느 지역보다 가장 심했던 경남 울산군 언양면조차 동·면서기가 각동리를 돌아다니며 박람회 관광단 여비를 일반민에게 재산등급에 따라 부과 징수할 정도였다.[75] 《동아일보》 역시 1929년 12월 21일자 기사를 통해 시

73 이와 관련하여 성효진, 〈경성의 결절점: 식민지 시기 조선은행 앞 광장에 대한 연구〉, 《미술사와 시각문화》 28, 2021 참조.

74 鄭秀日, 〈진고개, 서울맛·서울정조〉, 《별건곤》 23, 1929년 9월.

골 관람객들이 1인당 평균비용 20원씩을 지출했다고 계산하면서 이 돈이 시골 주민의 자체 여윳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관공서의 강압에 못이겨 빌린 돈임을 지적하였다. 결국 농촌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 기간에 소매치기, 매춘, 사기 등 온갖 범죄행위가 증가하였다. 그래서 서울에서 눈 감으면 코 베간다는 말이 돌았다.[76]

4. 시골 사람의 착종된 경성 인식과 민족주의 계열 식자층의 안내 코스

조선물산공진회를 관람하러 상경한 시골 주민은 새로운 문명에 대한 동경을 불러 일으키고 견문을 넓히는 교육을 고려하였다. 그것은 자식을 동반하는 부모의 의도에서 드러났다. 공진회 개최 당시 발표된 백대진白大鎭의 소설 〈애아愛兒의 출발〉에서 부자父子가 서울 구경에 나선 것도 경원선의 위력도 있거니와 교육적 고려도 작용하였다.[77] 그것은 자식이 공진회를 구경함으로써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부모의 심정이 반영되었다.[78] 즉 실제의 학문, 실제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75 〈朝博觀光團旅費 一般에게 徵收〉, 《조선일보》 1929년 9월 24일.

76 〈손에 들고잇는 現金을 强奪 과연 눈감으면 활비할 세상 犯人은 卽時捕縛〉, 《매일신보》 1930년 9월 4일.

77 《매일신보》 기자 출신 백대진의 삶과 문학에 관해서는 주승택, 〈白大鎭 연구〉, 《진단학보》 80, 1995 참조.

78 낙천자, 〈애아의 출발〉, 《신문계》 3-9, 1915, 103쪽. 이와 관련하여 권보드래, 앞의 글, 2002; 이유미, 〈일본인 발행 미디어의 기획된 단편소설〉, 《현대문학의 연구》 41, 2010, 95~96쪽 참조.

"번화한 곳이지만, 지금은 무엇이라 말할 것 없이, 끔찍이 번화하고 끔찍이 정돈되어 別有天地 非人間"인 서울을 견물할 수 있는 드문 기회라는 것이다. 이제 서울은 과거 응시의 장소를 넘어서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사교적 연망을 넓혀 계층 상승을 꿈꿀 수 있는 선망의 공간인 셈이다. 그리하여 시골 사람들은 "서울 구경 한 번 하고 죽어도 한이 없겠다"라는 욕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곤 하였다.[79]

한편, 이런 박람회들은 조선총독부의 선전과 달리 어두운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일제는 관람객의 박람회 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부랑배'의 활동에 촉각을 세웠다. 이들 부랑배는 일본 박람회에서 나타나는 부랑배와 달랐다는 점에서 잡범이 아닌 사상범일 가능성이 높았다. 당시 일제는 사회주의자들이 박람회를 기회로 삼고 잠입했다는 여러 정보를 입수하였다.[80] 이들 사회주의자는 조선박람회를 조직적 결집의 공간이자, 나아가서는 일제에 대한 저항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81] 소설가 염상섭은 신문 보도를 통해 들려오는 이른바 사상범의 활동을 박람회와 연계하여 소설《광분》으로 형상화하였다.[82] 사회주의자들

79 〈농촌문제 조선 사람은 조선으로(12)〉,《동아일보》1922년 9월 26일.

80 〈박람회를 기회로 공산당원 잠입〉,《조선일보》1929년 7월 19일. 이와 관련하여 이정욱, 〈조선총독부 지역지배의 구조: 조선박람회(1929)와 전라북도〉,《인문사회21》7-4, 2016, 1063~1064쪽 참조.

81 〈범죄인지보고서〉,《형사 제1심 소송기록》, 1929, 1929刑3003/1929豫75/1930刑公1139(국사편찬위원회,《일제강점기 사회·운동자료 해제》, 2007); 〈현대여성사상가들(3), 붉은 연애의 주인공들〉,《삼천리》17, 1931년 7월 1일; 〈京高祕 제7902호 조선공산당조직계획 검거에 관한 건〉,《思想에 關한 情報》10, 1930년 10월 6일.

82 염상섭, 앞의 책. 이와 관련하여 김성연, 〈조선박람회의 문학적 재현-염상섭의《狂奔》의 세계〉,《인문학논총》36, 2014; 김은하, 〈부르주아의 頹廢狂奔과 민중의 狂亂奔走-염상섭의《狂奔》에 드러난 유물론 인식과 통속화 전략 및 근대성 원리〉,《현대소설연구》85, 2022 참조.

이 조선박람회의 스펙타클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각종 전단을 뿌려 일제 정치선전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 의열단의 단원들도 조선박람회를 계기로 활동하기 위해 국내에 잠입하였다.[83] 그래서 일제는 공진회 개최를 앞두고 부랑자를 대량으로 검거하고 이른바 부정한 무리를 검거하기 위해 비상 소집을 걸기도 하였다. 시골 상경자에게는 일제의 장담과 자부에도 불구하고 색다른 모습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또한 시골 주민들은 근대 교통 인프라를 체험함으로써 상경의 용이성을 알게 되었고 1919년 3월 3일에 거행된 고종 인산을 구경하겠다고 상경하여 남대문역에 하차할 수 있었다. 그리고 3월 1일 국장 예행 연습이 대한문, 종로통, 동대문에 열리자 군중들이 거리를 채웠다. 물론 남자현 같이 만세 시위를 목표로 상경한 안동 출신 여성도 있었다.[84] 그러나 다수의 군중은 고종의 인산을 구경하기 위해 상경한 것이다. 그들은 1915년 공진회 관람과 서울 구경을 위해 이미 철도 교통을 이용했으므로 아주 낯설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시골 사람의 상경 욕구는 결코 줄지 않았다. 〈서울구경〉이 신문에서 지속적으로 연재되었다.[85] 당시 시골 관람객은 1929년 조선박람회를 바라보며 부러움과 동경어린 시선으로 서울을 바라보았다. 그들 눈에 비친 다양한 복색의 인물은 신기롭기만 하였다. 모던 걸, 중국 복장의 여성, 양장미인, 회사집배원, 직공이 노동복을 입은 그들이다.[86] 또한 휘

83 〈朝博을 기회로 잠입한 의열단원등 공판〉, 《동아일보》 1929년 11월 30일.
84 강윤정, 《남자현 한국 근대의 여걸》, 지식산업사, 2018, 74쪽.
85 〈서울구경〉, 《매일신보》 1920년 2월 24~29일.
86 〈경성가두인물전람〉, 《별건곤》 23, 1929년 9월.

황찬란한 상품을 보면서 소비에 대한 욕구를 참지 못하여 근대가 만들어 낸 인공도시를 감상하고 진기한 근대상품에 따라서 새롭게 입맛을 들인 뒤 근대의 소비자로 등록하기에 이르렀다.[87]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는 1929년 6월 8일 조선박람회를 앞두고 조선박람회가 가져올 부작용을 다음과 같이 예견하였다.

> 이러케 시골 서울 할 것 업시 박람회만 열이면 무슨 큰 수나 날 것 가티 뒤범벅이 되어 펄쩍 떠든다. 집파라 논파라 딸파라! 박람회를 리용하야 돈을 벌랴는 사람들–한달 동안에 거부가 되어 홍청거리고 살어볼 꿈을 꾸는 가업슨 사람!
>
> 몰려오는 뎨이차 공진회 보따리의 눈물에 저진 쇠ㅅ푼을 노리고 잇는 무리들! 요란한 서울의 그 두달이 지나간 뒤에 嗟歎 悲鳴이 그들의 입에서 터저 나오지 안으리라는 것을그 누가 보증하랴
>
> 박람회 박람회! 서울의 "일미녀이순"과 일만 가지 錯綜되며 움즉이는 물톄에서 울어다는 交響樂은 이 땅의 殘夢일 것이다[88]

시골 상경자의 돈을 노리는 상인 등의 허황된 꿈과 상경에 따른 후유증으로 경제적 고통을 당한 시골주민의 삶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역시 조선박람회 개최를 맞아 1929년 8월 21일 사설을 통해 조선박람회 개최의 목적이 일제 통치 20년을 선전하여 당시 한발과 빈곤, 불경기와 재정긴축 등 사회의 불안상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비판하였다.[89]

87 신명직,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2003, 288쪽.

88 〈박람회광〉, 《조선일보》 1929년 6월 8일.

89 〈박람회의 警戒 -전후 모순의 소치-〉, 《동아일보》 1929년 8월 21일(정진석 편, 〈해

나아가 박람회 관람객들을 감시하기 위해 미행 경찰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실제로 상경객들을 감시함으로써 상경객들을 불안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설은 일제의 검열로 인해 삭제되었다. 이어서 1929년 9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만문만화漫文漫畫 '말괄량이 박람회 구경'을 연재했다. 자신을 시골 말괄량이로 소개하고 있는 '까불이'와 그의 아버지 '털털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시골 사람들의 박람회 관람 행태를 도시민의 시선에서 보여주고 있다.[90]

윤치호는 1929년 6월 20일 일기를 통해 조선박람회 개최 소식을 듣고 그것이 가져올 파장을 예견하고 있었다. 당시 농민들의 참가 거부 역시 거부될 것이라고 하면서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있었다.

> 일본인을 제외하면 박람회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철도, 전차, 일본인의 백화점, 일본인 대금업자, 그리고 결국 일본인 토지 횡령자만 이익을 본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조선인은 공익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거나, 강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부당한 강제 징수를 당하고는 살 수 없다고 우리가 항의하면 일본인은 이런 생각이 드러나거나 암시된 대답, 유일한 대답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나?"[91]

이어서 9월 23일 일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제〉, 《(日帝시대 民族紙) 押收기사모음》 2, LG상남언론재단, 1998, 468~469쪽).

90 '말괄량이 박람회 구경'와 관련하여 진윤환, 〈1929년 조선박람회를 통한 지방민의 근대 공간 체험〉, 상명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43~47쪽 참조.

91 《윤치호일기》 1929년 6월 20일.

> 조선 각지의 마을에서 20~50명씩 떼 지어 몰려온 관람객이 남녀노소 무리에 허둥지둥 밀고 밀리면서 총총걸음으로 박람회장 건물을 빠져나가기에, 저 사람들이 무엇을 보려는지 궁금했다. 공연은 모두 일본인의,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을 위한 공연이었다. 그 공연의 목적은 조선, 즉 조선의 자원과 명물을 일본인에게 광고해서 그들로 하여금 조선으로 건너와서 자립해 살아가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가난한 조선인들이 그 박람회 운영 경비를 내야 했다. 쌀값이 한 말에 6전인 상태로 기근이 든 해가 두 번 지나간 뒤,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인에게는 그렇게 쥐어짜서 주머니를 말리는 정책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이 박람회가 끝나자마자 곧 가을철 세금 징수가 들이닥치고, 일본인 토지 수탈자와 고리대금업자들은 몸이 터지도록 살이 찔 것이다.[92]

박람회가 끝난 뒤 윤치호는 시골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1,000만 엔 이상이며 일제가 돈을 낭비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추정하였다.[93] 그의 말대로 조선인들이 얻은 것이라곤 엄청난 빚뿐이었다. 윤치호의 이런 우려는 과장이 아니었다. 《조선일보》 1929년 10월 19일자 기사에 따르면 60만 명의 시골 상경자들이 박람회 관람을 위해 금융조합으로부터 빌린 새로운 부채로 인해 몰락의 위기에 빠졌다.[94] 시골 상경자들은 지방관청이나 금융조합 등에서 대략 10~20원에서 40~50원을 빌렸던 것이다.[95] 또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반강제적으로 인솔하여 올라온 안내자들이 귀향 대

92 《윤치호일기》 1929년 9월 23일.
93 《윤치호일기》 1929년 12월 31일.
94 〈新債진 농민 60여만 명〉, 《조선일보》 1929년 10월 19일.
95 〈新債진 농민 60여만 명〉, 《조선일보》 1929년 10월 19일.

열에서 먼저 빠져 나가는 바람에 상경인들의 발이 여관에 묶이게 되었다.[96]

또한 경제평론가이자 신간회에 참여했던 정수일鄭秀日도 《별건곤》에서 다음과 같이 상경 구경꾼의 심리를 꿰뚫으며 박람회에 현혹될 상경자에게 경고하고 있다.[97]

> 캄캄하고 적적하고 무취미하든 "시골"에서 온 우리 동포들이 한번 이곳을 구경하고 이 땅을 발 불때에 얼마나 놀나며 얼마나 찬란할 것인가. 이 놀남과 찬란이 드듸여 부러움과 동경의 표뎍으로 변하야 그네들의 머리 속에 다 깁고 기픈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서울 구경을 하얏다는 사람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모다 진고개의 자태와 용모를 입에 침이 업시 칭찬하고 일커르게 되며 또 그 다음 사람이 이것을 보고저 하야 서울 구경의 삼분지이 이상은 이 진고개를 보고저 하는 심리로 꽉차고 마는 것이다. 얼마나 이 진고개의 유혹이 강렬할 것인가?
>
> 그뿐인가. 여기를 구경하고 이 곳에 홀린 사람은 "甲"이나 "乙"을 물론하고 평생 소원이 "진고개 가서 그 조흔 물건이나 맛 조흔 것을 사 보앗스면 죽어도 한이 업겟다"는 소리를 하게 되여 맛참네 그네들은 이 최고의 理想을 실현코저 그여히 서울을 다시 와서 바로 진고개로 간다. 그래서 무슨 물건이든지 사고야 말게 된다. 우리네 상덤에도 잇지만은 진고개서 사가지고 가야 짜장 서울 구경을 한 보람이 잇고 장랑거리가 된다 하야 시골 사람 독특의 우월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스면 고만 넉을 일코 말게 되면 거기서 한 가지라도 사야 마음이 풀이게 되는 것이다.[98]

96 〈觀光團에 딸아온 無責任한 引率者〉, 《조선일보》 1929년 10월 31일.

97 방기중, 〈1920·30년대 조선물산장려회 연구 -재건과정과 주도층 분석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67, 1996, 121~123쪽.

당시 시골 상경자들이 서울 구경을 통해 자기 지역 주민에게 서울 구경과 과소비 체험담을 자랑삼아 전함으로써 미상경 동향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구별짓고자 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식자층의 이런 우려를 두고 시골 사람은 "그럼 왜 시골들에서는 이번 박람회를 보지 못하면 사람 값에도 가지 못할 듯이 야단들이예요?"라고 반문하였다.[99] 여기에는 일제의 선전이 효과를 발휘한 나머지 시골 상경자들은 "조선박람회를 보지 못하면 아예 사람값에도 못가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양한 구경거리로 꽉 차 있고 굉장한 모습이었다.[100] 물론 식자층도 조선박람회가 시골 사람들의 안목을 놀라게 할 것임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식자층은 시골 상경자의 이런 구경과 과소비가 농촌경제와 조선 농민을 파국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 아! 그러나 그네들이 이로 인하야 조선의 살림이 죽어가는 사람의 피 말으듯 조선의 피가 말려드는 것을 꿈엔들 생각할 수가 잇스랴? 아! 이 무서운 진고개의 유혹!! 조선의 살림은 이 진고개 유혹의 희생이 되고야 말것인가? (중략) 이 글은 특히 이번에 개최되는 소위 조선 초유의 박람회를 구경코저 멀니 시골서 오는 우리 동포에게 삼가 드리는 동시에 결코 진고개 유혹에 정신을 일치 안키를 바라며 붓을 놋는 바이다.[101]

98 鄭秀日, 〈진고개, 서울맛·서울情調〉, 《별건곤》 23, 1929년 9월.

99 K기자, 〈조선박람회견물기〉, 《신민》 53, 1929년 11월; 정수일, 〈조선인으로서 본 조선박람회〉, 《신민》 53, 1929년 11월.

100 春坡(박달성), 〈서울구경 왓다가 니저버리고 가는 것〉, 《별건곤》 23, 1929년 9월 "자네 서울구경 갓다왓다지? 그래 무엇무엇 구경하얏나? 博覽會구경은 물론 잘 하얏겟지만…", "참말 구경 조테. 워 업는 것이 업데. 그야말로 고양이 뿔하고 處女 불알만 업고는 다-잇데그려. 참말 宏壯하데"

이러한 우려는 과장이 아니었다. K기자는 협찬회가 거금을 징수했음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各道各邑各里에 소위 朝博協贊會라는 데서 이 조박 기부금을 거두기 위하여 불쌍한 농민 호구지책이 변변치 못한 細農에게까지 강제로 거금을 집합하였으며 심지어 □□감언이설로서 유인 據出케 한 바가 있다.[102]

조선박람회 협찬회가 빈농들까지 강제적으로 또는 감언이설로 거금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 밖에 이런 우려는 여기저기 보인다. 언론인 류광렬은 "박람회는 힘 안들이고 일본상인이 조선 지방 농촌의 돈을 흡수하게 되는 연극"이라 비판하면서 "박람회가 조선박람회가 될지언정 조선인의 박람회가 아니라"는 것이다.[103] 심지어 상경 시골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줏대도 없이 휩쓸려 다니는 희생양"으로 간주하기까지 하였다. 또 《조선일보》 1929년 9월 28일 사설 〈사설: 무엇을 얻을까〉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恍惚"과 "新奇"와 "複雜"과 "華麗"가 오로지 그 所感의 大部分일 것이오 或은 "그사람들 才操 만터라 朝鮮사람이야" "해볼수업서" 等의 失望을 말할 것 밧게 별 別所感이 업스리라 할진대 그 보고어들 바 質과 値가 얼마나 寒心할 바이랴[104]

101 鄭秀日, 〈진고개, 서울맛·서울情調〉, 《별건곤》 23, 1929년 9월.
102 K기자, 〈조선박람회견물기〉, 《신민》 53, 1929년 11월.
103 류광렬, 〈朝鮮博覽會評-무슨 評을 하리까〉, 《신민》 53, 1929년 11월.
104 〈사설: 무엇을 얻을까〉, 《조선일보》 1929년 9월 28일.

또한 소설가 박태원은《조선중앙일보》를 통해 1934년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연재한 단편소설 〈소설사 구보 씨의 일일〉에서 경복궁이든 덕수궁이든 이를 관람한 시골 상경객들에게 이 건물은 "빈약한, 너무나, 빈약한 옛 궁전은, 역시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해주는 것임에 틀림없었다"고 전하고 있다.[105]

그러나 시골 상경자의 구경은 박람회 관람 자체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소망했던 상경의 체험이자 문화적 충격을 손수 겪고 싶었다. 이들 시골 사람은 박람회 관람 상경행 기차를 처음 탔으며 서울에서 신문물에 접합으로써 서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오랜 중앙집권국가 경험 속에서 벌어지는 서울과 시골의 경계선을 허무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즉, "촌에 가보면 이 조선박람회라는 것은 무슨 큰 수數가 나는 것 같이 선전을 하여 조선박람회를 보지 못하면 아예 사람값에도 못가는 것 같은 생각을 일반이 갖게 만들어 놓았다"[106] 시골 사람이 상경하여 일시 체류하였지만 상경 자체만으로도 '사람값'을 하게 되는 체험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물론 시골 사람들은 경성에서 맞닥뜨린 교통사고, 소매치기로 인해 당황스러운 경험을 겪었다. 또한 상경한 시골 사람들 가운데 행방불명자가 속출하였다.[107] 그리고 시골 사람 가운데 상경 기생들과 접촉하여 이른바 화류병을 얻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져갔다.[108] 그 밖에 시골 사람을

105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1934(천정환 편,《박태원단편선》, 문학과 지성사, 2005, 110쪽).

106 K기자, 〈조선박람회견물기〉,《신민》53, 1929년 11월, 23쪽; 정수일, 〈조선인으로서 본 조선박람회〉,《신민》53, 1929년 11월.

107 〈鄕客多數上京과 行衛不明者多數〉,《조선일보》1929년 9월 23일.

108 〈博覽會上京客通하야 全朝鮮에 퍼지는 花柳病〉,《조선일보》1929년 10월 15일.

사기쳐서 돈을 먹으려는 도시민들이 적지 않았다.[109] "참 서울이 무섭다더니 이러케 무서울 줄은 몰낫네"라는 한탄이 절로 나왔다.[110] 그리하여 "이놈의 서울구경 이가 갈닌다 지금 내려갈난다"고 하였다.[111] 또한 시골 사람으로서 콤플렉스가 심화되었다. 서울에서 자주 만나는 모던보이와 모던걸의 복장 앞에 움추려 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서울 구경을 풍자하는 창작 민요가 등장하였다. 다음은 동아일보 평양지국 숙천분국 기자이며 평안남도 안주에 거주하는 김원석金元錫이 지은 민요이다.[112]

뒷집 아범 서울 가고 압집 어멈 서울가네
서울구경하고지면 삼동 치위 굶어나나
리서방도 서울가고 김서방도 서울가네
서울 구경하고지면 어린 처자 冬眠할가
뒷집아범 쇠[仵]품 팔고 압집어멈 도롤 樸實 따서 장생불사하올가나
면장 따라 서울가네
리서방은 허청팔고 김서방은 청랑파라 광화문이 제것 될가
면장 따라 서울가네
서울구경하고 온 이 장님들의 코길象 구경 무엇하려 서울가나
듯노라니 뭇자오니 XX권유 못 이겨서 누물파리 서울간다 하옵듸다[113]

109 〈자명종〉, 《조선일보》 1929년 9월 26일.
110 류광렬, 〈連作滑稽小說, 시골아저씨의 서울구경〉, 《별건곤》 53, 1932년 7월.
111 류광렬, 〈連作滑稽小說, 시골아저씨의 서울구경〉, 《별건곤》 53, 1932년 7월.
112 〈社告〉, 《동아일보》 1928년 11월 4일.
113 〈민요 서울구경〉, 《조선일보》 1929년 10월 10일.

경제적 궁핍에도 면장을 따라 올라한 상경으로 인해 후유증이 농촌 경제에 미친 영향을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상경자는 고향에 돌아가 위상이 강화된 자신의 모습을 시골 주민들 사이에서 과시하고 내면화하였다. "얘 그래도 괜찮헤 서울이나 왓스니까 이런 구경도 하지 안나"라고 하는 시골 상경자가 여전하였던 것이다.[114] 심지어 아버지의 돈을 훔쳐 상경하는 자도 속출하였다.[115] 당시 식자층은 유한자有閑者만이 아니라 '풀 죽은 백의白衣를 걸친' 이들임에 경악하면서 이들 시골 주민의 상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116] 이에 상경자는 소비자로 전락하였지만 그들의 욕망이 충족되고 환기되는 새로운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조선 종로 상인들 가운데 포목상 등은 미리 대출을 받아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려고 하였지만 조선인들의 구매력 빈곤으로 인해 파산한 데 반해 일본 상인들은 반사이익을 얻었다. 상경자들에게도 조선 상인들의 파산 소식은 전해졌을 것이다.[117] 또한 시골 상경자들 덕분에 1인당 10원 총 600만 원이 경성부 상인들 특히 일본인 상인과 철도국 등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왔다.[118] 그리하여 조선인과 일본인 상인 사이에 수익 비율을 대략 계산하면 일본인이 600배 우세했다는 주장도 나왔다.[119] 당시 일제 당국은 230~240만 명 관람객에 1인 평균 소비

114 류광렬, 〈連作滑稽小說, 시골아저씨의 서울구경〉, 《별건곤》 53, 1932년 7월.
115 〈父規의 돈을 훔쳐 박람회 구경〉, 《조선일보》 1929년 10월 3일.
116 〈무엇을 어들가〉, 《조선일보》 1929년 9월 26일.
117 〈博覽會 헛바람에 一部商人의 破産〉, 《조선일보》 1929년 10월 6일.
118 〈朝博이 閉會되면 念慮되는 反動的恐慌〉, 《조선일보》 1929년 10월 19일.
119 〈전조선상대의 상업자 일본인이 600배 우세〉, 《조선일보》 1929년 10월 20일.

액 10원으로 계산하여 2,300만~2,400만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였다.[120]

반면에 시골 사람의 서울 구경은 정신 없는 하루의 연속이었다. 더욱이 단체 관광을 하다 보니 서울을 찬찬히 구경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아쉬운 느낌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 "구경이고 뭐고 정신이 얼떨떨해서… 무엇무엇을 구경하엿는지 좀처럼 아라 낼 수가 업네. 그야말로 소경 단청구경한 셈이 엿섯네. 그나마 혼자 가서 찬찬히 구경이나 하얏스면 좀 기억이나 남아 잇슬 터인데 단체-ㄴ가 뭔가 드러 가지고 밤낫 서로 꽁문이 붓잡고 쥐꼬리잡이 내기만 하다가 구경은 다 놋처 버린 셈일세. 생각하면 분해 못살겟네. 공연히 돈만 업새고"
>
> 비교덕 얌전派들이 모여서 比較的 率直하게 떠드는 수작이고
>
> "자네 구경 좀 내노케. 나와 비교해 보세. 그래 동물원 구경 하엿나?" "그래 하엿서." "그래 잔나비가 女學生과 히야가지하는 것 보앗나?" "그는 못 보앗네. 총각놈하고 接戰하는 것은 보앗지만…" "물소와 코ㅅ기리는 물론 보앗겟지?" "그야 보고 말고. 그 중에 낙탄가 뭔가 그 놈이야말로 듯는 말과 갓데그려. 잔등에 天然的으로 안장이 붓터 잇데그려. 내 원 天下에 별별 즘승이 다-만테"
>
> "그는 姑捨하고 자네 진고개 구경하얏나?" "하고 말고. 서울을 갓다가 진고개 안 보고 구경이 무슨 구경인가"
>
> "그래 엇더튼가? 그래 時計줄 잡고 그네 뛰는 아색기 보앗나?" "보다 뿐이겟나. 地球덩이를 안고 삥삥 매암도는 아색기까지 보앗지" "자네 또 朝鮮館이란 데 가 보앗나? 그 寫眞들 느러노은 것…" "그는 못 보앗서…" "안이 참말

120 〈무엇을 어들가〉, 《조선일보》 1929년 9월 26일.

그 놈들이야말로 깍정이 놈들이데. 조선 사람의 흉거리는 모다 모앗데그려. 아이 昌皮해…"[121]

이들 상경 단체관람객은 동물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구경거리를 관람했다. 이 가운데 진고개는 반드시 방문해야 할 필수 구경 코스였고 여기서 다양한 상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조선관의 사진을 보면서 '흉거리'를 보아야 했다. 그 사진들은 조선=야만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풍속 사진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람 과정에서 정작 목격해야 할 서울의 뒷모습을 놓쳤다. 그것은 일제가 제공했던 각종 볼거리와 관공서에 집중됨으로써 빚어진 결과였다. 오히려 "전후前後 9일 동안 차비, 식비, 잡비 아울너 78원 54전"을 지출했다.[122] 그들의 표현대로 "생각하면 분한 노릇이다. 실속은 아모 것도 업는 그야말로 멍텅구리 헛물켜기이엿다. 생각할사록 억울"하였다. 왜 이들 상경자는 허전했을까? 그들은 자신의 유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아모리 밧버도 사회적으로 유명한 有志 몃분을 차저 보고 지방 사정과 아울러 그들의 政見이나 좀 듯고 왓더면 그 안이 조흿슬가. 天道敎 佛敎 基督敎 등 敎會機關을 차저가 그들의 首腦幹部들과 의견 교환이나 해보고 왓스면 그 亦 조흘 일이 안인가. 新幹會 槿友會 勞總 靑總 등 運動機關은 왜 못 차저 보앗스며 東亞 中外 朝鮮 開闢社 등 新聞雜誌機關은 왜 못 차저 보고 왓는지 생각

121 春坡, 〈서울구경 왓다가 니저버리고 가는 것〉, 《별건곤》 23, 1929년 9월.
122 春坡, 〈서울구경 왓다가 니저버리고 가는 것〉, 《별건곤》 23, 1929년 9월.

하면 생각사록 분통한 일이다. 볼만한 冊 한권을 못 사오고 쓸만한 연장 하나를 못 사오고 쓸데 업는 奢侈品 멧개하고 남의 부탁 멧가지 해오고 그밧게 또 무엇이 잇는고? 博覽會 구경이라야 自道他道의 産物 하나 똑똑이 못하고 出品統計表조차 니저 버리고 改良農具名까지 記憶이 漠然하니 구경은 정말 소경 단청구경이 되고 말엇다. 술 한잔 안 먹고 잡지 한권이라도 사 왓더면 子孫에게 얼마나 조핫스며 活動寫眞 代身에 講演會 구경이나 햇드면 얼마나 參考가 되얏슬가? 생각사록 모든 것이 제로가 된 셈이다.[123]

서울 구경을 계기로 삼아 유명 인사를 만나는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거나 조선의 민낯을 보여주는 장소를 구경하지 않음으로써 조선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골로 돌아온 것이다. 사치품을 구매한 것이 가장 컸다. 그들의 말대로 "소경 단청 구경이 되고 말았다."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宋鎭禹는 조선박람회 개최 직전인 1929년 9월 다음과 같이 서울 구경의 의미를 부여하며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나도 시골 사람으로 서울에 와 잇스면서 이런 말을 하기는 미안하지만은 나는 언제이나 근본적으로 시골 사람의 서울 오는 것을 不贊成한다. 시골 사람이라도 무슨 특별한 일이라던지 主義가 잇서서 서울을 구경한다면 己어니와 그럿치 안코 다만 風潮에 딸녀서 外形의 번화한 것이라던지 사치한 것만 取하야 구경한다면 그야말로 盲者 丹靑 구경 이상으로 소용이 업슬 뿐 안이라 도로혀 허영심 사치심만 늘어서 여간한 악영향을 입지 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시골 사람들이 도회에 유혹이 되야 작구 도회로 집중하

123 春坡, 〈서울구경 왓다가 니저버리고 가는 것〉, 《별건곤》 23, 1929년 9월.

랴 하고 또 근래에는 농촌의 생활곤란 기타 엇더한 일시적 기회로 인하야 1개월에 몃천 몃만의 시골 사람들이 서울을 오게 되는대야 그 누구가 막을 수 잇스랴. 그런데 기왕 서울을 오게 된다면 나는 이러한 말을 부탁하고 십다. 즉 京城은 도로의 개통, 市街의 즐비, 건축의 宏大 그러한 모든 시설이 완비하고 외면이 번화한 반면에는 참으로 형언할 수 업는 빈민굴이 잇는 것을 알어야 할 것이라고. 지금 朝鮮에 잇서서 어느 지방에 빈민굴이 업는 곳이 업지만은 서울의 빈민처럼 참혹한 현상은 업슬 것이다. 진고개와 鐘路가튼 번화지를 보는 동시에 新堂里 孔德里가튼 빈민굴을 보와 엇지 하면 저런 사람들도 잘 살게 할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또 다른 시설보다도 朝鮮人의 일반 교육시설을 잘 살펴서 교육의 필요를 확신하는 동시에 子弟를 만히 학교에 보내서 有爲人物을 만히 양성하도록 하는 것이 조흔가 한다.[124]

이에 따르면 시골 사람들의 불가피한 상경을 인정하면서도 서울의 화려한 측면만 보지 말고 어두운 측면을 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을 야기한 체제를 타파하기보다는 실력양성에 집중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현실의 모순을 감지하되 실력양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자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때 상경자들이 기차를 타고 내린 순간에 경성역 앞에서 제일 먼저 부딪치는 광경이 펼쳐졌다.

124 송진우, 〈教育의 施設과 貧民窟에, 京城에 와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별건곤》 23, 1929년 9월.

대경성 한복판 황금의 빛이 찬란한 경성역. 여기에 오르내리는 여러 사람 가운데에도 빈궁에서 울고 있는 무리가 섞여 있다. 모뽀, 모껄의 뒤를 따라 다니면서 버리는 담배 동강이를 주어 피우는 사람이 하나둘 섞여 있지 않은가.[125]

그리하여 천도교 신파이자 민족주의 계열의 박달성朴達成은 그들이 구경하지 못해 놓친 것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126]

제일 첫재로는 自己를 니저버리고 갓슬 것이다. 서울의 繁華 博覽會의 복잡에 自記를 고대로 니저버리고 갓슬 것이다. 따라서 농촌을 니저버리고 시골을 니저버리고 朝鮮이란 것까지 니저버리고 갓슬넌지 몰은다.

"아-모다 昏朦에 드러가고 마럿슬 것이다. 따라서 疑懼와 恐怖의 中에 이게 대체 무슨 세상인고?"를 連해 불으짓고 갓슬 것이다.

父母도 니저버리고 妻子도 니저버리고 친구도 니저버리고 自己 입엇든 옷까지 니저버리고 간 친구가 만흘 것이다. 그리하야 還鄕 즉시로 맛나는 사람마다 혀를 서발식이나 빼물고 "造化"라는 소리뿐하고 잇슬 것이다.

8그것은 그럿타. 이제 정말 서울구경 중에서 니저버린 것을 고대로 적어 본다면

南村 서울은 보앗스나 北村 서울은 못 보앗슬 듯하며 南門은 보앗스나 北門은 못 보앗슬 듯하며 漢江은 보앗스나 洗劍亭은 못 보앗슬 듯하며 昌德宮은 보앗스나 太廟는 못 보앗슬 듯하며 病院은 보앗스나 표본실은 못 發電機는

125 〈작금의 사회사(2) 담배버-리〉, 《동아일보》 1931년 1월 11일.

126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인 朴達成의 사회·종교관과 문화운동〉, 《동학학보》 22, 2011.

> 못 보앗슬 뜻하며 라듸오는 드럿스나 放送局은 못 보앗슬 듯하며 學校는 보앗스나 盲啞院은 못 보앗슬 듯하며 博覽會館內의 千天點萬點의 出品은 보앗스나 고무工場 하나 製絲工場 하나도 못 보고 간 듯하다.
>
> 그뿐이냐! 차저보면 얼마든지 잇슬 것이다. 서울 10년이라도 다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든지 잇는데 況且 5일 내지 10일의 短期로 더구나 團體生活을 하고 감에랴! 안이 니저벌일내도 別數는 업슬 것이다.
>
> 오직 後日을 警戒하야 다시 부탁할 것은 自己를 니저버리지 말나는 것 하나 하고 細心하야 차근차근 이것저것 다 보고 가라는 것뿐이다(그만둔다).[127]

이에 따르면 시골 상경자들은 북촌, 북문, 세검정, 종묘, 맹아원, 고무공장과 제사공장 등을 방문하지 않고 일제가 보여준 관제 구경거리만 관람하고 귀향한 셈이다. 일본인들로 붐비는 진고개, 남대문, 한강, 학교, 출품작은 보았으나 조선의 전통적인 장소와 조선인 장애인, 노동자들의 현실은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상경자들은 야간에 극장 앞으로 나오는 학생, 신사, 노동자, 기생, 모던 보이, 모던 걸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을 것이다.

> 조런 망할년들이 잇나 조것 빨가벗지안햇나. 에이 세상은 말세일세 조러니어대 시골서 마음노코 자식들을 무어 서울로 공부시킨다고 보낼수 잇겟나. 밤낫 조런 구경이나 다니면 볼일은 다 보지[128]

127 春坡, 〈서울구경 왓다가 니저버리고 가는 것〉, 《별건곤》 23, 1929년 9월.

128 류광렬, 〈連作滑稽小說, 시골아저씨의 서울구경〉, 《별건곤》 53, 1932년 7월.

따라서 식자층은 시골 상경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2일 관람 코스를 권장하였다.

첫날: 경성역-남대문-중국촌-덕수궁-재판소-영사관-방송국-동아일보-기념비각(고종 즉위 40주년 기념비)-광화문(철거 위기에서 조선인의 반대로 겨우 유지)-청년총동맹-조선일보가-근우회-대동인쇄(조선사람 최대의 인쇄소)-전동 식당 등(조선인 식당)-종로4가-보신각-중앙기독교청년회관-탑동공원-신간회-천도교당-개벽사-물산장려회-경성도서관 종로분관

둘째날: 북촌의 휘문고보, 중앙고보, 재동 여자고보-동양척식주식회사-직업소개소(서울 실직자 사정 청취할 것)-과학관-창경원-신마치[新町]-장충단-광희문-경성운동장-독립문-서대문경찰서-맹아학교-연초전매국(남녀직공의 노랑꽃 핀 얼굴 볼 것)-한강 철교-경성방적회사(굴뚝 볼 것)-강변음식점-진고개, 북촌 술집[129]

이러한 코스는 서울의 현대적 문명을 확인하면서도 조선인 민족운동의 무대, 기업 활동 및 이중 도시 경성부의 그늘, 조선인 노동자의 삶 등을 볼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이 가운데 탑동공원(탑골공원)을 왜 추천했을까? 볼 만하고 값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혹시 3·1운동 때 탑동공원을 독립선언서를 읽었던 곳으로 상기시키고자 한 것일까.

129 일기자, 〈2일 동안에 서울 구경 골고로 하는 法, 시골親舊 案內할 路順〉, 《별건곤》 23, 1929년 9월.

그러나 10년 전의 과거보다 기괴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곳은 '부랑자 수용소'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조선박람회 개최 직전인 1929년 6월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연재 삽화 중 7회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공원은 이름과 가티 공동의 동산이다. 그러나 "바고다" 공원의 주인은 따로 잇는 모양니 토디중개꾼, 협잡꾼, "뿌로커"들의 밀회장소요 사주쟁이, 이야기책장사의 모이는 장소이다. 그들은 발가락 사이를 휘비며 시를 옵조리며 시골부랑자의 화류장 진출을 위하야 자급조달운동을 한다 그날 먹을 것 업는 가난한자의 주머니를 "후분은 조타"는 달콤한 수작으로 곱다케 떨어먹는 곳이다. "바고다" 공원에 핀 꼿, 불상한 꼿, 매친 열매, 가엽슨 열매, 피기도 전에 시들고 익기도 전에 떨어진다.[130]

그리하여 시골 상경자 가운데 분개하는 이들도 나왔다.

> "아이 집도 만키도 하네. 대관절 이 漢陽城中에 멧 만호나 사나."
> "네 인구가 종합 34만 2,600여 人인데 조선인이 24만 5,000여 명이고 일본인이 8만 4,000여 명이라 합니다. 호수로는 7만 628호인데 조선인 호수가 5만 5,000여 호이고 일본인이 1만 한 5,000호 가량 된다 합니다."
> "아이그 일본인이 꽤 만히 왓네 그려. 엇지면 그러케도 빼앗기나."
> "할 수 잇슴닛가. 역시 운 역시 운이지요."
> "그런데 城趾는 그때 싸은 그대로 잇나."

130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7) 허울조흔 浮浪軍收容所〉, 《동아일보》 1929년 6월 9일.

"안이올시다. 대개는 風磨雨洗로 자연 頹廢가 되고 기타는 교통편의상 인위로 허러버리고 하야 城趾라고는 지금 보잘 것이 업슴니다. 서대문, 서소문은 업서진 지 오래엿고 북문과 남소문도 다 퇴락되얏슴니다. 지금 門通만이라도 남은 것이 남대문, 동대문, 동소문, 창의문과 시구문인가요"[131]

시골 상경자는 서울이 일본인의 대량 이주로 일본인의 땅이 되고 조선의 유서깊은 건물들도 교통 편의를 이유로 철거되거나 쇠락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의 경성이 옛 한양이 아님을 절감한 것이다. 시골 상경자의 이런 인상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1928년 현재 경성부 조선인의 총면적과 총지가가 각각 47%와 35%인 데 반해 일본인의 총면적과 총지가는 각각 50%와 62%였다.[132] 일본인들이 조선인들보다 소유 면적이 넓을 뿐만 아니라 지가가 높은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1914년~1927년 사이 조선인과 일본인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각각 1.4%와 2.7%였다.[133] 또 조선인 언론에서는 박람회 개최 기간 중 가뭄으로 인해 생활난을 겪는 시골 주민 수만 명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일본에 몰려가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134]

심지어 전라남도 담양의 유생 출신 식자층 김영찬金永粲(1859~1945)은 박람회가 끝난 뒤 조선왕조의 잔해를 주나라의 멸망에 견주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131 〈無學大師 新京城 求景, 놀내지마라! 500年 漢陽國都를 指定한 無學大師가 500年後 今日에 서울구경을 하고 갓다. 案內는 天外君〉, 《별건곤》 9, 1927년 10월.

132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6, 204쪽.

133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6, 25쪽.

134 〈박람회는 딴세상일 이산하는 동포들〉, 《조선일보》 1929년 10월 7일.

맑음. 근래의 박람회라는 것은 '黍離'의 뜻을 알지 못하는가? 慶源輔氏는 말하기를 "天王으로서 夷狄에게 부림을 당하는 것은 천지의 큰 변괴이고, 중국의 큰 수치이며, 東周의 臣子들의 큰 원수이다. 문왕과 무왕, 성왕, 강왕의 종묘가 모두 기장 밭이 되었으니, 듣는 자는 마땅히 눈물을 흘릴 것이다. 마음은 흔들려서 차마 떠나지 못하는데, 하늘은 유유하여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능히 주나라를 민망하게 여겨 시를 짓는 자는 일행 중에 대부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구나.[135]

서리黍離는 《시경》 〈왕풍王風〉의 편명이다. 동주東周의 대부大夫가 행역行役을 나가는 길에 이미 멸망한 서주西周의 옛 도읍인 호경鎬京을 지나가다가 옛 궁실과 종묘가 폐허로 변한 채 메기장과 잡초만이 우거진 것을 보고 비감에 젖어 탄식하며 부른 노래이다. 따라서 김영찬은 직접 상경하지 않았지만 박람회 단체 관람객의 전언을 들은 뒤, '여리'의 고사를 인용하여 조선왕조가 완전히 멸망했음을 슬퍼하는 감정을 일기에 토로한 것이다. 그는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기간에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1929년에는 박람회 소식을 들으면서 결국 조선이 오랑캐에게 멸망당했음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에게 조선물산공진회든 조선박람회든 오랑캐 물질문명이 조선의 유교 문명을 파괴하는 중요한 계기로 비쳤다.

이처럼 시골 상경자 가운데 경성의 근대성에 현혹되어 내면화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식민지배의 모순을 어렴풋하게 파악하는 이들도 나타났다. 또는 양자가 착종되어 혼란을 겪기도 하는 시골 상경자도 다수 나왔다. 심지어 구 시대의 시선에서 조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경복궁의

135 《棲巖日記》 1929년 9월 23일(계묘).

훼손을 안타깝게 여기는 시골 서생들도 여전히 상경자 내부에 있었다. 그럼에도 서울은 단조로운 일상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과 동경의 대상이었음은 분명하였다.

5. 맺음말

일제와 일본인 자본가는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와 1929년 조선박람회 등을 통해 각각 그들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전자가 주로 식민통치의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조선인들의 동의를 견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후자는 전자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가운데 상품판매시장을 확대하고 본국 자본가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들 각 행위자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의 확충과 각종 교통 요금의 할인, 편의 시설 제공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경성협찬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관람객 동원과 언론 기관 등의 홍보선전은 주효하였다. 그 결과 두 박람회 공히 100만 명 이상을 관람객으로 유치했다.

한편, 교통비, 숙박비 등 여행 경비의 부담과 인프라의 미비에 따른 불편으로 상경의 욕망을 실현하지 못했던 일반 시골 주민들은 자신들의 상경을 가로막은 이런 한계가 어느 정도 해소되자 박람회를 관람하기 위해 대거 상경하였다. 무엇보다 철도를 비롯한 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여관 시설의 정비가 이들 시골 상경객을 유인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시골 주민의 이러한 상경을 이끈 요인은 단지 외부 조건에서만 유래하지 않았다. 시골 주민들은 자신의 내부에 오랫동안 잠복해 있었

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에 대한 동경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화려한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 욕망을, 상경을 통해 분출하여 충족하고자 하였다. 특히 상경은 향촌사회에서 자신의 위상과 지위를 제고하는 과시 행위이자 여타 향촌 주민과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는 표지標識이기 때문에 이들 상경 관람객은 상품 판매를 중점에 둔 1929년 조선박람회가 개최되자 경성부의 경제 중심지인 진고개 즉 本町으로 몰려가 다량의 상품을 구매했다. 또한 이들 상경 관람객은 수리 시설과 교육 홍보 시설 등 근대 시설물보다는 각종 공연과 여흥을 즐기며 볼거리를 감상하였다.

시골 상경관람자의 이러한 행태는 재조 일본인 자본가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비쳤으나 일제 당국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현상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상경관람자의 상품 다량 구매는 경성부의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일제 당국이나 재조선 일본인 자본가에게 매우 만족할 만한 행태로 비쳤으나 근대 시설물 관람을 위한 부대 장치에 불과한 공연과 여흥이 오히려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쳤다. 따라서 일제가 의도했던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조선인들에게 각인시키는 데는 다소 미비하여 일부 관계자는 박람회의 효과를 반신반의했다.

반면에 조선인 시골 상경 관람객 가운데 각도 협찬회와 각 단체들의 적극적인 권유와 금융지원으로 상경한 시골 주민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상경이었으나 결코 만족스러운 상경은 아니었다. 먼저 경제적인 부담의 증가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비싼 댓가를 치러야 했다. 다음 식자층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들 상경 관람객이 접한 서울은 근대 문명의 총합이면서도 조선인의 어두운 그림자를 품고 있는 이중 도시로 비쳤다. 심지어 사회주의자들을 비롯한 저항세력들

은 조선인 구경꾼들이 대규모로 운집하는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조직적 결집을 꾀하고 일제에 대한 저항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비록 이러한 시도가 일제의 감시로 인해 사전에 좌절되었지만 그들의 이런 행위는 조선인 구경꾼들에게 박람회의 본질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와 1929년 조선박람회가 각각 추구했던 목표가 다소 상이하였더라도 서울의 이러한 이미지는 상경관람자들에게 오랫동안 각인되었다.

시골 사람의 상경은 이처럼 전통 조선과 근대 문명이 교차하고 있으며 문화적 상승 욕망과 경제적 빈곤이 충돌하는 서울의 이중적 모습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일부 상경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모습이 일제와 일본인 자본가의 주관적 의도와 달리 식민통치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찾아보기

ㄱ

〈가시든 날〉 228
가정박람회 280
《가정자습강의록》 227
간이농업학교 33
간이실업학교 32
《갈돕》 58
갈돕 만주 45, 47, 60
《개벽》 39
경성견물 275
경성고등상업학교 109, 162
경성고학당 24, 55, 58
경성고학원 13, 73
경성공업학교 55, 164
경성농업학교 167, 204
경성박람회 277
경성보도연맹 165, 171, 190
경성사범 110
경성사범학교 13, 72, 100, 175, 204
경성수상조합 77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93, 162, 171, 202, 231
경성역 287, 312
〈경성유람기〉 170, 291
경성제국대학 162, 219
경성제이고등보통학교 177, 231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72, 105, 177, 231
경성차부협회 76, 97
《경성편람》 171, 289
경성협찬회 281, 284
경성홍인학원 147
경신학교 27, 167
경원선 170, 297
계산보성학교 89, 92, 100
고광수 91
고창한 88, 91, 96
고학생 갈돕회 23, 45, 52
고학생구제방법연구회 59
고학생구제회 23, 53, 59
고흥석 76, 96
공동기숙사 191
〈공장 간 누나〉 255
《공진회》 283
관람장려회 281
《광분》 290, 298
광화문 287
교육구국운동 29
구루마꾼 134
《구원의 여상》 168
《국민모범중학전과강의록》 227
국일관 사건 59
근화여학교 171
기숙사 47, 165, 180, 194
김만수 77
김명식 52
김성수 89, 97
김순영 182
김태오 253

ㄴ

나라여자고등사범학교 204
날품팔이 134, 140, 154
남대문시장 136

남산주회도로 건설 계획 145
노지리 세이이치[野尻精一] 205
농촌 이탈 119, 153
농촌동화 251

ㄷ

당번제 204
《대경성》 289
대동상업학교 13, 100, 167
대동학원 13, 77, 79, 82
동대문시장 141
동대문 전차정거장 141
동덕여학교 171
동맹휴학 58
동아일보사 98, 191, 196
〈똘똘이〉 263

ㄹ

러시아빵 48
리영희 163
링방적기 259

ㅁ

마르크스주의 254
만주 행상 45
면회 197, 200
명화여학교 240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192
무산계급 82, 93, 98
무산아동 254
《무정》 12, 162
미곡증산정책 244

ㅂ

박달성 313
박람회 16, 214, 276
박문사 295
박태원 306
반도고학생친목회 23, 54
〈밧가는 어린 동무 로득이의 압길〉 251
방응모 98
방직공 258
배재학당 39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 194, 204
백대진 297
〈범죄와 빈곤〉 266
베닝호프 65
병영식 기숙사 정책 192
병참기지화 정책 190
보성고등보통학교 105, 163, 183
보성전문학교 77, 97
보전교우회 97
〈보통시험령〉 224
보통학교 35, 80, 88
〈봄〉 136
봉명학교 29, 33
부랑배 294, 298
북촌 89, 93, 98
불량주택 136
〈B사감과 러브레터〉 168, 197
빈민주거대책 128

ㅅ

사감 198
사립강습소 44
〈사립학교규칙〉 30
〈사립학교령〉 14, 74
《사상의 월야》 11, 23, 28, 38, 53
〈사이 조흔 동무〉 236
사회주의자 298
산미증산계획 118, 241, 267
산업혁명 258
3면1교제三面一校制 229
3·1운동 35, 58
상호부조론 52
생계형 상경 252, 267
〈서당 규칙〉 14, 74
〈서울!〉 249
서울고무공장 55
〈서울구경〉 299
선린상업학교 175, 178
성남중학교 175
세계대공황 258
《소년》 212
〈소년문예운동의 당면에 임무〉 253
소년범죄 264
소년소설 215, 255
소년형무소 264
소작농 243
소작쟁의 244, 245
〈소작쟁의조정령〉 246
〈소작조정령〉 247
송진우 98, 311
수원고등농림학교 36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171
스파르타쿠스당 77
신당리 144
신문 배달부 65
《신문계》 170
신의주사범학교 164

ㅇ

아나키즘 52
〈아동문학운동 일년간〉 254
아동잡지 212
안국선 86, 283
안덕근 253
안동교회 177
안동별궁 177
〈애아愛兒의 출발〉 297
양정고등보통학교 167
《어린이》 214
〈어린직공의 사〉 259
〈엄마를 위하야〉 248
엄정환 79, 84
여관 171, 289
여염집 하숙 183
〈여직공〉 256
〈열세 동무〉 238
〈영일의 낙제〉 229
오간수문 147
오성학교 171
오지영 53
외출 180, 199
용산구 174
〈운수좋은 날〉 86
월사금 26, 43, 47, 186, 237
위생조사부 124, 128, 135

유년노동력 258
유종석 259
유진오 256
윤익선 53
윤치호 301
《은하수》 168
이무영 263
이병호 110
이상재 52
이승지 170
이왕직미술품제작소 291
이인 92
이주홍 254
이준열 55
이태준 11, 23, 136
이형식 177
이희승 163
인력거꾼 76, 84, 95, 134, 140
〈인력거꾼〉 86
인부용인 134
〈인호〉 250
일시적 상경 274
1939년 대가뭄 190
임옥인 205
임종석 150

ㅈ

자유노동자 134
자취제 206
장덕수 52
장응진 52
재동공립보통학교 90
전일 77
정수일 303
〈제2차 조선교육령〉 221
조선고학생 상조회 239
〈조선교육령〉 30, 27, 218
조선교육협회 54
《조선국세조사보고》 130
조선노동당 77, 85, 91
〈조선농지령〉 247
조선물산공진회 275, 290, 318
조선박람회 276
조선식산은행 102, 178
조선여자고학생상조회 54
조선은행 250
조선총독부 학무국 191
《조선총독부통계연보》 242
조종환 79
〈졸업의 날〉 214
종현 천주교성당 275
중동학교 38, 171, 177, 183
중등교육조사위원회 230
중앙고등보통학교 177, 235
중앙학교 163
중앙학원 97
지게꾼 134, 140, 150
〈진실한 동무〉 237
〈집 업는 남매〉 248

ㅊ

창덕궁 291
창신동 122, 137
창영보통학교 111
채석장 142
청계천변 137

최남선 113
최두선 182
최서해 178
춘궁민 131

ㅋ

크로포트킨 52

ㅌ

탑동공원 315
토막민 76, 119, 124, 135, 154
토막집 135, 144
토막촌 122, 127
토지구획정리사업 128
토지조사국 179
토지조사사업 118, 179, 267
특수 세민 131

ㅍ

〈팔니는 몸〉 239
〈푸로레타리아 소년문학론〉 253

ㅎ

하숙 42, 165
하숙비 26, 101, 234
하숙집 15, 179
하숙촌 171
학비 42, 44, 184, 186, 227, 234
〈학생하숙촌 탐방기〉 175
학업형 상경 268
행상 49, 134
현미빵 48
현상윤 235
현제명 113
현진건 86, 197
홍봉진 178
화전민 119
〈황혼에 서서〉 228
휘문고등보통학교 36, 40, 44, 62, 90, 101, 106, 177

집필자

김태웅 서울대학교 교수
김은영 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 연구교수
현명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유슬기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김광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손동호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학술연구교수

서울역사중점연구 18

일제강점기 상경자의 경성 체험과 생활 공간

발행인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발행처 서울역사편찬원(history.seoul.go.kr)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내(전화 02-413-9622)
기획·편집 박명호(시사편찬과장), 김근영
발행일 2025년 4월 30일
판매가 10,000원
편집·인쇄 ANPR(전화 031-955-9202)

발간등록번호 51-6113542-000117-01
ISBN 979-11-6071-207-0
979-11-6071-023-6 (세트)